

ICAS 연구보고서 2019-01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

권미애 · 김제희 · 김신경



참여연구진

책임 • 권미애 /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선임연구위원(팀장)

공동 • 김제희 /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원
• 김신경 /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초빙연구원

협력기관 • 인천광역시 복지국 노인정책과

자문 • 고용호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조정 부연구위원(팀장)
• 기윤환 / 인천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연구위원
• 길태영 /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 김춘남 /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사회정책팀 연구위원
• 류연규 /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박명혜 / 청운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 박현용 /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신경원 /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죽음준비교육연구센터
정책·연구·학술팀 팀장
• 정창률 /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홍송이 /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 간 사

국제연합(UN)은 2009년 처음으로 <세계인구고령화 World Population Aging 보고서>를 통해 ‘호모헌드레드 homo-hundred’ 용어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2017년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회적 비용의 증가, 관련한 기반 시설의 부족, 저상장물 등 고령인구의 증가로 당면하게 될 사회적 현상들은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국가는 물론 개인 역시 다가올 노년의 삶에 대응하고 고령사회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2017년 고령사회대응센터를 설립하고 고령사회를 위한 선진적 모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천시 고령사회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적합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중장기 계획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제1차 인천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총 6개 대과제, 16개 중과제, 그리고 36개 세부정책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2019년부터 향후 5년간에 걸쳐 인천시가 추진해나가야 할 노인정책의 주요 방향과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노인정책 분야 전문가분들과 인천시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인천시 노인정책과와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 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해준 권미애 선임연구위원과 이하 연구진의 노고에도 아낌없는 격려를 보냅니다. 앞으로 인천광역시 고령사회대응센터가 고령친화 환경 조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재)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원 미 정

연구요약

I. 서론

1. 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 2017년 인천시는 ‘시민과 미래가 행복한 공감복지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한 후, 인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2018~2022) 수립 연구를 수행하고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를 출범하는 등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더불어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예방적·중장기적 차원에서 고령사회 분야 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본 연구는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과 노인복지 정책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에 의거해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또한 계획 수립을 통해 노인 및 예비노인의 노년기 삶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지역사회 관심과 효율적인 정책이 실현되는 인천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둠

2. 계획 수립의 내용 및 범위

- 중앙정부 및 인천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검토 : 고령사회 분야
- 인천시 인구구조 현황과 변화 추이
- 인천시 노인세대의 가계생활 구조 분야
- 인천시 고령사회 현황 및 인천시 및 군구 정책사업과 예산 분석
 - 소득 분야 관내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및 서비스 인프라
 - 노후준비 분야 예비노인세대 대상 지원 서비스
 - 사회활동 참여 분야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서비스
 - 건강의료 분야 노인돌봄시설 및 서비스
 - 생애마무리 분야 관련 서비스 현황
- 인천시 노인의 지역사회 인식 연구 및 베이비부머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 관내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 결과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탐색적 사례 조사

- 정부 및 인천시 커뮤니티 케어 추진 과정 탐색
- 국내외 고령사회 분야 대응 정책 사례 검토
-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현황, 가입절차 및 가입 도시 사례
- 인천시민, 전문가, 인천시 담당 공무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추진
-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 모색과 정책과제 도출
 - 고령사회 정책의 방향성, 비전, 목표, 주요 정책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제시

3. 계획 수립의 방법

- 연구 설계 및 추진 과정 시 인천시 관련 부서(노인정책과)와 지속적인 회의 추진
 - 부서 내 관련 자료 제공, 계획 수립에 필요한 방향성 및 향후 사업 반영 사항 등 논의
- 선행 연구결과 및 문헌 자료를 통한 객관적 자료 분석 제시
 - 행정통계(행정안전부, 통계청, 인천시 군구 관련 통계) 자료, 선행연구 등
 - 국내외 고령사회 분야 관련 사례 조사
-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인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문, 간담회 실시 및 내용 분석
- 인천시민, 전문가, 인천시 공무원, 관련 유관기관(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개최
- 연구프로세스에 의한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및 자문회의, 연구심의평가 실시

4. 계획 수립의 기대효과

-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방향성 제시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
- 2017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인천시 고령사회 분야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 정책 개발 및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 근거 자료로 활용

II. 중앙정부 및 인천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 ~ 2020)

1) 정부차원의 고령사회 기본계획

- 지난 10년간 제1차 및 제2차 고령사회대책이 고령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위

주로 추진되었으나, 사회·경제 체질 개선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라 장기적인 정책적 시야의 확대가 중요하게 부각됨

- 제3차 계획(브릿지 플랜 2020 : 2016~2020)에서는 국민연금·주택연금을 확대하여 노후대비를 강화하고, 생산인구 확충과 실버경제 등 구조적인 대응을 마련함
-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목표는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조성하는데 둬
 - 추진전략으로 고령자의 삶의 질(복지)과 관련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고용시스템과 관련된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산업·경제시스템과 관련된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을 제시함

2) 고령사회 분야 정책 로드맵 :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노후

- 2018년 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의 패러다임을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함
 - 우리나라 노인들은 은퇴와 나이 들에 따라 소득 감소, 건강 악화, 준비되지 않은 마무리 등으로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는 양상을 보임
 - 이에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5가지 추진영역(소득, 노후준비, 사회참여, 건강·돌봄, 마무리)을 설정함
- 위원회는 부풀려진 예산은 바로잡고 정책 목표와 관련이 낮은 과제는 기본계획에서 제외하고, 효과성 높은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제3차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함
- 고령사회 분야 과제 총 97개 중에서 17개의 과제(예산 157,184억 원)가 역량집중과제로 선정됨. 대표적으로 기초연금 내실화, 고령자 사회활동 지원 사업, 장기요양보험제도 고도화 등이 있음

2. 인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2018~2022)

1) 인천시의 고령사회 기본계획

- 2017년 인천시는 육아정책연구소 연구 용역을 통해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2018~2022) 수립」 연구를 발표함
- 인천시 고령사회 분야 기본계획은 고령사회 대응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현상이 서

로 맞닿아 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편안하고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도시】를 위해 노인의 기본 생활 보장과 가족과 지역사회가 노인 돌봄을 분담하고 노인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고령친화적 사회분위기·환경 조성을 목표로 제시함

- 제1차 인천시 고령화 대책 분야의 정책 과제는 1) 노후소득 보장 강화, 2) 노인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강화, 3)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활동 지원, 4) 노인부양·돌봄·일상생활 지원의 지역사회 역할 강화(독거노인, 노인 부양가족 지원), 5) 고령친화 환경 조성으로 제시됨
- 장기적인 추진과제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사업과 고령화 분야 대책 추진체계 및 기반조성이 제안됨

3. 소결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고령화 대책 분야의 논지

-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인식되면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고, 2006년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5년마다 정부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제3차 기본계획이 시행중임
- 제1차와 제2차 기본계획은 ‘노후의 소득 보장’ 측면과 ‘활기찬 노년기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력하여, 기초연금제도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국민연금의 공공성 강화, 개인연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성 확대 등 성과가 있었음. 제3차 기본계획은 중장년층까지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통해 구조적인 대응책을 마련함
- 그러나 노인돌봄의 공적 기능, 노인성 질병 지원과 예방적 관리 등의 영역에서 급증하는 고령인구를 따라가기에 역부족한 면이 있으며, 재정 투입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나타남
- 최근 확대 재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8년 12월 제4차 계획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할 정책 방향에 대해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음
- 따라서 중앙정부의 방향성에 맞춰 인천시에서 계획하는 고령사회 대응의 방향성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지역적 특성과 정책 환경에 맞게 세부적인 사항을 계획하고자 함

2)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중앙정부는 국가 중심적인 출산장려의 관점에서 누구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

이는 방향으로 전환함. 또한 기본계획이 적용되는 한시적인 시간 개념에서도 벗어나 다음 4차 기본계획과도 연계되는 장기적인 관점을 고려하고 있음

- 인천시의 경우 2017년 처음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기는 했으나, 저출산과 고령사회 각각의 비전을 분리하여 제시함. 이는 전반적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어떠한 목적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관점을 담는데 한계가 있음
- 지자체 특성 및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분야에 관련한 계획 수립을 위해 정책의 기본방향 수립을 제안함. 향후 인천시의 2차 기본계획 수립은 반드시 인구정책에 대한 장기적 시각과 사회구성원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정책계획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3) 인천시 고령사회 분야 중장기 계획 수립의 긍정적 평가

- 인천시는 고령사회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기 이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 내 전문기관(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을 설립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향후 인천시는 정부가 경험한 시행착오를 면밀히 검토해 정책과 계획 수립에 반드시 참고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성의 결을 살핌과 동시에 지역적 특성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적합한 정책계획 수립을 추진해 나가야 함
- 2017년 인천시의 기초적인 기본계획의 방향과 정부의 기본계획 방향의 연계점을 찾아 중장기적 계획의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구분	영역	인천시 중장기 계획 키워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 ~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소득보장 • 건강보장 • 사회참여지원 • 고령친화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소득 • 노후준비 • 사회활동 참여 • 돌봄 • 생애마무리 • 고령친화환경 조성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201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준비 • 참여 • 건강 • 마무리 	
2017년 인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 (2018~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소득보장 • 노인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 사회활동 • 지역사회 역할 강화 • 고령친화 환경 조성 	

III. 인천시 고령사회 분야별 현황

1. 인구 분야

1) 인천시 인구 현황 및 추이

- 통계청(2019)의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시 고령층(65세 이상)인구는 전체 인구의 12.3%로 전국 14.8%보다 낮으며, 7대 특·광역시 중 울산시(10.7%)에 이어 하위 두 번째임
- 2019년 인천시의 고령층 비율(12.3%)은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구분되며,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017)에 따르면 인천시는 2021년 14.1%로 고령사회, 2027년에는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전망됨
- 인천시 생산연령층(15~64세)의 32.2%를 차지하는 예비노인세대(50~64세)는 실제 생산연령층의 대부분에 해당되며, 곧 고령층으로 진입할 인구임
- 예비노인세대 중 약 60%가 베이비부머(55~63세)로 나타나 노인세대뿐만 아니라 베이비부머들 또한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함

2) 인천시 군구별 인구 현황과 변화 추이

- 인천시 10개 군구 중 고령층 인구수가 많은 상위 3곳은 ‘부평구(66,424명)’, ‘미추홀구(62,833명)’, ‘남동구(62,248명)’이며, 하위 3곳은 ‘옹진군(4,965명, 23.6%)’, ‘동구(13,254명)’, ‘중구(17,482명)’ 순으로 나타남
- 고령층 인구 비율이 높은 상위 3곳은 ‘강화군(30.7%)’, ‘옹진군(23.6%)’, ‘동구(20.0%)’였으며, 하위 3곳은 ‘연수구(9.0%)’, ‘서구(9.3%)’, ‘계양구(10.6%)’로 나타나 고령층 인구수와 구성비가 차이를 보임
 - 인천시 전체로 보면 고령층 비율이 12.3%이지만 군구별로 살펴보면 최소 9.0%(연수구)부터 최대 30.7%(강화군)까지 나타나 군구별 편차가 심한 편임
-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현재 고령층 구성비가 14% 이상으로 밝혀진 다섯 곳(중구, 동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외에 아직 14%에 도달하지 않은 나머지 구의 구성비도 2020년대 초중반에 14%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대 중반까지 모든 군구의 고령층 구성비가 20%를 넘길 것으로 예측됨
- 특히 장래인구추계에서 중구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2019년도에 14%를 넘길 것으로

보았지만 실제 예상보다 2년 빠르게 14.0%를 넘긴 것을 통해 더 빠르게 고령화될 수 있다고 전망됨

2. 인천시 노인의 가계생활 구조 분야

- 7대 특·광역시 노인가구의 연간 수입액을 살펴보면 상위 3곳은 울산시, 서울시, 대구시 순으로 많게 나타났고, 인천시 노인가구의 연간 수입액은 2,421.07만원으로 대전시(2,077.58만원)에 이어 하위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남
- 7대 특·광역시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상위 3곳은 서울시, 울산시, 대구시 순이었고, 인천시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의 경우 149.92만원으로 대전시(130.70만원)에 이어 하위 두 번째임
- 가구형태를 ‘노인독신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노인가구’, ‘기타 노인가구’로 구분하여 인천시 노인가구의 연간 수입액과 월평균 소비 지출액을 살펴본 결과, 7대 특·광역시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었음

3. 소득 분야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2018년을 기준으로 전국 총 165개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천시의 경우 10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 전국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종사자 수는 총 1,342명으로 시설 당 종사자 수는 전국 평균 8.1명으로 나타남. 인천시 종사자 수(총원)는 160명으로 시설 당 16.0명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의 약 두 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인천시 군구별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옹진군을 제외한 모든 군구에 있으며 계양구가 2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 수(총원)는 미추홀구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와 동구가 각각 6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2) 인천시 노인일자리 지원 서비스

- 인천시 노인일자리 지원 서비스는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강화군과 옹진

군을 제외한 모든 구에서 노인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강화군과 옹진군의 경우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으며, 노인인력개발센터 외에도 구청 일자리정책과(계양구), 시니어클럽(계양구), 노인복지관(계양구, 강화군)을 통해 관련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음
-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단순노동형의 시장형 일자리가 다수임

3) 노인 소득 관련 정책사업 예산(2018~2019)

- 인천시 노인정책과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노인 대상 소득 정책사업은 기초연금,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일자리공모사업, 일자리기관 운영지원 등을 포함함
- 투입된 예산 총액은 2018년에 비해 2019년 증가하였으며 인천시 예비노인 및 노인 세대 대상 정책 사업 총 예산 대비 해당 사업 예산 비율 또한 2018년 79.4%에서 2019년 80.5%로 증가함
- 군구별로 살펴보면, 노인 대상 소득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 중인 군구는 동구, 연수구, 계양구, 옹진군으로 총 4곳으로 나타남
 -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액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옹진군, 계양구, 연수구, 동구 순으로 많았음
- 공사·공단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같이家U 실버사원’이라는 사업명으로 임대아파트 고령자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안전관리, 가사돌봄,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실버사원(60세 이상)을 모집하여 운영 중임

4. 노후준비 분야

1) 예비노인세대 대상 서비스 제공기관

- 예비노인세대를 대상으로 노후준비를 준비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현황, 인천시 및 군구별 제공 서비스와 예산을 살펴봄
- 인천시에서 고용노동부의 중장년 대상 정책인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사람들이라는 곳으로 인천시, 부평구, 서구에서 사회공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예비노인 천 명당 사회공헌지원사업 운영 개수는 7개 특별시 및 광역시를 비교하였을 때 광주가 0.031개로 가장 많고, 인천시는 0.004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서울시, 대전시, 충청남도, 경기도, 인천시에서 설립되어 운영

되고 있음. 인천시의 경우 2017년 12월 (재)인천여성가족재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인생이모작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함

- 고용노동부의 2019년 신설사업인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인천시 차원으로 4개, 군구 차원으로 남동구 3개, 동구 1개, 부평구 5개, 연수구 2개, 옹진군 1개로 총 16개의 사업이 선정되었음
-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는 양코르커리어사업과 연계해 ‘2019년 모두 ZONE(좋은)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임

2) 예비노인세대 대상 노후준비 지원 서비스

- 인천시 및 군구별 제공되고 있는 노후준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면, 옹진군을 제외한 모든 군구에서 예비노인세대 대상 노후준비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서비스는 주로 군구청, 평생학습관,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인생재설계 프로그램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음

3) 예비노인세대 대상 노후지원 관련 정책사업 예산(2018~2019)

- 인천시의 예비노인세대 대상 노후준비 관련 정책사업은 주로 일자리경제과를 통해 추진되고 있음
- 예산 총액은 2018년에 비해 2019년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인천시 예비노인 및 노인 세대 대상 정책 사업 총 예산 대비 해당 사업 예산 비율 또한 2018년 0.1%에서 2019년 0.2%로 증가함
- 군구별로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예비노인세대를 대상으로 노후준비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한 구는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로 총 6곳으로 나타남
- 주로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이 다수이며, 해당 사업 예산액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계양구, 서구,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동구 순으로 많았음

5. 사회활동 참여 분야

1) 노인여가복지시설

- 사회참여와 관련된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포함됨
- 전국 7대 특·광역시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전국 총 68,013개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광주시(7.3개)이고, 가장 적은 곳은 서울시(2.8개), 다음으로 인천시(4.2개)로 나타남
-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총 1,540개로 군구별로는 서구가 252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강화군(234개), 부평구(199개) 순으로 나타남
 - 노인 천 명당 시설 수에서는 옹진군이 14.1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추홀구가 2.6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됨
- 노인여가복지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노인복지관의 경우 인천시에 총 20개의 노인복지관이 설립되어 있음
 - 군구별로는 계양구에 4개,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에 각각 3개, 동구와 부평구에 각각 2개, 중구, 남동구, 강화군에 각각 1개씩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로당의 경우 인천시에 총 1,489개가 운영되고 있음
 - 경로당 군구별 현황은 서구(247개), 강화군(233개), 부평구(188개) 순으로 많은 반면 동구(36개), 옹진군(70개), 중구(77개) 순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교실의 경우 인천시에 총 31개가 운영되고 있음

2)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 사회활동 참여 지원 서비스

- 인천시 및 군구별 제공되고 있는 사회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면, 옹진군을 제외한 모든 군구에서 예비노인세대와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활동 참여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서비스는 주로 구청,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대부분 여가, 교육, 상담 프로그램 및 봉사동아리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는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으로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의 교육사업 및 동아리를 운영 중임

3)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 사회활동 참여 관련 정책사업 예산(2018~2019)

-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 사회활동 참여 관련 정책은 주로 노인정책과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정보화담당과, 문화예술과, 미추홀도서관에서도 추진되고 있음

- 사회활동 참여 관련 정책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노인복지관 등의 여가시설 기능 보강 등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으로 여가 및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 관련 사업 내용이 포함됨
-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 사회활동 참여 관련 정책사업에 투입된 예산 총액은 2018년에 비해 2019년 감소하였으며 인천시 예비노인 및 노인 세대 대상 정책 사업 총 예산 대비 해당 정책사업에 투입된 예산 비율 또한 2018년 4.6%에서 2019년 3.2%로 감소함
- 군구별로 살펴보면, 2018년~2019년 사이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으로 사회활동 참여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한 구는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로 나타남
 -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액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미추홀구, 연수구, 중구, 부평구 순으로 많았음

6. 돌봄 분야

1) 돌봄 관련 시설

(1)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전국 7대 특·광역시에 2018년 말 기준으로 총 390개가 설치되어 있음
- 인천시의 경우 총 22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 천 명당 해당시설 수는 0.06개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입소율의 경우 인천시는 70.4%로, 전국 평균(75.0%)보다 낮은 비율을 보임
- 군구별로 시설 수는 강화군이 9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구(6개), 부평구(3개), 계양구(2개), 연수구 및 남동구가 각각 1개로 나타남
- 인천시 노인주거복지시설 22개 중에서 유형별로는 양로시설 16개, 노인공동생활가정 5개, 노인복지주택 1개임

(2)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전국 총 5,287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천시의 경우 총 368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 입소율은 90.4%로 전국 평균(89.2%)보다 높았으며, 종사자 수도 시설당 20.8명으로 전국

평균(20.1명)보다 높게 나타남

- 군구별 시설 수는 남동구가 78개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62개), 서구(56개) 순으로 많았음
- 인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368개 중에서 유형별로 노인요양시설이 256개로 많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112개로 나타남

(3) 재가노인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보호시설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현장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구분할 수 있음
- 먼저 인천시에서 보호시설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총 31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 군구별 시설 수는 서구가 9개로 가장 많았고, 계양구(5개), 남동구(4개) 순으로 많았음
 - 시설종류별로 살펴보면, 총 31개의 보호시설 기반의 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29개가 주야간보호서비스, 2개가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장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인천시에서 총 102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 군구별 시설 수는 서구가 28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계양구(20개), 남동구(17개) 순으로 나타남
 - 102개 시설 중에서 종류별로 살펴보면,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설은 51개로 절반 가량이었고,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시설은 39개,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시설은 3개, 재가 노인지원서비스 제공시설은 9개로 나타남

(4)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 문재인 정부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와 같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있음
- 전국 74개 중에서 인천시에 4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하고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3곳과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 1곳이 운영 중임
- 시설 이용률의 경우 전국 평균 86.3%이며 인천시의 경우 45명 정원에 43명이 이용

하여 95.6%의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임

2)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 돌봄 지원 서비스

- 돌봄 지원 서비스는 인천시 모든 군구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돌봄 지원 서비스는 주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 보장협의회 등에서 제공되고 있었음
- 서비스 내용은 주로 검진, 상담, 교육인 것으로 나타남

3)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 돌봄 관련 정책사업 예산(2018~2019)

-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 돌봄 관련 정책은 주로 노인정책과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체육진흥과와 건강증진과에서도 추진되고 있음
-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 돌봄 관련 정책사업에 투입된 예산 총액은 2018년에 비해 2019년 증가하였는데, 사물인터넷(IoT) 안심폰 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등급자), 노인요양시설운영(등급자),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의 확장 등으로 인해 발생함
- 군구별로 살펴보면, 2018년~2019년 사이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으로 사회활동 참여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한 군구는 6곳임.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액은 2019년 기준 연수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중구, 계양구 순으로 많았음

7. 생애마무리 분야

- 생애마무리 분야와 관련된 시설은 현재 인천시에 없으며, 2019년에 제공된 서비스로는 미추홀구 주안도서관에서 6월 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멋진 인생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이 있음
- 2018년도에 제공된 생애마무리 관련 서비스로는 부평구에 위치한 부평문화원에서 50~70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웰다잉과정이 있음

8. 소결

-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인구 분야와 가계생활구조를 살펴보고 인천시의 노인관련 정책사업 현황을 2018년 12월에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서 제시한 영역에 따라 ‘소득’, ‘노후준비’, ‘사회활동 참여’, ‘돌봄’,

‘생애 마무리’로 살펴봄

- 각 분야별 노인복지시설의 인프라 현황은 전국 및 특·광역시와 인천시, 그리고 군 구별로 소득 분야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사회활동 참여 분야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돌봄 분야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살펴봄
- 전반적으로 지역의 노인인구수와 지역접근성을 고려하여 현재 설치된 시설 중에 부족한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신설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IV. 인천시 수요조사 분석 결과

1. 2018년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조사 결과

(1) 인천시 노인의 지역사회 인식 연구 결과

- 2018년 기본연구과제 「인천시 노인의 지역사회 인식 연구: 고령친화환경을 중심으로」는 인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5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WHO, 2007)에서 도시의 고령친화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시한 8개 영역을 기준으로 인천시 노인의 고령친화 수준을 살펴봄
- 8개 영역 중 거주환경과 주거환경 영역은 평균 60점대, 교통, 지역사회 참여, 노인 에 대한 존중과 사회통합,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성,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영역은 평균 50점대, 시민참여 활동 및 일자리 영역은 40점대로 나타나 8개 영역 모두 60점대 이하의 점수로 응답됨
- 특히,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 세부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른 일자리 충분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기관 충분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일자리 충분도와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기관 충분도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가 비수급권자 이거나 또는 낮은 가구 소득을 보인 집단보다 더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인천시 베이비부머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 2018년 기본연구과제 「인천시 베이비부머 실태 및 욕구조사」는 인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1,9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베이비부머를 전기베이비

부머(1955~1963년 출생자)와 후기베이비부머(1964~1974년 출생자) 코호트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 결과를 보고함

- 조사 지표구성은 건강 및 활동적 노화의 틀을 기준으로 삼아 7개 영역 (① 일반적 현황, ② 가족, ③ 사회적 활동, ④ 건강, ⑤ 주거 및 지역사회 인식, ⑥ 근로 및 경제적 사항, ⑦ 노후준비 교육), 97개 문항으로 구성함
- 조사대상자는 남성 50.2%, 여성 49.8%이며, 응답자의 과반은 고등학교 졸업자로 전기 베이비부머 보다 후기 베이비부머의 교육 수준이 높게 보고됨
- 가족관련 영역을 살펴보면 평균 가족구성원 수는 5.77명으로 자녀 부양에 대한 책임 시기를 취업할 때 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후기 베이비부머 보다 전기 베이비부머가 장기간 부양에 대한 책임과 금전적인 지원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활동영역을 살펴보면 친교집단은 친구(28.1%), 가족(27.6%), 직장동료(12.8%)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기 베이비부머 보다 후기 베이비부머가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응답됨
 - 노년기 사회활동 참여 의사는 현재 참여율보다 높았는데, 특히 후기 베이비부머의 경우 자원봉사 및 시민단체활동, 교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베이비부머는 노년기에 여가와 취미활동을 즐기며 지내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기 베이비부머는 소득활동에 대한 기대가 후기 베이비부머 보다 높게 나타남
- 건강관련 영역에서는 전기 베이비부머는 실제 나이와 같다는 인식이 많은 반면, 후기 베이비부머는 실제 나이보다 젊게 인식하고 있는 응답이 많게 나타남. 그러나 인식과는 달리 건강위험행태 측면에서 음주 빈도, 만성질환 보유 비율이 높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운동을 하지 않고, 만성질환을 관리 하지 않는 비율 또한 높게 보고됨
- 주거 및 지역사회 인식 영역에 대한 결과를 보면, 주거환경의 중요도 및 고령친화환경 인식에 대해 전기 베이비부머가 높게 평가했으며, 가장 중요한 노년기 돌봄서비스의 선택기준은 경제적 비용이라고 응답했는데, 전기 베이비부머 보다 후기 베이비부머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근로 및 경제적 영역을 살펴보면, 노년기의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근로조건은 신체적 부담이 덜 되는 일(20.8%), 노인에게 우호적인 근무환경(20.5%)으로 조사됨. 노년기 주 소득원의 형태로 전기 베이비부머는 근로사업소득(41.6%)을 후기 베이비부머는 공적이전소득(42.2%)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함

- 노후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연령의 시점을 평균 45.27세 부터라고 인식함
- 노후준비교육 영역에 대한 결과에서, 노후준비 교육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은 7.4%에 불과하였으나, 향후 노후준비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율은 57.3%로 나타남
- 노후준비 교육 분야에 있어서 경제적 준비 교육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향후 필요한 교육은 자산관리 및 노후 재무 설계라고 응답함

2.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조사 결과

- 인천시는 노인세대를 위한 여가문화와 관련하여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천시 경로당 이용자 및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경로당 이용자 499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는 여성(63.6%)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76세 이상이 62.5%로 가장 많았음
 - 경로당 이용자들은 5~10년 동안 이용해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거의 매일 이용하며, 주로 오후에 이용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인천시 경로당 이용자들은 아파트 경로당을 가장 많이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료와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경로당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 경로당에서는 친구와 대화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윗, 화투나 텔레비전 시청, 장기와 바둑 순으로 나타남
- 경로당 이용자들의 88.6%가 회비를 납부하고 있었음
 - 한 달 회비는 평균 5,009.55원으로 나타났고,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월 회비의 평균 금액은 4,833.33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남
- 경로당 이용자에게 경로당에서 제공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을 질문한 결과, 건강 관련 프로그램과 오락 프로그램 대한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 경로당 이용자들은 현재 이용하는 경로당의 운영방식 및 운영경비에 대해 79%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개선사항으로는 비용 부족을 응답하였음
 - 경로당 활성화 및 개선방안과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질 좋은 프로그램의 다양화라는 응답이 20.2%로 가장 많았음
-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497명에 대한 조사결과, 경로당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45.3%로 나타났음.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취미생활을 한다는 응답이 43.7%으로 가장 많았음
 - 경로당 미이용자들의 여가 사용 방법으로는 친구 및 친가 방문·동호인 모임이 30.6%으로 1순위로 나타났고, 절반 이상이 향후 경로당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

답하였음

- 향후 경로당을 이용할 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복지관 등 다른 곳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남

3. 소결

-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앞서 2018년에 수행된 수요조사를 통해 인천시 노인들의 고령친화인식과 베이비부머의 욕구를 살펴봄
- 인천시 노인들은 소득과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는데 비해, 고령친화 정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인천시 베이비부머는 현재 참여하는 사회활동에 비해 향후 노년기의 참여의사가 높게 나타남
 - 후기 베이비부머의 경우 자원봉사 및 시민단체활동, 교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반면, 전기 베이비부머는 소득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남
- 건강 측면에서 베이비부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운동을 하지 않고, 만성질환을 관리 하지 않는 비율 또한 높게 보고되어, 예비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건강 예방 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베이비부머들은 은퇴 후 노년기에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신체적 부담이 적고, 노인에게 우호적인 근무환경을 중요한 조건으로 꼽아 노인이 일하기에 적합한 일자리 수를 추산하고 발굴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함
- 또한 베이비부머들은 노후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연령의 시점을 평균 45.27세 부터라고 인식하며, 자산관리 및 노후재무설계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 인천시는 경로당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노인세대의 여가복지시설로서 경로당에 관한 이용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중장기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함
- 경로당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는 1,2순위가 건강 관련 프로그램과 오락 프로그램이었으며, 3순위로는 70세 이하 노인들은 소득연계사업 프로그램, 71 ~ 75세 노인들은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나타남
- 경로당 이용자들은 공간의 협소함에 대한 애로사항과 쾌적한 환경시설에 대한 개선 욕구가 높게 나타났는데, 한편 경로당 미이용자들의 경우 불청결한 환경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나타남. 따라서 노인들의 건강 예방 관리 측면에서 청결한 환경을 위한 시설기준 강화, 현장점검 등 적극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함
- 그 밖의 경로당 이용 관련 개선사항으로는 비용의 부족이나 회계 운영상 제약이 있

었으며, 일부 의견에서 운영비, 전기 및 가스 요금, 청소 등 관리 인력의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앞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V. 국내외 고령사회 대응 관련 정책현황 검토

1. 커뮤니티 케어의 현주소

1)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이해

- 2018년 정부정책에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추진체계가 마련되고 있으며, 선도사업을 기획해 지자체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음
-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를 비롯하여 영국, 호주 등에서도 커뮤니티 케어와 유사한 개념의 복지서비스가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란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 홈 등 지역사회(communiti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로 정의함

2)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추진 현황

-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추진을 위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제시해 정부 복지정책의 중요한 키워드로 대두됨
- 2018년 상반기 동안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내 8개 팀과 전담조직인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였고,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와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방향에 대한 설정과 의료분야 공동협업을 기획함
- 2018년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협의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회의, 협약, 포럼 등의 구체적인 실행과정이 진행됨. 특히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3개 부처의 협력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이 이루어졌고, ①주거지원, ②방문의료 및 방문건강관리, ③장기요양 및 재가 돌봄서비스, ④생활지원 4가지를 핵심요소로 하

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이 발표됨

- 2019년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2년간 8개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이 실행될 예정임

3)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력

- 2017년 12월 인천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연구와 사업이 추진되는 전문기관으로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를 출범시킴
 - 고령사회 전반에 대한 전문적 연구 수행과 예비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일자리 지원 사업, 그리고 돌봄종사자의 직무향상 및 권익증진, 바른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인천시는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돌봄 분야에서 고령사회 대응과 관련한 다양한 성과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에 2018년에 이어 2019년에 선정되어 지역 의료 수준을 강화해 가고 있음
 - 인천시 지자체 특화 사업인 ‘노인요양시설 인권모니터링’ 사업에서 2018년 인천노인 보호전문기관이 전국 최우수상,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음
 - 2019년 4월에는 인천시와 인천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포럼을 통해 인천형 공공보건의료와 커뮤니티 케어 적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인천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였음. 이외에도 군구 차원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음

2. 국내외 고령사회 대응 관련 사례 분석

1) 국내 고령사회 대응 정책

- 돌봄 분야에서는 서울시 도봉구에서 추진하는 돌봄서비스 중개플랫폼인 ‘시니어시티’ 사이트와 부산시 사상구의 복지안전망 다복따복망, 대전 유성구의 돌봄플러스케어 복지서비스가 있음
- 보건·의료분야로는 서울시의 301 네트워크,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를 위한 서울시 시민건강포인트 시스템, 서울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시민건강 포털, 어르신 단기돌봄터 서울시 든든케어,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제, 서울시 마을의사가 찾아가는 건강

돌봄서비스 등이 있음

- 부산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9년부터 공공형 생애말기 돌봄사업을 시행해왔으며, 부산시 전체 16개 보건소에서 호스피스완화케어사업을 하고 있음. 인천시의 경우 인천의료원을 권역별 호스피스 센터로 지정하여 2020년까지 8개실 20병상을 확충하고자 함
-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는 일산병원, 국립암센터 등 대형병원 및 재활전문기관, 한방의료 기관 등 관내 25개 의료기관의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비예산 복지사업을 운영함
-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의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헤아림’과 ‘마중’ 프로그램을 운영함
- 기타 분야에서는 부산시의 재가노인의 주택 환경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119사업, 서울시의 독거노인 대상 반려식물 보급사업과 면허를 가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1,000명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등의 사례가 있음
- 그 밖에도 서울시 강동구는 노인 여가 공간 썸지놀이터를 조성하여 확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을 진행 중임. 대구대나 용인대의 경우 지역사회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공 교수와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됨

2) 국외 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역	국가	정책 및 서비스 내용
유럽	영국	<p>[홈케어서비스] ▶ 고령후기노인과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가사원조서비스 및 신체수발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자체가 직영으로 24시간 홈케어 실시</p> <p>[가정간호서비스] 요보호 노인에 대한 돌봄을 일반의가 지역 보건당국에 청구하면 간호사가 가정으로 파견되어 일반의에 처방에 따라 의료조치와 간호를 제공</p> <p>[나이 들을 바꾸다 프로젝트] ▶ 영국정부 자문기구 디자인위원회에서 치매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기억카페(치매카페)를 만들고 기억력 회복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업을 진행</p> <p>[주택개량에이전시]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본인의 자택에서 거주하고자 할 경우 주택개조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서비스</p> <p>[노인 인터넷 이용 활성화 정책] ▶ 55세 이상 대상 인터넷 사용 방법을 교육하여 가족 또는 친구와의 연락과 정보 접근을 도움</p> <p>[캐서롤클럽] ▶ 가정에서 만든 요리를 지역사회 독거노인 등과 나눔으로써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는 프로젝트로 2011년에 시작되어 2019년까지 7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식제공에 참여함</p> <p>[실버라인] ▶ 2015년에 시작되어 노인대상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무</p>

지역	국가	정책 및 서비스 내용
		료전화서비스로 봉사자 또는 지역서비스를 소개해줌
	스웨덴	[홈헬프] ▶ 노인들이 아파트나 집단요양시설 같은 곳이 아닌 자택에서 청소 및 정리, 쇼핑, 요리, 시설 개조, 의료, 식사, 말동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음 [노인 대상 음식 서비스] ▶ 노인에게 반조리식품 배달서비스나 특수주간돌봄센터에서 공동식사를 제공함
	덴마크	[노인보호주택] ▶ 80세 내외의 노인들이 지역사회내 설치된 노인에게 적합한 주택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 24시간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이나 자립형 노인주택이 있음
	네덜란드	[호헤베이크 마을] ▶ 치매노인을 위해 2009년 지어진 요양시설로 150명의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노인이 취향에 따라 선택한 10개의 마을주거공동체에서 거주함
아시아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 ▶ 2009년 개호보험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2012년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역할이 강화됨. 주택개호서비스와 지역밀착형개호서비스로 구분되며, 서비스 거점은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 주체가 참여함 [치매노인 도우미(인지증 서포터)] ▶ 2005년 치매 용어 대신 인지증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도입되었으며, 치매에 대한 이해, 서비스 기술에 대한 학습과정 수료후 치매노인 도우미로 참여시킴 [주택 배리어 프리화 추진] ▶ 2006년 주거생활기본법에 따라 주택 안전망 구축과 낙상사고의 원인과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정비 [실버인재센터] ▶ 후생노동성에서 고령자의 활력 있는 삶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에 추진중인 사업으로, 60세이상 연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으로 가입되며 2019년 기준 3천여명의 회원을 보유함. 주20시간 이하의 임시·단기 업무를 하며, 교육 등을 운영 [요코스카시 요양원의 반려동물 입주] ▶ 반려동물과 함께 요양원에 입소하도록 특별 거주 공간을 마련함 [NPO법과 고령자 자원봉사] ▶ 1998년 시행을 통해 비영리법인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게 되면서 고령자 복지를 위한 단체와 고령자가 주체가 되는 커뮤니티 단체가 활성화 됨
	캐나다	[기술개발정책] ▶ 고용보험 가입자격자이지만 직업기술이 없는 노인에게 기술훈련을 통해 취업능력을 갖추게 함
북미	미국	[액션프로그램] ▶ 고령자들의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도록 도움 [캘리포니아주 노인지역서비스 고용프로그램] ▶ 고용기회가 없거나 무직상태인 노인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에이전시에서 파트타임 기술훈련 기회와 직업소개를 제공함 [캘리포니아주 가족돌봄제공자 지원프로그램] ▶ 노인돌봄을 하는 가족들에게 돌봄관련 정보, 상담 및 훈련 지원, 일시적 교대돌봄 등 지역기반 서비스를 제공함

지역	국가	정책 및 서비스 내용
오세아 니아	호주	[홈케어패키지] ▶ 재가돌봄제공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돌봄등급이 평가된 후 자신에게 적합한 돌봄제공자를 선택하여 홈케어패키지에 가입하며, 자택에서 간호, 식사, 가사 등을 제공받음 [전환돌봄 프로그램] ▶ 입원경험을 한 노인이 퇴원후 평균 60일간 물리치료나 작업치료과 같이 시간제한적, 목적지향적인 치료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받음. 정부가 수혜자의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결정하며, 비정부기관이 협약을 맺어 서비스를 제공함

3)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도시와 지역사회의 고령친화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형성되었으며, 2018년 기준 전세계 760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음
 - 국내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서울시가 2013년에 처음 가입하였고,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2014년 정읍시가 처음 가입하였음. 2019년 5월 기준 국내 11곳에서 가입함
- WHO는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자격 요건으로 첫째, 개별 고령자의 다양성과 권리의 존중, 불평등의 해결 노력, 시민참여의 상향식 참여와 정부주도의 하향식 방식의 결합, 여러 분야를 포괄한 공동설계 등의 원칙을 공유하는 것, 둘째, 고령친화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참여와 이해, 계획, 행위, 조치라는 순환단계를 거치는 과정을 포함할 것, 셋째, 네트워크로서 진행 및 결과 공유, 지속적인 업데이트 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회원들은 정보공유에 접근하고, 회원국 간 공동 작업 기회를 획득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활동에 대한 가시성을 제고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국외 회원으로는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앙베리외앙뷔제, 스페인의 코아냐, 아일랜드의 마요, 폴란드의 브로츠와프, 일본의 치가사키 시, 캐나다의 그레이터 서드베리, 미국 플로리다주의 앨러추어, 칠레의 라핀타나, 페루의 미라플로렉스, 호주의 일라와라 등이 있음
- 국내 고령친화도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서울특별시 2011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2년 제1기(2013-2015)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인 「서울어르신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3년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함. 실행계획 수립, 실행, 평가의 관리체계를 이행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운영된 「서울

시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이 활성화 되어 있고, 2년 주기로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함. 현재 제2기 실행계획이 5개년(2016~2020년)에 걸쳐 추진 중에 있으며, 제2인생 설계 지원 영역을 삭제하는 대신 각 영역(환경, 여가, 고용, 존중, 건강)에서 베이비부머 지원 정책이 다루어지도록 함

- 광주광역시 동구는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2018년 국내 자치구 최초로 가입함. 제1기(2017~2019년) 3개년 실행계획을 세우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38개 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며, 이후에는 제2기(2020~2024년) 고령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을 준비 중임
- 부산광역시는 부산복지개발원과 함께 2015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고령친화도 조사와 노인실태 및 정책체감도 조사 등을 통해 노인복지기본계획(2016~2018년)을 수립함
- 전라북도 정읍시는 2014년 고령친화도 자체평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및 암센터 등과의 협약체결 추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함. 2016년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고령친화사업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 「생애 맞춤형 도시 Age-friendly City, 정읍」을 비전으로 하는 ‘정읍시 고령친화도시와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을 수립함

3. 소결

-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구체적인 과제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첫째, 인천시는 인천시민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면밀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지역 내 욕구와 자원 인프라 파악과 같은 지역분석에 대한 점검은 커뮤니티 케어와 연계할 때 서비스 중복이나 불필요한 예산,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함
- 둘째,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중심기관이나 전달체계의 통합 창구 마련이 필요함
- 셋째, 체계적인 조직화와 더불어 지역의 이용자와 소통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도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함
- 국내 고령사회 대응 관련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면, 국외의 사례에 비해 최근에 만들어지거나 사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효과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따라서 단회성의 예산편성보다는 중장기적인 예산지원과 서비스의

관리 및 평가가 실행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 국내 서비스의 유형을 카테고리별로 살펴보면 세대 통합형, 플랫폼형, 참여·동행형, 방문형, 안심·안전형, 서포터형, 돌봄형, 심리정서형 등이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중장기적인 계획에 근거해 지역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방식을 전제로 구체화해야 할 것임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모든 도시와 지역사회가 점차 고령친화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 총 760개의 지역사회 및 도시가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19년 5월 기준 11곳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음
- 고령친화도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착수 단계에 정치공약 실천 성격의 하향식 주도 방식이 필요하며, 즉, 리더와 행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선행되어야 함

VI.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천시 중장기 발전 방향

1.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 정책 계획 수립의 방향

1) 거시적 관점의 수립방향

-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은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반영하여 수립방향을 제시함
- 첫째, 준비하고, 리드하는 고령사회 예방적 정책 : 노년기에 대한 막연함과 준비 없이 노인이 되는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사회적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과 예비노인세대를 포함하는 정책적 지원 체계 구축 지원
- 둘째, 돌봄의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환경 구축 : 생애 마지막까지 안심하고, 안전하게, 편안할 수 있는 돌봄의 가치를 설정해 바른 돌봄이 함께 하는 지역 환경 조성
- 셋째, 연령통합(세대통합) 도시 조성 : 고령친화를 연령통합으로 대체해 접근함으로써 연령, 성별,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인간의 모든 생애주기에서 '살아가기에 편한 도시'를 조성한다는 관점으로 고령사회 준비
- 넷째, 고령자의 재능과 경험이 선순환 하는 사회공헌 구조 : 삶을 앞서 살아낸 '선배 시민'으로서 또는 '인생의 멘토'로서 습득된 경험과 지식, 기술의 일부가 젊은 세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와 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기회와 연계 플랫폼 마련

- 다섯째,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고령사회 정책’ : 특정 연령과 노인세대로 한정하지 않고 인천시민의 행복과 새로운 도약을 기획하는 장기적인 정책 마련
- 여섯째, 데이터에 기반 한 과학적·객관적 정책 구축을 통한 정책 : 지역 환경의 특성과 시민의 욕구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근거에 의한 정책수립 필요

2) 미시적 관점의 수립방향

- 첫째, 인천시 민선7기 시정 및 매니페스토 검토를 통해 고령사회 대응 요인 반영
- 둘째, 정부 및 인천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통해 중장기 계획 구체화
- 셋째, 실행 가능한 정책 전략 수립을 위해 인천시와 공동협업 구조화
- 넷째, 계획 수립의 단계에 자문회의, 간담회, 포럼 등 다각적인 의견 수렴과 반영

3) 계획 수립의 구조와 특징

- 고령사회 분야 중장기 계획의 구조는 인천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근거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추진 전략에 해당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함
 - 추진 전략의 정책과제는 모두 6개 영역 대과제로 1영역 ‘노후 소득보장 강화’, 2영역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3영역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4영역 ‘통합돌봄의 강화’, 5영역 ‘생애마무리 지원 강화’, 6영역 ‘고령친화환경 기반 조성’으로 구성됨
- 인천시 민선7기에 계획된 공약 중 고령사회 대응과 관련한 정책을 중장기 계획에 포함하여 공약실천 이행률을 높이며, 그로 인해 시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추진의 방향성을 담았으며, 지자체의 책무가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반영함

2. 인천시 고령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

1) 비전과 목표

- 향후 5년간(2019~2023년) 인천시 ‘고령사회 분야’ 중장기 계획 수립의 프레임을 설정하는데 있어, 배경을 이루는 정부와 인천시의 기본계획 핵심 주제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할 공통 주제는 소득, 노후준비, 사회활동 참여, 건강·의료, 돌봄, 생애마

무리임

○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 ~ 2023)의 비전과 목표는 다음과 같음

비전	더 나은 고령사회를 여는 인천
목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고령사회
추진기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환경 조성 2. 노후의 삶을 편안하게 디자인하는 지역사회 기반 조성

3. 인천시 고령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1. 노후 소득보장 강화	1-1. 노후 소득설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노후 준비를 위한 재무설계 교육 활성화 ② 시니어 직업훈련 교육의 다양화 추진
	1-2.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활동 기반 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노인일자리 신규 발굴 및 수행기관 확충 ② 공익형 노인일자리 급여 수준 증진 ③ 지역사회 일자리 사업을 위한 인력풀 구축 및 연계 강화 ④ 취약계층의 안전한 소득활동 지원 보장 강화
	1-3. 스마트 Job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장년과 청년세대가 함께 하는 세대통합형 창업 지원 ② 어르신이 행복한 노인일자리 개발 체계 강화
2.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2-1. 고령사회 서비스 제공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 중심의 원스톱 통합 정보 플랫폼 기반 구축 ② 고령사회 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 확산
	2-2. 노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교육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양한 연령 및 분야별 생애설계 교육 확산 ② 노년기 교육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
3.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3-1. 고용 기회 및 현장에서의 참여 제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기반 노인적합일자리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
	3-2. 고령자 문화·복지 서비스 다각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천효드림복지카드 도입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3-3. 소외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노인여가복지 서비스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균형적인 권역별 노인복지 및 여가시설 운영의 다변화 ② 액티브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활성화 추진 ③ 지역사회 개방형 경로당 모형 조성
4. 통합 돌봄의 강화	4-1. 치매예방 및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활밀착형 치매지원 기관 확대 ②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도입
	4-2.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 인프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노인요양시설의 확대 및 기능 보강 ② 사물인터넷을 통한 안심안부 서비스 확대 ③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네트워크 활동 강화
	4-3. 건강 및 공공 의료지원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기요양노인을 위한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대
	4-4. 고령자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노인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활동 확산
5. 생애마무리 지원 강화	5-1. 지역사회 장사문화 조성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사시설 수급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②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 ③ 봉안당 건립 및 안치단 설치 추진
	5-2. 편안한 삶의 마지막을 위한 문화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준비 교육 확산
6. 고령친화환경 기반 조성	6-1. 안전과 편리성이 보장되는 교통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누구나 승하차가 쉬운 저상버스 도입 확대 ②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추진 ③ 노인 교통안전교육 실시 ④ 고령운전자 스티커(실버마크) 부착 확산 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인센티브 개발
	6-2. 고령사회 정책 역량 강화 및 추진 기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추진체계 구축 ② 노인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 ③ 노인정책모니터링단 운영 및 의견수렴 촉진

차 례

Ⅰ 서론

- 1. 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3
- 2. 계획 수립의 내용 및 범위 7
- 3. 계획 수립의 방법 9
- 4. 계획 수립의 기대효과 10

Ⅱ 중앙정부 및 인천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 ~ 2020) 13
- 2. 인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2018 ~ 2022) 26
- 3. 소결 30

Ⅲ 인천시 고령사회 분야별 현황

- 1. 인구 분야 37
- 2. 인천시 노인의 가계생활 구조 분야 47
- 3. 소득 분야 50
- 4. 노후준비 분야 58
- 5. 사회활동 참여 분야 70
- 6. 돌봄 분야 92
- 7. 생애마무리 분야 124
- 8. 소결 125

Ⅳ 인천시 수요조사 분석 결과

- 1. 2018년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조사 결과 131
- 2.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조사 결과 137
- 3. 소결 158

V 국내외 고령사회 대응 관련 정책현황 검토

- 1. 커뮤니티 케어의 현주소 163
- 2. 국내외 고령사회 대응 관련 사례 분석 187
- 3. 소결 233

VI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천시 중장기 발전 방향

- 1.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 정책 계획 수립의 방향 243
- 2.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 249
- 3.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252

VII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영역별 세부 추진과제

- 1. 노후 소득보장 강화 257
- 2.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273
- 3.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281
- 4. 통합 돌봄의 강화 291
- 5. 생애마무리 지원 강화 304
- 6. 고령친화환경 기반 조성 311

VIII 제언

- 1. 중장기 정책과제 제언 329
- 2. 중장기 정책과제 관리와 평가에 대한 제언 336

- 참고문헌 338

표 차례

<표 Ⅰ-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 20, 21조)	4
<표 Ⅰ-2> 인천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5조)	5
<표 Ⅰ-3>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자치법규 현황	5
<표 Ⅱ-1> 제3차 고령사회대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	15
<표 Ⅱ-2> 제3차 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15
<표 Ⅱ-3> 고령사회 정책 과제 재구조화 결과표	20
<표 Ⅱ-4> 고령사회 주요 역량 집중과제	21
<표 Ⅱ-5> 신중년 전직직원체제 개편 방안	22
<표 Ⅱ-6> 인천시 제1차 고령화 대책의 정책과제	28
<표 Ⅱ-7>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 추진영역 키워드(2019~2023)	33
<표 Ⅲ-1> 전국 및 7대 특·광역시 인구 구성	37
<표 Ⅲ-2> 인천시 인구 구성비 변화(2018~2045년)	39
<표 Ⅲ-3> 전국 및 7대 특·광역시의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진입(예상) 시기 및 고령층 비율	40
<표 Ⅲ-4> 인천시 생산연령층(15~64세) 연령대별 비율	41
<표 Ⅲ-5> 인천시 예비노인세대 중 베이비부머의 비율	42
<표 Ⅲ-6> 인천시 군구별 고령층(65세 이상) 현황	42
<표 Ⅲ-7> 인천시 군구별 예비노인세대 및 베이비부머 현황	43
<표 Ⅲ-8> 인천시 군구별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진입(예상)시기 및 해당 시기 고령층 비율	45
<표 Ⅲ-9> 인천시 예비노인세대 인구 구성비 변화(2018~2035년)	46
<표 Ⅲ-10> 7대 특·광역시 노인가구 연간 수입액	48
<표 Ⅲ-11> 7대 특·광역시 노인가구 월평균 소비 지출액	50
<표 Ⅲ-12> 전국 및 7대 특·광역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현황	51
<표 Ⅲ-13> 인천시 군구별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현황	52
<표 Ⅲ-14> 인천시 노인일자리 지원 서비스 현황(2018~2019년 상반기)	53
<표 Ⅲ-15> 인천시 노인 소득 관련 정책사업(2018~2019)	56
<표 Ⅲ-16> 인천시 군구별 노인 대상 소득 관련 정책사업(2018~2019)	57
<표 Ⅲ-17> 인천시 공사·공단 노인 대상 소득 관련 정책사업(2018~2019)	58
<표 Ⅲ-18> 7대 특·광역시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수행 자치단체 운영기관(2019)	59

<표 III-19> 7대 특·광역시 예비노인세대 인구수 대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운영 개수(2009) ……	60
<표 III-20> 전국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현황 ……	61
<표 III-21> 7대 특·광역시 2019년 신중년 경력형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선정 지자체 현황 ……	62
<표 III-22>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의 모두 ZONE(좋은) 일자리 사업 세부내용 ……	64
<표 III-23> 예비노인세대 대상 노후준비 지원 서비스 현황(2018~2019년 상반기) ……	65
<표 III-24> 인천시 예비노인세대 대상 노후지원 관련 정책사업(2018~2019) ……	67
<표 III-25> 인천시 군구별 예비노인세대 대상 노후지원 관련 정책사업(2018~2019) ……	69
<표 III-26>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 ……	71
<표 III-27> 전국 및 7대 특·광역시 노인여가복지시설 ……	71
<표 III-28> 인천시 군구별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현황 ……	72
<표 III-29>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 사회활동 참여 지원 서비스 현황(2018~2019년 상반기) ……	75
<표 III-30> 인천시 예비노인세대 대상 사회활동 참여 관련 정책사업(2018~2019) ……	86
<표 III-31> 인천시 군구별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 사회활동 참여 관련 정책사업(2018~2019) ……	90
<표 III-32>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92
<표 III-33> 전국 및 7대 특·광역시 노인주거복지시설 ……	94
<표 III-34> 인천시 군구별 노인주거복지시설 ……	95
<표 III-35> 인천시 군구별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현황 ……	96
<표 III-36> 인천시 군구별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현황 ……	97
<표 III-37> 인천시 군구별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현황 ……	98
<표 III-38> 전국 및 7대 특·광역시 노인의료복지시설 ……	99
<표 III-39> 인천시 군구별 노인의료복지시설 ……	100
<표 III-40> 인천시 군구별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현황 ……	101
<표 III-41> 인천시 군구별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현황 ……	102
<표 III-42> 전국 및 7대 특·광역시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	103
<표 III-43> 인천시 군구별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	104
<표 III-44> 인천시 군구별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서비스) 현황 ……	106
<표 III-45> 인천시 군구별 재가노인복지시설(단기보호서비스) 현황 ……	107
<표 III-46> 전국 및 7대 특·광역시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	108
<표 III-47> 인천시 군구별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	109
<표 III-48> 인천시 군구별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현황 ……	110
<표 III-49> 인천시 군구별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목욕서비스) 현황 ……	111

<표 III-50> 인천시 군구별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간호서비스) 현황	112
<표 III-51> 인천시 군구별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지원서비스) 현황	113
<표 III-52> 전국 및 7대 특·광역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현황	114
<표 III-53> 인천시 군구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115
<표 III-54> 인천시 군구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	116
<표 III-55>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 돌봄 지원 서비스 현황(2018~2019년 상반기)	117
<표 III-56> 인천시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 돌봄 관련 정책사업(2018~2019)	120
<표 III-57> 인천시 군구별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 돌봄 관련 정책사업(2018~2019)	123
<표 III-58> 인천시 군구별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 생애마무리 관련 정책사업(2018~2019)	125
<표 IV-1> 인천시 노인이 인식하는 8개 영역별 고령친화점수	131
<표 IV-2> 고령친화 점수에 따른 8개 영역별 제언	134
<표 IV-3> 행정주체,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정책적 제언	137
<표 IV-4> 경로당 조사대상 특성	138
<표 IV-5> 경로당 이용자 : 이용 기간	139
<표 IV-6> 경로당 이용자 : 이용 횟수	139
<표 IV-7> 경로당 이용자 : 이용 시간대	140
<표 IV-8> 경로당 이용자 : 이용 경로당 유형	141
<표 IV-9> 경로당 이용자 : 연금 수급 여부	141
<표 IV-10> 경로당 이용자 : 이용 사유	142
<표 IV-11> 경로당 이용자 : 시간 사용 방법	143
<표 IV-12> 경로당 이용자 : 회비 납부 여부	144
<표 IV-13> 경로당 이용자 : 월 회비 및 적정금액	144
<표 IV-14> 경로당 이용자 : 제공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충분성 인식	145
<표 IV-15> 경로당 이용자 : 제공되길 바라는 프로그램	146
<표 IV-16> 경로당 이용자 : 이용 경로당 운영방식 및 운영경비	146
<표 IV-17> 경로당 이용자 : 운영 관련 희망 개선사항	147
<표 IV-18> 경로당 이용자 : 활성화 및 개선방안과 애로·건의사항	148
<표 IV-19> 경로당 미이용자 : 연금 수급 여부	149
<표 IV-20> 경로당 미이용자 : 생활비 충당 방법	150
<표 IV-21> 경로당 미이용자 : 과거 경로당 이용 경험 여부	150
<표 IV-22> 경로당 미이용자 : 미이용 사유	151

<표 IV-23> 경로당 미이용자 : 여가 사용 방법	152
<표 IV-24> 경로당 미이용자 : 향후 경로당 이용 의사	153
<표 IV-25> 경로당 미이용자 : 경로당 이용할 의사가 없는 이유	153
<표 IV-26> 경로당 미이용자 : 운영 희망 프로그램	154
<표 IV-27> 경로당 미이용자 : 개인 회비 납부 필요성	155
<표 IV-28> 경로당 미이용자 : 월 회비 적정금액	155
<표 IV-29> 경로당 미이용자 : 개인 회비 미납부 이유	156
<표 IV-30> 경로당 미이용자 : 경로당 운영 주체	157
<표 IV-31> 경로당 미이용자 : 경로당 활성화 및 개선방안	157
<표 V-1>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추진 과정(2018년)	165
<표 V-2>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향 : 추진과제와 과제별 내용	169
<표 V-3> 고령사회 대비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172
<표 V-4>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1단계 추진 로드맵: 노인 커뮤니티 케어	175
<표 V-5>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역량 집중과제	177
<표 V-6>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추진 과정(2019년)	178
<표 V-7>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내용	179
<표 V-8> 국민이 바라는 향후 5년간 중점추진 정책	180
<표 V-9> 중장년 및 노인 대상 주요 정책과제	180
<표 V-10> 2019년 선도사업 신청 지자체 현황	181
<표 V-11> 노인분야에서 선정된 지자체 5곳의 전달체계 모델과 주요 사업	182
<표 V-12> 국내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현황	210
<표 V-13> 상향식 및 하향식 방식의 결합	211
<표 V-14> 국내외 고령사회 대응 사례	235
<표 VI-1>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구조	247
<표 VI-2> 정부와 인천시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비교(고령사회 분야)	248
<표 VI-3> 정부 및 인천시 기본계획 핵심 주제	249
<표 VI-4>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의 비전과 목표 전략	250
<표 VIII-1> 7대 특·광역시 영역별 현황	332
<표 VIII-2> 인천시 군구 영역별 현황	333

그림 차례

<그림 I-1> 계획 수립 방법의 추진 체계도	9
<그림 II-1> 제3차 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배경(인구절벽 전망)	14
<그림 II-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18
<그림 II-3> 신중년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프로세스(안)	23
<그림 II-4> 인천시 제1차 고령화 대책의 목표 및 전략	27
<그림 III-1> 전국 및 7대 특·광역시 인구 구성	38
<그림 III-2> 인천시 군구별 인구 구성비 현황(2020년, 2035년)	44
<그림 IV-1> 인천시 노인이 인식하는 고령친화환경 수준	13
<그림 V-1>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추진 본부 구성	167
<그림 V-2> 보건복지부의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추진 체계도	170
<그림 V-3>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추진 본부 구성	174
<그림 V-4>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커뮤니티 케어 제공 개요	176
<그림 V-5> 서울시 도봉구 돌봄플랫폼 시니어시터	188
<그림 V-6> 서울시 건강포인트 시스템	190
<그림 V-7> 서울시의료원 시민건강 포털	191
<그림 V-8> 서울시 든든케어 어르신 단기케어홈 내부	192
<그림 V-9> 서울시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195
<그림 V-10> 영국 실버라인 사이트	200
<그림 V-11> 네덜란드 호헤베이크 마을	203
<그림 V-12> 일본 실버인재센터의 구조	206
<그림 V-13> 고령친화 환경 구성을 위한 단계	212
<그림 V-14>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과정	215
<그림 VI-1>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거시적 관점의 방향	245
<그림 VI-2>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미시적 관점의 방향	246



1. 서론

1. 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 수립의 내용 및 범위
3. 계획 수립의 방법
4. 계획 수립의 기대효과

I. 서론

1. 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1) 계획 수립의 배경과 근거

- 인천시는 2018년 고령인구 비율이 12.3%로 곧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신중년 또는 베이비붐 세대(1955 ~ 1963년생)로 지칭되는 1955년 출생자가 2020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노년기를 맞이하게 됨
- 특히 베이비붐세대는 인천시 전체 인구의 약 14.3%(2018년 기준)로 현 노인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고령 및 노년기에 대한 사전 준비의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지난 2017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시민과 미래가 행복한 공감복지 도시’를 비전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함. 이에 따라 구체적인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 요구되어 2017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인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2018 ~ 2022)수립」이 발표됨
- 또한 2017년 12월 인천시와 (재)인천여성가족재단은 위·수탁 계약을 통해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를 설립함. 고령사회 관련 분야에 대한 지역사회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인천시 정책 개발 연구를 수행하며, 예비노인세대의 성공적인 노년기 진입을 지원하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바른돌봄 문화 조성 사업을 수행함
- 그러나 2017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구체적인 고령사회 분야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계획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연구의 수행이 추진됨
- 인천시 정책·사회·문화 환경과 인구구조 변화에 적합하고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고령사회 분야 정책 과제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연구를 이행함
 - 첫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20조, 제21조)

〈표 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 20, 21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무)]

-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①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④ 삭제 [2008. 2. 29]
-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둘째,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제5조)

〈표 1-2〉 인천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5조)

[제5조(기본계획 수립)]

-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추진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3. 필요 자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5.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인천광역시 노인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출처 : 인천광역시(<http://www.incheon.go.kr>), 현행자치법규.

- 인천시 외 타시도 지자체에서도 자치 법규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인구정책 및 위원회 등 다양한 사항이 운영되고 있음

〈표 1-3〉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자치법규 현황

번호	지자체명	자치법규명	공포일자
1	충청남도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09. 20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09. 20
2	전라북도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2015. 05. 01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2015. 12. 28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2018. 03. 30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 조례	2019. 02.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15. 12. 09
5	경기도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2018. 10. 01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2018. 11. 05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2018. 12. 31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2019. 01. 04
		김포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2018. 11. 07

번호	지자체명	자치법규명	공포일자
		남양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03. 22
		동두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2018. 03. 19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08. 14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2018. 10. 16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2018. 09. 20
		평택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2018. 11. 09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2018. 03. 05
	충청북도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2018. 11. 02
		청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2018. 05. 11
6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2019. 01. 02
7	경상북도	봉화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2018. 09. 10
		안동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2018. 04. 18
		청도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2018. 10. 02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사회로 인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 심리와 미처 준비 되지 못한 미비함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력에만 몰두하기보다 개인 및 사회에 다양한 도전과 새로운 기회를 가져 올 수도 있다는 긍정적 시각의 변화가 필요함. 따라서 현 시점에서 어떠한 관점과 방향성으로 고령화의 과제를 대응해 나갈 것인지 본 연구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인천시정에 반영하고자 연구 수행계획이 추진 됨

2) 계획 수립의 목적

- 2017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저출산 관련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기본계획은 마련된 반면, 고령화 관련 분야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은 부재한 실정임
 - 따라서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예방적·중장기적 차원의 세부 추진 사업계획 마련을 위한 5개년(2019~2023) 계획 수립을 제시하고자 함
-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과 노인복지 정책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에 의거해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를 설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계획하여 주요사업을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함

- 본 계획을 1차 5개년(2019 ~ 2023) 계획으로 삼아, 향후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계획 수립의 단계 기반 조성 계기로서 의의를 지님
- 노인 및 예비노인의 노년기 삶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지역사회 관심과 효율적인 정책이 실현되는 인천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둠

2. 계획 수립의 내용 및 범위

1) 계획 수립의 내용

- 중앙정부 및 인천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검토 : 고령사회 분야
- 인천시 인구구조 현황과 변화 추이
- 노인세대의 가계생활 구조 현황
- 인천시 고령사회 현황 및 인천시 및 군구 정책사업 및 예산 분석
 - 소득 분야 관내 일자리지원기관 및 서비스 인프라
 - 노후준비 분야 예비노인세대 대상 지원 서비스
 - 사회활동 참여 분야 여가복지시설 및 서비스
 - 건강의료 분야 돌봄시설 및 서비스
 - 생애마무리 분야 관련 서비스 현황
- 인천시 노인의 지역사회 인식 연구 및 베이비부머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 관내 여가복지시설(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 결과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탐색적 사례 조사
 - 정부 및 인천시 커뮤니티 케어 추진 과정 탐색
 - 국내외 고령사회 분야 대응 정책 사례 검토
 -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현황, 가입절차 및 도시 사례
- 인천시민, 전문가, 인천시 담당 공무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추진
-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 모색과 정책과제 도출
 - 고령사회 정책의 방향성, 비전, 목표, 주요 정책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제시

2) 계획 수립의 범위

○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 연구수행 기간 범위 : 2018. 12. ~ 2019. 7.
- 계획 수립 적용의 시간적 범위 : 2019 ~ 2023년(5개년)

○ 연구의 내용적 범위

- 고령사회 중장기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 비전, 목표, 추진기반, 전략과제
- 고령사회 기본방향에 따른 세부 추진 과제 :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 기존 자료의 활용 범위

[정부 및 인천시 기본계획]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 ~ 2020)
- 2017년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2018 ~ 2022)

[지역 현황 여건 분석]

-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수행한 2018년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검토
: 인천시 베이비부머 실태 및 욕구조사(1,907명)
: 인천시 노인의 지역사회 인식 연구(1,515명)
- 경로당 (미)이용자 대상 욕구 및 만족도 조사(996명)
- 인천시 군구 추진 정책 사업 및 서비스, 관련 시설 현황검토
- 행정안전부, 통계청, 인천시 행정통계 자료 분석

[타시도, 국내외 자료 및 기타]

- 타시도 노인복지 중장기 계획 및 정책, 서비스 현황 검토
- 국내외 사례 조사
- 정부부처 정책 보도자료 및 기타 연구 발간 자료 등

3. 계획 수립의 방법

1) 계획 수립의 방법

- 연구 설계 및 추진 과정 시 인천시 관련 부서(노인정책과)와 지속적인 회의(간담회) 추진
 - 부서 내 관련 자료 제공, 계획 수립에 필요한 방향성 및 향후 사업 반영 사항 등 논의
- 선행 연구결과 및 문헌 자료를 통한 객관적 자료 분석 제시
 - 행정통계(행정안전부, 통계청, 인천시 군구 관련 통계) 자료, 선행연구 등
 - 국내외 고령사회 분야 관련 사례 조사
-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자문
- 인천시민, 전문가, 인천시 공무원, 관련 유관기관(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개최
- 연구프로세스에 의한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및 자문회의, 연구심의평가 실시

[그림 1-1] 계획 수립 방법의 추진 체계도

단계	추진 내용	추진 방법
↓	↓	↓
연구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배경 및 근거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설정 ▪ 연구 방향 및 방법, 예산 구성 ▪ 관련 선행자료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및 현황 자료수집 및 검토 ▪ 착수보고 ▪ 수행계획 수립 ▪ 회의 : 연구진, 인천시 관련 부서 등 ▪ 관련 선행문헌자료 수집 및 정리
기초 자료 조사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인구 구조 변화 ▪ 인천시 노인 및 예비노인 대상 복지정책, 추진체계 등 현황 점검을 통한 문제점 탐색 ▪ 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사례 ▪ 관내 경로당 (미)이용자 대상 조사 결과 분석 ▪ 인천시 노인의 가계구조 현황 조사 결과 분석 ▪ 통계자료 및 2018년 연구과제 결과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인천시 내부자료 수집 및 조사결과 정리 ▪ 회의 : 연구진, 인천시 관련 부서 등 ▪ 중간보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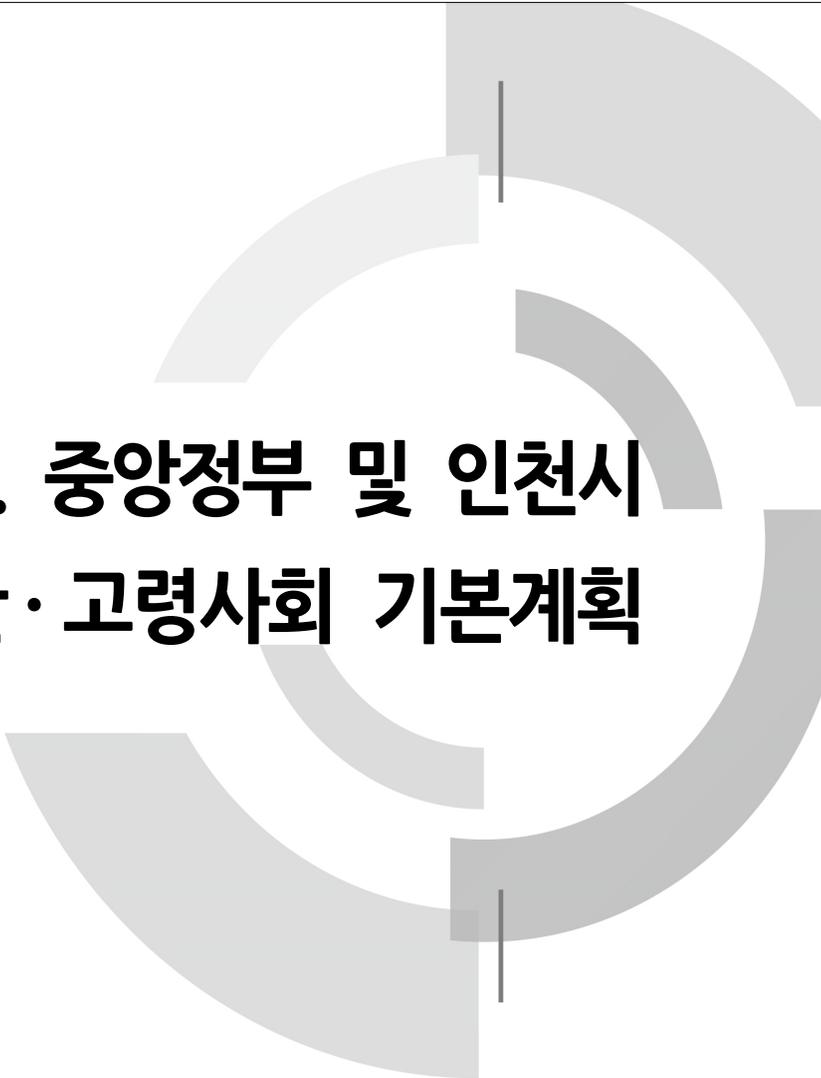
단계	추진 내용	추진 방법
↓	↓	↓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내용 및 방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 연구 진행사항 검토 및 공유를 위한 보고회 실시(최종) 자문결과 반영 검토 및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자문의견 수렴 : 전문가, 공무원, 노인정책자문위원 등 제3차 ICAS 포럼 개최(시민, 관련 유관기관 등) 회의 : 연구진 및 인천시 관련 부서 등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보고회 연구심의평가 실시 보고서 발간 및 배포

2) 계획 수립의 추진 체계

- 연구총괄 : (재)인천여성가족재단 ·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시니어연구팀
- 협조지원 : 인천시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 공무원
인천시 군구 자체 내부 자료 제공 및 의견 수렴
- 연구자문 : 연구의 타당성, 객관성 및 질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중간·최종보고회, 연구심의 평가

4. 계획 수립의 기대효과

-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방향성 제시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
-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 정책 개발 및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 시 근거 자료로 활용



II. 중앙정부 및 인천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 ~ 2020)
2. 인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2018 ~ 2022)
3. 소결

II. 중앙정부 및 인천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본 장은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 중 고령사회와 관련한 분야만을 한정하여 기술함

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 ~ 2020)

1) 정부차원의 고령사회 기본계획

(1)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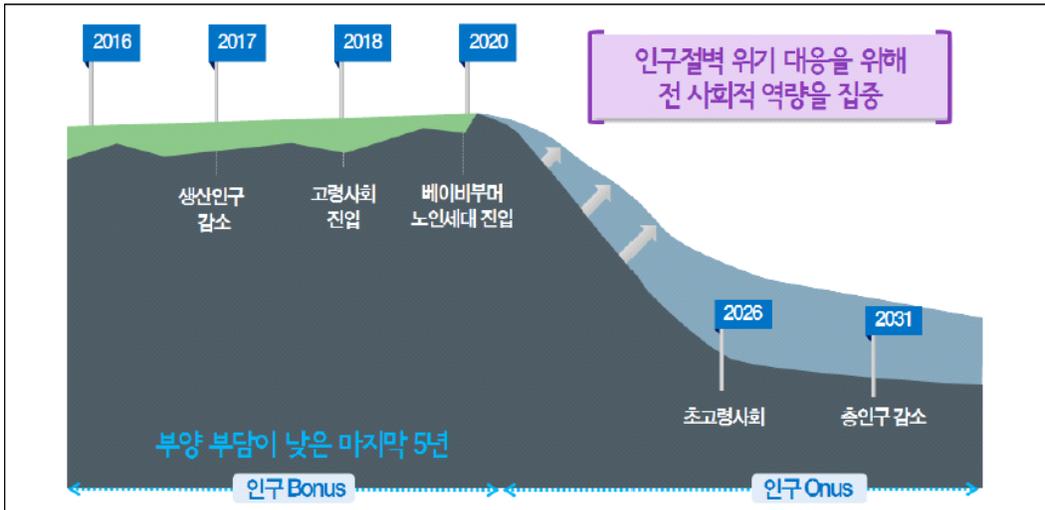
- 지난 10년간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사이의 격차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발전전략’이라는 근본적 문제의식의 강화가 필요하며, 그간 고령사회 대책이 고령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위주로 추진되고, 사회·경제 체질 개선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라, 인구정책의 특성상 적어도 한 세대를 바라보는 장기적 정책적 시야의 확대가 중요하게 부각됨
- 생산연령(15 ~ 64세) 인구 감소, 고령사회 진입 등 그간 풍부한 인적자원을 통해 성장을 이뤘던 인구 보너스(population bonus)¹⁾ 시기가 끝나고, 인구가 국가 성장에 부담이 되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²⁾ 시기로 이행됨에 따라, 제3차 기본계획은 인구절벽 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향후 5년을 저출산 극복의 전기로 만들기 위한 전 사회적 역량 동원에 초점을 둠
 - 총 인구의 32.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세대(1955 ~ 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노년층 진입을 시작하는 2020년부터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생산연령 인구는 2016년을 정점(3,074만 명)으로 감소하고, 2031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될 것으로 예측함

1) 총 인구 중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비중이 높고, 고령인구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출산율이 저하되더라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아 노동력이 증가하고 이것이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개념(자료: Daum 백과사전).

2) 총 인구 중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이 감소하여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자료: Daum 백과사전).

- 따라서 정부의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소하는 인구정책에 무게 중심이 다소 실리게 되면서 저출산 정책에 보다 집중하는 양상을 보임

[그림 II-1] 제3차 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배경(인구절벽 전망)



자료: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8.

(2) 기본방향

- 제3차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은 소득·건강보장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수준 제고에 중점을 두고 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산업 등 구조 개편에 주력하는 것으로 설정됨
- 제1·2차 기본계획에서는 기초연금과 장기요양 등 노후 기반을 마련하고 노인복지대책을 위주로 지원하였다면, 제3차 계획에서는 국민연금·주택연금을 확대하여 노후대비를 강화하고, 생산인구 확충과 실버경제 등 구조적인 대응을 마련함
 - 즉 소득과 건강 등 고령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대책의 경우 제도적 틀 구축 단계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분야 간 정책 연계 등을 통해 성숙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함
 - 특히 고령사회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실버경제, 신성장 동력 육성 등 산업 및 경제적 체질 개선을 위한 전 방위적 대책을 추진함

〈표 II-1〉 제3차 고령사회대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

고령 사회	기초연금·장기요양 등 노후 기반 마련	➔	국민·주택연금 확대 등 노후대비 강화
	노인복지대책 위주	➔	생산인구 확충, 실버경제 등 구조적 대응

자료 :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37.

- 고령사회기본계획의 목표는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 조성으로 대표적인 성과지표로 노인빈곤율(2014년 49.6%, 전체 노인 수 대비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 수)을 2020년까지 39%로 완화하는 것으로 설정함
- 추진전략으로는 고령자의 삶의 질(복지)과 관련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고용시스템과 관련된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산업·경제시스템과 관련된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을 제시함

〈표 II-2〉 제3차 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노후소득보장 강화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각지대 해소 • 자산 유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돌봄 부담 경감 • 안전한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시스템 개선 • 다문화 대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버시장 대응 •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구축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연금 강화 • 주택·농지연금 대폭 확산 • 개인·퇴직연금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건강생활 보장 • 고령자 문화·여가·사회참여 확대 •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고용 활성화 • 고령자 고용기반 확대 • 사회통합적 외국인력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친화산업의 신성장 동력 육성 • 인구다운사이징 대비체계 강화 •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제고

자료 :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107.

(3) 추진 사항과 대응 변화³⁾

○ 노후 소득보장 강화

① 공적연금 강화

- 여성, 근로빈곤층 등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1인 1국민연금체계 구축
: 사회보험 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무소득배우자 등 경력단절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완료 (2017. 10. 24 개정, 2018. 1. 25 시행)
- 기초연금, 특수직업연금 등 공적연금 내실화
: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를 도입(2016년 1월)하여 제도 변경 사실을 몰라 혜택을 못 받거나 과거 탈락 경험으로 조기에 수급을 포기한 어르신 등을 발굴하여 사각지대 해소

② 주택·농지연금 대폭 확산

-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 마케팅 홍보 강화를 통한 대상 대폭 확대
: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기존 ‘주택 소유자 60세 이상’에서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으로 완화
- 농지연금 이자율 개선 등을 통한 확산 추진

③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 퇴직연금 정착 기반 구축
- IRP(개인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④ 노후준비 여건 확충

- 장수리스크 대비 금융시스템 개선
- 노후준비 지원 인프라 확충

○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① 고령자 건강생활 보장

- 만성질환, 낙상·약화(藥禍)사고, 정신건강 등 질병예방·관리 강화
-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 및 노인의료전달체계 내실화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2014년),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2016년)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이소영·강은나·백혜연 외(2018), 이소영·백혜연·변수정 외(2018))를 요약 참조함.

- 치매, 장기요양, 포괄간호·간병 서비스, 호스피스 활성화 등 의료·돌봄 부담 경감
: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보건소에 설치·운영 시작,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확대

②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

- 고령자 문화·여가 기회 확대 : 고령자(60대 이상) 대상 문화누리카드 발급, 노인복지관에 전문예술강사 파견, 교육지원금 지원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고령자 자원봉사 지원체계 강화, 고령자 공익활동 내실화
: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 참여자 활동비를 월 22만원(2017년)으로 인상 반영, 추경을 통해 일자리 추가 확대(30,000개) 및 활동비 월 27만원으로 인상(2017. 8월부터 적용)으로 소득보충에 기여
- 세대 간 이해 증진 기회 확대, 효행장려 풍토 조성 및 확산
: 체험형 밥상머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③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확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여건 강화
- 노인 학대 예방, 시설 안전, 독거노인 돌봄 등 안심생활 지원 확대
-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추진, 고령 운전자 면허관리 강화,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구역 지속 확대 및 안전 보행환경 조성

○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① 여성 고용 활성화

- 전환형 시간 선택제 등 근로형태 다양화 및 유연근무 확산
- 고학력자 등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강화
- 근로현장의 양성평등 제고

② 중·고령자 근로기반 강화

- 60세 정년 안착 등 동일 직장 계속 고용 활성화
: 정년 60세 의무화 제도 취지에 맞춰 임금·근로시간피크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원금 지급(2016. 1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정년 60세 의무화 제도 취지에 맞춰 임금피크제 지원금 및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 정년 후에도 은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이모작 고용체계 확립

③ 사회통합적 외국인력 활용

- 이공계 등 국내 전문 인력이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

-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미래 노동력 부족 심화에 대비한 총체적 외국인 관리체계 구축
-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 ① 고령친화산업의 신성장 동력 육성
 -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⁴⁾ 등 수요자 중심의 실버경제 생태계 조성
 - : 유아, 고령자 등을 배려한 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과제 지원 확대
 - 고령친화 R&D 종합지원체계 구축
 - ② 인구다운사이징 대비 강화
 - 국방, 교육, 지역사회(농촌) 등 분야별 인구다운사이징 대책 마련
 - ③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위험 관리 강화
 - 국가 재정 개혁 노력 강화

2) 고령사회 분야 정책 로드맵 :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노후

- 2018년 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의 패러다임을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함
- 예산 지출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기존 제3차 기본계획의 과제를 재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집중 추진할 핵심과제 발굴,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사회시스템 개편 등 3차 기본계획 시행시기를 상회하는 중장기 핵심과제의 경우 4차 기본계획(2021 ~ 2026)과 연계함

[그림 II-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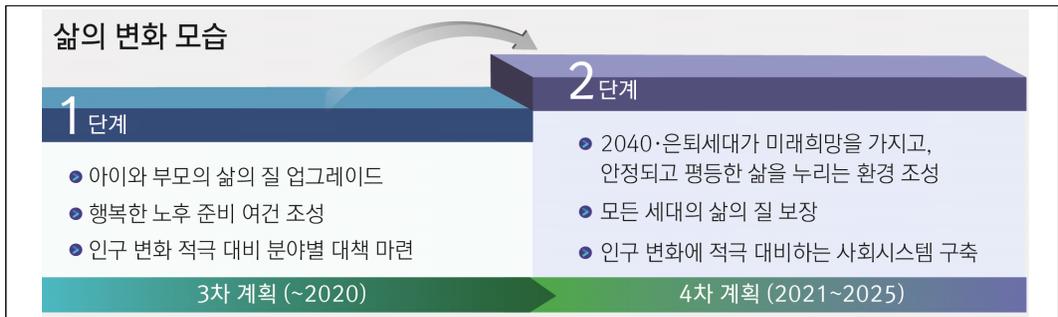
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	------------------------

4)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 분야, ‘보편적 디자인’ 혹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라고도 함. 초창기에는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이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디자인 개발에 초점이 두었으나, 차츰 연령과 성별, 국적(언어), 장애의 유무 등의 차이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구현하는 디자인으로 의미가 확대됨(자료: Daum 백과사전).

목표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
----	-----------------------------

추진 영역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비 용 시 간 돌 봄 문 화 기 반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촉촉하고 안전한 돌봄 체계 구축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일·주거·교육)조성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소 득 준 비 참 여 건 강 마 무 리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新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인구변화 적극 대비	사회시스템 지역	인구구조 변화 대응 핵심 분야 대책 마련 지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인구 대응 사업 활성화

추진 체계	거버넌스	민간, 지역, 정부 협력체계 강화
	서비스/재정	공공서비스 안정적 제공과 국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자료: 대한민국정부(2018).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p.3.

(1) 추진배경

- 우리나라 노인들은 은퇴와 나이 들에 따라 소득 감소, 건강 악화, 준비되지 않은 마무리 등으로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는 양상을 보임

- 높은 노인빈곤율, 공적연금 사각지대와 낮은 소득대체율⁵⁾,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간 괴리 등으로 은퇴 후 소득 공백, 비자발적 노동시장 잔류 등의 문제점이 야기됨
- 전체 인구의 1/4을 차지하는 신중년층(5060세대)의 다양한 사회적 욕구에 맞춘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 60세 이상 인구(2017년 1,053만 명) 중 344만 명이 활동 능력이 있으면서 근로나 봉사활동을 희망하나 노인일자리 공급은 2017년 기준 43.7만 명에 불과함
- 고령노인, 독거노인, 치매노인 돌봄 등 노인돌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예방적 건강관리 필요성 제기
- 호스피스, 웰다잉(well dying)등 각종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실효성 저하, 아름다운 마무리 준비 지원 필요

(2) 기본방향

- 부풀려진 예산은 바로잡고 정책 목표와 관련이 낮은 과제는 기본계획에서 제외한 뒤 효과성 높은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제3차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함
- 역량집중과제는 위원회 차원에서 집중 관리하고 부처 자율과제는 부처 차원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 고령사회 분야 과제 총 97개 중에서 17개의 과제(예산 157,184억 원)가 역량집중과제로 선정됨. 대표적으로 기초연금 내실화, 고령자 사회활동 지원 사업, 장기요양보험 제도 고도화 등이 있음

〈표 II-3〉 고령사회 정책 과제 재구조화 결과표

(단위: 건, 억원)

역량집중 과제		계획관리 과제		부처자율 과제		계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17	157,184	31	6,033	49	4,888	97	168,105

자료: 대한민국정부(2018).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p.5.

5) 직장근로자의 재직 기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퇴직 후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표 II-4〉 고령사회 주요 역량 집중과제

(단위: 억원)

번호	과 제 명	예산
1	기초연금 내실화	118,423
2	고령자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공익활동 내실화	10,471
3	장기요양보험제도 고도화	8,058
4	1인 1국민연금 확립	7,927
5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실버주택, 집주인임대주택, 전세임대	5,123
6	치매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3,084
7	중·고령자 취업지원 활성화: 노인 일자리 창출 확대, 중장년	2,376
8	노인안심생활지원	1,632
9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45
10	노후준비 지원 확대 (노후준비 인프라 확충)	20
기타	퇴직·개인연금 확산·정착,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등	25
합 계		157,184

자료: 대한민국정부(2018).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p.7.

주: 예산 순으로 정렬.

(3) 추진 사항과 대응 변화

○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역할 강화 및 사적연금 실효성 제고

- 기초연금: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액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계적 일원화 및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확대를 위해 ‘퇴직연금기금제도’ 추진
- 주택연금 총액의 일시인출한도 확대 및 실거주 요건 완화

②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

- 부양의무자 가구에 저소득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생계급여 지원

○ 인생3모작 기반 구축을 통한 신중년 일자리 기회 확대

①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 실행

- 소득 격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된 일자리에서의 점진적 퇴직과 재취업 준비 지원(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 정년 이후 연금 수급 연령까지 고용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사업주 노력 의무를 부과하도록 고령자고용법 개정
 - 연령차별 진정 시 현재는 인권위에서만 구제 신청이 가능하나, 노동위원회에도 구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고령자고용법 개선 추진
- ② 근로자 대상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과 재취업 촉진
- 생애경로에 따른 맞춤형서비스를 확충하여 미래를 설계·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 신중년 적합 직무를 지정하고, 해당 직무에 신중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 지원
 - 폴리텍 신중년 특화캠퍼스(기술기능직) 및 신중년 사관학교(사무관리직) 확대를 통해 신중년의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

<표 II-5> 신중년 전직지원체계 개편 방안

서비스 내용	➔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처럼 40대 이후 경력 전환기 프로그램으로 생애경력 설계서비스 확대 → 업종·직종별 프로그램 다양화(2019년)
제도정비	➔	전직 희망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가가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대기업의 퇴직예정자에 대한 기업의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의무화
전달체계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개편 → 전직지원 서비스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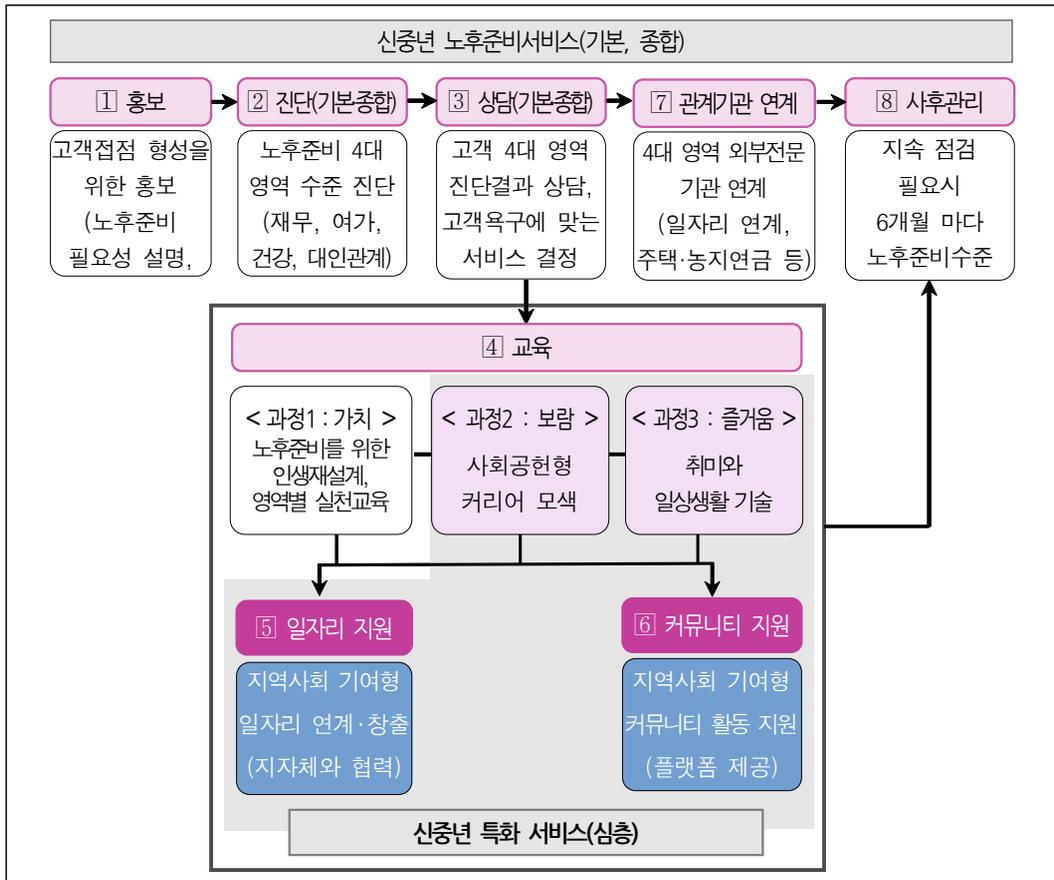
자료: 대한민국정부(2018).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p.33.

③ 퇴직자에 대한 일자리 기회 확대

-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역할 강화와 소득 보전에 기여
 - 지역 수요를 감안하여 퇴직자가 지역아동센터·사회적 기업 등에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 확대
 - 농업경영체 전문 인력 채용지원, 창업 교육을 위한 귀어학교 확대 등 귀농·귀어 지원 강화 및 산림분야 공공일자리 창출
-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는 ‘신중년 새출발 지원 인프라’ 확충

- ‘상담·교육·일자리 지원·커뮤니티 지원·관계 기관 연계·사후 관리’를 종합 제공하는 ‘신중년 새출발 서비스’ 제공 모델 마련
- 노후준비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 범위를 기존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하여 지역사회 밀착형 노후준비 전달 체계 구축

[그림 II-3] 신중년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프로세스(안)



자료: 대한민국정부(2018).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p.34.

○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① 노인일자리 80만개 창출·지원을 통해 초과수요 완화

- 사회적 수요가 있는 분야 혹은 노인들의 자발적인 사회참여 저변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 기존 공익활동 유형 중 사회적 수요·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특성화하여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로 재편

- 재능을 보유한 노인의 성취감 고취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안전예방, 문화예술 상담 안내, 학습지도 등의 봉사 프로그램 지원
 - 노인들의 민간분야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노인들이 생산하는 우수 제품 판로 확장, 컨설팅 지원을 통한 자립 도모
- ② 지자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확대 및 상담·취업·사후 관리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 강화
- 노인일자리 참여기관 다변화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 협동조합·마을기업 등)과 연계하여 수익성 있는 신규 사업영역 발굴
 - 노인일자리 취업지원기관 내 시니어취업컨설턴트를 확대·배치하여 참여 노인 대상 상담·취업 연계·사후 관리 서비스 강화
-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 : 의료 건강관리
- ① 건강보험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보장
- 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 등으로 의료비 경감 지속 추진
 -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내실화, 치매안심병원 지정·운영 등 인프라 확충 추진
- ② 건강노화(healthy ageing)를 위한 예방적 관리 강화
- 동네의원 중심으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
 -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통해 고령자 대상 맞춤형 체육 및 건강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어르신 집으로 찾아가 생활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주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충 및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확대
-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돌봄·요양】
- ①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추진으로 재가 기반 서비스 강화
- 퇴원 후 지역 복귀 지원을 위해 병원에 ‘지역연계실’을 설치하고,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시군구 단위 ‘종합재가센터’ 도입
 -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고 재가수급자 사례관리 제공, 재가서비스 및 복지용구 품목 확대 등 노인의 재가생활 지원
- ② 돌봄의 예방적 기능 강화
- 장기요양 진입 예방을 위해 노인 돌봄 기본·종합, 재가노인 지원 등 유사한, 분절적인 노인 돌봄 관련 서비스 통합

③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간호서비스가 강화된 전문요양실을 도입함으로써 요양 서비스의 질 제고
- 장기요양기관 지정 요건 강화, 평가의 객관성 제고, 재무·회계규칙 도입 안착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장기요양 인프라 구축

④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연계

- 읍면동 케어 안내 창구, 민·관이 참여하는 시군구 단위 ‘지역케어회의’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 중·장기적으로 보건·복지 등 영역별 서비스와 민·관 복지 자원을 대상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 【주거·환경】

①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 무장애시설(barrier-free) 주택을 의료·돌봄 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등 케어안심주택 지속 공급
- 이주가 어려운 노인 가구는 건강 상태,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존 주택에 대한 맞춤형 개보수 지원 단계적 강화
- 고령자 특성과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하여 노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모델 개발·공급 및 민간의 노인주택 개발·공급 지원

②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지역사회 물리적 여건 조성

-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보행로, 광장 등의 도시환경에 유니버설 디자인(UD) 적용 확대 및 기(既) 운영 중인 BF(Barrier-free) 인증제 활성화 방안 모색
-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안전시설 확충, 고령자 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5년 → 3년) 등 신체적 기능저하에 맞춰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공공버스·택시·저상버스 등 다양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동성 보장

○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 전문기관 및 인력 양성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2018. 2. 4. 시행) 도입으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확대, 제도 운영 기반 마련, 홍보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
- 웰다잉과 관련된 장기기증, 유산 기부, 장례, 자서전 등 생애 말기 설계 지원 제도화 방안 검토

②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 빈곤계층이 밀집된 지역 중심으로 민관협력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적극적 사전 예방 추진
- 자살예방 게이트 키퍼(gatekeeper) 100만 명 양성, 노인 대상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
- 초기 독거노인 지원 시범사업 시행(2019년)과 함께 사별 등으로 인한 초기 독거노인 및 은둔형 독거노인의 고독사, 자살 위험 및 우울증 예방·경감을 위한 지역사회 관계형성 지원
- 자살 시도자 응급실 사례관리 강화, 자살유가족 지원체계 강화로 자살 확산 예방

2. 인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2018-2022)⁶⁾

1) 인천시의 고령사회 기본계획

(1)추진배경

- 현재 인천시의 고령화 정도는 타 시·도보다 양호하지만 2017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자료에 의하면 노인 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7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고령사회 대응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현상이 서로 맞닿아 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괄하여 인천시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함
 - 독거노인의 취약성을 고려한 노후 소득 보완 대책 마련
 - 노인 비중이 높은 지역차이를 고려한 사업 마련
 - 노인이 이용할만한 저렴한 공공의료서비스 및 인프라 확대
 - 노후준비가 부족한 현재의 노인세대를 위한 즉각적인 소득 보장 방안
 - 미래 노인세대를 위한 소득 설계, 퇴직자금 관리 등의 지역사회 차원의 교육
 - 건강한 노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의 개발과 이를 통한 소득 창출 방안 마련
 - 수요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급 및 노인 동년배 강사의 활용

6) 인천광역시·육아정책연구소(2017).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2018~2022)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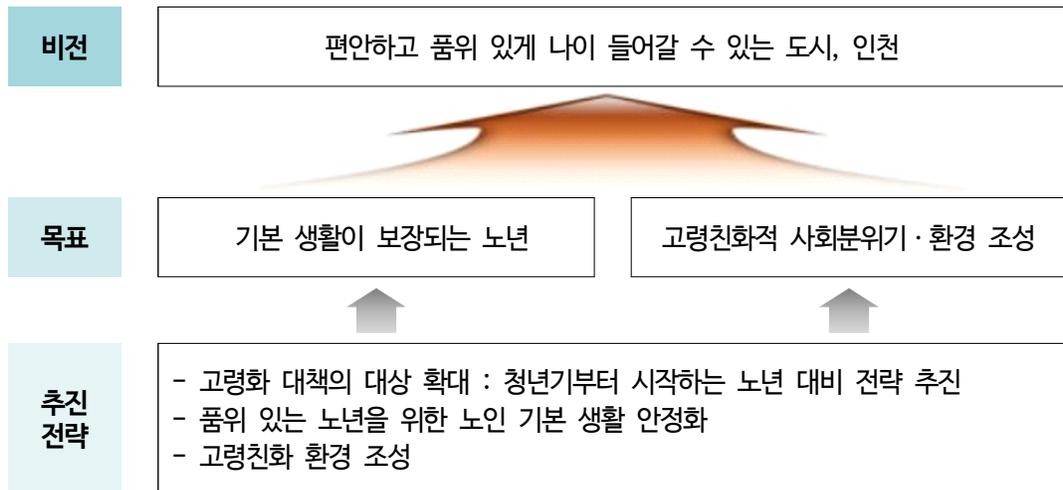
- 대표 사업 선정에 따른 집중 지원

- 본 고에서 수립하는 계획은 기초적인 수요 결과를 기반으로 제1차 고령화 분야 대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 정책 과제와 세부사업의 추진 내용이 제안됨

2) 기본방향

- 비전: 편안하고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도시, 인천
- 목표: 나이 들이 불안하지 않은 노인의 기본 생활 보장과 가족과 지역사회가 노인 돌봄을 분담하고 노인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고령친화적 사회분위기·환경 조성
- 추진전략: 품위 있는 노년을 위한 기본생활 안정화, 고령친화환경조성, 고령화 대책의 대상을 은퇴자나 노인에 한정하지 않고 청년 및 중장년까지 확대하여 초고령사회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지역적 자원의 전략 추진

[그림 II-4] 인천시 제1차 고령화 대책의 목표 및 전략



자료: 인천광역시·육아정책연구소(2017).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2018~2022) 수립 연구 용역 보고서, p.168.

3) 추진사항

- 제1차 인천시 고령화 대책 분야의 정책 과제

- 1) 노후소득 보장 강화
- 2) 노인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강화
- 3)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활동 지원
- 4) 노인부양·돌봄·일상생활 지원의 지역사회 역할 강화(독거노인, 노인 부양가족 지원)
- 5) 고령친화 환경 조성으로 제시됨

〈표 II-6〉 인천시 제1차 고령화 대책의 정책과제

비전	정책목표	정책과제	세부과제
편안하고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도시, 인천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노년	1. 노후소득 보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자 인생이모작 컨설팅 및 사회활동 연계 서비스 • 인천시민과 함께 알아가는 노후소득 설계
		2. 노인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종합 건강관리 코디네이터
	고령친화적 사회분위기 환경조성	3.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자 인생이모작 컨설팅 및 사회 활동 연계 서비스 • 고령자 종합 건강관리 코디네이터 • 독거노인세대 생활지원 서비스
		4. 노인부양·돌봄·일상생활 지원의 지역사회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가구 임대주택 사업 • 고령자 가구 임대주택 정기 방문서비스 • 노인 환자 부양 가구 주거시설 개조 지원 • 독거노인세대 생활지원 서비스

자료: 인천광역시·육아정책연구소(2017).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2018~2022) 수립 연구 용역 보고서, p.185.

○ 신규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

- ① 은퇴자 인생이모작 컨설팅 및 사회활동 연계 서비스
 - 은퇴자의 경험과 신체적·정신적 기능 수준에 적합한 ‘인천시 은퇴자 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은퇴자 종합 생활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은퇴자의 건강한 사회활동 유도 및 소득 보완
- ② 인천시민과 함께 알아가는 노후소득 설계
 - 청년 및 중·장년기부터 노후생활에 대해 인식하고 짜임새 있는 노후소득 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초년생, 중장년층, 노년층 대상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③ 고령자 종합 건강관리 코디네이터 운영

- 노인건강진단 사업 대상자인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외 저소득 노인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포괄하여 건강관리에 취약한 저소득 노인층이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 ④ 독거노인가구 맞춤형 실버임대주택 사업 및 정기 생활지원 방문 서비스
 - 구도심 지역의 노후화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재개발 및 리모델링으로 독거노인의 안전과 생활 편의성을 강화한 형태의 임대주택 단지를 개발하여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제고
- ⑤ 노인 환자 부양 가구 특화 주거시설 개조 지원 사업
 - 노인 친화적 주거시설의 개조 및 비용 지원을 통해 노인 부양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 ⑥ 독거노인세대 생활지원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저소득, 80세 이상 우선)을 대상으로 병원 방문 보호자 서비스, 생활쓰레기 배출 서비스 등 생활지원을 돕는 지원 인력으로 초·중기 건강한 노인 인력을 활용함
- 장기 추진 과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사업】
 - 초고령 사회 진입을 대비하여 고령친화적 관점에서 인천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함
 - 인천시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추진을 통해 인천시 노인정책 및 사업의 도약과 이미지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
 - 고령친화도시 조성 전담 업무 팀 설치,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8대 분야 관련 실태 점검, 지역 ‘고령친화 체감도’ 및 복지 욕구 조사 등을 통해 우선 추진 사업과 지역을 선정하고 고령친화도시를 시범적으로 추진함
- 고령화 분야 대책 추진체계 및 기반조성
 - 고령화 대책 총괄 기획 및 성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전담 부서(노인정책과)에 인력 충원 및 예산 확대
 - 고령화 대응정책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 고령화 대책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고령사회 대책 기금 조성
 - 지역 고령자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정기 조사 실시
 - 고령화 대책 홍보 전담기구 마련을 통해 홍보 강화 및 체계화

3. 소결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고령화 대책 분야의 논지

- 전례 없이 다가온 인구구조의 변화로 전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인식되면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4년 2월)’가 구성되었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출범함. 2006년에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이 수립되었고, 2010년에는 2차, 2015년에는 3차 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어 진행되어 옴. 이처럼 정부의 기본계획은 매년 시행 성과 평가와 인구변동 현황을 반영하여 정책지표 개선을 위해 평가와 환류를 거치도록 구성되어 있음
- 본 고에서는 고령화 대책 분야로 한정하여 제1차~3차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제1차 기본계획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고, 연속성을 가지고 제2차 기본계획은 정책 대상을 베이비붐 세대와 중산층 이상의 노인으로 삼아 고령자의 삶의 질과 제도를 공고히 하는 방향을 설정함.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제3차 기본계획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대응을 위해 정책 대상을 확대해 중장년층이 포함되었고, 고령자의 삶의 질(복지)과 더불어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으로 생산인구 확충과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통해 고령사회 이행을 위한 구조적인 대응책을 마련함
- 그러나 전체적인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1차와 제2차 기본계획은 가장 우선한 것으로 ‘노후의 소득 보장’ 측면과 ‘활기찬 노년기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공적연금 가입이 어려운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제도(2008년)가 도입되었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지속되어 공공성을 어느 정도 강화했다는 점이 성과로 보임. 또한 개인연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등의 다양성이 확대 되었고, 건강과 관련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2008년)’가 도입되어 지속적으로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노인 돌봄에 대한 공적 기능이 부족한 일면이 있음. 노인성 질병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예방적 관리 기반은 증가하는 고령인구 속도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인 측면이 있음
- 모든 과정에 성과와 한계가 공존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일 수 있음. 지난 10년간 고령사회 대책이 현상 대처 수준에서 개별적 접근으로 이루어져 정책 간 연계 없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재정 투입 규모 대비 정책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

받고 있음(김종훈, 2018; 오민홍, 2017; 최혜지, 2016)

- 이와 같은 평가에 대한 준비로 2016년 제3차 기본계획에 대한 보완 대책이 발표되었고, 2017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확대 재출범, 그리고 2018년 12월 말 정책 로드맵이 발표됨. 제4차 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방향성을 제시한 점을 참고해 인천시의 중장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방향성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획함
- 그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시 점검해 봐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본다면, 노인으로 지칭되는 65세 이상의 인구 집단은 더 이상 소수가 아닌 보편적인 사회구성원의 집단으로 변화됨. 이제는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를 바라보며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며,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노인세대에게 특화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나, 이는 또 다른 세대와 통합되고, 각 생애주기적인 단계에서 제시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함
- 따라서 중앙정부의 방향성에 맞춰 인천시에서 계획하는 고령사회 대응의 방향성의 맥락이 이질적 이어서는 안되며, 다만 지역적 특성과 정책 환경에 맞춰 세부적인 사항은 덧붙여 질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중앙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2018년 12월에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과 인천시의 제1차 기본계획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즉 정부는 국가 중심적인 출산장려의 관점에서 누구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함. 또한 기본계획이 적용되는 한시적인 시간 개념에서도 벗어나 다음 4차 기본계획과도 연계되는 장기적인 관점을 고려하고 있음
 - 그에 반해, 인천시의 경우 2017년 처음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기는 했으나, 저출산과 고령사회 각각의 비전을 분리하여 제시함. 이는 전반적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어떠한 목적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관점을 담는데 한계가 있음
 - 정부의 정책 대상자 중심에서 포괄적 인구정책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변화는 더욱 다양한 정책과 사회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그러나 지자체 특성 및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분야에 관련한 계획 수립을 위해 정책의 기본방향 수립을 제안함

- 향후 인천시의 2차 기본계획 수립은 반드시 인구정책에 대한 장기적 시각과 사회구성원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정책계획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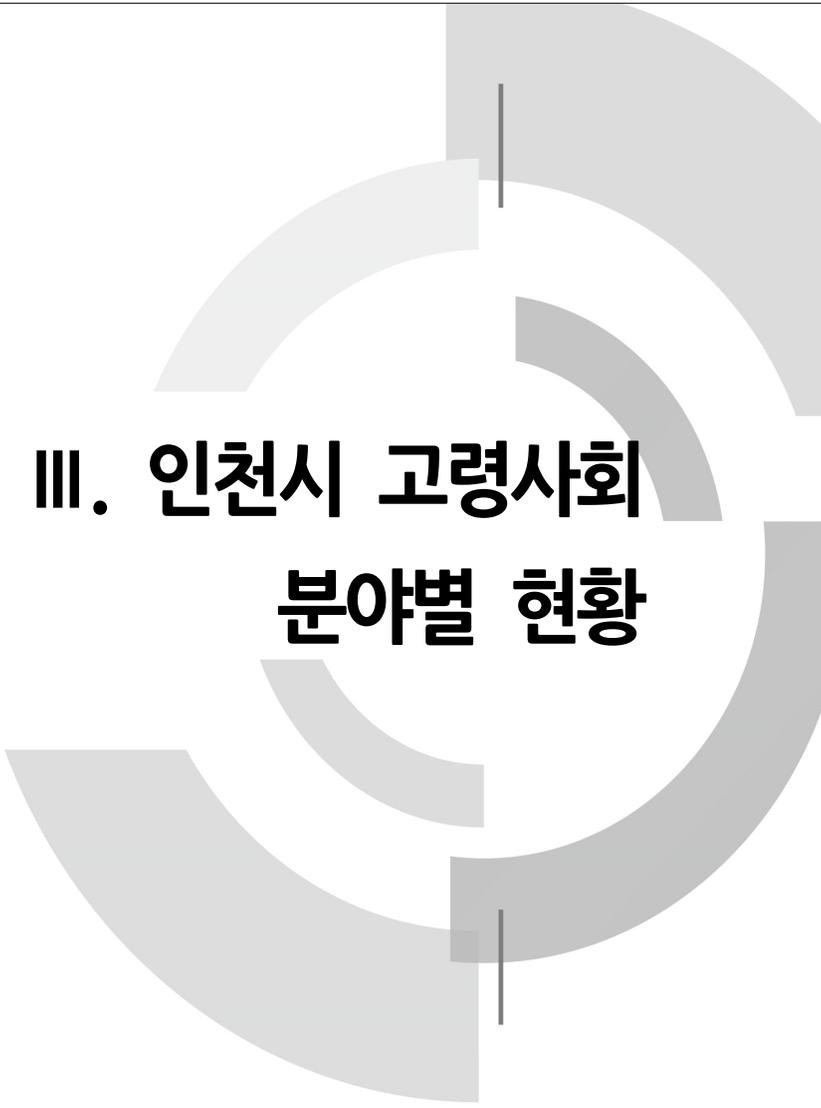
3) 인천시 고령사회 분야 중장기 계획 수립의 긍정적 평가

- 전 세계적인 인구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 상황은 특정 국가, 지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화두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
- 이에, 인천시는 고령사회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기 이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 내 전문기관(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을 설립해 긍정적인 모형을 제시해 나가고 있음
- 향후 인천시는 정부가 경험한 시행착오를 면밀히 검토해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 계획 수립에 참고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성의 결을 살핌과 동시에 지역적 특성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적합한 정책계획 수립을 추진해 나가야 함
- 기존 1차 기본계획에서 시사된 내용을 재정리해 보면, 첫 번째, 노후 소득보완 대책 마련이 제시됨. 즉 독거노인을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의 필요성이 제기 됨. 두 번째로는 지역별 노인인구 분포의 격차가 커 인천시 군구 특성에 따른 사업 계획의 필요성이 언급됨.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군구별 추진 사업, 인프라 등의 현황을 조사하여 정리되어 있으므로 비교 및 보완점에 대한 점검이 가능할 수 있음. 세 번째는 노인의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저렴한 공공의료 기관 및 인프라 확대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언급함. 네 번째는 노년기 준비를 위한 소득설계, 퇴직자금 관리 등과 같은 소득보장 방안 관련 교육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함. 다섯 번째는 노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개발과 소득 창출, 여섯 번째, 노년의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과 일곱 번째, 인천시 전역에서 추진해야 할 대표 사업의 선정과 집중 지원을 통해 유지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 전략의 필요성이 제안됨
- 2017년 인천시의 기초적인 기본계획의 방향과 정부의 기본계획 방향의 연계점을 찾아 중장기적 계획 수립의 키워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정부와 인천시의 기본계획 모두 노년기 노후생활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해 낼 수 있기 위해 소득보장에 대한 키워드는 중장기 계획에서도 주요한 개념으로 삼아 동일하게 유지함
 - 길어진 노년기에 대한 준비는 노인이 되기 이전부터 준비되어야 할 과업의 하나로 베이비붐

- 세대를 비롯한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 지원이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영역으로 분류해냄.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가 역할을 수행하며, 그 밖의 유사한 군구의 평생교육기관 등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감
- 소득과 마찬가지로 사회참여 역시 공통된 키워드로 유지하여, 홀로 쓸쓸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어울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세 번째 키워드로 선택함
 - 다음은 정부의 방향에 따라 인천시 기본계획에서도 건강을 포함해 의료의 개념이 담겨져 있음. 그러나 최근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와 같은 논의가 고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예방과 관리적 측면에서의 건강을 포함하는 돌봄으로 방향을 설정함
 - 저출산과 고령사회는 연령의 구분 없이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지속 가능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삶의 마무리를 성숙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 위해 정책 로드맵에서 제시되었고, 이는 4차 기본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인천시의 중장기 계획에서도 이와 같은 주제를 계획에 반영하여 생애 끝이 존엄하고 준비될 수 있는 계획 단계의 과업으로 인식 전환이 될 수 있기 위해 키워드로 담음
 - 마지막으로 인천시가 담아야 할 전반적인 도시의 방향은 연령이 통합되고, 고령인구가 도시에서 불편함 없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취지를 둠

〈표 II-7〉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 추진영역 키워드(2019 ~ 2023)

구분	추진영역	인천시 중장기 계획 추진영역 키워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 ~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소득보장 • 건강보장 • 사회참여지원 • 고령친화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소득 • 노후준비 • 사회활동 참여 • 돌봄 • 생애마무리 • 고령친화환경 조성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201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준비 • 참여 • 건강 • 마무리 	
2017년 인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 (2018~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소득보장 • 노인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 사회활동 • 지역사회 역할 강화 • 고령친화 환경 조성 	



Ⅲ. 인천시 고령사회 분야별 현황

1. 인구 분야
2. 인천시 노인의 가계생활 구조 분야
3. 소득 분야
4. 노후준비 분야
5. 사회활동 참여 분야
6. 돌봄 분야
7. 생애마무리 분야
8. 소결

Ⅲ. 인천시 고령사회 분야별 현황

1. 인구 분야

1) 인천시 인구 현황과 변화 추이

- 인천시의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추이를 살펴 초고령사회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통계 기초 자료를 살펴봄
- 본 절에서는 전국 및 7대 특·광역시, 인천시 10개 군구의 인구구조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2019)의 「주민등록인구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인가와 7개 특·광역시 인구를 0~14세(유소년층), 15~64세(생산연령층), 65세 이상(고령층)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표 Ⅲ-1〉 전국 및 7대 특·광역시 인구 구성

(단위: 명, %)

구분	전국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고령층 65세 이상	7,650,408 (14.8)	1,410,297 (14.4)	589,961 (17.1)	362,934 (14.7)	362,675 (12.3)	187,186 (12.8)	188,530 (12.7)	123,919 (10.7)
생산연령층 15~64세	37,547,041 (72.4)	7,284,592 (74.6)	2,469,564 (71.8)	1,794,519 (72.9)	2,207,048 (74.7)	1,065,029 (73.0)	1,100,703 (73.9)	868,248 (75.1)
유소년층 0~14세	6,628,610 (12.8)	1,070,734 (11.0)	381,928 (11.1)	304,316 (12.4)	384,919 (13.0)	207,121 (14.2)	200,703 (13.5)	163,456 (14.1)

자료: 통계청(2019).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재구성. / 2018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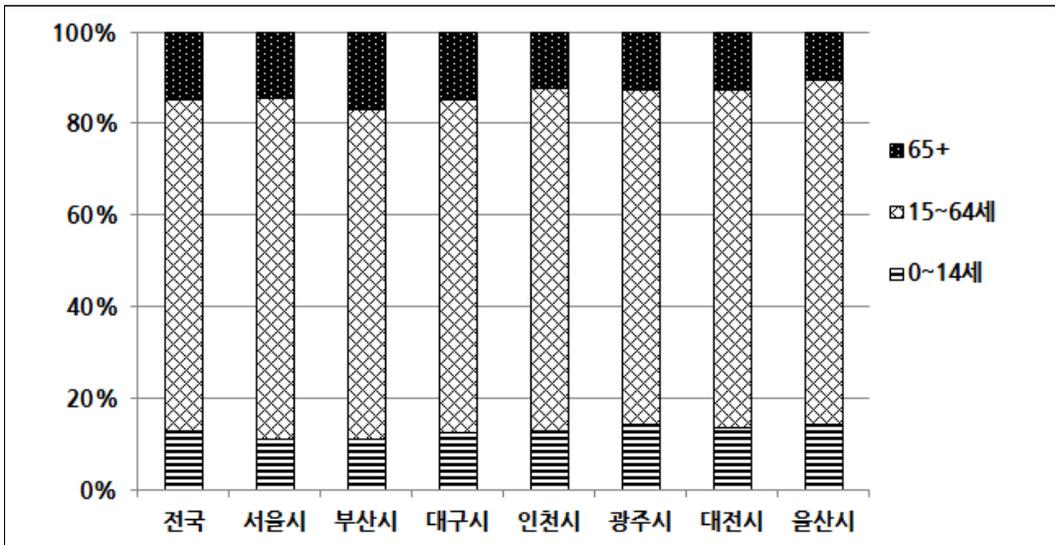
- 〈표 Ⅲ-1〉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유소년층(0~14세)의 경우 인천시 전체 인구의 13.0%로 전국 12.8%보다는 다소 높으며, 7대 특·광역시에서는 광주시(14.2%), 울

산시(14.1%), 대전시(13.5%)에 이어 네 번째 순으로 나타남

- 생산연령층(15 ~ 64세)은 인천시 전체 인구의 74.7%로, 전국 72.4%보다 높게 나타났고, 7대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울산시(75.1%)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생산연령층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생산연령층의 연령구간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연령 구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고령층(65세 이상)은 인천시 전체 인구의 12.3%로 전국 14.8%보다 낮으며, 7대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울산시(10.7%)에 이어 하위 두 번째임
 - 2018년 12월 기준으로 인천시 고령층 비율 12.3%에 달하므로 인천시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구분됨. <표 Ⅲ-1>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Ⅲ-1]과 같음

[그림 Ⅲ-1] 전국 및 7대 특·광역시 인구 구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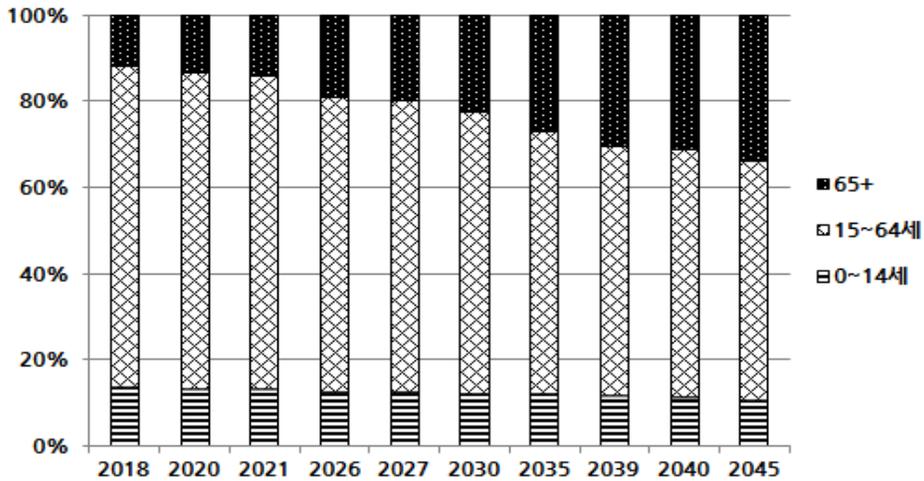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9).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재구성. / 2018년 12월 기준.

- 2018년 12월 기준으로 볼 때, 인천시의 고령인구 비율은 타시도에 비해 높지 않지만 향후 인구 변화 추세를 통해 단계적인 계획과 재정 계획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준비될 필요가 있음

〈표 Ⅲ-2〉 인천시 인구 구성비 변화(2018 ~ 2045년)

(단위 : %)

구분	2018	2020	2021	2026	2027	2030	2035	2040	2045
고령층 65세 이상	11.9	13.3	14.1	19.1	20.0	22.7	27.0	31.1	34.0
생산연령층 15~64세	74.7	73.6	73.0	68.7	67.9	65.4	61.3	57.8	55.7
유소년층 0~14세	13.3	13.0	12.9	12.2	12.0	11.8	11.6	11.0	10.3



자료: 통계청(2017). 「장래인구추계」, 자료 재구성.

- 통계청(2017) 「장래인구추계(2018 ~ 2045년)」 자료를 활용하여 총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근거로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고령사회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14% 이상, 초고령사회는 20% 이상)로의 진입 연도를 살펴보기 위해 〈표 Ⅲ-2〉와 각 연도의 고령층 비율을 제시함
 - 인천시의 고령층 비율은 2018년 11.9%이며, 2021년 14.1%로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 또한 2027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0%가 되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10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인천시는 초고령사회로의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앞서 살펴본 「주민등록인구 현황(2018)」은 국내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된 내국인과 재외군민을 포함하며 「장래인구추계(2018 ~ 2045년)」 자료는 7월 1일 시

점의 인구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여 국내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인구를 대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민등록인구 현황(2018)」을 정리한 <표 Ⅲ-1>과 「장래인구추계(2018~2045년)」를 정리한 <표 Ⅲ-2>를 비교해볼 때 생산연령층(15~64세)의 경우 두 자료 모두 동일한 반면, 유소년층(0~14세)과 고령층(65세 이상)의 지표값은 차이를 보임
- 「장래인구추계(2018~2045년)」보다 실제 「주민등록인구 현황(2018)」 자료에서 유소년층의 비율이 낮고, 고령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함
- 인천시 인구 구성비 변화를 정리한 <표 Ⅲ-2>에 이어 전국 및 7대 특·광역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진입(예상)시기 및 해당 시기 고령인구 비율을 정리해보면 <표 Ⅲ-3>과 같음

<표 Ⅲ-3> 전국 및 7대 특·광역시의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진입(예상) 시기 및 고령층 비율

(단위: 년, %)

구분	전국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고령사회 진입연도 (고령층 비율)	2017 (14.2)	2018 (14.4)	2014 (14.0)	2017 (14.0)	2021 (14.0)	2021 (14.1)	2021 (14.3)	2023 (14.3)
초고령사회 진입연도 (고령층 비율)	2025 (20.0)	2026 (20.4)	2022 (20.4)	2025 (20.5)	2027 (20.0)	2028 (20.1)	2028 (20.5)	2029 (20.3)

자료: 통계청(2019).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통계청(2017). 「장래인구추계」 자료 재구성.

주: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역의 경우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이용, 미진입 지역인 경우 「장래인구추계」 자료 활용.

-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14.2%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
- 고령사회로 진입한 곳은 총 3곳으로 가장 먼저 2014년 부산시, 2017년 대구시, 2018년 서울시 순으로 나타남
- 향후 고령사회로 진입 예정인 곳으로는 2021년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2023년 울산시로 나타나 2023년 이내로 모든 7대 특별시 및 광역시가 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임
-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시기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부산시가 2022년 가장 먼저 진입하고, 이어 2025년 대구시, 2026년 서울시, 2027년 인천시, 2028년 광주시와 대전시, 마지막으로 2029년에 울산시 순으로 나타남

- 인천시의 경우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2019년 기준 약 3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으로 인천시 생산연령층(15~64세)의 구성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앞서 <표 III-3>에서 전국 및 7대 특별시·광역시 인구 자료에서 인천시의 경우 생산연령층이 울산시(75.1%)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지만 생산연령층의 연령 구간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표 III-4>와 같이 생산연령층의 구성을 추가적으로 살펴봄

<표 III-4> 인천시 생산연령층(15~64세) 연령대별 비율

(단위:명, %)

구분	생산연령층 (15~64세)	연령대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N	2,207,048	158,706	409,794	433,669	494,723	514,229	195,927
(%)	(100.0)	(7.2)	(18.6)	(19.6)	(22.4)	(23.3)	(8.9)

자료: 통계청(2019).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재구성. / 2018년 12월 기준.

- 생산연령층(15~64세)을 구분하는 연령구간의 범위가 동일하진 않지만, 연령이 높아 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임
 - <표 III-4>에서 예비노인세대⁷⁾의 비율이 생산연령층의 32.2%로 생산연령층 10명 중 3명이 예비노인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음. 생산연령층 비율은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생산연령층의 다수는 곧 고령층으로 진입할 인구임을 알 수 있음
 - 인천시 생산연령층에서 예비노인세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배경은 합계출산율이 3.0 이상인 연령대가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유지된 인구 코호트를 의미하는 ‘베이비부머’가 예비노인세대에 속해있기 때문으로 사료됨
- 인천시 예비노인세대 중 베이비부머의 비율을 정리해보면 <표 III-5>와 같음
 - 예비노인세대 중 약 60%가 베이비부머로 나타나 노인세대뿐만 아니라 베이비부머들 또한 중요한 정책 대상자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7) 예비노인세대 :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제2조 6항, 50세 이상 65세 미만.

〈표 Ⅲ-5〉 인천시 예비노인세대 중 베이비부머의 비율

(단위: 명, %)

구분	예비노인세대(50~64세)	베이비부머(55~63세) ¹⁾
		N(%)
N(%)	710,156 (100.0)	423,285 (59.6)

자료: 통계청(2019).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재구성. / 2018년 12월 기준.

주: 베이비부머(baby boomer)는 합계출산율이 3.0 이상인 연령대가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유지된 인구 코호트를 의미함. 연구에 따라서는 베이비부머를 전기(1955~63년생)와 후기(1968~74년생)로 구분하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는 전기 베이비부머를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2018년 기준 1955~1963년생은 만 55~63세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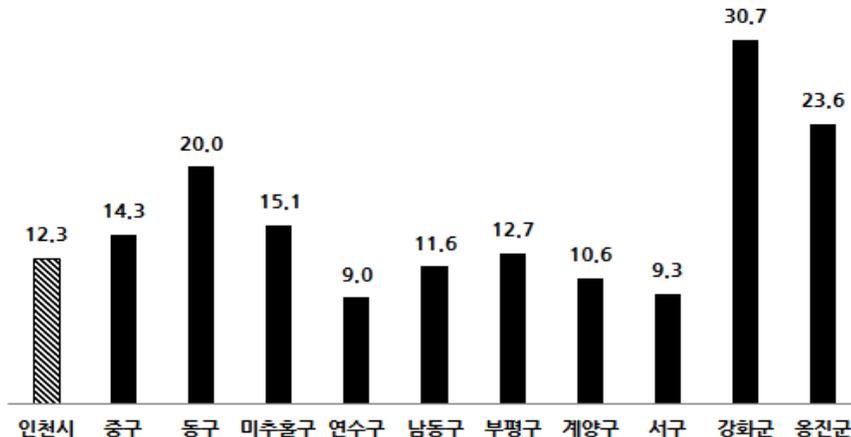
2) 인천시 군구별 인구 현황과 변화 추이

- 통계청(2019) 「주민등록인구 현황」 자료를 통해 살펴본 인천시 군구별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의 현황은 〈표 Ⅲ-6〉과 같음

〈표 Ⅲ-6〉 인천시 군구별 고령층(65세 이상) 현황

(단위: 명,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65세 이상 인구수	362,675	17,482	13,254	62,833	31,227	62,248	66,424	33,119	49,975	21,148	4,965
구성비	12.3	14.3	20.0	15.1	9.0	11.6	12.7	10.6	9.3	30.7	23.6



자료: 통계청(2019).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재구성. / 2018년 12월 기준.

- 인천시 10개 군구 중 고령층 인구수가 많은 상·하위 3곳을 살펴보면, 우선 상위 3곳은 ‘부평구(66,424명)’, ‘미추홀구(62,833명)’, ‘남동구(62,248명)’이며, 하위 3곳은 ‘옹진군(4,965명, 23.6%)’, ‘동구(13,254명)’, ‘중구(17,482명)’ 순으로 나타남
 - 반면 군구별 전체 인구 대비 고령층 인구 비율이 높은 상·하위 3곳의 순위를 살펴보면, 상위 3곳은 ‘강화군(30.7%)’, ‘옹진군(23.6%)’, ‘동구(20.0%)’였으며, 하위 3곳은 ‘연수구(9.0%)’, ‘서구(9.3%)’, ‘계양구(10.6%)’로 나타나 고령층 인구수와 구성비가 차이를 보임
 - 특히, <표 Ⅲ-6>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인천시 전체로 보면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12.3%로 나타나지만 군구별로 살펴보면 최소 9.0%(연수구)부터 최대 30.7%(강화군)까지 나타나 군구별 편차가 큰 편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고령인구 현황이 시사하는 바는 인천시 차원의 중장기 계획뿐만 아니라 군구별 현황과 특성에 기반 한 계획 수립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함
- 인천시 군구의 고령층 인구 현황에 이어 예비노인세대 및 베이비부머 현황을 인천시 10개 군구별로 살펴보면 <표 Ⅲ-7>과 같음

<표 Ⅲ-7> 인천시 군구별 예비노인세대 및 베이비부머 현황

(단위: 명,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예비노인세대 (50~64세)	710,156 (24.0)	26,434 (21.6)	16,205 (24.5)	100,625 (24.2)	78,153 (22.6)	126,043 (23.5)	131,335 (25.0)	84,115 (26.9)	121,287 (22.5)	19,904 (28.9)	6,055 (28.8)
베이비부머 (55~63세)	423,285 (14.3)	15,808 (12.9)	10,175 (15.4)	61,809 (14.8)	45,202 (13.1)	75,144 (14.0)	78,504 (15.0)	49,854 (15.9)	69,501 (12.9)	13,231 (19.2)	4,057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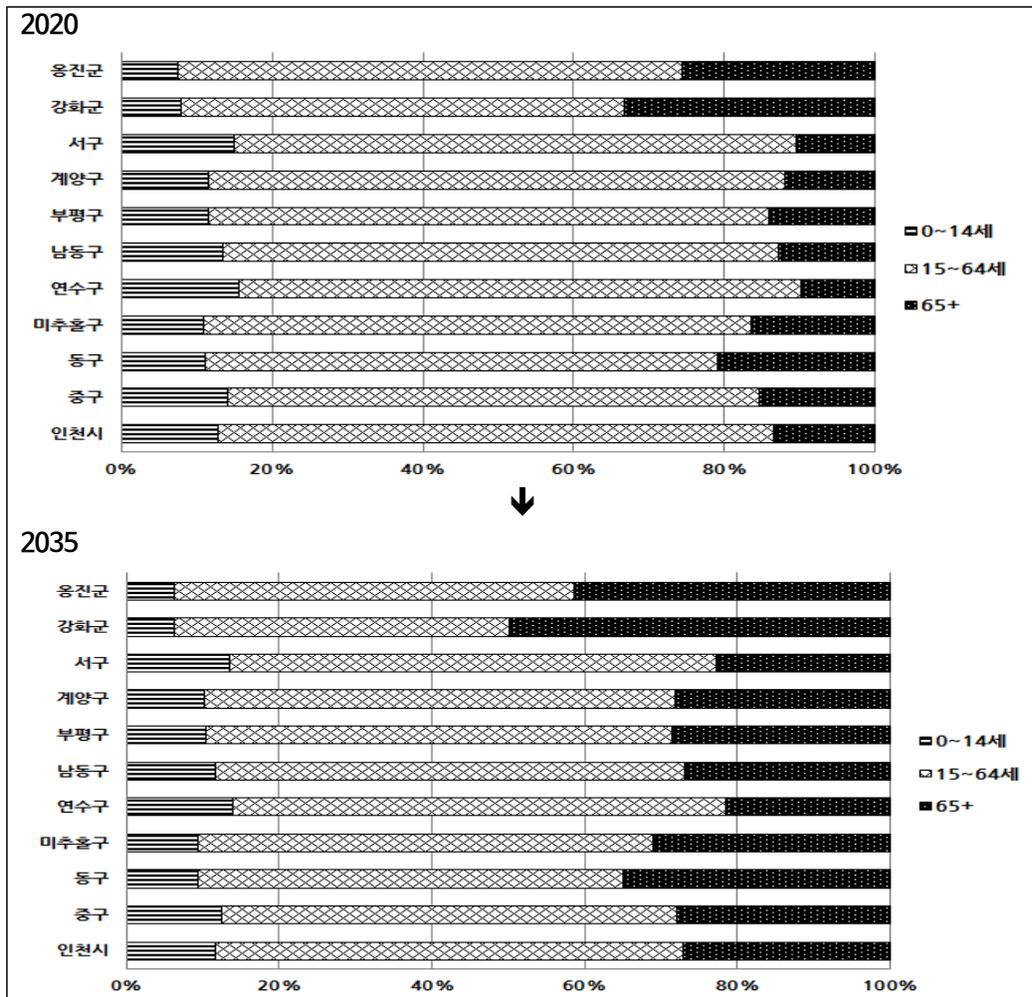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9).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재구성. / 2018년 12월 기준.

- 앞서 살펴본 군구별 고령층 인구 현황과 같이 인구수와 구성비 양상에 차이를 보임
 - 우선 예비노인세대의 경우 인구수로는 부평구(131,335명)가 가장 많고, 옹진군(6,055명)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군구별 전체 인구 대비 예비노인세대의 비율을 보면 강화군(28.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구(21.6%)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다음 베이비부머의 경우 인구수로는 부평구(78,504명)가 가장 많고, 옹진군(4,057명)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군구별 전체 인구 대비 베이비부머 비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곳은 옹진군(19.3%)이었으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곳은 중구와 서구로, 두 곳 모두 동일하게 12.9%의 비율을 보임
- 특히, 모든 군구에서 예비노인세대 비율은 20%대를, 베이비부머 비율은 10%대를 보여 예비노인세대와 베이비부머세대는 고령층에 비해 군구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인천시 군구의 현 상황을 살펴보는 것과 더불어 인천시의 「군구별 장래인구추계(2015~2035)」를 이용하여 15년 뒤 인천시 군구별 장래 인구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그림 Ⅲ-2] 인천시 군구별 인구 구성비 변화(2020년, 2035년)

(단위: %)



자료: 인천광역시(2018). 「군·구별 장래인구추계(2015~2035)」 자료 재구성.

- <그림 Ⅲ-2>를 살펴보면 0~14세의 유소년층과 15~64세의 생산연령층은 모든 군구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유소년층의 경우 군구에 따라 최소 1.2%p, 최대 1.8%p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생산연령층의 경우 최소 10.1%p, 최대 14.8%p 감소할 것으로 보임
 - 낮은 구성비를 보이는 유소년층의 구성비 감소도 문제지만, 생산연령층이 큰 폭으로 감소되다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모든 군구에서 유소년층과 생산연령층의 구성비는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구성비 의 증가는 확연히 드러나 최소 11.7%p, 최대 16.6%p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특히 2035년 강화군과 옹진군의 경우 군민의 절반가량이 고령인구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에 따른 적절한 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됨
- 인천시 군구별 인구 구성비 변화를 유소년층, 생산연령층, 고령층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본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고령층과 예비노인세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우선 고령층의 경우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의 기준이 되는 비율인 14%, 20%를 중심으로 각 개별 군구가 해당 비율에 도달하는 예상 시기와 해당 시기 고령층 비율을 살펴보고자 함. 이를 정리해보면 <표 Ⅲ-8>과 같음

<표 Ⅲ-8> 인천시 군구별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진입(예상)시기 및 해당 시기 고령층 비율

(단위: 년,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2021 (14.0)	2019 (14.5)	2017 (14.0)	2012 (14.5)	2017 (14.2)	2017 (14.5)	2026 (14.7)	2022 (14.4)	2021 (14.8)	2023 (14.9)	2025 (14.2)	-	-		
14% 이상															
20% 이상	2027 (20.0)	2026 (20.3)	2020 (20.9)	2024 (20.0)	2034 (20.7)	2028 (20.9)	2026 (20.2)	2027 (20.1)	2032 (20.1)	-	2012 (20.1)				

자료: 행정안전부(2019), 「주민등록 인구통계」, 인천광역시(2018), 「군구별 장래인구추계(2015~2035)」 자료 재구성.

주1: 인천광역시 「군구별 장래인구추계(2015~2035)」 자료의 특성으로 최대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해당 표에서는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사용함.

인천시 군구별 장래인구추계(2015~2035)	통계청 자료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10개 군구별 외국인 포함 상주인구 대상 • 해외거주자와 거주불분명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상 거주자 • 재외국민 포함 • 외국인 제외 • 거주불분명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상 거주자 • 재외국민 제외 • 거주불분명자 제외

주2: 고령층 비율이 14%, 20%를 넘지 않은 군구의 경우 「인천광역시 군구별 장래인구추계(2015~2035)」 자료 활용.

주3: 고령층 비율이 14%, 20%를 이미 넘어선 군구의 경우 예상 연도와 실제 진입한 연도를 비교하기 위해 예상 부분은 「인천광역시 군구별 장래인구추계(2015~2035)」 자료 활용하였으며, 실제 부분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이용함. 예상과 실재를 따로 구분하지 하지 않은 곳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 이용.

주4: 강화군의 경우 통계청 자료 최초 작성 연도인 2008년 이전 고령층 비율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며, 옹진군의 경우 통계청 자료 최초 작성 연도인 2008년 이전 고령층 비율이 14%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됨.

- <표 Ⅲ-8>을 살펴보면, 현재 이미 고령층 구성비가 군구 총인구의 14% 이상으로 밝혀진 곳은 ‘중구’, ‘동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으로 총 다섯 곳임
 -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최초 작성 연도인 2008년 이전에 강화군은 고령층 비율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며, 옹진군의 경우에는 14%가 넘어선 것으로 판단됨
 - 미추홀구의 경우 인천시 군구별 장래인구추계(2015~2035)자료와 동일한 시점에 고령층 비율이 14% 이상이 되었지만 예상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임
 - 특히 장래인구추계에서 중구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2019년도에 14%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예상보다 2년 빠른 2017년에 14.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됨
 - 현재 고령층 구성비가 14% 이상으로 밝혀진 다섯 곳 외에 아직 14%에 도달하지 않은 나머지 구의 구성비도 2020년대 초중반에는 14%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대 중반까지 모든 군구의 고령층 구성비가 20%를 넘길 것으로 예측됨
 - 그러나 앞서 실제 진입 시기가 예상 진입 시기보다 빨랐던 중구와 미추홀구의 사례를 통해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한 예상 시기보다 현실은 더 빠르게 고령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군구별 고령인구 구성비 변화를 살펴본 것에 이어 인천시 인구 현황 및 변화추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군구별 예비노인세대 구성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 인천시의 「군구별 장래인구추계(2015~2035)」를 이용하여 인천시 예비노인세대(50~64세) 인구 구성비 변화를 정리하면 <표 Ⅲ-9>와 같음

<표 Ⅲ-9> 인천시 예비노인세대 인구 구성비 변화(2018~2035년)

(단위: %)

구분	2018	2020	2025	2030	2035
인천시	23.6	24.5	24.9	23.8	23.0
중구	21.4	22.1	23.0	22.3	21.6
동구	24.1	24.6	24.5	23.4	22.3
미추홀구	23.6	24.5	24.9	24.0	23.2
연수구	22.0	22.7	23.6	23.0	22.8
남동구	22.9	24.1	24.7	23.8	23.0
부평구	24.8	25.8	25.8	24.1	22.9
계양구	26.1	27.5	27.8	25.5	24.0
서구	22.2	23.2	24.1	23.4	23.1

구분	2018	2020	2025	2030	2035
강화군	28.5	28.7	27.2	24.6	22.7
옹진군	28.3	28.6	28.1	26.2	24.8

자료: 인천광역시(2018), 「군구별 장래인구추계(2015~2035)」 자료 재구성.

- <표 Ⅲ-9>를 보면 인천시 예비노인세대의 구성비는 2025년부터는 하락세를 보임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인구 구성비가 하락세를 보인다고 해도 인천시 인구의 20% 초중반대를 차지하므로 예비노인세대 또한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2. 인천시 노인의 가계생활 구조 분야

1) 7대 특·광역시 노인가구 연간 수입액

- 인천시 노인의 가계생활 구조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인천시를 포함해 7대 특·광역시 노인가구의 가계생활 구조를 함께 살펴봄
 - 7대 특·광역시 노인가구의 연간 수입액, 월평균 소비 지출액은 <표 Ⅲ-10>과 같음
- 우선 가구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은 전체 노인가구의 연간 수입액을 살펴보면 울산시 노인가구의 연간 수입액이 3,240.91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서울시(3,229.81만원), 대구시(2,544.68만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인천시 노인가구의 연간 수입액의 경우 2,421.07만원으로 대전시(2,077.58만원)에 이어 하위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남
- 이어서 노인가구의 형태를 ‘노인독신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노인가구’, ‘기타 노인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봄
- 노인독신가구의 경우에도 울산시 노인독신가구의 연간 수입액이 1,746.11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대구시(1,412.97만원), 광주시(1,309.44만원) 순으로 확인됨
 - 인천시 노인독신가구의 연간 수입액은 1,170.90만원으로 7대 특·광역시 중 대전시(1,048.99만원), 부산시(1,168.20만원)에 이어 하위 세 번째로 나타남

- 노인부부가구의 경우에도 울산시 노인부부가구의 연간 수입액이 2,925.24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서울시(2,819.52만원), 대구시(2,348.52만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인천시 노인부부가구의 연간 수입액은 2,103.58만원으로 7대 특·광역시 중 대전시(1,979.63만원)에 이어 하위 두 번째로 나타남
- 자녀동거노인가구의 경우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연간 수입액을 보인 상위 3 곳은 울산시(5,418.81만원), 서울시(5,113.81만원), 광주시(4,280.57만원)로 나타남
 - 반면 가장 적은 연간 수입액을 보인 하위 3곳은 대전시(3,606.90만원), 인천시(3,891.59만원), 부산시(4,016.68만원)로 확인됨
- 마지막으로 기타 노인가구의 연간 수입액을 보면 대구시가 3,665.72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어서 울산시(3,260.06만원), 서울시(3,046.95만원) 순으로 나타남
 - 인천시의 경우 2,944.21만원으로 7대 특·광역시 중 네 번째로 중간 수준임을 보임
- 노인가구의 연간 수입액을 다양한 가구형태로 살펴본 결과 인천시 노인가구의 연간 수입액은 7대 특·광역시 중 하위권에 위치해있음을 알 수 있음

<표 III-10> 7대 특·광역시의 노인가구 연간 수입액

(단위 : 만원)

구분	전체	노인독신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 노인가구	기타 노인가구
서울시	3,229.81(2)	1,273.28(4)	2,819.52(2)	5,113.81(2)	3,046.95(3)
부산시	2,423.43(5)	1,168.20(6)	2,161.32(5)	4,016.68(5)	2,680.36(6)
대구시	2,544.68(3)	1,412.97(2)	2,348.52(3)	4,044.93(4)	3,665.72(1)
인천시	2,421.07(6)	1,170.90(5)	2,103.58(6)	3,891.59(6)	2,944.21(4)
광주시	2,516.26(4)	1,309.44(3)	2,226.90(4)	4,280.57(3)	2,823.53(5)
대전시	2,077.58(7)	1,048.99(7)	1,979.63(7)	3,606.90(7)	2,347.07(7)
울산시	3,240.91(1)	1,746.11(1)	2,925.24(1)	5,418.81(1)	3,260.06(2)

자료 : 2017년 노인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분석함.

주1 : 응답 노인의 수입과 그 외 가구원의 수입을 합산한 금액임.

주2 : 가구가중치(모수추정)를 부여한 값임.

주3 : 괄호 안의 숫자는 7대 특·광역시 내 순위를 나타냄.

2) 7대 특·광역시 노인가구 월평균 소비 지출액

- 7대 특·광역시 노인가구의 연간 수입액을 살펴본 것에 이어서 월평균 소비 지출액은 <표 Ⅲ-11>과 같음
- 우선 가구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은 전체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서울시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이 193.81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울산시(183.61만원), 대구시(174.24만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인천시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의 경우 149.92만원으로 대전시(130.70만원)에 이어 하위 두 번째임
- 노인독신가구의 경우 울산시 노인독신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이 101.4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대구시(93.43만원), 서울시(92.86만원) 순으로 확인됨
 - 인천시 노인독신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은 77.16만원으로 7대 특·광역시 중 대전시(75.77만원)에 이어 하위 두 번째로 나타남
- 노인부부가구의 경우에도 울산시 노인부부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은 176.0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서울시(173.82만원), 대구시(168.89만원) 순으로 확인됨
 - 인천시 노인부부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은 138.69만원으로 7대 특·광역시 중 대전시(126.67만원)에 이어 하위 두 번째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을 보임
- 자녀동거노인가구의 경우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월평균 소비 지출액을 보인 상위 3곳은 서울시(289.39만원), 울산시(281.21만원), 대구시(264.69만원)로 나타남
 - 반면 가장 적은 월평균 소비 지출액을 보인 하위 3곳은 대전시(208.77만원), 인천시(223.39만원), 부산시(227.65만원)로 확인됨
- 마지막으로 기타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을 보면 대구시가 253.05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어서 울산시(209.94만원), 인천시(198.05만원) 순으로 나타남
-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을 다양한 가구형태로 살펴본 결과 기타 노인가구를 제외한 인천시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은 7대 특·광역시 중 하위권에 위치해있음을 알 수 있음

〈표 Ⅲ-11〉 7대 특·광역시 노인가구 월평균 소비 지출액

(단위 : 만원)

구 분	전체	노인독신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 노인가구	기타 노인가구
서울시	193.81(1)	92.86(3)	173.82(2)	289.39(1)	185.89(5)
부산시	155.56(4)	84.91(5)	149.57(4)	227.65(5)	191.81(4)
대구시	174.24(3)	93.43(2)	168.89(3)	264.69(3)	253.05(1)
인천시	149.92(6)	77.16(6)	138.69(6)	223.39(6)	198.05(3)
광주시	153.70(5)	85.42(4)	145.70(5)	238.56(4)	168.80(6)
대전시	130.70(7)	75.77(7)	126.67(7)	208.77(7)	147.47(7)
울산시	183.61(2)	101.40(1)	176.07(1)	281.21(2)	209.94(2)

자료 : 2017년 노인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분석함.

주1 : 세금, 사회보험료 등의 비소비지출과 부동산 등의 자산축적을 위한 지출, 차입금 상환 등의 현금 지출 등 기타 지출은 제외하며, 천원단위는 반올림함.

주2 : 가구기중치(모수추정)를 부여한 값임.

주3 : 괄호 안의 숫자는 7대 특·광역시 내 순위를 나타냄.

3. 소득 분야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고령사회 관련 인천시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기 위해 2018년 12월에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서 제시한 영역에 따라 ‘소득’, ‘노후준비’, ‘사회활동 참여’, ‘돌봄’, ‘생애 마무리’로 정리함
- 소득분야와 관련하여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인천시 노인일자리 지원 서비스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정도를 살펴보고자 함
- 예비노인세대 대상 일자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로드맵의 내용 구성에 기반하여 노후준비 분야에서 다루고자 함
- 우선 인천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노인복지법」 제23조2에서 시설 및 운영 내용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 있는 시설로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

접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함

- 2018년 말 기준 전국 및 7대 특·광역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현황을 정리해보면 <표 Ⅲ-12>와 같음
 - 전국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총 16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노인 천 명당 0.02개의 시설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인천시의 경우 10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노인 천 명당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수가 0.03개로 나타남. 이는 부산시, 광주시, 대전시와 동일한 수치로 울산시(0.04개) 다음으로 높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종사자 수는 총 1,342명으로 시설 당 종사자 수는 전국 평균 8.1명으로 나타남
 - 인천시 종사자 수(총원)는 69명으로 시설 당 종사자 수는 6.9명임

<표 Ⅲ-12> 전국 및 7대 특·광역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현황

(단위: 명, 개소)

구분	65세 이상 노인인구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시설 수	종사자 수	
				총원	시설 당 종사자 수
전국	7,650,408	165	0.02	1,342	8.1
서울시	1,410,297	11	0.01	66	6.0
부산시	589,961	16	0.03	134	8.4
대구시	362,934	9	0.02	112	12.4
인천시	362,675	10	0.03	69	6.9
광주시	187,186	5	0.03	30	6.0
대전시	188,530	5	0.03	43	8.6
울산시	123,919	5	0.04	28	5.6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 노인복지시설현황」 및 인천시 노인정책과 내부자료 재구성. / 2018년 말 기준.
 주: 65세 이상 노인인구 - 2018. 12. 31 주민등록 인구기준.

- 인천시 군구별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13>과 같음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옹진군을 제외한 모든 군구에 있으며 계양구가 2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 수(총원)는 미추홀구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와 동구가 각각 6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 시설 당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미추홀구 45명, 부평구 28명 순으로 많았고, 중구와 동구가 각각 6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됨

〈표 Ⅲ-13〉 인천시 군구별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현황

(단위 : 명, 개소)

구분	65세 이상 노인인구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시설 수	종사자 수	
				총원	시설 당 종사자 수
인천시	362,675	10	0.03	69	6.9
중구	17,482	1	0.06	6	6.0
동구	13,254	1	0.08	6	6.0
미추홀구	62,833	1	0.02	10	10.0
연수구	31,227	1	0.03	9	9.0
남동구	62,248	1	0.02	9	9.0
부평구	66,424	1	0.02	9	9.0
계양구	33,119	2	0.06	11	5.5
서구	49,975	1	0.02	9	9.0
강화군	21,148	-	-	-	-
옹진군	4,965	-	-	-	-

자료 : 보건복지부(2019). 「2019 노인복지시설현황」 및 인천시 노인정책과 내부자료 재구성. / 2018년 말 기준.

주 : 65세 이상 노인인구 - 2018. 12. 31 주민등록 인구기준.

2) 인천시 노인일자리 지원 서비스

- 인천시 노인일자리 지원 서비스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Ⅲ-14〉와 같음
 -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모든 구에서 노인인력개발센터를 통해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직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강화군과 옹진군의 경우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노인인력개발센터 외에도 구청 일자리정책과(계양구), 시니어클럽(계양구), 노인복지관(계양구, 강화군)을 통해 관련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음

-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노동형의 시장형 일자리가 다수임을 알 수 있음

〈표 Ⅲ-14〉 인천시 노인일자리 지원 서비스 현황(2018 ~ 2019년 상반기)

구분	기관	대상(연령)	내용
인천시	인천시 노인인력 개발센터	60세 이상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일자리사업 시장형 • 시니어프로스텝(택배분류) : 택배분류 터미널근무 시급제 • 시니어프로스텝(복스타트) :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등 • 인력파견형사업 : 수요 기업 직무교육 후 파견 • 실버카페 : 실버바리스타 카페로 음료 및 사이드메뉴를 직접 만들고 서비스하는 활동
중구	중구 노인인력 개발센터	60세 이상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일자리사업 • 인력파견형 : 실버교통모니터, 바다지킴이 • 시장형 : [공동작업형] 꽃가람공동작업장(쇼핑백) [제조판매형] 현미랑공이랑쌀과자 [전문서비스] 학교급식도우미, 우리학교지킴이 [서비스업] 실버카페(월미도, 19년 5월 오픈 예정)
동구	동구 노인인력 개발센터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형 • 공동작업장 : 쇼핑백·마스크 등을 접는 공동작업(동구 내 6개소) • 시니어카페 : 카페 바리스타 업무 시급제 • 실버택배 : 아파트 택배 물품 배송, 분류터미널 집하물품분류 • 학교급식도우미 : 동구 관내 교육기관에서 배식 및 급식실 업무보조
미추홀구	미추홀구 노인인력 개발센터	만 60세 이상 · 사회 참여 가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형사업 • 학교급식도우미사업 : 초중고 급식실 및 학급에서 배식 활동, 식사 예절지도 등 •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 아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1-3세대 소통 및 아동 인성교육 • 미추홀구소방안전교육 : 안전에 대한 교육진행, 화재예방교육 및 홍보 • 보육교사도우미 : 보육시설의 교사 보조 업무, 식사 예절 및 현장학습 지원, 기타 보육교사 업무 지원 • 안전마을 만들기 : 관내 생활 속 안전 위해요소 발견 및 관련 기관 연락을 통한 위해요소 제거, 생활안전 위해요소 매핑 및 안전마을 지도 제작 지원, 주민 홍보를 통한 지역 내 안전을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독려 • 주민서비스지원사업 : 택배보관소 운영, 택배물 및 집하물 보관 및 반출, 캐리어 대여, 장기부재자 택배물 보관 등 주민편의 서비스 제공 • 자연담양 : EM발효액과 천연재료들을 사용한 친환경 수제비누 제작,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친환경 비누 제작 수업 진행 • OK실버택배 : 관내 아파트 거점으로 택배 배송 • 카페지브라운 운영 : 바리스타과정 교육, 음료 및 사이드메뉴 제조·판매 • 제1·2공동작업장 : 자동차 부품 조립, 쇼핑백 제작, 마스크팩 포장 등 ■ 인력파견형사업 : 수요 기업 직무교육 후 파견 ■ 시험감독관파견사업 : 선발 후 산업인력공단 직무교육 이수 후 파견
연수구	연수구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형 사업

구분	기관	대상(연령)	내용
	노인인력 개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제공형 : 학교급식도우미, 공공적합형시범사업(인천 환경공단 송도사업소 스포츠파크 내 전반적인 시설관리, 환경개선 및 안내), 우리학교아이지킴이(교내 외부인 출입 관리), 경로당 영양관리사, 아파트택배(일일 배송 물량을 각 수요처에 배송 및 집하) 공동작업형 : 공동작업장(포장, 쇼핑백 임가공) 인력파견형 : 실버인력뱅크(공원관리사, 도시정원관리사 등 수요처에서 원하는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
남동구	남동구 노인인력 개발센터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형사업 · 실버택배 : 택배 물품 배송(각종 운반 장비 관리, 작업 전/후 정리정돈 등) · 세탁기·에어컨 클린 : 세탁기(일반 및 드럼), 에어컨(벽걸이 및 스탠드) 청소 서비스 · 공동작업장 : 쇼핑백 제작, 채취기 조립, 마스크팩 포장 ■ 전문서비스형사업 · 학교급식도우미 : 배식 관련 지원활동
부평구	부평구 노인인력 개발센터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형 · 공동작업장 : 쇼핑백 및 멀티탭 제작 등 · 카페어울림 :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실버바리스타 카페로 음료 및 사이드메뉴를 직접 만들고 서비스하는 활동 ■ 시니어인턴십 :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 기회를 촉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공모사업
	계양구 노인인력 개발센터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형 · 학교급식도우미(서비스제공형) :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소 및 학급에서 배식준비, 배식활동, 식사 예절지도 등 · 노인일터(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 자동차 부품 조립 등의 공동 작업을 통한 수익금 창출 ■ 인력파견형 :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 보충, 건강개선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계양구 시니어클럽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제공형 · 숲생태해설 : 숲지 현장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이들에게 숲 생태 해설 및 숲 체험 활동 제공, 세대 간 연결 사업을 통해 아동들의 정서함양 및 전인적 성장 도모 ■ 시장형 · 한우리공동작업장 : 쇼핑백 조립·포장 공동작업 · 어머니밥상 : 도시락과 반찬 제조·판매 및 배송 · 은빛미용실 : 전문 미용기술을 가진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및 소득창출 지원 · 아파트택배
	계양구 노인복지관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형 · 실버카페 : 커피 및 음료 등 제조, 판매
	계양구청 일자리 정책과	만 5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제공형 ·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 만 50세 이상 퇴직전문 인력을 인력과 예산 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 기관, 사회적기업에 매칭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산하고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서구	서구노인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형

구분	기관	대상(연령)	내용
	인력개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제공형 : 학교급식도우미, 치과기공물 배송사업 인력파견형 : 실버인력뱅크(단순노무 및 환경미화 등 민간기업 취업연계) 공동작업형 : 서구시니어 일터(쇼핑백 접기) 제조판매형 : 실버카페, 홈크린닥터(시설 및 사업장의 소독 전문 업체), EM 판매사업(EM 주방 세제 제조 및 판매)
강화군	강화군 노인복지관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일자리사업 • 시장형 : [제조판매업] 실버카페
옹진군	옹진군 일자리 지원센터	만 18세 이상 • 전입 2년 이상 • 1년 이상 실거주 • 소득재산기준 : 북도 영흥 7억 원 그외 5억 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주민일자리 • 재활용 선별장 관리 : 재활용 쓰레기 선별 및 분리 작업 • 공중화장실 관리 : 공중화장실 등 청소 및 관리 • 기타 공공시설관리 : 공공시설 환경 관리 및 민원 안내 ■ 마을개선주민일자리 • 마을 주변 경관개선, 환경 정비 등의 활동 • 개간지, 균유지를 활용한 마을 자원 조성 및 소득작물 재배 • 군도 방호벽, 월파벽 도색 ■ 피서지 환경 정비(한시 사업) • 여름철 피서지(해수욕장 및 해변) 환경 정비

주 : 1차 각 기관 홈페이지 검색, 2차 인천시 노인정책과 검토.

3) 노인 소득 관련 정책사업 예산(2018 ~ 2019)

- 2018 ~ 2019년 인천시 군구, 공사·공단인 노인 소득 관련 정책사업 예산규모를 조사함. 추진 부서명, 정책 사업명, 지원 대상, 사업내용, 예산액(총사업비 기준)을 조사하였으며, 전 연령대를 포괄하는 일반시민 대상의 사업은 제외함

(1) 인천시 정책사업

-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서 소득 부분에 노후소득 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근로 관련 정책사업과 더불어 기초연금, 효도수당 지원 등의 사업내용도 포함하여 제시함
- 우선 인천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노인 대상 소득 관련 정책사업과 이에 투입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표 Ⅲ-15>와 같음
 - 인천시에서 2018 ~ 2019년 시행된 노인 소득 관련 정책 사업은 모두 노인정책과를 통해 추진되고 있음
 - 투입된 예산 총액은 2018년에 비해 2019년 증가하였으며 인천시 예비노인 및 노인 세대

대상 정책 사업 총 예산 대비 해당 사업 예산 비율 또한 2018년 79.4%에서 2019년 80.5%로 증가함

〈표 Ⅲ-15〉 인천시 노인 소득 관련 정책사업(2018 ~ 2019)

(단위 : 천원, %)

구분	추진 부서	사업명	지원 대상 (연령 범위)	사업 내용	예산액(비율)	
					2018	2019
인천시 예비노인 및 노인 세대 대상 정책 사업 총 예산					859,646,315 (100.0)	1,045,105,839 (100.0)
계					682,346,213 (79.4)	841,302,396 (80.5)
1	노인 정책과	기초연금 지급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소득하위70%이하 기초연금지급	605,063,005	743,942,424
2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노인 사회참여활동 및 일자리 지원 등	72,073,208	92,579,128
3		인천형 노인적합일자리 공모사업	노인세대 (만60세 이상)	인천지역 환경에 적합한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 발굴 및 제공	0	120,000
4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사업개발비 등 지원	102,000	100,420
5		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원	726,000	771,018
6		군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시니어클럽 등) 운영지원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군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원	4,382,000	3,789,406

주1 : 전체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

주2 : 비율은 전체 예산 대비 해당 사업 예산 비율.

자료 : 국비 시비, 군·구비 매칭사업은 인천시 작성, 군·구는 매칭사업 외 자체 정책사업 작성.

(2) 인천시 군구별 정책사업

- 인천시 차원의 노인 소득 관련 정책 사업에 이어서 인천시 군구별 노인 소득 관련 정책사업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표 Ⅲ-16〉과 같음
- 노인 대상 소득 관련 정책 사업을 추진 중인 군구는 동구, 연수구, 계양구, 옹진군으로 총 4곳으로 나타남.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액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옹진군, 계양구, 연수구, 동구 순으로 많았음

- 연수구의 경우 예산액이 2018년 대비 감액된 반면 계양구와 용진군의 경우 증액되었고, 동구의 경우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확인됨

〈표 Ⅲ-16〉 인천시 군구별 노인 대상 소득 관련 정책사업(2018 ~ 2019)

(단위 : 천원)

구분	추진부서	사업명	지원 대상 (연령 범위)	사업 내용	예산액	
					2018	2019
동구	동구 노인장애인 복지과	효도수당 지원	노인세대 (70세 이상)	70세 이상, 4세대 동거, 3년 동구 거주 ⇒ 월 3만원 지원	3,200	3,200
연수구	연수구 노인장애인과	원활한 노인일자리아업 지원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원활한 노인일자리아업 지원	33,850	19,900
계양구	계양구공원 녹지과	봉오대로 녹지관리원	노인세대 (65세 이상)	봉오대로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200,000	257,816
소 계					842,200	926,800
용진군	용진군 복지지원과	장수노인활동비	80세 이상 노인	80세 이상 월 3만 원, 90세 이상 월 4만 원, 100세 이상 월 5만 원 지원	436,200	526,800
		효행수당	80세 이상 노인	80세 이상 노인을 포함하여 3대가 3년 이상 함께 거주 시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	36,000	30,000
	용진군경제 교통과	저소득주민일자리아업	노인세대 (60~80세미만)	재활용선별장, 공중화장실, 공공시설물 환경정비 등	370,000	370,000

주 : 군구별 전체 예산액은 회계별예산규모로 작성.

자료 : 국비 시비, 군구비 매칭사업은 인천시 작성, 군구는 매칭사업 외 자체 정책사업 작성.

(3) 공사·공단 정책사업

- 공사·공단에서 추진 중인 노인 소득 관련 정책사업을 살펴보면 <표 Ⅲ-17>과 같음
 - 인천도시공사의 ‘같이家U 실버사원’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임대아파트 고령자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안전관리, 가사돌봄,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실버사원을 모집하여 운영 중임

〈표 Ⅲ-17〉 인천시 공사·공단 노인 대상 소득 관련 정책사업(2018 ~ 2019)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원 대상 (연령 범위)	사업 내용	예산액	
			2018	2019
같이家U 실버사원 모집	노인세대 (60세 이상)	임대아파트 고령자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 (안전관리, 가사돌봄, 교육) • 인원 : 50명 • 기간 : 6개월	0	288,000

자료 : 국비 시비, 군구비 매칭사업은 인천시 작성, 군구는 매칭사업 외 자체 정책사업 작성.

4. 노후준비 분야

1) 예비노인세대 대상 서비스 제공기관

- 소득에 이어서 노후준비 분야에서 예비노인세대를 대상으로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인천시 및 군구별로 제공되고 있는 지원 서비스, 해당 사업에 책정된 예산 정도를 살펴보고자 함
- 우선 노후준비와 관련된 시설로 예비노인세대 대상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사회공헌 활동지원사업 운영기관’,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현황을 7대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살펴봄
 - 만 50세 이상 퇴직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2019년 고용노동부의 신설 사업인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에 선정된 지자체 현황도 함께 살펴봄
 - 앞서 언급한 기관 이외 인천시 군구별 예비노인세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운영기관 현황에 대한 자료 수집은 인천시와 해당 군구 담당부서 공무원들로부터 확인된 사항을 수록하였으며 운영 인력에 대한 내용은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다루지 못함

(1)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운영기관

-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이란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따라 전문성과 경력을 보유한 퇴직 (예정) 장년층과 재정구조가 열악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한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등을 매칭하여 사회서비스 확산과 더불어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시작된 고용노동부의 중장년 대상 정책을 의미함
- 2019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참여 지자체명과 운영기관명은 <표 Ⅲ-18>과 7대 특별시 및 광역시 사회공헌지원사업 운영 개수는 <표 Ⅲ-19>와 같이 정리함
 - 7대 특·광역시 중 사회공헌지원사업 참여 운영기관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총 13개의 운영기관이 있는 서울시
 - 인천시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사람들'이라는 한 개의 기관이 인천시, 부평구, 서구에 서 사회공헌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Ⅲ-18> 7대 특·광역시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수행 자치단체 운영기관(2019)

구분	운영기관	구분	운영기관
서울시	고령사회고용진흥원 동행연우회 상상우리 새롬워크개발원 한국에프피에스비 한국비서협회 한국직업상담협회 (사)한국진로직업개발원 함께만드는세상 희망도레미	부산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사)문화콘텐츠개발원부산지원 사회공헌정보센터
		동구	(사)삼성희망네트워크
		해운대구	인천사회사업재단
		북구	금곡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	(사)문화콘텐츠개발원부산지원
노원구	노원50플러스센터	대구시	대구경영자총협회
서대문구	노원50플러스센터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동구	(사)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동작구	동작50플러스센터	중구	남산종합사회복지관
구로구	구들장	달서구	(사)벤처기업협회대구경북지회
영등포구	영등포50플러스센터	서구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인천시, 부평구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사람들	대전시	(사)국제문화교류단
		동구	대전동구시니어클럽
서구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사람들	서구	(사)행복한 동행

구분	운영기관	구분	운영기관
광주시	(사)광주광역시곰두리봉사회 (재)광주복지재단 효령노인복지타운 광주사회적기업협의회 광주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유성구	(주)글로벌 리더십센터
		울산시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북구	(사)지역미래연구원 (사)대동문화재단	북구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남구	(사)지역고용정책연구원	중구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동구	아시아문화진흥원 (사)아름다운세상 대해복지회	울주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구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19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수행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현황(2019.1.31.) 자료 재구성.

〈표 Ⅲ-19〉 7대 특·광역시 예비노인세대 인구수 대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운영 개수(2019)

(단위: 명, 개소)

구분	예비노인세대 인구수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운영 현황	
		사업 운영 개수	예비노인 천 명당 사업 운영 개수
서울	2,225,337	13	0.006
부산	878,183	7	0.008
대구	602,548	5	0.008
인천	712,520	3	0.004
광주	317,761	10	0.031
대전	340,825	4	0.012
울산	288,668	4	0.014

주1: 예비노인인구 - 통계청(2019).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재구성. / 2019년 1월 말 기준.

주2: 사회공헌지원사업 운영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19년 신중년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현황(2019.1.31.) 자료.

(2) 인생이모작지원센터

-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은퇴 후 인생 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취·창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제2인생 설계 교육 프로그램,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 발굴·제공, 상담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함

-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현황을 정리하면 <표 Ⅲ-20>과 같음(2019년 3월 기준)
 -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서울시, 대전시, 충청남도, 경기도, 인천시에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특히 가장 먼저 설립된 서울시의 경우 인생이모작지원센터로 시작, 현재 ‘서울시50플러스재단’으로 확장되어 권역별 캠퍼스로 3곳, 센터 6곳이 운영 중임
 - 서울에 이어 후발주자로 설립된 대전과 충남, 경기도 부천시, 경남이 있으며, 인천은 2017년 12월 인천시로부터 (재)인천여성가족재단이 위탁받아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가 운영 중임.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시니어연구팀과 돌봄종사자를 지원하는 돌봄종사자지원팀, 그리고 인생이모작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즐거운인생지원팀으로 총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Ⅲ-20> 전국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현황

구분	기관명		
	50플러스재단 *2013년 2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로 시작	재단본부	
서울 ⁸⁾		캠퍼스	서부, 중부, 남부
	센터	도심권, 동작, 영등포, 노원, 서대문, 성북	
경남	경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		
대전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충남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경기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인천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자료 : 서울시50플러스재단(<http://mediahub.seoul.go.kr>), 경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http://life4060.kr>),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www.daejeonsenior.or.kr), 충청남도인생이모작지원센터(<http://cntcfol.co.kr>), 부천시인생이모작지원센터(<http://twohappylife.bucheon.go.kr>),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https://www.inlife.or.kr>). / 2019년 3월 기준.

8) 서울시의 경우 2018년 3월에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개관함. 그러나 해당 센터는 대상을 퇴직 교원 및 교직원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현황에 포함시키지 않음. 참고로 서울시 광진구의 경우 구청 민원복지동 2층에 ‘광진 50 플러스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2021년 50플러스 동부캠퍼스 건립 전까지 중장년층에게 인생 재설계, 취창업 정보 제공, 사회참여 일자리 발굴 등 인생이모작지원센터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 중임.

(3) 2019년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2019년 고용노동부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신설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신중년(만 50세 이상 퇴직전문인력)의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신중년의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함
- 2019년 신중년 경력형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선정 지자체 현황을 정리하면 <표 Ⅲ-21>과 같음
 - 인천시에서 선정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천시 차원으로 4개, 군구 차원으로 남동구 3개, 동구 1개, 부평구 5개, 연수구 2개, 옹진군 1개로 총 16개의 사업이 선정됨

<표 Ⅲ-21> 7대 특·광역시 2019년 신중년 경력형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선정 지자체 현황

구분	사업명 및 활동기간	구분	사업명 및 활동기간		
서울 (16)	강서구	부산 (8)	포레스트가이드(7개월)		
			에버그린(7개월)		
	광진구		사회적경제 멘토단(7개월)		
	노원구		신중년 드론안전 관리단(7개월)		
	도봉구		중장년 '남성 자살예방' 멘토사업(6개월)	신중년 재가노인 안전지킴이(7개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꽃중년(6개월)	신중년 인생 컨설턴트(7개월)	
			이모가간다(5개월)		
	서대문구		트레일 기반 희망선 사업(7개월)	금정구	다같이 행복Plus금정만들기 사업(4.5개월)
			시민기록 서포터즈(7개월)		
	서초구		신중년 경력활용 베이커리 공방 운영(7개월)	동구	50+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7개월)
어르신 건강증진 효도안마 사업(7개월)					
성동구	신중년 희망설계 지원단 운영(7개월)	부산진구	부산진구마을형고독사 예방프로젝트(7개월)		
양천구	「ICT기반돌봄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7개월)	대구 (2)	대구시 신중년 Biz 컨설팅 일자리 창출 사업(3개월)		
	마을 교육 전문가 양성		달서구 새롭게 신나게 행복하게		

구분		사업명 및 활동기간	구분		사업명 및 활동기간		
인천 (16)	은평구	및 운영 사업(7개월)	광주 (6)	광산구	새로운 시작, 신중년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7개월)		
		신중년 치매예방 프로그램운영사업(7개월) 장애인 돌봄프로그램 지원사업(7개월)			신중년 고용기획자 양성 일자리 찾아주기(7개월) 평생교육 지원 경력 활용 신중년 일자리 사업(7개월)		
	인천시	모두 Zone(좋은) 신중년 일자리 사업(9개월)			퇴직교사 및 간호사 소방관 일자리 창출(7개월)		
		신중년이 즐거운 마을 '신낙원 인천'(11개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11개월)					
	남동구	중소기업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원(10개월)			오늘이 행복한 학교(7개월) 임산부 심리지원(7개월)		
		모두 ZONE(좋은) 신중년 일자리 사업(7개월)					
		사회 경제 창업 지원 및 컨설팅, 청년창업 지원(7개월) 남동구 41개 지역아동센터 학습 프로그램 강사 파견(7개월)					
	동구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동구 신중년 일자리 사업(7개월)			인생이모작시니어서포터즈단 지역서비스일자리사업(7개월)		
	부평구	취약위기가족 심리상담 지원 사업(7개월)			울산 (3)	울산시	전문경력인사활용 중소기업컨설팅사업(7개월)
		올바른 손 씻기 교육 사업(7개월)					도시재생지역 및 농촌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 및 수도배관 청소사업(7개월)
		사회적기업 및 청년창업 코디네이터 운영(7개월)					
		사전안명의로 상담 및 등록 (7개월)					
	연수구	다문화가족 심리 지원 및 언어 치료(7개월)			소상공인지원 '행복드림금융서포터즈' 운영사업(7개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지원 사업 50+ 컨설턴트 (8개월)					
	옹진군	다문화가족 심리 지원 및 언어 치료 사업(7개월)					
	50+컨설턴트 사업 전문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제공(7개월)						

자료: 1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중장년 대상 정책자료 중 '19년 신중년 경력형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세부사업 선정 및 지자체 현황,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자료(인천시 내부 자료) 재구성, 2차 인천시 노인 정책과 인천시 부분 검토.

(4)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 인천시는 지역 및 세대별 욕구에 맞는 지역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와 협약을 맺어 기존 센터가 진행 중이던 양코르커리어사업과 연계해 ‘모두 ZONE(좋은)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임
 - 해당 사업은 50+세대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제2의 경력개발 지원 및 개인적 성취, 지속적인 사회참여 기회 제공,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지님

〈표 Ⅲ-22〉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의 모두 ZONE(좋은) 일자리 사업 세부내용

일자리명	서비스 대상	내용
장난감 수리전문가	영유아	■ 장난감 수리 기술을 갖춘 신중년이 보육관련 기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 장난감 관리(수리·세척 등)를 지원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에 기여
청소년 진로사람책	청소년	■ 청소년 관련 경험과 자격을 가진 신중년이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 프로그램 및 진로프로그램 운영지원
50+컨설턴트	중장년	■ 신중년에 대한 이해와 상담기술을 갖춘 신중년이 동년배 생애설계상담 운영 및 인천시 신중년 관련 정책정보 제공 지원
어르신 돌봄파트너	노인	■ 노인 돌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신중년이 관련 기관의 노인돌봄 서비스(인지재활, 치매예방 등) 운영 지원 및 독거노인 등의 돌봄 사각지대 발굴

자료: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돌봄사업팀의 모두 ZONE(좋은) 신중년 일자리 사업 계획서 내용 참조.

2) 예비노인세대 대상 노후준비 지원 서비스

- 예비노인세대 대상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에 이어서 인천시 및 군구별 제공되고 있는 노후준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면 〈표 Ⅲ-23〉과 같음
 - 옹진군을 제외한 모든 군구에서 예비노인세대 대상의 노후준비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서비스는 주로 군구청, 평생학습관,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인생재설계 프로그램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음

〈표 Ⅲ-23〉 예비노인세대 대상 노후준비 지원 서비스 현황(2018 ~ 2019년 상반기)

구분	기관	대상(연령)	내용
인천시	인천시 노인종합 문화회관	50~60대 · 은퇴 전·후 베이비부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설계 “인생이모작” 지원 • 인생설계 아카데미(교육 강좌) 운영 : 115명(80회기/ 회기 당 5~10회) 인생설계 아카데미, 아버지 요리, 캘리그래피, 꽃차 소믈리에 등 • 인생이모작 커뮤니티(동아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호회 운영 : 3개(요리, 캘리그래피, 꽃차 소믈리에) - 운영주기 : 월 3회 - 주요활동 : 정기활동, 나눔활동, 발표회 등
	인천시 인재개발원	퇴직예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과 인생설계과정 : 퇴직예정자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실제 은퇴 이후의 성공적인 삶 지원 ■ 행복한 제2막 인생도약과정 :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경영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자기 관리 전략 수립
	인천 고령사회 대응센터	50~65세 미만 예비노인, 노인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지역기반 정책연구 ■ 인생재설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인생캠프, 생애설계 상담 ■ 제2의 경력개발 교육 • 제2의 경력개발 교육 ■ 인생재설계 인식확산 • 공모전, 강연회
중구	중구 노인복지관	50~60대, 은퇴 전·후 베이비부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인생학교 봄봄봄 : 직장, 가정 등 자신이 살아온 지난 삶을 돌아보고 노후에 새로운 자아와 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동구	동구청	여성 및 40~59세 중장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구 취업 캠프 : 이력서 개별 코칭, 지원 회사에 대한 모의면접 실시 등
미추홀구	인천고령사회 대응센터	만 5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인생캠프 : 생애·재무설계, 관계, 일, 여가 관련 교육 제공 ■ 앙코르커리어 아카데미 : 청소년 진로사람책 양성과정 및 돌봄 파트너 양성과정에 대한 교육 제공 ■ 50+세대를 위한 생애설계 상담 제공 ■ 제2경력개발 교육 제공 : 장난감 수리전문가 양성과정, 어르신 돌봄파트너 양성과정 교육 제공
	미추홀구 평생학습관	만 40세 이상 중장년 · 퇴직(예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드림 인생설계 교육 : 만 40세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용현노인 문화센터	만 55~6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인생학교 봄봄봄 : 직장, 가정 등 자신이 살아온 지난 삶을 돌아보고 노후에 새로운 자아와 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연수구	연수구 일자리정책과 (취업정보팀)	만 5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컨설턴트 : 신중년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중년의 지역사회 역할 강화 및 소득보전에 기여(2019년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공모사업 선정) • 대상 :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 인력 • 내용 :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50+컨설턴트를 동 행정복지 센터에 배치하여 구인·구직 상담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발굴

구분	기관	대상(연령)	내용
	연수구 청학동 주민자치센터	35~6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학습)시니어플래너 양성과정(성인) : 시니어 플래너는 퇴직이후 생애설계를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노년기의 활력 있는 삶을 위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배우는 과정
남동구	남동구 일자리 정책과	만 50~67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동형 사회공헌일자리사업 •보람일자리 : 맞춤형 복지 파트너(안부 확인, 청소, 세탁, 심부름 등 생활불편 해소, 독거노인 및 1인 가구 실태조사, 고독사 예방 안부전화, 도시락, 밀반찬 배달 서비스) •재능나눔일자리 - 이웃집 만능수리공 : 어려운 이웃 주거환경개선(전등교체, 보일러, 창호, 욕실, 변기, 세면대, 욕실, 수납 정리 등) - 지역아동 학습 지원 사업 : 지역아동센터 영어, 수학, 한국어 교실 등 - 평생학습 매니저 : 남동구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서포터즈 및 모니터링 - 남동구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장 인력지원 사업(30~60세 미만) : 후원물품 관리(유통기한 확인, 물품 진열 등), 후원 물품 수령 및 배분 등 - 마을활동가 양성 및 지원사업 : 지역 주민협의회(주민공동체) 조직 및 거버넌스 구성, 지역공동체 관련 공모서 작성 및 공동체 활동 지원, 지역 현안문제 연구 및 해결방안 강구 - 아동급식 모니터링 운영 사업 : 지정업체 및 시설 현장 방문 점검, 급식아동 및 보호자 직접 및 전화 상담
	부평구 풀뿌리 여성센터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 활동가 운영 :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을 '육아활동가'로 양성하여 초보 부모에게 육아코칭을 제공하는 사업
부평구	부평구 평생학습관	베이비붐세대 포함 중장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60부평인생학교 : 은퇴 후 남은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고, 뜻이 맞는 동료들 만들어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중장년층 맞춤형 프로그램 ■ 부평구 평생학습 권역별 네트워크 지원사업 : 구립도서관 및 민간도서관의 특성에 맞추어 충추는달팽이도서관에서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미리미리 준비하는 슬기로운 노후생활 프로그램 운영 ■ 시니어 이야기(교육연극)활동가 파견 : 그림책이야기 혹은 부평과 관련된 이야기를 교육연극으로 재구성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공연 활동
계양구	계양구청 일자리 정책과	신중년 (5060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제공형 •여행객을 위한 여행 짐 당일 배송서비스 사업 : 신중년(5060세대)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행객의 짐(캐리어)을 공항에서 호텔, 편의점(집) 또는 호텔, 편의점(집)에서 공항으로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당일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서구청	50~64세 중장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 나침반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경력자산을 점검하고 이를 유지·개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노동시장 및 직업을 이해하고 제2의 인생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서구	서구 노인복지관	만 55~6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인생학교 1기 및 2019 인생학교 2기 : 자신이 살아온 지난 삶을 돌아보고 노후에 새로운 자아와 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구분	기관	대상(연령)	내용
	서구평생 학습관	40~60대 중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래놀이와 인성예절지도자 양성 ■ 인생 이모작 생애설계 교육
강화군	강화군 일자리 지원센터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일자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근로사업 : 65세 미만 주 25시간 이내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65세 미만 주 30시간 이내 ■ 직업훈련 프로그램 • 취업성공패키지(취업지원프로그램) : 64세 이하 대상

자료 : 1차 각 기관 홈페이지 검색, 2차 인천시 노인정책과 검토.

3) 예비노인세대 대상 노후지원 관련 정책사업 예산(2018 ~ 2019)

- 2018 ~ 2019년 인천시 군구, 공사·공단외의 예비노인세대 대상 노후준비 관련 정책사업 예산규모를 조사함. 추진 부서명, 정책 사업명, 지원 대상, 사업내용, 예산액(총사업비 기준)을 조사하였으며, 전 연령대를 포괄하는 일반시민 대상의 사업은 제외함

(1) 인천시 정책사업

- 인천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예비노인세대 대상 노후준비 관련 정책사업과 이에 투입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표 Ⅲ-24>와 같음
 - 예비노인세대 대상 노후준비 관련 정책사업은 주로 일자리경제과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투입된 예산 총액은 2018년에 비해 2019년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인천시 예비노인 및 노인 세대 대상 정책 사업 총 예산 대비 해당 사업 예산 비율 또한 2018년 0.1%에서 2019년 0.2%로 증가함

<표 Ⅲ-24> 인천시 예비노인세대 대상 노후지원 관련 정책사업(2018 ~ 2019)

(단위 : 천원, %)

구분	추진 부서	사업명	지원 대상 (연령 범위)	사업 내용	예산액(비율)	
					2018	2019
인천시 예비노인 및 노인 세대 대상 정책 사업 총 예산					859,646,315 (100.0)	1,045,105,839 (100.0)
계					973,771 (0.1)	2,115,200 (0.2)
1	노인 정책과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	예비노인세대 (50세 이상) 및 노인세대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지원	896,300	1,026,000

구분	추진 부서	사업명	지원 대상 (연령 범위)	사업 내용	예산액(비율)	
					2018	2019
2	일자리 경제과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예비노인 (50세~60세)	은퇴 신중년을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회적 기업 등 비영리기관에 매칭하여 분야별 업무에서 사회공헌활동 수행	77,471	0
3		모두 Zone(좋은) 신중년 일자리 사업	5060 신중년세대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제공 및 신중년 소득창출	0	185,000
4		신(新)중년이 즐거운(樂) 마을(院) 신낙원 인천	5060 신중년세대	신중년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 이수, 맞춤형 재취업컨설팅	0	225,000
5		중소기업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지원사업	60세 이상 65세 이하 재고용 중소기업 기업주	정년퇴직자 지속 재고용 또는 60~64세 근로자 신규채용 시 제조업 중소기업 지원금지원 (1인당 30만원)	0	500,000
6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예비노인 (50세~60세)	은퇴 신중년을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회적 기업 등 비영리기관에 매칭하여 분야별 업무에서 사회공헌활동 수행	0	179,200

주1 : 전체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

주2 : 비율은 전체 예산 대비 해당 사업 예산 비율.

자료 : 국비 시비, 군구비 매칭사업은 인천시 작성, 군구는 매칭사업 외 자체 정책사업 작성.

(2) 인천시 군구별 정책사업

- 인천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예비노인세대 대상 노후준비 관련 정책사업 내용에 이어서 인천시 군구별로 제공되고 있는 사업내용과 예산을 살펴보면 <표 Ⅲ-25>와 같음
-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예비노인세대를 대상으로 노후준비 관련 정책 사업을 추진했던 혹은 추진 중인 구는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로 총 6곳이며, 제공되고 있는 사업은 주로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이 다수를 이루고 있음
- 2019년을 기준으로 사업에 대한 예산액의 규모는 계양구, 서구,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동구 순으로 많았음

- 2019년 예산액이 2018년 대비 감액된 곳은 동구와 남동구로 나타났고 나머지 구는 모두 증액된 것으로 확인됨
- 2019년 사업 예산액이 2018년도에 비해 증액된 구들의 예산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가장 큰 증가를 보인 곳은 서구였으며, 그 외로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순으로 나타남

〈표 Ⅲ-25〉 인천시 군구별 예비노인세대 대상 노후지원 관련 정책사업(2018 ~ 2019)

(단위 : 천원)

구분	추진부서	사업명	지원 대상 (연령 범위)	사업 내용	예산액	
					2018	2019
동구	동구 일자리경제과	신중년 일자리 사업	예비노인 (50~64세)	50-64세 일자리 제공	146,466	0
소 계					33,850	140,780
연수구	연수구 노인장애인과	연수구 50+ 인생이모작사업	예비노인세대	50+ 베이비부머세대 실태 연구용역	33,850	19,900
	연수구 일자리정책과	50+컨설턴트	예비노인 (50세 이상)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50+컨설턴트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하여 구인·구직 상담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발굴	0	120,880
남동구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사회공헌보람 일자리사업	예비노인 및 노인세대 (60세 이상)	맞춤형복지파트너 (반찬배달, 생활불편해소 등)	540,000	510,000
소 계					110,218	244,096
부평구	부평구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활동지원사업	예비노인 (50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시기에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퇴직인력 에게 비영리단체, 사회 적기업, 공공기관 등을 통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여 사회서비스 확산과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함	85,218	95,000
		신중년 경력형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예비노인 (50~64세)	5개 사업, 9명 • 올바른 손 씻기 교육 사업 • 사전연명의료 상담 및 등록 • 사회적기업 청년창업 코디네이터 운영 • 취약위기가족 심리 상담 지원 • 다문화가족 심리지원 및 언어치료	0	124,096

구분	추진부서	사업명	지원 대상 (연령 범위)	사업 내용	예산액	
					2018	2019
	부평구 평생학습과	5060 부평인생학교	중장년층 (50~65세)	은퇴 후 남은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고, 뜻이 맞는 동료를 만들어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	25,000	25,000
	소 계				805,166	1,215,998
계양구	계양구공원 녹지과	녹지관리원	예비노인 (50~65세 미만)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626,452	1,034,599
		꽃단지관리원	예비노인 (50~65세 미만)	계양꽃마루 유지관리	178,714	181,399
	소 계				11,484	792,713
서구	서구 기획예산실	인천시 서구 중·장년 실태조사 연구용역	전기·후기 베이비부머	서구 중·장년층 전반적인 실태, 인식 및 욕구조사	11,484	0
		중·장년 나침반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예비노인 (50~64세)	중·장년 구직자 경력자산 점검 및 유지·개발, 제2인생계획 수립 지원	0	0
		50플러스 지원센터 설립	예비노인 (50~64세)	인생설계, 사회공헌활동, 커뮤니티활동, 일자리 정보 제공 등	0	792,713

주 : 군구별 전체 예산액은 회계별예산규모로 작성.

자료 : 국비 시비, 군구비 매칭사업은 인천시 작성, 군구는 매칭사업 외 자체 정책사업 작성.

5. 사회활동 참여 분야

1) 노인여가복지시설

- 사회활동 참여 분야와 관련하여 예비노인세대와 노인 대상으로 여가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인천시 및 군구별 지원 서비스, 예산 정도를 살펴보고자 함
- 우선 사회활동 참여 분야와 관련된 시설로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포함됨

〈표 Ⅲ-26〉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

종류	시설	시설 내용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 보장, 재가복지, 그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화와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한 사회 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 제공

자료 : 보건복지부(2019). 「2019 노인복지시설현황」

- 전국 및 7대 특·광역시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27〉과 같음
 - 2018년 말 기준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전국에 총 68,013개가 설치되어 있고, 인천시는 총 1,540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Ⅲ-27〉 전국 및 7대 특·광역시 노인여가복지시설

(단위: 명, 개소)

구분	65세 이상 노인인구	합계	노인 천 명당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수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노인복지관 수	종사자 수	시설 당 종사자 수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경로당 수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노인교실 수
전국	7,650,408	68,013	8.9	385	0.05	7,051	18.3	66,286	8.7	1,342	0.18
서울시	1,410,297	3,885	2.8	82	0.06	1,511	18.4	3,425	2.4	378	0.27
부산시	589,961	2,509	4.3	31	0.05	374	12.1	2,311	3.9	167	0.28
대구시	362,934	1,562	4.3	19	0.05	201	10.6	1,508	4.2	35	0.10
인천시	362,675	1,540	4.2	20	0.06	281	14.1	1,489	4.1	31	0.09
광주시	187,186	1,364	7.3	9	0.05	220	24.4	1,315	7.0	40	0.21

구분	65세 이상 노인인구	합계	노인 천 명당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수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노인복지관 수	종사자 수	시설 당 종사자 수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경로당 수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노인교실 수
대전시	188,530	837	4.4	7	0.04	128	18.3	817	4.3	13	0.07
울산시	123,919	841	6.8	13	0.10	170	13.1	806	6.5	22	0.18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 노인복지시설현황」 자료 재구성. / 2018년 말 기준.

주: 65세 이상 노인인구 - 2018. 12. 31 주민등록 인구기준.

- 인천시 군구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현황을 시설 수로 살펴보면 <표 Ⅲ-28>과 같음
 - 서구가 총 252개(노인복지관 3개, 경로당 247개, 노인교실 2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강화군 총 234개(노인복지관 1개, 경로당 233개, 노인교실 0개), 부평구 총 199개(노인복지관 2개, 경로당 188개, 노인교실 9개) 순으로 나타남

<표 Ⅲ-28> 인천시 군구별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현황

(단위: 명, 개소)

구분	65세 이상 노인인구	합계	노인 천 명당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수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노인복지관 수	종사자 수	시설 당 종사자 수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경로당 수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노인교실 수
인천시	362,675	1,540	4.2	20	0.06	281	14.1	1,489	4.1	31	0.09
중구	17,482	81	4.6	1	0.06	16	16.0	77	4.4	3	0.17
동구	13,254	39	2.9	2	0.15	48	24.0	36	2.7	1	0.08
미추홀구	62,833	164	2.6	3	0.05	33	11.0	158	2.5	3	0.05
연수구	31,227	152	4.9	3	0.10	40	13.3	148	4.7	1	0.03
남동구	62,248	186	3.0	1	0.02	28	28.0	179	2.9	6	0.10
부평구	66,424	199	3.0	2	0.03	24	12.0	188	2.8	9	0.14
계양구	33,119	163	4.9	4	0.12	39	9.8	153	4.6	6	0.18
서구	49,975	252	5.0	3	0.06	35	11.7	247	4.9	2	0.04

구분	65세 이상 노인인구	합계	노인 천 명당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수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노인복지관 수	종사자 수	시설 당 종사자 수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경로당 수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노인교실 수
강화군	21,148	234	11.1	1	0.05	18	18.0	233	11.0	0	0.00
옹진군	4,965	70	14.1	0	-	-	-	70	14.1	0	0.00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 노인복지시설현황」 자료 재구성. / 2018년 말 기준.

주: 65세 이상 노인인구 - 2018. 12. 31 주민등록 인구기준.

(1) 노인복지관

-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포함되는 각 시설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노인복지관의 경우 전국에 총 385개가 있으며, 시설 당 종사자 수는 전국 평균 18.3명으로 나타남
- 인천시의 경우 총 20개의 노인복지관이 설립되어 있고, 시설 당 종사자 수의 경우 전국 평균 18.3명보다 적은 14.1명으로 이는 광주(24.4명), 서울(18.4명)에 이어 세 번째 순위임
- 인천시 군구별 현황에서 살펴보면, 계양구에 4개,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에 각각 3개, 동구와 부평구에 각각 2개, 중구, 남동구, 강화군에 각각 1개씩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천시가 현재 수립 중인 노인복지관 확충계획(2019~2023년)에 의하면 총 11개소에 대한 신·증축 계획(신축 10개소, 증축 1개소)을 수립하고 있음(인천시 노인정책과 내부자료)
 - 중구 : 영종노인복지관(2023. 개관)
 - 미추홀구 : 관교동노인복지관(2020. 3월 개관), 주안노인문화센터 별관 증축(2023. 하반기 개관)
 - 남동구 : 남동구노인복지관(2021. 하반기 개관), 만수권역 어르신 건강문화센터(2021. 개관)
 - 부평구 : 부평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2022. 3월 개관), 부평십정권역 노인문화센터(2022. 추진 예정)
 - 서구 : 검단노인복지관(2019. 4월 개관)
 - 강화군 : 강화군노인문화센터(2019. 11월 개관)
 - 옹진군 : 영흥노인복지관(2021. 3월 개관), 백령노인복지관(2020. 하반기 개관)

(2) 경로당

- 두 번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전국에 총 66,286개가 있으며 인천시의 경우 총 1,489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어 노인 천 명당 4.1개의 경로당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전국 평균 8.7개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며 7대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서울시(2.4개), 부산시(3.9개)에 이어 세 번째로 노인 천 명당 경로당의 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됨
 - 향후 개관 예정인 경로당으로는 2019년 1월 착공하여 2020년 개관을 계획하고 있는 ‘서구 월당동 구립경로당’이 있음
- 인천시 군구별 현황에서는 서구(247개), 강화군(233개), 부평구(188개) 순으로 많은 반면 동구(36개), 용진군(70개), 중구(77개) 순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됨
 - 2019년 6월 30일 기준으로 경로당의 기관수는 총 1,515개소(군구립 468개, 사립 1,047개)임 (인천시 노인정책과 내부자료)
 - 중 구 : 총 79개(군구립 36개, 사립 43개)
 - 동 구 : 총 38개(군구립 20개, 사립 18개)
 - 미추홀구 : 총 165개(군구립 71개, 사립 94개)
 - 연 수 구 : 총 151개(군구립 22개, 사립 129개)
 - 남 동 구 : 총 182개(군구립 54개, 사립 128개)
 - 부 평 구 : 총 191개(군구립 51개, 사립 140개)
 - 계 양 : 총 155개(군구립 30개, 사립 125개)
 - 서 구 : 총 251개(군구립 34개, 사립 217개)
 - 강 화 군 : 총 233개(군구립 80개, 사립 153개)
 - 용 진 군 : 총 70개(군구립 70개)

(3) 노인교실

- 노인교실은 전국에 총 1,342개가 있으며, 인천은 총 31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인천시 군구별로 살펴보면 부평구(9개), 남동구·계양구(6개)의 순으로 많이 나타남

2)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 사회활동 참여 지원 서비스

-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 사회활동 참여 관련 기관 현황에 이어서 인천시 및 군구 별 제공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면 <표 Ⅲ-29>와 같음
 - 용진군을 제외하고 모든 군구에서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사회활동 참여 지원 서비스는 주로 구청,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대부분 여가, 교육, 상담 프로그램 및 봉사·동아리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는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으로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의 교육사업 및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음

<표 Ⅲ-29>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 사회활동 참여 지원 서비스 현황(2018 ~ 2019년 상반기)

구분	기관	대상(연령)	내용
인천시	인천 노인종합 문화회관	만 60세 이상 어르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사업-평생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학부 : 초급 A·C·D, 중급 A·B·C, 고급 A(동영상 초급), B(동영상 고급), C(포토샵 초급, 고급), D(파워포인트, 엑셀), E(스위시), 디카를 활용한 블로그, 스마트폰 활용 교육 A·B·C • 어문학부 : 영어(초급·중급), 중국어(초급·중급), 일본어(초급·중급), 우리글(초급·중급), 원어민 영어 회화, 원어민 일본어 회화, 원어민 중국어 회화 • 인문학부 : 알기 쉬운 주역과 서양철학, 논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로 보는 고대사회, 소통의 글쓰기, 현대문학 등 • 예술학부 : 한글서예(초급·중급), 한문서예(입문·초급·중급·고급), 사군자, 서각, 한국화, 수채화(초급·고급), 카메라 사진기법(초급·고급) • 실용음악학부 : 플룻(고급), 오카리나(초급·중급·고급), 하모니카(초급·중급·고급), 통기타(초급·중급·고급), 클래식기타(초급·중급), 우크렐레(초급·고급), 색소폰(고급), 정겨운 가곡, 해설이 있는 클래식 여행, 노래교실·민요교실(자율 이용) • 스포츠건강학부 : 한국무용(초급·중급·고급), 댄스스포츠(초급·중급·고급), 라인댄스, 레크체조, 단전호흡, 탁구(초급·고급), 에어로빅(초급·고급), 다이어트댄스, 지루박·블루스(초급·고급), S라인 밸리댄스, 웰빙요가(초급·고급) • 생활교양학부 : 손뜨개, 동화구연 지도자 자격증(3급) 준비반, 한자자격증 ■ 복지사업-종합상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일반상담(법률상담, 세무상담) ■ 복지사업-자원봉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니어 봉사단 : 노인종합문화회관 내 자원봉사 활동(안내데스크, 프로그램실 등) • 후원형 자원봉사 : 호떡 무료 지원, 안경세척 및 수리지원 • 세시봉 전문 봉사 :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으로 구성되어 연주 공연 봉사 활동 • 일반 자원 봉사 :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등 봉사활동(프로그램 및 행사 보조, 행정 사무 업무 지원)

구분	기관	대상(연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사업-후생복지사업 : 식당 및 카페테리아 운영, 셔틀버스 운영 ■ 복지사업-특화사업 : 미추홀 은빛 오케스트라 및 미추홀 은빛 합창단 ■ 복지사업-지역사회사업 : 지역어울림행사 : 한가위 행복 더하기, 어버이날 카네이션 행사, 도전! 청춘 골든벨 · 조사 및 연구 : 평생교육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 평가,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직원 역량 강화 : 고객만족 교육,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 사회복지실습 : 사회복지 관련 현장 실무 교육 · 홍보 및 출판 : 관내 홍보, 소식지 With Silver 발행, 리플릿 및 브로셔 발행, 언론보도, 홈페이지 관리 · 기관 견학 안내 : 주요 사업 소개 및 기관 라운딩 ■ 평생교육사업 ■ 생활체육사업 : 수영, 헬스 ■ 물리치료실 운영 · 물리치료 서비스 : 온열치료, 전기치료, 공기압치료기, 통증 부위별 마사지 시행 · 건강증진사업 : 건강강좌, 당뇨 검진사업, 콜레스테롤 검진, 지역 연계검진 ■ 어르신 평생교육 특화사업 일환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 교육사업 및 동아리 운영
		예비노인세대 (만 55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시범사업) : 교육사업 및 동아리 운영
	인천시 노인복지관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 언어교육프로그램 : 한글(초급, 중급, 고급, 문해교실), 영어(초급, 중급), 중국어(초급, 중급) · 건강증진프로그램 : 라인댄스, 사교댄스(초급, 중급), 요가(1부, 2부), 탁구(초급, 중급), 에어로빅, 태권, 오픈교실(탁구, 헬스) · 교양취미프로그램 : 민요(초급, 중급), 장구(초급, 중급), 하모니카(초급, 중급, 고급), 서예(한글, 한문), 종이접기, 오픈교실(서예, 바둑, 장기, 민요, 장구) · 정보화교육프로그램 : 컴퓨터첫걸음, 인터넷초급, 인터넷중급, 스위시, 스마트폰활용 · 정서함양프로그램 : 노래교실, 웰빙웃음체조(1부, 2부), 단전호흡 · 기타 프로그램 : 동아리활동(한글도우미)
중구	중구 주민생활 지원과	중장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층 대상 악기교육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동구	동구 노인 복지관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교육사업 · 사업내용 : 영상교육, 신바람노래교실, 웰빙댄스, 댄스스포츠, 민요장구, 한국 무용, 사교댄스, 가요, 노인대학, 난타, 라인댄스, 베이비부머 춤바댄스, 열린교실, 한글서예, 한문서예, 재밌는 당구입문, 영어, 중국어, 실버기자양성교육, 합창, 수학교실, 성명학, 한글, 하모니카, 수지침, 한문, 영어회화, 영어회화 동아리, 수채화, 한국 고대사, 컴퓨터 활용, 멀티미디어, 인터넷활용, 자서전, 컴퓨터, 요가, 태극기공, 일자리인형극, 태권체조, 호신술, 탁구

구분	기관	대상(연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행사 프로그램 : 영화상영(월 1회), 시낭송(연 1회) : 복지관 운영간담회,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이미용서비스,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 상담사업 : 복지관 이용 상담 및 법률상담 ■ 정서생활지원사업 • 부부의 완전한 소통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안소힐링’ : 부부요가, 리마인드 웨딩활용, 앵콜 신혼여행 등 • 어르신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학습 멘토링 ‘노와 노의 연결고리’ : 어르신들의 학습욕구가 높은 프로그램을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멘토와 멘티가 한 팀을 이루어 1:2 학습 멘토링 진행 ■ 노인권익증진사업 : 노인인권교육, 노인자살예방교육, 노인소비자 피해예방교육, 노인 자산관리교육, 노인 성교육 ■ 노인자원봉사지원사업 : 자원봉사자 중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가진 자원봉사자가 개인의 재능을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동구노인 문화센터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사업 : 문화센터 이용 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 사회교육사업 • 건강교실 : 우리춤, 실버체조, 사교댄스, 댄스스포츠, 라인댄스, 탁구교실, 태권체조, 생활요가, 필라테스 • 취미교실 : 민요장구, 사물놀이, 오카리나, 합창교실, 사군자, 서예, 노래, 우쿨렐레, 사진아카데미, 뮤직아카데미 • 학습교실 : 문해교실, 생활한자, 영어, 수지침, 글사랑 • 정보화교실 : 컴퓨터, 인터넷 활용, 사진편집, 스마트폰 연결 • 열린교실 : 열린탁구, 열린장기·바둑, 인터넷카페, 열린서예 • 동아리활동 : 노래, 우리춤, 사물놀이, 댄스, 서예, 뮤직아카데미
	화도진 문화원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버창작무용 :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 및 화도진문화원이 주관(동구노인복지관에서 실시)
미추홀구	미추홀구 노인복지관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사업 : 무료법률상담, 치매심리상담, 치매·우울증 집단상담 ■ 평생교육사업 • 건강교실 : 게이트볼, 곤봉체조, 단전호흡, 명상, 당구, 덩더쿱 체조, 댄스스포츠, 라인댄스, 에어로빅, 힐링요가, 파워요가, 밴드체조, 탁구 라지볼, 탁구, 태권도, 한국무용, 예쁜 몸매 만들기, 웃음교실 • 정보화교실 :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 취미교실 : 노래교실, 민요, 우리가락장구, 사물풍물, 수지침, 아코디언, 오카리나, 통기타, 하모니카, 합창, 난타, 생활한자, 영어, 일본어, 중국어, 검정고시(초등), 한글교실, 수채화, 서각, 민화, 예서사군자, 한글서예, 한문서예
	용현노인 문화센터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지원사업 • 전통문화 : 민요장구, 실버타악, 한문서예, 한글서예, 사군자 • 대중문화 : 노래교실, 라인댄스, 사교댄스, 역사학 • 정보문화 : 스마트폰활용, 컴퓨터첫걸음, 인터넷, 컴퓨터, 영어, 중국어, 일본어 • 건강문화 : 요가, 맷돌체조, 우리춤체조, 건강수지침, 국선도, 밴드체조, 한국가곡교실

구분	기관	대상(연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생활지원사업 • 건강관리사업 : 건강관리실 운영, 건강강좌 • 영양관리사업 : 경로식당 운영, 위생교육 ■ 문화공동체사업 : 문화공연, 노인자원활동 등 ■ 상담교육사업 • 상담 : 신규회원 욕구파악, 일상상담, 전문상담(법률상담, 의료상담, 노후준비상담 등) • 교육 : 신규회원교육(성희롱예방교육, 노인인권 등), 선배시민교육(사회적 이슈 및 노년기 관련 이슈 등)
	주안노인문화센터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 일반상담(회원가입, 이용 상담), 전문상담(법률상담, 건강상담, 집단상담), 일자리상담, 기타상담(상담 욕구조사 및 사례별 서비스 연계) ■ 평생교육 • 교양 : 한글교실, 영어교실, 드라마한국사 • 취미여가 : 실버난타, 사물놀이, 한국무용교실, 하모니카, 노래교실, 민요, 서예, 수채화, 오카리나 • 건강증진 : 생활요가, 에어로빅, 기공체조, 라인댄스, 댄스스포츠, 태권, 경락지압, 웃음치료 • 정보화프로그램 : 컴퓨터, 개방교실 • 소금꽃 예술봉사단 : 합창단, 무용단, 풍물단, 마술단 • 동아리 : 요가, 탁구 ■ 소금꽃 특화사업 • 소금꽃 학생회 : 문화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 및 보고 등 • 이야기 할아버지·할머니 :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희망하는 시설에 '이야기 할아버지·할머니'를 파견하여 그림책을 통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이야기로 풀어내어 3세대의 올바른 인성을 함양·증진 ■ 복리후생사업 • 생활 편의제공 서비스 : 우산대여 및 편의시설 제공 ■ 소금꽃 봉사단 운영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 소금꽃 예술강사파견사업 : 스토리텔러, 명상교육단, 한국무용, 하모니카, 서예, 사물놀이, 민요, 발마사지 • 소금꽃 유량교육단 :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연극을 통해 어린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美꿈 실버인형극단 :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인형극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마련
	학산문화원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문화활동가 양성 사업 : 학산실버마당예술단
연수구	연수구 송도2동 주민자치센터	40~60대 중장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양봉 동아리 모임 (기존 '도시양봉의 이론과 실습' 수료생들)
	연수구 평생교육과 (평생학습팀)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니어 인생학교-성공한 노년을 넘어 선배시민으로 : 돌봄의 대상에서 변화의 주체로 당당한 선배시민이 되는 방법 모색
	연수구 노인복지관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및 정서생활지원사업 : 일반상담, 전문상담(법률·경제·세무 관련), 노인문제예방프로그램(노인학대, 자살, 성, 우울), 행복길라잡이(신입회원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 정보제공), 심리상담

구분	기관	대상(연령)	내용
			<p>(성격 및 심리검사, 개인 및 부부상담, 힐링(타로)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 노년기 우울척도검사, 개별상담</p> <p>■ 평생교육 및 여가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 한글, 생활수학, 영어, 일어회화, 중국어회화, 명심보감, 수지침 • 여가지원 : 한문서예, 한글서예, 우리춤, 카메라, 노래교실, 우리가락, 장구, 합창, 우리춤, 하모니카, 난타, 오카리나, 통기타, 한국화, 서양화, 사군자, 색연필일러스트, 우쿨렐레 • 정보화 : 컴퓨터초보, 문서 활용, 엑셀기초, 인터넷, 스위시, UCC 기초, PC정비, 스마트폰 • 선배시민양성교육 : 동화구연지도사, 전래놀이지도사, 캘리그래피 • 리더양성교육 : 사회교육 반장, 동아리 회장을 대상으로 리더역량 강화프로그램 • 천수동아리 : 포켓볼, 탁구, 바둑·장기, 라디오스타 <p>■ 사회참여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 평생교육을 통해 학습한 재능을 지역사회와 나눔으로써 집단응집력 및 자기효능감 증진 • 동아리대회 : 동아리 대회를 통해 집단 응집력 강화 및 사회적 지지 강화 • 붓으로 여는 세상, 렌즈로 보는 세상 : 취미함양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들의 작품전시회를 통한 자존감 및 성취감 향상 • 사회공헌활동 : 지역사회 대회 및 행사참여를 통해 어르신의 자존감과 자기효능감 증진 및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 문화예술 :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문화공연 및 영화상영 • 시니어전문봉사단 : 6개 분야의 전문봉사단 활동(천수봉사단, 실버봉사단, 맛사랑봉사단, 해피드림, 천수학당봉사단, 컬러스토리텔러봉사단)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선배시민으로서의 자기실현과 타인실현 • 건강지원프로그램 : 힐링댄스, 댄스스포츠, 실버댄스, 웰빙댄스, 생활체조, 기공체조, 라인댄스, 탭댄스, 실버요가, 실버태권도, 탁구기초, 게이트볼, 밸리댄스 <p>■ 가족통합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교류 효 체험장 : 한국의 전통예절과 다도교육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전인교육 효체험장 운영 • 멘토링프로그램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활동 <p>■ 지역복지협력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수봉사단 외 7개 봉사단 운영
	송도 노인 복지관	만 60세 이상	<p>■ 종합상담지원사업 : 일반상담, 전문상담(법률 및 세무), 사례관리, 집단상담(우울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죽음준비 프로그램,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손자녀양육 프로그램, 치매예방 프로그램)</p> <p>■ 평생교육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학/인문학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나만의 에세이 만들기, 사주명리학, 한국역사반, 나만의 여행 계획하기 • 정보화교육 : 컴퓨터 초급/중급/고급, 인터넷활용, 실버코딩, UCC 제작, 스마트폰 초급/중급 • 음악 : 하모니카, 불날합창반, 클래식 기타반, 클래식감상반, 올드팝송반, 난타반, 드럼초급반, 오카리나, 우쿨렐레, 민요장구, 색소폰 • 서예/미술 : 서예(한글 및 한문), 캘리그래피, 수묵화, بوت에니컬 아트, 펜드로잉 • 취미/여가 : 타로카드 배우기, 사진반, 댄스스포츠, 전통무용,

구분	기관	대상(연령)	내용
			<p>라인댄스, 밸리댄스, 가요교실, 레크댄스, 커피교실, 당구교실, 장기바둑, 당구포켓, 요리교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 아침요가, 남성요가, 발레, 단전호흡, 밴드체조, 필라테스, 실버근력스트레칭, 건강생활체조 • 연수구통합사업 : 렛츠고치어댄스 ■ 사회참여지원사업 : 시니어기자단, 안내봉사단, 식당봉사단, 정기 발표회, 동아리대회 ■ 지원사업 : 인천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시니어 강사 양성을 통한 사회참여 프로그램>,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연극반> ■ 가족통합지원사업 • 부부프로그램, 세대통합 프로그램(스마트폰 활용 교육, 추석행사)
	청학노인 문화센터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사업 : 일반상담 및 회원등록, 전문상담(세무, 법률) ■ 사회교육사업 • 건강교육 프로그램 : 한국무용, 발마사지, 라인댄스, 실버로빅, 실버체조, 사교댄스, 실버요가, 댄스스포츠 • 평생교육 프로그램 : 또바기 한글·수학교실, 영어, 중국어 • 취미교육 프로그램 : 노래교실, 난타, 사물놀이, 우쿨렐레, 하모니카, 탁구, 민요장구, 수묵 캘리그라피, 한글서예, 한문서예, 배드민턴 •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 인터넷활용, 생활문서, 프로그램 활용, 스마트폰 초급·중급 • 동아리 사업 : 한국무용 동아리, 탁구 동아리, 당구 동아리, 난타 동아리, 민요장구 동아리 ■ 특화사업 : 1·3세대 통합 탁구교실 'ONE 탁' (어르신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아이들에게 탁구 강습 지도 및 정기적 소통·교류) • 청학시네마 : 격달 영화 상영을 통해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 • 청학College : 필수과목 및 교양과목으로 통합 운영하여 수업의 질적 향상 및 자아성취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입학식 / 12월 졸업식 - 필수 4과목(합창, 춤바댄스, 건강강좌, 인문학), 선택 1과목 - 봉사활동 ■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 청학뮤직Q : 쉽고 재밌는 키보드 연주 및 타악기 합주 ■ 지역복지사업 • 사회참여 지원사업 : 문화체험 나들이, 어버이날 행사, 개관 기념 행사 등 • 지역사회네트워크 : 금융교육, 웰다잉교육 등
남동구	만수4동 행정복지센터	중장년	■ 라인댄스
	만수6동 행정복지센터	55세 이상 성인남녀	■ 라인댄스(시니어)
	남동구 노인복지관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사업 • 교양 프로그램 : 명리학, 명심보감, 문인화, 서예한글, 서예한문, 서예고급, 한글 • 외국어 프로그램 : 영어, 일본어, 중국어 • 정보화 프로그램 : 동영상 제작,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 운동 프로그램 : 기공체조, 당구, 댄스스포츠, 라인댄스, 밸리

구분	기관	대상(연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댄스, 사교댄스, 실버태권도, 요가, 에어로빅, 탁구, 한국무용 건강관리 프로그램 : 서금요법 음악 프로그램 : 가요, 난타, 민요, 사물, 오카리나, 하모니카, 합창 취미교육 프로그램 : 미술스케치, 바둑·장기, 캘리그래피, 무비 데이 영화상영 지원사업 프로그램 : 우쿨렐레 ■ 노인전문상담사업 : 무료법률상담, 특화프로그램(치매예방, 리더십 강화, 황혼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자조 모임 등)
	만월종합 사회복지관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문화사업 : 하모니카, 영어교실, 라인댄스, 신바람 건강댄스, 실버태권도
		만 55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문화사업 : 은빛컴퓨터교실(인터넷활용, 문서작성, 모바일) ■ 컴퓨터 동아리 : 문서 편집, 인터넷 활용 등
	성산종합 사회복지관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문화사업 : 성산문화대학 • 열린 강좌 : 노래교실 • 선택과목 : 컴퓨터, 스마트폰, 국어교실, 한자교실, 기공체조, 라인댄스, 포켓볼교실, 당구교실, 민요가락장단, 미술교실 • 동아리 : 포켓볼&당구
부평구	부광 노인대학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 편성 • 교양학부 : 장기학과, 원예학과, 동화구연학과, 성경이야기학과, 컴퓨터학과 • 어문학부 : 국문학과, 영어학과, 중국어학과, 한문학과, 일어학과, 일어동아리 • 예술학부 : 합창학과, 서예학과, 노래교실학과, 하모니학과, 한국무용학과, 풍물학과, 민요학과, 미술학과, 사진학과, 홈패션학과, 탁구학과, 수지침학과, 건강체조학과, 게이트볼학과, 배드민턴학과, 생활요가학과, 치료레크레이션학과, 댄스스포츠학과, 웰빙댄스학과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 부설 노인대학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편성 • 교양, 사회정보, 국내외 정세 • 노래교실, 웃음체조, 에어로빅, 덤벨체조, 생활체조
	선일 노인대학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 편성 • 한글학과, 노인레크댄스학과, 노인음악치료학과, 노인생활건강학과, 일어학과 • 레크레이션, 행복특강, 건강특강
	행복한 실버대학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 편성 • 한글학과, 노래학과, 영어학과, 컴퓨터학과 • 레크레이션, 행복마인드특강, 건강체조
	부평구 노인복지관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사업 • 웰다잉&웰빙 : 죽음준비교육「하늘소풍준비하기」,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캠페인 • 예비노인은퇴준비 : 베이비붐세대 종합컨설팅 • 직업재활 : 재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운영(실버바리스타, 동화구연지도사) • 신노년 문화형성 : 참살이예술봉사단(난타공연반, 댄스스포츠 공연반, 에어로빅공연반, 해빛나합창단, 각설이창극)

구분	기관	대상(연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 학력보완 :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 - 건강증진 :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사교댄스, 탁구 - 건강관리 : 실버요가, 정통요가, 웃음요가, 힐링요가, 밴드스트레칭, 매트체조, 라인댄스 - 문화예술 : 민요, 노래교실, 고전무용, 혼성합창기초, 뮤지카카데미, 미술, 연극 - 자기계발 : 난타, 풍물놀이, 하모니카, 핸드벨, 한지공예, 디지털카메라작품, 통기타, 난타, 댄스 - 교양교육 : 서예, 수묵화, 작은도서관 - 정보화교육 : 컴퓨터, 인터넷활용, 한글문서작성, 스마트폰활용, 일반휴대폰활용 - 열린교실 : 자율탁구, 자율당구, 게이트볼, 장기바둑, 체력단련, 포켓볼, 배드민턴 ■ 복리후생사업 : 경로식당 운영, 셔틀버스 운영, 이·마용 자원봉사 ■ 노인종합상담센터 : 이용상담, 전문상담(법률상담, 우울상담, 자살 및 치매예방상담, 금융상담, 세무상담), 노년기 삶의 질 향상과 목적설정을 위한 이야기치료프로그램 운영, 반려자 찾기 상담
	산곡노인 문화센터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사업 : 노인전문상담(무료법률상담, 치매예방상담 등), 반장 리더십프로그램(역할 및 리더십 교육) ■ 평생교육사업 • 어학 강좌 : 영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회화, 한글 • 정보화 강좌 : 컴퓨터 기초, 인터넷 활용, 컴퓨터·인터넷, 스마트폰 활용 • 건강 강좌 : 시니어로빅, 신바람체조, 라인댄스, 사교댄스, 한국 무용, 힐링요가, 매트체조, 탁구, 당구, 실버 태권체조 ■ 취미 강좌 : 하모니카, 우쿨렐레, 민요, 수채화, 캘리그래피, 한문 서예, 사군자, 노래교실, 뮤지컬 ■ 특강 교실 : 새콤달콤 시니어 요리교실, 스마트폰 완전정복
	부평 문화원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니어극단 은빛여울 : 인생이모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 나눔활동 전개,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 부평토굴 등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연극 공연
		50~7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평지락(地樂) : 과거 굴포천변에서 진행되었던 전통놀이 및 농기 놀이 재현
	청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인 중장년 은둔형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에 맞는 음식 만들기, 나들이, 영화 관람, 미술치료 등
계양구	계양구 노인복지관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교육사업 • 건강관리 프로그램 : 요가, 건강체조, 라인댄스, 실버체조, 태극권, 뽀빠기체조, 줌바, 발리댄스 • 교양교육 프로그램 : 한글, 영어, 사물놀이, 수묵화, 일어, 서예, 중국어, 합창, 캘리그래피, 난타 • 여가취미 프로그램 : 가요, 국악, 기타, 당구, 포켓볼, 사교댄스, 탁구, 스포츠댄스, 차밍댄스, 한국무용, 오키나와, 에어로빅, 하모니카, 우쿨렐레 •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 컴퓨터, 인터넷활용, 스마트폰활용교육

구분	기관	대상(연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활동 : 스포츠댄스 동아리, 사교댄스 동아리, 한국무용 동아리, 탁구사랑 동아리, 컴퓨터 동아리, 문방사우 동아리, 게이트볼 동아리, 사물놀이 동아리, 당구·포켓 동아리, 기타 동아리, 오키리나 동아리, 합창 동아리 • 자치활동 : 당구장, 장기·바둑, 노래방, 탁구장, 정보검색대 • 지역연계 프로그램 : 지역자원을 연계·활용한 교육진행(금융교육, 라인댄스, 탁구 등) • 특별 프로그램 : 세대통합프로그램, 원예특강, 선배시민양성교육, 베이비부머 프로그램, 조부모 프로그램 • 외부지원사업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사진, 미술) • 예술봉사단 : 사물놀이, 한국무용, 우쿨렐레 등 ■ 상담사업 : 이용상담, 전문상담(법률상담, 금융상담, 우울증상담, 영양상담, 전문의료상담, 전문상담), 집단상담(웹디자인프로그램, 치매예방 프로그램 이미지 개선 프로그램, 마음 다스리기 프로그램, 이성 에티켓 프로그램)
	계산노인 문화센터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교육사업 • 정보화사업 : 컴퓨터, 인터넷활용, 블로그 만들기, 사진편집반, 파워포인트, 스마트폰 • 무용사업 : 고전무용, 스포츠댄스, 사교댄스, 춤바댄스 • 건강증진사업 : 국학기공, 스트레칭체조, 검도, 힐링요가, 요가댄스 • 음악사업 : 우쿨렐레, 민요, 하모니카, 노래교실, 합창, 중창 • 평생교육사업 : 기초영어, 영어, 영어회화, 한문, 중국어, 일본어 • 동아리사업 : 난타, 사물놀이, 장구난타 ■ 지역복지사업 : 탁구장, 바둑장기실, 당구장, 건강증진실, 혈압계, 이미용서비스, 네일아트서비스 ■ 상담관리사업 : 생활상담, 전문상담(심리문제, 의료문제, 법률문제, 세무상담 등에 대하여 전문가와 연계하여 상담) ■ 노인자원봉사사업 : 재능나눔공연, 지역사회참여 등
	효성노인 문화센터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사업 : 이용 상담, 전문상담연계(법률상담, 의료상담, 금융상담, 세무 상담 등) ■ 사회교육사업 • 건강교육 : 요가교실, 밴드체조, 라인댄스, 건강체조, 실버태극권, 맷돌체조, 고전무용, 실버에어로빅, 춤바댄스, 댄스스포츠, 사교댄스 • 예능교육 : 노래교실, 장구난타, 장구민요, 사물놀이, 하모니카, 우쿨렐레 • 평생교육 : 영어교실, 중국어교실, 한글교실, 한문반, 바른글씨 • 정보화교육 : 컴퓨터교실, 인터넷(스마트폰)활용, 동영상교실, 포토스케이프, 디지털카메라 • 취미교육 : 캘리그래피, 스케치(홀스케치), 서예반 • 지역복지사업 : 당구교실, 탁구교실, 장기바둑실, 체력단련실, 작은도서관, 이미용서비스, 나들이, 생신잔치 • 외부연계지원사업 : 공연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 공연관람, 건강인권세무 등 외부특강 실시
	동양 노인 문화센터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생활지원사업 : 일반상담, 전문상담(건강, 법률, 세무) ■ 평생교육사업 • 어학교육 : 생활영어, 명심보감, 디딤돌 중국어 • 예능교육 : 난타댄스, 노래교실, 사물놀이, 퍼즐, 덩더쿵우리춤, 합창, 홀스케치, 우쿨렐레, 하모니카, 건반교실 • 건강교육 : 사교댄스, 실버라인댄스, 건강체조, 에어로빅스체조, 실버태극도, 댄스스포츠, 힐링요가, 스트레칭체조, 웃음건강교실,

구분	기관	대상(연령)	내용
			탁구교실, 100세 장수운동, 실버건강시대 체조단 • 정보화교육 : 컴퓨터교실, 스마트폰 활용교육 • 교양교육 : 문화산책(시청각 자료 및 공연 지원 사업 연계를 통한 문화 예술 감상 지원), 교양문화(사회적 이슈, 건강, 교양 등 다양한 주제의 특강 실시) • 특화사업 프로그램 : 맞춤형 운동 지도 ■ 노인자원봉사 사업 : 노인자원 개발 및 관리, 노인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
	계양구청 복지정책과	만 50세 이상 ~ 64세 이하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나를 찾는 5060 :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악기 연주 및 정서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가치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고취 및 자기계발에 대한 동기부여 음악 이론 및 실기(주1회, 60분), 정서지원 프로그램(주 1회, 60분) 악기 연주(합주)회 실기(반기별 1회)
	효성2동 주민센터	60세 이상	■ 시니어라인댄스
	계양3동 보장협의체	독거노인 및 중장년 1인 가구	■ 추석맞이 전통놀이 프로그램
	계양구 평생학습관	60~70대 시민 (정원 미달 시 50대 선발 예정)	■ [평생학습도시] 6070 도시농업 리더 : 작물 재배 교육, 공동 재배지 구성, 재배 정보 교환(전문가 자문) 등
		중장년 대상	■ 노후가 행복한 부부교실 : 부부의 아동기 경험이 부부관계 및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 이해
서구	서구 자원봉사 센터	50세 이상	■ 시니어자원봉사대
	서구 노인복지관	만 60세 이상	■ 평생교육사업 • 건강 프로그램 : 기체조, 댄스스포츠, 라인댄스, 라지볼, 사교댄스, 요가, 에어로빅, 우리춤, 차밍 • 교육 프로그램 : 영어, 일어, 중국어, 컴퓨터, 인터넷, 핸드폰 활용, UCC제작, 한글, 한자 • 취미·여가 프로그램 : 기타, 노래교실, 카메라활용, 농악, 민요, 문인화, 미술, 서각, 오카리나, 종합공예, 하모니카, 한국무용, 한글서예, 한문서예, 합창 • 동아리 : 기체조, 라지볼, 농악 ■ 상담사업 : 신입회원관리, 이용 상담, 외부 전문가 상담, 생활 상담, 우울증개선프로그램
	가좌노인 문화센터	만 60세 이상	■ 상담사업 : 일반상담, 여가문화 정보 공유(문화생활 정보 안내 및 상담을 통해 노인문화 활성화 도모), 전문상담(일자리 상담, 가족 문제 상담, 심리·경제적 문제 상담, 전문 영역 상담) ■ 평생교육 프로그램 • 여학교육 프로그램 : 국어, 영어기초, 영어중급, 일어기초, 일어중급, 중국어, 한자, 역사 • 건강증진 프로그램 : 웰빙요가, 시니어로빅, 라지볼A •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 생활문서작성, 멀티미디어, 컴퓨터양기초, 컴퓨터중급, 스마트폰기초, 스마트폰활용

구분	기관	대상(연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여가 프로그램 : 노래교실, 한국무용, 한국무용기초, 댄스스포츠 기초, 댄스스포츠 중급, 사교댄스 기초, 사교댄스 중급, 사물놀이, 풍물놀이, 민요, 라인댄스 • 미술교육 프로그램 : 서예, 문인화, 발도르프
	연희노인 문화센터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 어학 프로그램 : 영어반, 중국어반, 국어기초반, 성인문해반, 일본어반 • 건강 프로그램 : 매트체조, 실버요가, 시니어로빅, 힐링댄스, 건강체조, 기체조, 난타, 사교댄스, 웃음요가, 댄스스포츠 • 취미·여가 프로그램 : 오카리나, 기타, 하모니카, 사물놀이, 노래교실, 합창, 미술반, 서예, 사군자 • 동아리 활동 : 댄스스포츠동아리, 사교댄스, 도예반, 기타반 ■ 정보화교육사업 : 컴퓨터초급, 사진편집, 한글과 파워포인트, 인터넷활용 고령층정보화사업(멀티미디어과정 및 스마트폰활용) ■ 상담사업 : 연계상담, 여가·문화 정보공유
	인천기독교 종합사회 복지관	만 5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한 어울림 • 행복한 우리 동네 만들기를 위한 모임으로 ‘함께’, ‘더불어’를 실천하는 세대통합을 위한 활동 진행 • 전래동화 연극단 - 행복전파단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 평생교육 프로그램 ‘청춘대학’ •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교육 강좌 및 특별행사 진행 • 한글교실, 서예교실, 라인댄스, 건강체조, 덩더꿍체조, 시니어로빅, 노래교실, 당구/포켓볼, 탁구 등
강화군	강화군 노인복지관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사업 • 건강증진프로그램 : 경락파스요법, 건강마사지, 웰빙요가, 우슈, 태권도, 탁구교실 • 교양교육프로그램 : 한자, 산수, 한글, 영어, 서예, 한국화, 문인화, 서양화, 중국어, 일본어, 인문학, 캘리그래피 • 여가·취미 프로그램 : 장수댄스, 라인댄스, 방송댄스, 민요교실, 노래교실, 하모니카, 한지공예, 도자기, 우쿨렐레, 난타교실, 풍물교실, 어버이합창단, 통기타, 게이트볼, 바둑교실, 색소폰교실, 드럼교실 • 정보화 프로그램 : 컴퓨터, 블로그 및 사진편집, 엑셀 및 파워포인트, 스마트폰활용교육 • 특강 프로그램 : 노인재능나눔(원드오케스트라), 도서지역 어르신 삶의 질 활력증진 서비스(요가, 공예) • 동아리 활동 : 강화실버영상제작단, 갑비고차(라인댄스 동아리), 통울림(통기타), 청춘에버그린(노래), 모란회(서양화), 해당화(민요), 한얼(태권도), 웰페어(우슈), 한마음경락파스, 행복한 실버(컴퓨터), 마중물 자원봉사 등 ■ 전문상담 : 노인 심리상담, 치매·우울 심리상담, 법률상담

자료 : 1차 각 기관 홈페이지 검색, 2차 인천시 노인정책과 검토

3)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 사회활동 참여 관련 정책사업 예산(2018 ~ 2019)

- 2018 ~ 2019년 인천시 군구별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 사회활동 참여 관련 정책사업 예산규모를 조사함. 추진 부서명, 정책 사업명, 지원 대상, 사업내용, 예산액(총사업비 기준)을 조사하였으며, 전 연령대를 포괄하는 일반시민 대상의 사업은 제외함
- 사회활동 참여 관련 정책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노인복지관 등의 여가시설 기능 보강 등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으로 여가 및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 관련 사업 내용 또한 포함함

(1) 인천시 정책사업

- 인천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 사회활동 참여 관련 정책사업과 이에 투입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표 Ⅲ-30>과 같음
 -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 사회활동 참여 관련 정책은 주로 노인정책과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정보화담당과, 문화예술과, 미추홀도서관에서도 추진되고 있음
 -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 사회활동 참여 관련 정책사업에 투입된 예산 총액은 2018년에 비해 2019년 감소하였으며 인천시 예비노인 및 노인 세대 대상 정책 사업 총 예산 대비 해당 정책사업에 투입된 예산 비율 또한 2018년 4.6%에서 2019년 3.2%로 감소함
 - 예산의 감소는 어버이날 기념행사, 무더위쉼터(경로당) 한시 운영, 강화군 노인문화센터 건립, 검단 노인복지관 건립,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의 완료 및 폐지·축소 등으로 인해 발생함

<표 Ⅲ-30> 인천시 예비노인세대 대상 사회활동 참여 관련 정책사업(2018 ~ 2019)

(단위 : 천원, %)

구분	추진 부서	사업명	지원 대상 (연령 범위)	사업 내용	예산액(비율)	
					2018	2019
인천시 예비노인 및 노인 세대 대상 정책 사업 총 예산					859,646,315 (100.0)	1,045,105,839 (100.0)
계					39,215,139 (4.6)	33,284,567 (3.2)
1	노인 정책과	독거노인사회관계 활성화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50,000	50,000
2		경로당여가문화	노인세대	경로당	2,107,890	2,207,246

구분	추진 부서	사업명	지원 대상 (연령 범위)	사업 내용	예산액(비율)	
					2018	2019
3		보급사업지원	(만65세 이상)	여가문화프로그램 지원		
		노인생활체육 지원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대한노인회 노인게이트볼 등 생활체육대회 지원	38,200	56,000
		인천어르신 지역사회참여지원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어르신 지역사회 참여서비스 제공 활동비 지원	0	50,000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지원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비 지원	30,000	33,000
		인천시노인복지관 운영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시노인복지관 운영비	473,473	496,732
		어버이날 기념행사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	100,000	70,000
		노인종합문화회관 운영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노인종합문화회관 운영	3,647,985	3,825,158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261,840	264,620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지원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지원	3,202,138	3,308,000
		노인자원봉사대 운영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노인자원봉사대 운영(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운동 등)	50,000	100,000
		전국 노인자원봉사축제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전국단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관련 행사 지원	4,000	4,000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상담교육지원 (주민참여예산)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상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0	32,500
		경로당 운영지원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경로당 운영지원 (1,510개소)	4,288,724	4,634,200
		무더위쉼터 (경로당) 한시운영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무더위쉼터 경로당운영비 한시운영	60,100	0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군구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8,034,984	8,414,712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원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군구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원	4,682,754	5,493,728

구분	추진 부서	사업명	지원 대상 (연령 범위)	사업 내용	예산액(비율)	
					2018	2019
18		노인대학 운영지원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군구 노인대학 운영지원	446,400	501,800
19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지원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지원	254,518	272,752
20		노인여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주민참여예산)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노인여가시설내 공기청정기 지원	0	189,200
21		노인복지관 등 여가시설 기능 보강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노인복지관 등 여가시설 기능 보강	0	200,000
22		사할린동포 입소시설 운영지원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사할린동포 입소시설 운영지원	1,057,000	1,382,200
23		노인마을형 실버농장 운영비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노인마을형 실버농장 운영비지원	10,000	10,000
24		강화군 노인문화센터 건립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강화군 노인문화센터 건립	8,000,000	0
25		검단 노인복지관 건립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검단 노인복지관 건립	1,000,000	0
26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983,883	0
27		군구 지회 사업비 지원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군구 지회 사업비 지원 (사회복지기금사업)	23,000	23,000
28		대한노인회 육성 및 활동지원사업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대한노인회 육성 및 활동지원 (사회복지기금사업)	27,839	27,839
29		구립 원당동 경로당 건립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구립 원당동 경로당 건립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0	620,000
30		목상동 경로당 건립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목상동 경로당 건립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0	511,000
31	정보화 담당관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	고령층 (55세 이상)	집합정보화교육 기관 공모·선정, 위탁수행 (국, 시비 매칭사업)	12,800	12,342
32	문화	아름다운 이야기	예비노인	여성 어르신	350,506	424,288

구분	추진 부서	사업명	지원 대상 (연령 범위)	사업 내용	예산액(비율)	
					2018	2019
	예술과	할머니	(56세~70세)	(56~70)을 유아교육기관에 파견하여 유아들에게 선현들의 전통스토리를 들려줌		
33		작은도서관 실버프로	노인세대 (65세 이상)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0	50,000
34	미추홀 도서관	책으로 만나는 실버도우미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60세 이상,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북스타트 사업의 일환 • 노인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하여 선발 및 교육 • 관내 14개 거점 공공도서관에 파견 • 북스타트 사업 홍보 및 영유아와 책놀이 프로그램 운영지원 	17,105	20,250

주1 : 전체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

주2 : 비율은 전체 예산 대비 해당 사업 예산 비율.

자료 : 국비 시비, 군구비 매칭사업은 인천시 작성, 군구는 매칭사업 외 자체 정책사업 작성.

(2) 인천시 군구별 정책사업

- 인천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 사회활동 참여 관련 정책사업 내용에 이어서 인천시 군구별로 제공되고 있는 사업내용과 예산을 살펴보면 <표 III-31>과 같음
-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으로 사회활동 참여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했던 혹은 추진 중인 구는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총 4곳으로 나타남
-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액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미추홀구, 연수구, 중구, 부평구 순으로 많았음
- 2019년 예산액이 2018년 대비 감액된 곳은 연수구와 부평구로 나타났고, 중구와 미추홀구는 증액된 것으로 확인됨

- 2019년 사업 예산액이 2018년도에 비해 증액된 구들의 예산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중구는 64.6%, 미추홀구 29.2%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표 III-31〉 인천시 군구별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 사회활동 참여 관련 정책사업(2018 ~ 2019)

(단위 : 천원)

구분	추진부서	사업명	지원 대상 (연령 범위)	사업 내용	예산액	
					2018	2019
중구	소 계				113,497	186,823
	중구어르신 장애인과	동별 경로잔치 행사비 지원	노인세대 (65세 이상)	식사 대접 및 위안공연 등 관내 노인들을 위한 경로위안잔치 행사비 지원	35,997	42,823
		경로 및 노인의 날 행사 운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의 날 기념식 및 모범노인, 노인복지 기자 등 표창	7,500	7,500
		경로당 개보수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후 경로당 개보수 실시	30,000	40,000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	노인세대 (65세 이상)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	40,000	50,000
		어르신 썸지놀이터 운영비 지원	노인세대 (65세 이상)	어르신 여가, 전통놀이체험, 만들기 프로그램, 건강, 심리, 치매예방프로그램 진행	0	46,500
미추홀구	소 계				710,303	917,736
	미추홀구 노인장애인 복지과	노인행사지원 및 경로행사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여가생활지원 및 경로효친사상 제고	126,320	127,160
		경로당 시설관리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여가생활지원 시설관리	330,109	369,746
		경로당 생활집기 및 쌀 지원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여가생활지원	164,124	280,480
		노인문화예술 체험행사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여가생활지원 (문화체험)	20,000	20,000
		대한노인회 미추홀지회 운영비 지원	노인세대 (65세 이상)	단체 운영비 지원	48,600	52,200
		경로당 부지 매입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여가생활지원	0	20,000
		어르신 사관학교 운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여가생활지원	0	12,000
미추홀구 미디어홍보실	정보화교육	예비노인 및 노인세대	정보교육	21,150	21,150	

구분	추진부서	사업명	지원 대상 (연령 범위)	사업 내용	예산액	
					2018	2019
	미추홀구 문화예술과	실버미술대전	예비노인 및 노인세대	문화예술활동 지원	0	15,000
	소 계				1,499,907	458,684
연수구	연수구 노인장애인과	연수구 노인교실운영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연수구 노인교실운영	51,820	51,820
		노인복지시설 조사 및 지원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노인복지시설 조사 및 지원	4,224	3,840
		연수구 노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연수구 노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	784,000	0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노인의 날 행사 지원	150,000	0
		경로당 지원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가전, 기기, 생활용품 등 지원	156,106	58,849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경로당(생활집기) 기능보강	135,000	140,000
		경로당 개보수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경로당 개보수	153,000	155,000
		민간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대한노인회 육성 및 활동지원, 경로의 달 운영비 지원	65,757	49,175
	소 계				16,760	10,000
부평구	부평구 평생학습과	시니어이야기 (교육연극) 활동가파견	예비노인 (55세 이상)	그림책 이야기 및 부평과 관련된 창작극을 교육연극으로 재구성하여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공연활동	16,760	10,000
	부평구 갈산1동	실버 탁구	노인세대 (70세 이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가 주 2회 (화/목 10~12시) 행정 복지센터에서 등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탁구 지도	0	0

주 : 군구별 전체 예산액은 회계별예산규모로 작성(단, 중구와 미추홀구의 경우 「세입총괄표」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 국비 시비, 군구비 매칭사업은 인천시 작성, 군구는 매칭사업 외 자체 정책사업 작성.

6. 돌봄 분야

- 돌봄 분야와 관련하여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천시 및 군구별 서비스, 예산 정도를 살펴봄. 또한 내용면에서 건강, 의료, 주거 관련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룸

1) 돌봄 관련 시설

- 노인복지시설에 포함되는 다양한 시설 중 앞서 소득 분야에서 살펴본 노인일자리지 원기관과 사회활동 참여 분야에서 살펴본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제외함
- 각 시설의 운영 내용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음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2조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8조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14
- 법상에서 제시한 시설 이외에 자치단체별 시설 운영 및 설치에 대한 현황 내용을 본 장에 포함하여 기술함

〈표 III-32〉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종류	시설	시설 내용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노인공동생활가정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영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종류	시설	시설 내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③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재가노인으로서 신체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 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그 밖의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④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국가가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설치 및 운영하는 기관

자료 : 보건복지부(2018). 「2018 노인복지시설현황」.

(1) 노인주거복지시설

- 전국 및 7대 특·광역시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과 세부적인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33>과 같음
 - 2018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총 390개가 설치되어 있어 노인 인구 천 명당 0.05개의 시설이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인천시의 경우 총 22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 천 명당 해당시설 수는 0.06개로 7대 특·광역시 중 노인 천 명당 노인주거복지시설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입소율의 경우 인천시는 70.4%로, 전국 평균(75.0%)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는 서울시(86.7%), 부산시(83.1%), 광주시(72.2%)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전국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수는 총 3,317명으로 시설 당 종사자 수는 전국 평균 8.5명으로 나타남
 - 인천시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수는 총 142명으로 시설 당 6.5명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8.5명)보다 적었으며, 대전시 4.8명에 이어 하위 두 번째로 확인됨

<표 Ⅲ-33> 전국 및 7대 특·광역시 노인주거복지시설

(단위: 명, 개소, %)

구분	65세 이상 노인인구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시설수	노인 천 명당 노인주거 복지시설 수	입소인원			종사자 수	
				정원	현원	입소율	총원	시설 당 종사자 수
전국	7,650,408	390	0.05	19,897	14,920	75.0	3,317	8.5
서울시	1,410,297	26	0.02	3,092	2,680	86.7	545	21.0
부산시	589,961	7	0.01	621	516	83.1	91	13.0
대구시	362,934	6	0.02	473	264	55.8	68	11.3
인천시	362,675	22	0.06	894	629	70.4	142	6.5
광주시	187,186	3	0.02	176	127	72.2	34	11.3
대전시	188,530	8	0.04	282	126	44.7	38	4.8
울산시	123,919	2	0.02	114	54	47.4	17	8.5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 노인복지시설현황」 자료 재구성. / 2018년 말 기준.

주1: 65세 이상 노인인구 - 2018. 12. 31 주민등록 인구기준.

주2: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포함된 노인복지주택의 정원은 세대수로 측정됨(주택은 1세대에 노인 1명 또는 여러 명이 거주 가능하므로 정원이 없음).

- 인천시의 경우 총 22개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군구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34>와 같음
 - 우선, 시설 수로 살펴보면 강화군이 9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구(6개), 부평구(3개), 계양구(2개), 연수구 및 남동구가 각각 1개로 나타남. 중구, 동구, 미추홀구, 용진군의 경우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입소율의 경우, 계양구가 8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부평구(80.9%), 서구(77.9%), 남동구(65.9%) 순으로 높게 나타남. 연수구(45.7%), 강화군(59.5%)의 경우 다른 군구에 비해 낮은 입소율을 보임
 -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수 총원으로는 서구(49명), 강화군(41명), 계양구(19명)순으로 많았던 반면 시설 당 종사자 수로는 연수구(11명), 계양구(9.5명), 서구(8.2명) 순으로 많았고, 강화군(4.6명), 남동구(5.0명) 순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34> 인천시 군구별 노인주거복지시설

(단위: 명, 개소, %)

구분	65세 이상 노인인구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노인주거 복지시설 수	입소인원			종사자 수	
				정원	현원	입소율	총원	시설 당 종사자 수
인천시	362,675	22	0.06	894	629	70.4	142	6.5
중구	17,482	0	-	-	-	-	-	-
동구	13,254	0	-	-	-	-	-	-
미추홀구	62,833	0	-	-	-	-	-	-
연수구	31,227	1	0.03	70	32	45.7	11	11.0
남동구	62,248	1	0.02	41	27	65.9	5	5.0
부평구	66,424	3	0.05	68	55	80.9	17	5.7
계양구	33,119	2	0.06	39	34	87.2	19	9.5
서구	49,975	6	0.12	429	334	77.9	49	8.2
강화군	21,148	9	0.43	247	147	59.5	41	4.6
용진군	4,965	0	-	-	-	-	-	-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 노인복지시설현황」 자료 재구성. / 2018년 말 기준.

주1: 65세 이상 노인인구 - 2018. 12. 31 주민등록 인구기준.

주2: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포함된 노인복지주택의 정원은 세대수로 측정됨(주택은 1세대에 노인 1명 또는 여러 명이 거주 가능하므로 정원이 없음).

① 양로시설

- 전반적인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에 이어 종류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우선 양로시설에 대한 인천시 군구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35>와 같음
 - 총 22개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이 16개로 절반이 강화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어 서구에 4개,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에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음
 - 입소율의 경우 부평구가 88.0%로 가장 높고, 연수구가 45.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양로시설 종사자 수를 총원으로 보면 강화군(40명), 서구(29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동구가 5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시설 당 종사자 수는 계양구가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부평구(12명) 순으로 나타남
 - 특히, 강화군의 경우 다른 군구에 비해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시설 수, 종사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질적인 입소율은 낮은 것으로 확인됨

<표 Ⅲ-35> 인천시 군구별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현황

(단위: 명, 개소, %)

구분	65세 이상 노인인구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양로시설 수	입소인원			종사자 수	
				정원	현원	입소율	총원	시설 당 종사자 수
인천시	362,675	16	0.04	585	355	60.7	112	7.0
중구	17,482	0	-	-	-	-	-	-
동구	13,254	0	-	-	-	-	-	-
미추홀구	62,833	0	-	-	-	-	-	-
연수구	31,227	1	0.03	70	32	45.7	11	11.0
남동구	62,248	1	0.02	41	27	65.9	5	5.0
부평구	66,424	1	0.02	50	44	88.0	12	12.0
계양구	33,119	1	0.03	30	25	83.3	15	15.0
서구	49,975	4	0.08	156	80	51.3	29	7.3
강화군	21,148	8	0.38	238	147	61.8	40	5.0
옹진군	4,965	0	-	-	-	-	-	-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 노인복지시설현황」 자료 재구성. / 2018년 말 기준.

주: 65세 이상 노인인구 - 2018. 12. 31 주민등록 인구기준.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 인천시 군구별 노인공동생활가정 현황을 정리해보면 <표 Ⅲ-36>과 같음
 - 인천시에는 총 5개의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있으며 부평구에 2개, 계양구, 서구, 강화군에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에는 아직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수는 총 13명으로 시설 당 2.6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종사자 수를 총원으로 살펴보면 부평구가 5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시설 당 종사자 수는 계양구가 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됨

<표 Ⅲ-36> 인천시 군구별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현황

(단위: 명, 개소, %)

구분	65세 이상 노인인구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노인공동생활가정 수	입소인원			종사자 수	
				정원	현원	입소율	총원	시설 당 종사자 수
인천시	362,675	5	0.01	45	25	55.6	13	2.6
중구	17,482	0	-	-	-	-	-	-
동구	13,254	0	-	-	-	-	-	-
미추홀구	62,833	0	-	-	-	-	-	-
연수구	31,227	0	-	-	-	-	-	-
남동구	62,248	0	-	-	-	-	-	-
부평구	66,424	2	0.03	18	11	61.1	5	2.5
계양구	33,119	1	0.03	9	9	100.0	4	4
서구	49,975	1	0.02	9	5	55.6	3	3
강화군	21,148	1	0.05	9	0	0	1	1
옹진군	4,965	0	-	-	-	-	-	-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 노인복지시설현황」 자료 재구성. / 2018년 말 기준.

주: 65세 이상 노인인구 - 2018. 12. 31 주민등록 인구기준.

③ 노인복지주택

- 인천시 노인복지주택의 군구별 현황을 정리해보면 <표 Ⅲ-37>과 같음
 -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서구에만 1곳이 있으며, 총 264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입소율은 94.3%로 다소 높은 입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표 Ⅲ-37> 인천시 군구별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현황

(단위: 명, 개소, %)

구분	65세 이상 노인인구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노인복지주택 세대 수 ³⁾	입소인원			종사자 수	
				정원 ²⁾	현원	입소율	총원	시설 당 종사자 수
인천시 ⁴⁾	362,675	1	-	264	249	-	17	-
중구	17,482	0	-	-	-	-	-	-
동구	13,254	0	-	-	-	-	-	-
미추홀구	62,833	0	-	-	-	-	-	-
연수구	31,227	0	-	-	-	-	-	-
남동구	62,248	0	-	-	-	-	-	-
부평구	66,424	0	-	-	-	-	-	-
계양구	33,119	0	-	-	-	-	-	-
서구	49,975	1	5.3	264	249	94.3	17	17.0
강화군	21,148	0	-	-	-	-	-	-
옹진군	4,965	0	-	-	-	-	-	-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 노인복지시설현황」 자료 재구성. / 2018년 말 기준.

주1: 65세 이상 노인인구 - 2018. 12. 31 주민등록 인구기준.

주2: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포함됨 노인복지주택의 정원은 세대수로 측정됨(주택은 1세대에 노인 1명 또는 여러 명이 거주 가능하므로 정원이 없음).

주3: 노인복지주택의 시설 수는 단지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노인 천 명당 세대 수를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함.

주4: 노인복지주택은 서구에만 있기 때문에 인천시 전체 노인인구로 노인 천 명당 노인복지주택 세대수, 입소율, 시설 당 종사자 수를 보는 것은 평균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므로 제시하지 않음.

(2) 노인의료복지시설

- 전국 및 7대 특별시·광역시의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을 정리해보면 <표 Ⅲ-38>과 같음
 - 전국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총 5,287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인천시의 경우 총 368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노인 천 명당 해당시설의 수가 1.0개로 7대 특별시 및 광역시 중 노인 천 명당 노인의료복지시설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됨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율은 90.4%로 전국 평균(89.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시(95.8%), 대구시(91.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임
 -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국 종사자 수는 총 106,530명으로 시설 당 종사자 수는 전국 평균 20.1명임
 - 인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수는 총 7,660명으로 시설 당 20.8명인 것으로 나타나 부산시(29.9명), 대전시(25.7명), 울산시(21.5명)에 이어 상위 네 번째로 확인됨

<표 Ⅲ-38> 전국 및 7대 특·광역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단위: 명, 개소, %)

구분	65세 이상 노인인구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노인의료 복지시설 수	입소인원			종사자 수	
				정원	현원	입소율	총원	시설 당 종사자 수
전국	7,650,408	5,287	0.7	177,318	158,097	89.2	106,530	20.1
서울시	1,410,297	512	0.4	14,869	14,238	95.8	9,486	18.5
부산시	589,961	109	0.2	6,039	4,990	82.6	3,262	29.9
대구시	362,934	244	0.7	7,670	6,989	91.1	4,774	19.6
인천시	362,675	368	1.0	12,818	11,592	90.4	7,660	20.8
광주시	187,186	96	0.5	3,491	2,799	80.2	1,841	19.2
대전시	188,530	123	0.7	5,527	4,636	83.9	3,160	25.7
울산시	123,919	47	0.4	1,735	1,525	87.9	1,012	21.5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 노인복지시설현황」 자료 재구성. / 2018년 말 기준.

주: 65세 이상 노인인구 - 2018. 12. 31 주민등록 인구기준.

- 인천은 총 368개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운영 중인데 이를 군구별로 살펴보면 <표 Ⅲ-39>와 같음
 - 우선 시설 수는 남동구가 78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평구(62개), 서구(56개) 순으로 나타남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율의 경우 인천시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 모두 80% 이상의 높은 입소율을 보임. 입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구(95.8%)였으며 이어 남동구(94.5%), 계양구(94.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수의 경우 총원으로는 남동구(1,375명), 서구(1,346), 부평구(1,272)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시설 당 종사자 수로는 미추홀구(26명), 중구(24.4명), 서구(24.0명) 순으로 많았으며 옹진군(15.3명), 남동구(17.6명), 연수구와 계양구(18.0명) 순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됨

<표 Ⅲ-39> 인천시 군구별 노인의료복지시설

(단위: 명, 개소, %)

구분	65세 이상 노인인구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노인의료 복지시설 수	입소인원			종사자 수	
				정원	현원	입소율	총원	시설 당 종사자 수
인천시	362,675	368	1.0	12,818	11,592	90.4	7,660	20.8
중구	17,482	14	0.8	670	562	83.9	341	24.4
동구	13,254	9	0.7	337	301	89.3	193	21.4
미추홀구	62,833	44	0.7	1,875	1,681	89.7	1,142	26.0
연수구	31,227	26	0.8	907	744	82.0	467	18.0
남동구	62,248	78	1.3	2,245	2,122	94.5	1,375	17.6
부평구	66,424	62	0.9	2,129	1,915	89.9	1,272	20.5
계양구	33,119	45	1.4	1,393	1,310	94.0	812	18.0
서구	49,975	56	1.1	1,967	1,884	95.8	1,346	24.0
강화군	21,148	31	1.5	1,176	1,006	85.5	666	21.5
옹진군	4,965	3	0.6	119	67	56.3	46	15.3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 노인복지시설현황」 자료 재구성. / 2018년 말 기준.

주: 65세 이상 노인인구 - 2018. 12. 31 주민등록 인구기준.

①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천시 군구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40>과 같음
 - 총 368개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이 256개로 인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다수는 노인요양시설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노인요양시설은 부평구(48개), 남동구(46개), 서구(40개) 순으로 많았으며, 옹진군(2개), 동구(7개), 중구(12개) 순으로 적게 나타남
 - 입소율의 경우 서구가 9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3.6%의 입소율을 보인 옹진군을 제외한 모든 군구가 80%이상의 수치를 보임
 - 양로시설 종사자 수를 총원으로 보면 서구(1,234명), 부평구(1,197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옹진군이 40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 반면, 시설 당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미추홀구(32.9명), 서구(30.9명) 순으로 많았으며 옹진군이 20.0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됨

<표Ⅲ-40> 인천시 군구별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현황

(단위: 명, 개소, %)

구분	65세 이상 노인인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노인요양시설 수	입소인원			종사자 수	
				정원	현원	입소율	총원	시설 당 종사자 수
인천시	362,675	256	0.7	11,822	10,677	90.3	6,942	27.1
중구	17,482	12	0.7	652	544	83.4	327	27.3
동구	13,254	7	0.5	319	284	89.0	181	25.9
미추홀구	62,833	32	0.5	1,767	1,580	89.4	1,053	32.9
연수구	31,227	17	0.5	826	668	80.9	407	23.9
남동구	62,248	46	0.7	1,965	1,853	94.3	1,170	25.4
부평구	66,424	48	0.7	2,004	1,805	90.1	1,197	24.9
계양구	33,119	29	0.9	1,249	1,172	93.8	712	24.6
서구	49,975	40	0.8	1,823	1,767	96.9	1,234	30.9
강화군	21,148	23	1.1	1,107	945	85.4	621	27.0
옹진군	4,965	2	0.4	110	59	53.6	40	20.0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 노인복지시설현황」 자료 재구성. / 2018년 말 기준.

주: 65세 이상 노인인구 - 2018. 12. 31 주민등록 인구기준.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인천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군구별 현황을 정리해보면 <표 Ⅲ-41>과 같음
 - 총 112개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군구별로 살펴보면 남동구(32개), 계양구와 서구(16개) 순으로 많았으며 옹진군(1개), 중구와 동구(2개) 순으로 적게 나타남
 - 입소율은 남동구 96.1%, 계양구 95.8%, 동구 94.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시 평균 91.9%라는 높은 수치를 보임. 높은 입소율에 비해 노인 천 명당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는 평균 0.3개로 나타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 수는 총원으로 보면 남동구(205명), 서구(112명), 계양구(100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옹진군이 6명으로 가장 적었음
 - 반면, 시설 당 종사자 수는 미추홀구(7.4명), 중구와 서구(7명) 순으로 많았으며 부평구(5.4명)가 가장 적은 수치를 보임

<표 Ⅲ-41> 인천시 군구별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현황

(단위: 명, 개소, %)

구분	65세 이상 노인인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	입소인원			종사자 수	
				정원	현원	입소율	총원	시설 당 종사자 수
인천시	362,675	112	0.3	996	915	91.9	718	6.4
중구	17,482	2	0.1	18	18	100.0	14	7.0
동구	13,254	2	0.2	18	17	94.4	12	6.0
미추홀구	62,833	12	0.2	108	101	93.5	89	7.4
연수구	31,227	9	0.3	81	76	93.8	60	6.7
남동구	62,248	32	0.5	280	269	96.1	205	6.4
부평구	66,424	14	0.2	125	110	88.0	75	5.4
계양구	33,119	16	0.5	144	138	95.8	100	6.3
서구	49,975	16	0.3	144	117	81.3	112	7.0
강화군	21,148	8	0.4	69	61	88.4	45	5.6
옹진군	4,965	1	0.2	9	8	88.9	6	6.0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 노인복지시설현황」 자료 재구성. / 2018년 말 기준.

주: 65세 이상 노인인구 - 2018. 12. 31 주민등록 인구기준.

(3) 재가노인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보호시설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현장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구분할 수 있음
- 보호시설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경우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포함되며, 현장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경우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포함됨
- 현장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경우 이용인원의 정원을 ‘0’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용률 제시를 위해 서로 성격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구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전국 및 7대 특별시·광역시에서 보호시설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시설 현황을 정리해보면 <표 Ⅲ-42>와 같음
 - 2018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 중인 시설은 총 1,385개가 설치되어 있고, 인천시는 총 31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반면 해당 시설의 이용률은 81.8%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수는 총 12,857명으로 시설 당 종사자 수는 전국 평균 9.3명으로 나타남
 - 인천시 종사자 수는 329명으로 시설 당 10.6명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울시(11.2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치임을 확인함

<표 Ⅲ-42> 전국 및 7대 특·광역시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명, 개소, %)

구분	65세 이상 노인인구	보호시설 기반의 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시설 수	이용인원			종사자 수	
				정원	현원	이용률	총원	시설 당 종사자 수
전국	7,650,408	1,385	0.18	34,642	27,375	79.0	12,857	9.3
서울시	1,410,297	374	0.27	9,263	8,228	88.8	4,176	11.2
부산시	589,961	62	0.11	1,467	1,053	71.8	462	7.5
대구시	362,934	40	0.11	1,073	1,027	95.7	400	10.0

구분	65세 이상 노인인구	보호시설 기반의 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시설 수	이용인원			종사자 수	
				정원	현원	이용률	총원	시설 당 종사자 수
인천시	362,675	31	0.09	874	715	81.8	329	10.6
광주시	187,186	58	0.31	1,744	1,203	69.0	480	8.3
대전시	188,530	55	0.29	1,691	1,196	70.7	482	8.8
울산시	123,919	14	0.11	270	234	86.7	99	7.1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 노인복지시설현황」 자료 재구성. / 2018년 말 기준.

주: 65세 이상 노인인구 - 2018. 12. 31 주민등록 인구기준.

- 인천시 군구별 보호시설 기반의 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43>과 같음
 - 시설 수는 서구가 9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양구(5개), 남동구(4개) 순으로 나타남
 - 이용률의 경우 인천시 평균 81.8%였으며, 동구와 연수구(100%), 부평구(95.0%), 계양구(88.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해당 시설 종사자 수는 서구가 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용진군이 5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됨
 - 시설 당 종사자 수는 중구가 1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용진군이 5.0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43> 인천시 군구별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명, 개소, %)

구분	65세 이상 노인인구	보호시설 기반의 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시설 수	이용인원			종사자 수	
				정원	현원	이용률	총원	시설 당 종사자 수
인천시	362,675	31	0.09	874	715	81.8	329	10.6
중구	17,482	2	0.11	63	46	73.0	35	17.5
동구	13,254	1	0.08	20	20	100.0	7	7.0
미추홀구	62,833	2	0.03	66	52	78.8	19	9.5

구분	65세 이상 노인인구	보호시설 기반의 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시설 수	이용인원			종사자 수	
				정원	현원	이용률	총원	시설 당 종사자 수
연수구	31,227	1	0.03	15	15	100.0	7	7.0
남동구	62,248	4	0.06	126	75	59.5	37	9.3
부평구	66,424	3	0.05	100	95	95.0	42	14.0
계양구	33,119	5	0.15	143	127	88.8	57	11.4
서구	49,975	9	0.18	266	225	84.6	97	10.8
강화군	21,148	3	0.14	66	55	83.3	23	7.7
옹진군	4,965	1	0.20	9	5	55.6	5	5.0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 노인복지시설현황」 자료 재구성. / 2018년 말 기준.

주: 65세 이상 노인인구 - 2018. 12. 31 주민등록 인구기준.

① 주야간보호서비스

- 보호시설 기반의 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종류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우선 인천시 군구별 주야간보호서비스 현황을 정리해보면 <표 Ⅲ-44>와 같음
 - 총 31개의 보호시설 기반의 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29개가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임
 - 해당 시설 수는 서구(9개), 계양구(5개), 남동구(4개) 순으로 많았으며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옹진군에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용률의 경우 동구와 연수구가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옹진군이 55.6%로 가장 낮았음
 -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인천시 평균 이용률은 82.4%로 나타남
 - 해당 시설 종사자 수를 총원으로 보면 서구(97명), 계양구(57명) 순으로 많았으며 옹진군(5명), 동구와 연수구(7명) 순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됨
 - 시설 당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중구(17.5명), 미추홀구(15.0명) 순으로 많았고 옹진군이 5.0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44〉 인천시 군구별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서비스) 현황

(단위: 명, 개소, %)

구분	65세 이상 노인인구	보호시설 기반의 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시설 수	이용인원			종사자 수	
				정원	현원	이용률	총원	시설 당 종사자 수
인천시	362,675	29	0.08	864	712	82.4	325	11.2
중구	17,482	2	0.11	63	46	73.0	35	17.5
동구	13,254	1	0.08	20	20	100.0	7	7.0
미추홀구	62,833	1	0.02	56	49	87.5	15	15.0
연수구	31,227	1	0.03	15	15	100.0	7	7.0
남동구	62,248	4	0.06	126	75	59.5	37	9.3
부평구	66,424	3	0.05	100	95	95.0	42	14.0
계양구	33,119	5	0.15	143	127	88.8	57	11.4
서구	49,975	9	0.18	266	225	84.6	97	10.8
강화군	21,148	2	0.09	66	55	83.3	23	11.5
옹진군	4,965	1	0.20	9	5	55.6	5	5.0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 노인복지시설현황」 자료 재구성. / 2018년 말 기준.

주: 65세 이상 노인인구 - 2018. 12. 31 주민등록 인구기준.

② 단기보호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시설에 이어서 인천시 군구별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시설 현황을 정리해보면 〈표 Ⅲ-45〉와 같음
 -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 중인 시설은 미추홀구와 강화군에만 각각 1개씩 설립되어 있으며 이외 군구에는 아직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시설 이용률의 경우 미추홀구는 30.0%인 것에 반해 강화군은 0%로 확인됨
 - 해당 시설 종사자 수(총원)는 미추홀구가 4명이고 강화군이 0명으로 나타남

〈표 Ⅲ-45〉 인천시 군구별 재가노인복지시설(단기보호서비스) 현황

(단위: 명, 개소, %)

구분	65세 이상 노인인구	보호시설 기반의 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 -단기보호서비스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시설 수	이용인원			종사자 수	
				정원	현원	이용률	총원	시설 당 종사자 수
인천시	362,675	2	0.01	10	3	30.0	4	2
중구	17,482	0	-	-	-	-	-	-
동구	13,254	0	-	-	-	-	-	-
미추홀구	62,833	1	0.02	10	3	30.0	4	4
연수구	31,227	0	-	-	-	-	-	-
남동구	62,248	0	-	-	-	-	-	-
부평구	66,424	0	-	-	-	-	-	-
계양구	33,119	0	-	-	-	-	-	-
서구	49,975	0	-	-	-	-	-	-
강화군	21,148	1	0.05	-	-	-	-	-
옹진군	4,965	0	-	-	-	-	-	-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 노인복지시설현황」 자료 재구성. / 2018년 말 기준.

주: 65세 이상 노인인구 - 2018. 12. 31 주민등록 인구기준.

- 전국 및 7대 특·광역시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현황을 정리해보면 〈표 Ⅲ-46〉과 같음
 - 전국에 방문요양/목욕/간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 중인 시설은 총 2,097개며, 인천시의 경우 102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 이용률을 살펴보면 인천시의 경우 전국 평균(0.9%)보다 낮은 0.6%로 나타났고 이는 서울시(0.3%), 울산시(0.5%)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임
 -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수는 총 29,327명으로 시설 당 종사자 수는 전국 평균 14.0명으로 나타남
 - 인천시 종사자 수는 총 1,633명으로 시설 당 16.0명임. 이는 전국 평균(14.0명)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임

〈표 Ⅲ-46〉 전국 및 7대 특·광역시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명, 개소, %)

구분	65세 이상 노인인구	직접 방문을 통한 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목욕/간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시설 수	이용인원		종사자 수	
				현원	이용률 ²⁾	총원	시설 당 종사자 수
전국	7,650,408	2,097	0.3	69,654	0.9	29,327	14.0
서울시	1,410,297	212	0.2	4,459	0.3	3,725	17.6
부산시	589,961	139	0.2	5,503	0.9	1,209	8.7
대구시	362,934	98	0.3	7,343	2.0	989	10.1
인천시	362,675	102	0.3	2,024	0.6	1,633	16.0
광주시	187,186	174	0.9	4,200	2.2	2,988	17.2
대전시	188,530	77	0.4	1,545	0.8	1,112	14.4
울산시	123,919	26	0.2	604	0.5	604	23.2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 노인복지시설현황」 자료 재구성. / 2018년 말 기준.

주1 : 65세 이상 노인인구 - 2018. 12. 31 주민등록 인구기준.

주2 :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재가지원서비스의 경우 '정원 없음'으로 제시되어 노인인구와 현원을 이용하여 이용률을 제시함.

- 인천시 군구별로 현장 방문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47〉과 같음
 - 시설 수는 서구가 28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계양구(20개), 남동구(17개) 순으로 나타남
 - 이용률의 경우 계양구가 1.8%로 가장 높았으며 미추홀구, 부평구, 강화군은 0%로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임
 - 해당 시설 종사자 수는 서구가 353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화군이 6명으로 가장 적었음
 - 시설 당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부평구가 30.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화군이 2.0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47〉 인천시 군구별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명, 개소, %)

구분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장 방문을 통한 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목욕/간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시설 수	이용인원		종사자 수	
				현원	이용률 ²⁾	총원	시설 당 종사자 수
인천시	362,675	102	0.3	2,024	0.6	1,633	16.0
중구	17,482	5	0.3	79	0.5	89	17.8
동구	13,254	3	0.2	130	1.0	60	20.0
미추홀구	62,833	9	0.1	0	0	161	17.9
연수구	31,227	3	0.1	68	0.2	49	16.3
남동구	62,248	17	0.3	393	0.6	287	16.9
부평구	66,424	11	0.2	0	0	334	30.4
계양구	33,119	20	0.6	611	1.8	286	14.3
서구	49,975	28	0.6	675	1.4	353	12.6
강화군	21,148	3	0.1	0	0	6	2.0
옹진군	4,965	3	0.6	68	1.4	8	2.7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 노인복지시설현황」 자료 재구성. / 2018년 말 기준.

주1 : 65세 이상 노인인구 - 2018. 12. 31 주민등록 인구기준.

주2 :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재가지원서비스의 경우 '정원 없음'으로 제시되어 노인인구와 현원을 이용하여 이용률을 제시함.

③ 방문요양서비스

- 인천시 군구별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설 현황을 정리해보면 〈표 Ⅲ-48〉과 같음
 - 인천시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인 시설은 총 51개로 현장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인천시, 총 102개)의 과반수를 방문요양서비스가 차지하고 있음
 - 시설 수는 서구가 13개로 가장 많았고 옹진군이 1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이용률의 경우 동구, 계양구, 서구가 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추홀구, 부평구, 강화군의 이용률은 0%로 나타남
 - 종사자 수(총원)는 서구(302명), 남동구(257명) 순으로 많았으며 옹진군(5명), 강화군(6명) 순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시설 당 종사자 수는 부평구가 3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화군이 3.0명으로 가장 적은 수치를 보임

〈표 Ⅲ-48〉 인천시 군구별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현황

(단위: 명, 개소, %)

구분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장 방문을 통한 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시설 수	이용인원		종사자 수	
				현원	이용률 ²⁾	총원	시설 당 종사자 수
인천시	362,675	51	0.14	1,044	0.3	1,284	25.2
중구	17,482	3	0.17	76	0.4	83	27.7
동구	13,254	2	0.15	86	0.6	56	28.0
미추홀구	62,833	5	0.08	0	0	115	23.0
연수구	31,227	2	0.06	58	0.2	40	20.0
남동구	62,248	8	0.13	310	0.5	257	32.1
부평구	66,424	7	0.11	0	0	233	33.3
계양구	33,119	8	0.24	199	0.6	187	23.4
서구	49,975	13	0.26	308	0.6	302	23.2
강화군	21,148	2	0.09	0	0	6	3.0
옹진군	4,965	1	0.20	7	0.1	5	5.0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 노인복지시설현황」 자료 재구성 / 2018년 말 기준.

주1: 65세 이상 노인인구 - 2018. 12. 31 주민등록 인구기준.

주2: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재가지원서비스의 경우 '정원 없음'으로 제시되어 노인인구와 현원을 이용하여 이용률을 제시함.

④ 방문목욕서비스

○ 인천시 군구별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시설 현황을 정리해보면 〈표 Ⅲ-49〉와 같음

-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 중인 시설은 서구가 10개로 가장 많았으며 동구, 연수구, 강화군, 옹진군에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이용률의 경우 동구가 0.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추홀구, 부평구, 강화군, 옹진군의 경우 이용인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종사자 수(총원)는 부평구(101명), 계양구(87명) 순으로 많았으며 강화군, 옹진군은 0명으로 나타남
- 시설 당 종사자 수의 경우 부평구가 2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화군과 옹진군이 0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됨

〈표 Ⅲ-49〉 인천시 군구별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목욕서비스) 현황

(단위: 명, 개소, %)

구분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장 방문을 통한 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목욕서비스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시설 수	이용인원		종사자 수	
				현원	이용률 ²⁾	총원	시설 당 종사자 수
인천시	362,675	39	0.11	222	0.06	316	8.1
중구	17,482	2	0.11	3	0.02	6	3.0
동구	13,254	1	0.08	44	0.33	4	4.0
미추홀구	62,833	3	0.05	0	0	42	14.0
연수구	31,227	1	0.03	10	0.03	9	9.0
남동구	62,248	8	0.13	83	0.13	30	3.8
부평구	66,424	4	0.06	0	0	101	25.3
계양구	33,119	8	0.24	72	0.22	87	10.9
서구	49,975	10	0.20	10	0.02	37	3.7
강화군	21,148	1	0.05	0	0	0	0
옹진군	4,965	1	0.20	0	0	0	0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 노인복지시설현황」 자료 재구성. / 2018년 말 기준.

주1: 65세 이상 노인인구 - 2018. 12. 31 주민등록 인구기준.

주2: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재가지원서비스의 경우 '정원 없음'으로 제시되어 노인인구와 현원을 이용하여 이용률을 제시함.

⑤ 방문간호서비스

- 인천시 군구별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시설 현황을 정리해보면 〈표 Ⅲ-50〉과 같음
 -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 중인 시설은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에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음
 - 서구의 경우 이용인원이 25명으로 이용률은 0.05%임
 - 종사자 수는 미추홀구와 서구 각각 4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남

〈표 Ⅲ-50〉 인천시 군구별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간호서비스) 현황

(단위: 명, 개소, %)

구분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장 방문을 통한 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간호서비스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시설 수	이용인원		종사자 수	
				현원	이용률 ²⁾	총원	시설 당 종사자 수
인천시	362,675	3	0.01	25	0.01	8	2.7
중구	17,482	-	-	-	-	-	-
동구	13,254	-	-	-	-	-	-
미추홀구	62,833	1	0.02	0	0	4	4.0
연수구	31,227	-	-	-	-	-	-
남동구	62,248	1	0.02	0	0	0	0
부평구	66,424	-	-	-	-	-	-
계양구	33,119	-	-	-	-	-	-
서구	49,975	1	0.02	25	0.05	4	4.0
강화군	21,148	-	-	-	-	-	-
옹진군	4,965	-	-	-	-	-	-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 노인복지시설현황」 자료 재구성. / 2018년 말 기준.

주1 : 65세 이상 노인인구 - 2018. 12. 31 주민등록 인구기준.

주2 :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재가지원서비스의 경우 '경원 없음'으로 제시되어 노인인구와 현원을 이용하여 이용률을 제시함.

⑥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시설 현황을 정리해보면 〈표 Ⅲ-51〉과 같음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 중인 시설은 계양구와 서구에 각각 4개, 옹진군에 1개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군구에는 아직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종사자 수(총원)는 계양구 12명, 서구 10명, 옹진군 3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됨

〈표 Ⅲ-51〉 인천시 군구별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지원서비스) 현황

(단위: 명, 개소, %)

구분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장 방문을 통한 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시설 수	이용인원		종사자 수	
				현원	이용률 ²⁾	총원	시설 당 종사자 수
인천시	362,675	9	0.02	733	0.2	25	2.8
중구	17,482	-	-	-	-	-	-
동구	13,254	-	-	-	-	-	-
미추홀구	62,833	-	-	-	-	-	-
연수구	31,227	-	-	-	-	-	-
남동구	62,248	-	-	-	-	-	-
부평구	66,424	-	-	-	-	-	-
계양구	33,119	4	0.12	340	1.0	12	3.0
서구	49,975	4	0.08	332	0.7	10	2.5
강화군	21,148	-	-	-	-	-	-
옹진군	4,965	1	0.20	61	1.2	3	3.0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 노인복지시설현황」 자료 재구성. / 2018년 말 기준.

주1 : 65세 이상 노인인구 - 2018. 12. 31 주민등록 인구기준.

주2 :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재가지원서비스의 경우 '정원 없음'으로 제시되어 노인인구와 현원을 이용하여 이용률을 제시함.

(4)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정부는 치매환자를 위한 전문화된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 중이며, 이러한 배경 하에 설립되고 있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 및 종사자 수를 살펴보고자 함
- 전국 및 7대 특·광역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현황은 〈표 Ⅲ-52〉와 같음
 - 전국에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총 7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천시의 경우 총 4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 해당 시설 이용률의 경우 전국 평균 86.3%이며 인천시의 경우 45명 정원에 43명이 이용하여 95.6%의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임

- 종사자 수는 총 537명으로 시설 당 종사자 수는 전국 평균 7.3명으로 나타남. 인천시 종사자 수는 20명으로 시설 당 5.0명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확인됨
- 종사자 중 프로그램 관리자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16.8%로 나타남. 인천시의 경우 20.0%로 대전시(25.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 Ⅲ-52〉 전국 및 7대 특·광역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현황

(단위: 명, 개소, %)

구분	65세 이상 노인인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시설 수	이용인원			종사자 수				
				정원	현원	이용률	총원 (A)	요양 보호사	프로그램 관리자 (B)	시설 당 종사자 수	(B/A) *100
전국	7,650,408	74	0.010	1,295	1,117	86.3	537	447	90	7.3	16.8
서울시	1,410,297	10	0.007	168	159	94.6	74	62	12	7.4	16.2
부산시	589,961	3	0.005	58	53	91.4	31	26	5	10.3	16.1
대구시	362,934	2	0.006	24	12	50.0	9	8	1	4.5	11.1
인천시	362,675	4	0.011	45	43	95.6	20	16	4	5.0	20.0
광주시	187,186	1	0.005	9	4	44.4	-	-	-	-	-
대전시	188,530	3	0.016	40	34	85.0	12	9	3	4.0	25.0
울산시	123,919	2	0.016	37	22	59.5	11	9	2	5.5	18.2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 노인복지시설현황」 자료 재구성. / 2018년 말 기준.

주: 65세 이상 노인인구 - 2018. 12. 31 주민등록 인구기준.

- 인천시의 경우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하고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3 곳과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 1곳이 운영 중임
- 우선 인천시 군구별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53〉과 같음
 - 인천시에서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이 설치되어 있는 3곳은 부평구, 계양구, 서구로 확인됨
 - 시설 당 종사자 수는 서구 8명, 계양구 6명이며 종사자 중 프로그램 관리자 비율은 서구 25.0%, 계양구 16.7%로 나타남

〈표 Ⅲ-53〉 인천시 군구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단위: 명, 개소, %)

구분	65세 이상 노인인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시설 수	이용인원			종사자 수				
				정원	현원	이용률	총원 (A)	요양보호사	프로그램 관리자 (B)	시설 당 종사자 수	(B/A) *100
인천시	362,675	3	0.008	22	22	100.0	14	11	3	4.7	21.4
중구	17,482	0	-	-	-	-	-	-	-	-	-
동구	13,254	0	-	-	-	-	-	-	-	-	-
미추홀구	62,833	0	-	-	-	-	-	-	-	-	-
연수구	31,227	0	-	-	-	-	-	-	-	-	-
남동구	62,248	0	-	-	-	-	-	-	-	-	-
부평구	66,424	1	0.015	-	-	-	-	-	-	-	-
계양구	33,119	1	0.030	10	10	100.0	6	5	1	6.0	16.7
서구	49,975	1	0.020	12	12	100.0	8	6	2	8.0	25.0
강화군	21,148	0	-	-	-	-	-	-	-	-	-
옹진군	4,965	0	-	-	-	-	-	-	-	-	-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 노인복지시설현황」 자료 재구성. / 2018년 말 기준.

주: 65세 이상 노인인구 - 2018. 12. 31 주민등록 인구기준.

- 인천시 군구별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54〉와 같음
 - 인천시에서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서구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시설의 이용률은 91.3%로 높게 나타남
 - 시설 당 종사자 수는 6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종사자 중 프로그램 관리자 비율은 16.7%임

〈표 Ⅲ-54〉 인천시 군구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

(단위: 명, 개소, %)

구분	65세 이상 노인인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									
		시설 수	노인 천 명당 시설 수	이용인원			종사자 수				
				정원	현원	이용률	총원 (A)	요양보호사	프로그램 관리자 (B)	시설 당 종사자 수	(B/A) *100
인천시	362,675	1	0.003	23	21	91.3	6	5	1	6	16.7
중구	17,482	-	-	-	-	-	-	-	-	-	-
동구	13,254	-	-	-	-	-	-	-	-	-	-
미추홀구	62,833	-	-	-	-	-	-	-	-	-	-
연수구	31,227	-	-	-	-	-	-	-	-	-	-
남동구	62,248	-	-	-	-	-	-	-	-	-	-
부평구	66,424	-	-	-	-	-	-	-	-	-	-
계양구	33,119	-	-	-	-	-	-	-	-	-	-
서구	49,975	1	0.02	23	21	91.3	6	5	1	6	16.7
강화군	21,148	-	-	-	-	-	-	-	-	-	-
옹진군	4,965	-	-	-	-	-	-	-	-	-	-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 노인복지시설현황」 자료 재구성. / 2018년 말 기준.

주: 65세 이상 노인인구 - 2018. 12. 31 주민등록 인구기준.

2)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 돌봄 지원 서비스

-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 돌봄 관련 시설 현황에 이어서 인천시 및 군구별로 제공되는 돌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면 〈표 Ⅲ-55〉와 같음
 - 돌봄 지원 서비스는 인천시 모든 군구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돌봄 지원 서비스는 주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 보장협업체 등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으로 확인됨
 - 서비스 내용은 주로 검진, 상담, 교육인 것으로 나타남

〈표 Ⅲ-55〉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 돌봄 지원 서비스 현황(2018~2019년 상반기)

구분	기관	대상(연령)	내용
중구	중구 보건소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개안수술지원사업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중 백내장(시력 0.3이하), 망막 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이 있어 안과 전문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에게 1인당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중구치매안심센터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조기검진사업 ■ 치매예방교실
동구	동구 노인복지관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회복사업 : 물리치료, 체력단련실, 무료진료
	동구노인문화센터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회복사업 : 통증치료, 운동치료, 건강증진사업, 혈압체크, 치매검진 및 성인병 검사 등 전문적인 예방교육 실시
	동구치매안심센터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조기검진사업 ■ 치매예방교실
미추홀구	미추홀구 노인복지관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증진사업 : 건강증진실, 운동방, 체력단련실
	용현노인문화센터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생활지원사업 • 건강관리사업 : 건강관리실 운영, 건강강좌 • 영양관리사업 : 경로식당 운영, 위생교육
	주안노인문화센터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증진사업 • 10년 젊어지기 프로그램 : 건강나이검사, 1인 1기 건강클리닉, 건강체험교실, 체력단련실 운영, 지역사회연계, 신바람 걷기 ■ 복리후생사업 • 생활건강 서비스 : 기능 회복 서비스(발·안마서비스, 의료 봉사 단체를 통한 기능 회복 서비스), 위생서비스(아·미용 및 뷰티 케어 서비스 제공)
	미추홀구 보건소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송의 보건지소	만 50세 이상 45세 이상 중·노년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버건강더하기 운동교실 : 낙상예방을 위한 평형성 및 유연성 강화 운동프로그램 반복수달 및 단계별 강도 설정으로 신체기능(근력, 유연성, 평형성) 향상 ■ 여성건강강좌 운영 : 갱년기 여성 건강관리 교육, 요실금 관리교육 및 운동, 암(자궁암, 유방암)예방 및 관리교육, 갱년기 여성의 우울증, 스트레스 관련 교육
미추홀구 치매안심센터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조기검진사업 ■ 치매예방교실 	
연수구	연수구 평생교육과 (평생학습팀)	5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니어-치매예방 바로알기(8주과정) 지역사회 통합과정 : 인지활동 및 신체활동과 놀이를 통한 뇌 활성화로 심신의 안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예방
	연수구 노인복지관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생활지원사업 • 물리치료실 운영 : 물리치료, 전위치료, 건강상담 • 체력단련실 : 헬스기구 자유이용, 건강 돌보기 프로그램

구분	기관	대상(연령)	내용
	송도 노인 복지관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생활지원사업 : 물리치료, 통증예방운동, 건강강좌, 전문건강상담, 이달의 건강인(인바디 사전 사후 비교를 통한 시상), 혈압 측정 및 혈당체크, 체성분검사, 체력단련실 운영
	청학노인 문화센터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복지사업 • 지역사회네트워크 : 건강강의 및 검사, 치매검사 • 건강생활 증진사업 : 체력단련실, 혈압체크, 건강관련 프로그램, 이미용서비스, 세탁서비스 등
	연수구 보건소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연수구 치매안심센터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조기검진사업 ■ 치매예방교실 ■ 쉼터프로그램: 미술치료, 음악치료, 운동치료, 놀이치료, 회상치료, 현실인식훈련, 인지훈련치료 등
남동구	남동구 노인복지관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증진사업 : 물리치료 서비스, 체력단련 서비스, 성인병예방·관리 서비스, 무료 진료 및 건강강좌, 검진 서비스
	만월종합 사회복지관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 : 이·미용서비스, 수압봉서비스, 손마사지 서비스, 혈당서비스, 건강지킴이(건강 검진 실시, 건강관련 정보와 서비스 제공)
		60세 이상 노인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결식 우려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 : 도시락지원
	성산종합 사회복지관	만 60세 이상 •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보호사업 : 무료급식서비스, 우유·아쿠르트 지원서비스
	남동구치매 안심센터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조기검진 실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부평구	부평구 노인복지관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관리사업 : 물리치료, 건강상담, 당뇨교실, 무료 한방진료, 신경외과 무료진료, 결핵검진, 건강강좌
	부평동 행정복지센터	1인 중장년 남성가구 • 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의 The 반찬 지원 사업 : 고시원과 숙박업소 등에서 생활하며 취사활동이 힘든 중장년 1인 남성가구에 밀반찬을 지원하여 고독사 예방과 영양상태 개선을 돕는 사업
	부평구 청년보건의료소	중장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생활실천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중장년기 남성/여성 건강교실 • 중장년기 주만을 위한 스트레칭 교실 상시 운영
	부평구치매 안심센터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조기검진 실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계양구	계양구 노인복지관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증진사업 : 기능회복(물리치료, 테이핑치료, 전동안마), 건강지원(무료진료, 건강강좌, 맞춤형운동, 건강교실, 낙상예방교육, 건강박람회, 자연연계), 건강관리(보소양치용액, 발마시지, 혈압 측정, 체력단련)
	계양2동 보장협의체	40~60대 중반 • 저소득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용품 꾸러미 지원 : 중장년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 생활용품 꾸러미를 지원하고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복지교육 파악 후 사회복지서비스 연계(2018~2019년 추진)

구분	기관	대상(연령)	내용
	작전1동 보장협의체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 건강음료 지원사업을 통한 안부 확인(10세대) : 월 4회
	계양구 보건소	중·장년층· 갱년기, 불면증 으로 고생하는 자	■ 한의약공공보건사업 • 한방 갱년기 기공체조교실 : 사상체질 감별, 기공체조, 한의약적 양생법 교육 등
		60세 이상	■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 시니어 건강 체조 교실 : 근력 및 유연성 강화 운동 • 건강 100세 교실 : 인지활동, 체조 등
		50~60대	■ 중장년층 건강 프로그램 생생지락 5060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중장년층 우울증, 생활 속 압 예방법 등에 대한 교육
계양구 치매 안심센터	만 60세 이상	■ 치매상담 및 등록 관리 : 치매 관련 내소, 전화, 방문 등을 통한 기초·심층 상담 및 등록 관리 ■ 치매조기검진 : 치매선별검사, 치매진단검사,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 ■ 조호물품 제공 : 기저귀, 미끄럼 방지 양말 등 지급 ■ 프로그램 운영 : 치매예방·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 숲터, 가족카페 (가족교실, 자조모임) 운영, 치매예방교육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및 치매어르신 자문 사전등록 ■ 치매인식개선사업 : 치매 파트너 및 파트너플러스 모집, 치매 인식개선 홍보 ■ 치매공공후견사업	
서구	서구 노인복지관	만 60세 이상	■ 건강증진사업 : 체력단실 관리, 물리치료, 찾아가는 건강증진사업
	서구보건소	만 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대상	■ 노인 안과 수술비 지원 사업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의 안과적 수술비의 본인 부담금 지원 (수술 전 신청)
	서구치매 안심센터	만 60세 이상	■ 치매조기검진 ■ 치매환자 등록관리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강화군	강화군 노인복지관	60세 이상	■ 건강보건증진사업 • 건강증진사업 : 물리치료, 무료진료, 건강100세클리닉, 의료건강 상담, 노인성 질환 건강강좌, 무료 안 검진, 건강강좌 • 보건증진사업 : 보건실, 응급의료지원, 불소도포, 인플루엔자 예방
	강화군 치매안심센터	만 60세 이상	■ 치매조기진단사업 ■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 치매예방관리사업 「지피지기」 : 효율적인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관내 226개 경로당의 60세 이상 지역 주민들에게 치매이해 및 예방교육 프로그램, 치매상담 및 선별 검사 등을 제공
용진군	용진군청	30세 이상 성인 • 사해 5도 주민 중 고혈압, 당뇨병 진단자	■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 :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발견·등록·관리하고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여 사해5도 지역 심뇌혈관 질환 중증질환 및 합병증 예방, 삶의 질 향상
	용진군치매 안심센터	만 60세 이상	■ 치매조기검진 실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자료 : 1차 각 기관 홈페이지 검색, 2차 인천시 노인정책과 검토.

3)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 돌봄 관련 정책사업 예산(2018 ~ 2019)

- 2018 ~ 2019년 인천시 군구별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 돌봄 관련 정책사업 예산 규모를 조사함. 추진 부서명, 정책 사업명, 지원 대상, 사업내용, 예산액(총사업비 기준)을 조사하였으며, 전 연령대를 포괄하는 일반시민 대상의 사업은 제외함

(1) 인천시 정책사업

- 인천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 돌봄 관련 정책사업과 이에 투입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표 Ⅲ-56>과 같음
 -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 돌봄 관련 정책은 주로 노인정책과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체육진흥과, 건강증진과에서도 추진되고 있음
 - 돌봄 관련 정책사업에 투입된 예산 총액은 2018년에 비해 2019년 증가하였으며 인천시 예비노인 및 노인 세대 대상 정책 사업 총 예산 대비 해당 사업 예산 비율 또한 2018년 15.9%에서 2019년 16.1%로 증가함
 - 예산의 증가는 사물인터넷(IoT) 안심폰 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등급자), 노인요양시설 운영(등급자),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의 확장 등으로 인해 발생함

<표 Ⅲ-56> 인천시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 돌봄 관련 정책사업(2018 ~ 2019)

(단위 : 천원, %)

구분	추진 부서	사업명	지원 대상 (연령 범위)	사업 내용	예산액(비율)	
					2018	2019
인천시 예비노인 및 노인 세대 대상 정책 사업 총 예산					859,646,315 (100.0)	1,045,105,839 (100.0)
계					136,795,213 (15.9)	168,172,726 (16.1)
1	노인 정책과	노인종합돌봄서비스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방문서비스 및 주간보호 서비스	4,083,500	5,403,000
2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안부확인 등	4,259,827	5,684,040
3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863,460	831,870
4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무료급식	2,763,072	2,763,212

구분	추진 부서	사업명	지원 대상 (연령 범위)	사업 내용	예산액(비율)	
					2018	2019
5		노인건강진단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노인 건강진단 비용 지원	27,822	29,224
6		사물인터넷(IoT) 안심폰 지원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독거노인에 안심폰 지원 등	526,654	2,174,224
7		단기가사서비스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단기간 돌봄 방문 서비스	41,000	40,000
8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및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제공(동구, 서구,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계양구)	531,726	538,000
9		인천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인천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200,000	174,000
10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364,800	388,172
11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등급자)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등급자)	51,728,515	62,496,266
12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등외자)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등외자)	2,531,000	3,035,000
13		개인(노인)운영신고 시설 지원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개인(노인)운영 신고시설 지원	164,296	175,380
14		노인요양시설 운영(등급자)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노인요양시설 운영(등급자)	54,729,015	62,488,373
15		노인요양시설 지원(등외자)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노인요양시설 지원(등외자)	1,202,316	1,144,609
16		시립요양원 건립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시립요양원 건립	0	2,167,500
17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	노인세대(만65세 이상)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	2,470	2,470
18		노인권익증진 및 인권보호사업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위기노인지원 홍보물 제작 및 모니터링단 운영	32,630	52,630
19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	179,200	185,412
20		위기노인발굴 및 연계사업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위기노인발굴 및 연계사업	30,000	30,000
21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영락원, 협성양로원)	1,124,814	1,154,244
22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358,548	285,940
23		재활용품수집노인 및 장애인 지원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및 장애인	재활용품 수집노인에게 방한용품 등 지원	100,000	100,000
24		노인치과치료비	노인세대	화장시설주변지역주	10,000	0

구분	추진 부서	사업명	지원 대상 (연령 범위)	사업 내용	예산액(비율)	
					2018	2019
		지원사업	(만65세 이상)	민지원기금 (노인치과 치료비 지원)		
25		홀몸노인 안전지킴이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화장시설주변지역주 민지원기금 (홀몸노인 안전지킴이)	10,000	0
26		저소득 어르신 가스안전지킴이 사업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어르신 가스안전지킴이사업 (화장시설주변지역주 민지원기금)	0	13,200
27	체육 진흥과	어르신생활체육 지도자배치사업	노인세대 (65세 이상)	군구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어르신들에게 체계적인 생활체육지도	1,056,356	1,211,520
28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60세 이상)	게이트볼, 체조 등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 지원	45,000	44,940
29	건강 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상담 및 치매 조기검진, 등록 사례관리 • 치매단기쉼터 및 카페운영 • 지역사회 치매자원 연계 • 치매인식개선 홍보 • 중증치매환자 공공 후견사업 	5,423,192	11,742,500
30		치매안심돌봄터 운영	노인세대 (65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어르신 주간 돌봄 서비스 제공 •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4,406,000	3,817,000

주1 : 전체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

주2 : 비율은 전체 예산 대비 해당 사업 예산 비율.

자료 : 국비 시비, 군구비 매칭사업은 인천시 작성, 군구는 매칭사업 외 자체 정책사업 작성.

(2) 인천시 군구별 정책사업

- 인천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 돌봄 관련 정책사업 내용에 이어서 인천시 군구별로 제공되고 있는 사업내용과 예산을 살펴보면 <표 Ⅲ-57>과 같음
-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 중인 군구는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으로 총 6곳으로 나타남

-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액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연수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중구, 계양구 순으로 많았음
- 2019년 예산액이 2018년 대비 감액된 곳은 중구와 강화군으로 나타났고, 미추홀구, 연수구, 계양구, 옹진군은 증액된 것으로 확인됨

〈표 Ⅲ-57〉 인천시 군구별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 돌봄 관련 정책사업(2018 ~ 2019)

(단위 : 천원)

구분	추진부서	사업명	지원 대상 (연령 범위)	사업 내용	예산액	
					2018	2019
중구	중구 위생환경과	미세먼지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	노인세대 (65세 이상)	미세먼지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	10,200	5,653
소 계					489,489	564,421
미추 홀구	미추홀구 노인장애인 복지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활동수당 지원	노인세대 (65세 이상)	독거노인 지원	11,520	27,540
		독거노인 밀반찬 지원	노인세대 (65세 이상)	독거노인 지원	0	8,000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예비노인 및 노인세대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54,660	63,367
		건강120센터 운영	예비노인 및 노인세대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412,409	451,284
	미추홀구 송의보건지소	만성질환 관리사업	예비노인 및 노인세대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10,900	14,230
소 계					3,000	789,925
연수구	연수구 노인장애인과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노인세대 (만65세 이상)	은빛사랑전화방 지원	3,000	3,000
	연수구 사회보장과	저소득노인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틀니·임플란트(2대) 시술 시 본인 부담금 (급여 대상) 지원	0	285,000
	연수구 건강증진과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사업	노인세대 (65세 이상)	만65세 이상 연수구 주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일반주민 50천원, 차상위 80천원, 수급자 128천원)	0	501,925
계양구	계양구 지역 보건과	생생지락 5060 건강 프로그램	예비노인 (50~59세)	퇴행성관절염, 골다공증, 우울증, 암예방 관련 강좌	4,000	5,200
강화군	소 계				484,557	448,005

구분	추진부서	사업명	지원 대상 (연령 범위)	사업 내용	예산액	
					2018	2019
	강화군 건강증진과	치매관리사업	예비노인 및 노인세대 (60세 이상)	북부인지건강센터 건립	380,000	108,896
	강화군 사회복지과	사랑의 집 관리운영	노인세대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에 주거시설 제공	104,557	59,509
		독거노인 지킴이 사업	노인세대 (65세 이상)	경로당 회장, 사무장을 안전지킴이로 선정하여 대상 독거노인 안부 확인	0	279,600
소 계					102,300	112,600
용진군	용진군 복지지원과	저소득노인 등 간병비 지원	수급자 중 노인가구 및 저소득주민 중 독거노인	1일 5만원 30일 (1회 연장 가능) 간병비 지원	12,500	39,000
		용진군 실버콜 서비스	독거노인 (노인돌봄대상자)	ARS를 통한 안부확인	24,000	24,000
		개안시술비 지원	저소득 노인	개안시술비 지원	14,000	7,000
		섬 사랑방 (독거노인 공동주거제)	독거노인	공동주거제를 통한 독거노인 고독사 및 우울증 예방	51,800	42,600

주 : 군구별 전체 예산액은 회계별예산규모로 작성(단, 중구와 미추홀구의 경우 「세입총괄표」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 국비 시비, 군구비 매칭사업은 인천시 작성, 군구는 매칭사업 외 자체 정책사업 작성.

7. 생애마무리 분야

- 생애마무리 분야와 관련된 시설은 현재 인천시에 없으며, 2019년에 제공된 서비스로는 미추홀구 주안도서관에서 진행된 ‘멋진 인생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이 있음
 - 해당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19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주안도서관이 선정되어 진행됨
 - 또한 2018년도에 제공된 생애마무리 관련 서비스로는 부평구에 위치한 부평문화원에서 50~70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웰다잉 과정이 있음

〈표 Ⅲ-58〉 인천시 군구별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 생애마무리 관련 정책사업(2018 ~ 2019)

구분	기관	대상(연령)	내용
미추홀구	주안도서관	성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길 위의 인문학] 멋진 인생을 위한 또 다른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멋진 인생 멋지게 내려놓기(인생곡선 나누기) -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준비(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 하늘 체험 여행(수의, 입관 체험) - 용인 평온의 숲 투어 - 수의, 안대, 입관 체험 후 유언장 쓰기 - 버킷리스트 작성
부평구	부평문화원	50~7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웰다잉과정(18년도까지 진행) : 2018년부터 시행되는 웰다잉법(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삶과 죽음에 대한 인문학강의

자료 : 1차 각 기관 홈페이지 검색, 2차 인천시 노인정책과 검토.

8.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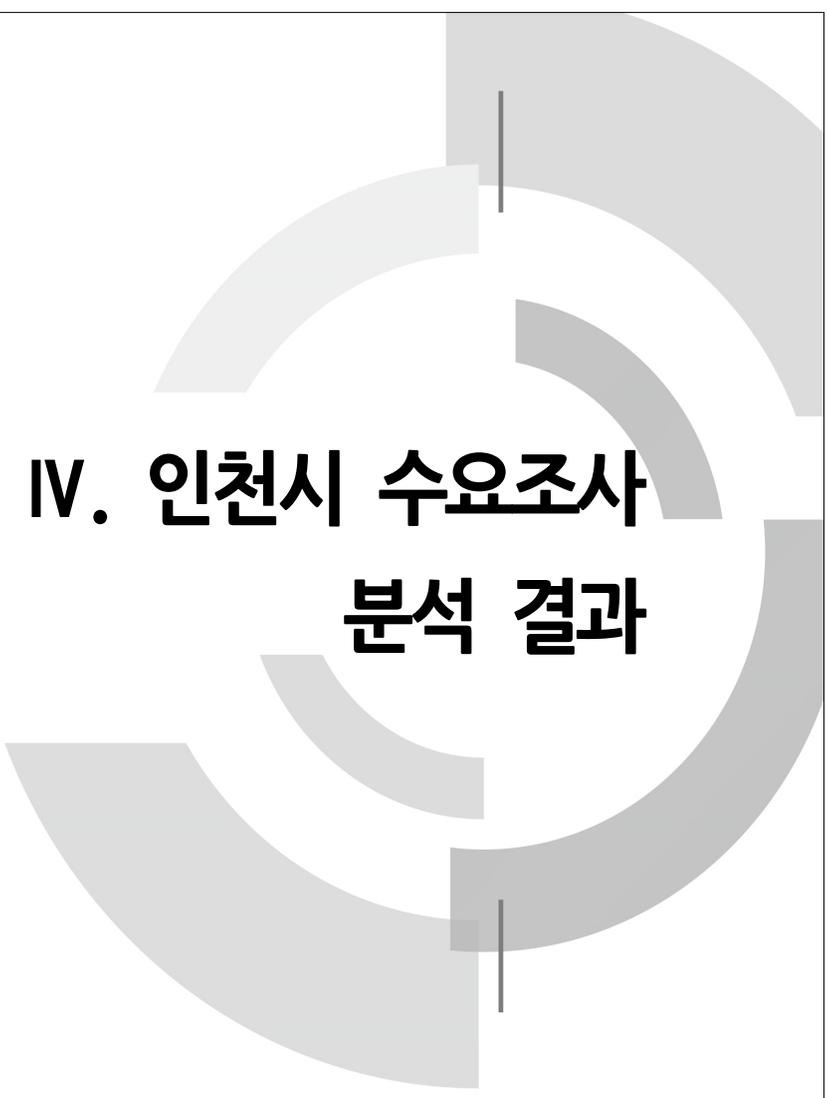
-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먼저 인천시 인구구조의 현황을 살펴봄. 인천시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2.3%로 ‘고령화사회’ 단계로 구분되며, 전국 평균 14.8%보다 낮으므로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편은 아님. 하지만 군구별로 살펴보면, 고령인구 비율은 최소 9.0%(연수구)부터 최대 30.7%(강화군)까지 나타나 군구별 편차가 심한 편임
 - 50세부터 64세까지를 예비노인세대라고 규정하였을 때, 생산연령층(15~64세)의 32.2%가 예비노인에 해당되고, 예비노인 중 약 60%가 베이비부머세대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후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처럼 향후 고령사회 대응 정책방향은 예비노인 세대와 노인세대를 모두 고려해야 하며, 연령층이 넓은 만큼 다양한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인천시의 노인관련 정책사업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기 위해 2018년 12월에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서 제시한 영역에 따라 ‘소득’, ‘노후준비’, ‘사회활동 참여’, ‘돌봄’, ‘생애 마무리’로 정리하였음
- 소득 분야에서는 노인 대상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살펴봄. 인천시 노인일자리 지원 서비스는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모든 구에서 총10곳의 노인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양적인 측면에서 노인

인구 천명당 시설 수나 시설당 종사자 수가 전국 상위에 속함

-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단순노동형의 시장형 일자리가 다수임
- 노후준비 분야에서는 예비노인세대를 대상으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현황을 살펴봄
 - 먼저 고용노동부의 정책사업으로 중장년 대상 정책인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과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에 인천시 뿐만 아니라 구 단위에서도 사업이 다수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는 인생이모작지원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앙코르커리어사업과 연계해 ‘모두 ZONE(좋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예비노인세대를 대상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군구청, 평생학습관, 노인복지회관 등에서는 인생재설계 프로그램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음
- 사회활동 참여 분야에서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과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현황을 살펴봄
 - 전국의 시설수와 비교해 보면, 인천은 1,540개로 인구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은 편에 속함. 시설유형별로 보면, 노인 천 명당 노인복지관 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편이었으나, 경로당이나 노인교실 수는 적은 편에 속하였음
 - 인천시 및 군구별 제공되고 있는 사회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면, 주로 구청,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대부분 여가, 교육, 상담 프로그램 및 봉사-동아리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는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으로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대상의 교육사업 및 동아리를 운영 중임
- 돌봄 분야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구분하여 시설현황을 살펴보았음
 - 인천시의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은 총 22곳에서 운영되고 있어 노인 천 명당 해당 시설 수가 가장 많은 편이었으나, 입소율은 70.4%로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 천 명당 시설수와 입소율, 종사자 수 모두 전국 상위권으로 높게 나타남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먼저 보호시설을 기반으로 주야간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전국에서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방문요양서비스와 같이 방문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전국 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났음

- 인천시 치매전담형 기관은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3곳과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 1곳에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용률이 95.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음
- 돌봄 지원 서비스는 주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서비스 내용은 주로 검진, 상담, 교육인 것으로 나타남
- 생애마무리 분야와 관련된 시설은 현재 인천시에 없으며, 운영된 프로그램으로는 2019년에 미추홀구 주안도서관에서 ‘멋진 인생을 위한 또 다른 시작’, 2018년에 부평문화원에서 웰다잉과정이 운영된 적 있음
- 전반적으로 시설 현황이나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강화군과 옹진군에 시설이 아예 부재하거나 지원서비스가 부족한 경우가 있었음. 이 지역의 노인인구수와 지역접근성을 고려하여 노후준비, 일자리, 사회활동, 돌봄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신설될 필요가 있음



IV. 인천시 수요조사 분석 결과

1. 2018년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조사 결과
2.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조사 결과
3. 소결

IV. 인천시 수요조사 분석 결과

1. 2018년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조사 결과

1) 인천시 노인의 지역사회 인식 연구 결과

- 2018년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노인의 지역사회 인식 연구: 고령친화환경을 중심으로」는 인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5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분석결과를 보고함
- 설문지표의 구성은 세계보건기구(WHO, 2007)에서 도시의 고령친화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시한 8개 영역 ① 거주환경, ② 교통, ③ 주거환경, ④ 지역사회 참여, ⑤ 노인 에 대한 존중과 사회통합, ⑥ 시민참여 활동 및 일자리, ⑦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성, ⑧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를 기준으로 인천시 노인의 고령친화 수준을 살펴봄
- 조사 결과 각 영역별 인천시의 고령친화점수를 정리하면 아래 <표 Ⅲ-71>과 같음

<표 Ⅳ-1> 인천시 노인이 인식하는 8개 영역별 고령친화점수

(단위: 점)

영역	세부 영역	점수	평균
거주환경	1) 거주환경의 쾌적성	70.2	63.9
	2) 공원 및 산책로의 접근성	70.2	
	3) 횡단보도 보행신호시간의 충분성	63.4	
	4) 거주지역의 범죄 안전성	62.8	
	5) 인도의 통행 편의성	61.0	
	6) 공중화장실의 이용 편의성	60.0	
	7) 인도의 구조적 편의성	59.6	
교통	1) 대중교통을 통한 목적지 접근의 용이성	66.3	58.3
	2) 버스 이용의 안전성	62.6	

영역	세부 영역	점수	평균
	3) 버스 정류장의 편의성	62.5	
	4) 교통표지판의 가독성	58.0	
	5) 대중교통 정보의 가독성	57.0	
	6) 택시의 보행보조기구 적재가능성	52.9	
	7) 대중교통 수단의 계단 및 좌석 편의성	48.8	
주거환경	1) 주거시설의 침수 안전도	70.3	62.8 ⁹⁾
	2) 주거시설의 기본설비 구비도	68.7	
	3) 주거시설의 폭염 안전도	68.6	
	4) 주거시설의 한파 안전도	65.6	
	5) 주거시설의 전기 사고 안전도	64.5	
	6) 주거시설의 화재 안전도	64.4	
	7) 주거시설의 범죄 안전도	63.2	
	8) 주거시설의 개조 욕구도	63.0	
	9) 주거비용의 부담도	36.8	
지역사회 참여	1) 사회참여 활동의 충분도	58.3	52.1
	2) 사회참여 활동의 접근 편의성	53.5	
	3) 사회참여 활동 정보의 접근 편의도	51.4	
	4) 사회참여 활동의 비용 수준	50.4	
	5) 시설 이용의 편의도	49.8	
	6) 세대 간 교류를 위한 공간 보유도	49.3	
노인에 대한 존중과 사회통합	1) 관공서 직원의 친절도	65.7	54.2
	2) 세대 간 교류 기회의 정기성	53.9	
	3) 주요 행위자로서의 참여 기회 충분도	52.1	
	4) 대중매체의 노인 이미지 긍정적 표현도	51.3	
	5) 세대 간 교류에서의 역할 기회 충분도	47.9	
시민참여 활동 및 일자리	1) 자원봉사활동 기회의 충분도	53.7	48.6
	2) 급여의 적절성	49.2	
	3) 직업훈련 및 교육 기회의 충분도	47.6	
	4) 일자리의 충분도	47.5	
	5) 취·창업 정보의 접근 편의도	47.2	
	6)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기관의 충분도	46.6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성	1) 노인 관련 정보 제공의 정기성	55.7	52.7
	2) 공공 인쇄물의 가독성	54.2	
	3) PC 및 인터넷의 접근 용이성	53.6	
	4) 무인기기 활자의 가독성	50.4	
	5) 무인기기의 구조적 편의도	49.5	

영역	세부 영역	점수	평균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1) 보건서비스의 충분도	64.7	59.9
	2) 복지서비스의 충분도	62.7	
	3) 보건 정보의 접근 편의도	59.2	
	4) 복지시설의 이용 편의도 및 안전도	57.7	
	5) 복지 정보의 접근 편의도	57.7	
	6) 보건시설의 이용 편의도 및 안전도	57.5	

자료: 하석철, 이선영(2018). 인천시 노인의 지역사회 인식 연구: 고령친화환경을 중심으로.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표 IV-438> 인용.

- 8개 영역 중 ‘거주환경’이 63.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시민참여 활동 및 일자리’가 48.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남
 - 거주환경과 주거환경 영역은 평균 60점대, 교통, 지역사회 참여, 노인에 대한 존중과 사회통합,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성,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영역은 평균 50점대, 시민참여 활동 및 일자리 영역은 40점대로 나타나 8개 영역 모두 60점대 이하의 점수로 응답됨

[그림 IV-1] 인천시 노인이 인식하는 고령친화환경 수준

(단위: 점)



9) 해당 과제 연구자는 ‘주거환경’ 영역의 평균 점수 산출 시 ‘주거시설의 개조 욕구도’ 점수는 지역사회의 고령친화도를 명확히 반영하는 항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산출식에 포함시키지 않음.

- 특히,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 세부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른 일자리 충분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기관 충분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일자리 충분도와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기관 충분도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가 비수급권자 이거나 또는 낮은 가구 소득을 보인 집단보다 더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8개 영역 중 평균점수가 낮은 순으로 영역별 제언 사항은 다음 <표 IV-2>와 같이 정리함

<표 IV-2> 고령친화 점수에 따른 8개 영역별 제언

영역	제언
시민참여 활동 및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확충 •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대한 관심 제고 •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지속을 위한 유인기제 마련 및 시스템 구축 • 임금과 고용안정성, 베이비부머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일자리 개발
지역사회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휴 공간을 활용한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노인 주(主) 이용 시설의 이용 편의성 증진 • 노인 여가·문화 특화 지역 발굴 및 개발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기기의 구조적 편의성 증진 • 공공 인쇄물과 무인기기의 활자 가독성 개선 • 노인 대상의 생활정보지 발간 및 배포
노인에 대한 존중과 사회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간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 대중매체에서의 노인 이미지 긍정적·활동적 표현 • 지역사회 문제 발굴 및 해결 과정에서 노인의 참여 기회 확대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상버스의 수 및 노선 확대 • 대중교통 정보의 가독성 증진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시설의 이용 편의성 및 안전성 증진 • 보건·복지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개선
주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비용의 주거시설 확충 • 노인 거주 지역의 범죄 안전성 증진
거주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환경의 개선 • 공중화장실의 이용 편의성 증진

2) 인천시 베이비부머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 2018년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베이비부머 실태 및 욕구조사」는 인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1,9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분석결과를 보고함
- 조사 대상인 베이비부머는 1955년부터 1974년에 출생한 자이며, 전기베이비부머를 1955년부터 1963년 출생자, 후기베이비부머는 1964년부터 1974년까지 출생한 코호트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 결과를 보고함
- 설문조사를 위해 지표구성은 건강 및 활동적 노화의 틀을 기준으로 삼아 7개 영역(① 일반적 현황, ② 가족, ③ 사회적 활동, ④ 건강, ⑤ 주거 및 지역사회 인식, ⑥ 근로 및 경제적 사항, ⑦ 노후준비 교육), 97개 문항으로 구성함
- 일반적 현황에 대한 결과로 조사대상자는 남성 50.2%, 여성 49.8%이며, 응답자의 과반은 고등학교 졸업자로 전기 베이비부머 보다 후기 베이비부머의 교육 수준이 높게 보고됨. 응답자 대부분은 현재 혼인 상태가 85.8%이며, 자가 거주 비율이 78.1%, 국가기초생활수급권자는 1.6%로 조사됨
- 가족관련 영역에 대한 결과로 조사대상자의 58.6%가 생계책임자인 가구주였으며, 배우자(84.8%)나 자녀(72.1%)와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높음. 평균 가족구성원 수는 5.77명으로 나타남. 자녀 부양에 대한 책임 시기를 취업할 때 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후기 베이비부머 보다 전기 베이비부머가 장기간 부양에 대한 책임과 금전적인 지원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이는 베이비부머 자신의 부모 부양에 있어서도 금전적인 지원 부담이 큰 것으로 보고됨
- 사회적 활동영역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친교집단은 친구(28.1%), 가족(27.6%), 직장동료(12.8%)의 순으로 나타났고, 친밀한 친구 및 이웃의 수는 평균 4.67명이며 전기 베이비부머 보다 후기 베이비부머가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응답됨. 대부분 실내외 취미 및 여가활동과 친목·사회활동의 참여율이 높게 보고되었으며, 종교활동, 교육활동, 자원봉사 및 시민단체 활동의 참여율은 낮게 나타남. 노년기 사회활동 참여 의사는 현재 참여율보다 높았는데, 특히 후기 베이비부머의 경우 자원봉사 및 시민단체 활동, 교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베이비부머는 노년기에 여가와 취미활동을 즐기며 지내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기 베이비부머는 소득활동에 대한 기대가 후기 베이비부머 보다 높게 나타남
- 건강관련 영역에서는 전기 베이비부머는 실제 나이와 같다는 인식이 많은 반면, 후

기 베이비부머는 실제 나이보다 젊게 인식하고 있는 응답이 많게 나타남. 그러나 인식과는 달리 건강위험행태 측면에서 음주 빈도, 만성질환 보유 비율이 높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운동을 하지 않고, 만성질환을 관리 하지 않는 비율 또한 높게 보고됨. 건강관련 삶의 질은 전기 베이비부머가 높았고, 고립감이나 소외감,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남

- 주거 및 지역사회 인식 영역에 대한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인천시 거주 기간이 평균 19.25년 이였고, 전기 베이비부머 보다 후기 베이비부머는 향후 거주지를 이동할 계획이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반면, 주거환경의 중요도 및 고령친화환경 인식에 대해 전기 베이비부머가 높게 평가했으며, 가장 중요한 노년기 돌봄서비스의 선택기준은 경제적 비용이라고 응답했는데, 전기 베이비부머 보다 후기 베이비부머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근로 및 경제적 영역에서는 전·후기 베이비부머 모두 비슷한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였으며, 전기 베이비부머는 서비스 판매(31.8%), 자영업(27.7%), 단순기술조립 및 노무직(20.6%) 종사자의 순으로 많은 반면, 후기 베이비부머는 사무직(38.2%), 전문(기술)직(15.9%), 자영업(12.4%)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종사상의 지위는 정규직 비율이 높지만 후기 베이비부머에 비해 전기 베이비부머는 37.2%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됨. 그리고 은퇴 후 노년기에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58.9%로, 건강한 생활을 위해 참여하고자 한다는 응답이 35.6%로 나타남. 노년기의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근로조건은 신체적 부담이 덜 되는 일(20.8%), 노인에게 우호적인 근무환경(20.5%)으로 조사됨. 베이비부머의 가구소득은 월 평균 450.2만원이었으며, 후기 베이비부머의 월 평균 가구소득이 더 높고, 주관적인 경제 수준은 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노년기 주 소득원의 형태로 전기 베이비부머는 근로사업소득(41.6%)을 후기 베이비부머는 공적이전소득(42.2%)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함. 노후 준비에 있어서 전·후기 베이비부머 모두 준비도 및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나, 중요도 대비 준비도는 후기 베이비부머의 간극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노후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연령의 시점을 평균 45.27세 부터라고 인식함
- 마지막으로 노후준비교육 영역에 대한 결과에서 노후준비 교육에 참여한 비율은 7.4%에 불과하였으나, 향후 노후준비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율은 57.3%로 나타남. 특히 전기 베이비부머 보다 후기 베이비부머의 참여 희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됨. 교육 분야에 있어서 경제적 준비 교육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향후 필요한 교육 에서도 자산관리 및 노후 재무 설계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응답함

- 인천시 베이비부머의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행정주체와 베이비부머 세대로 구분해 정책적 제언 내용을 <표 IV-3>과 같이 정리함

<표 IV-3> 행정주체,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정책적 제언

구분	제언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적 노화에 입각한 장기적 관점의 정부 정책기조 확대 • 노년기 안정적 소득보장 강화 • 바른돌봄, 미래를 위한 건강보험 준비
인천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노인세대 지원에 대한 홍보 강화 • 선제적인 예비노인세대 정책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 • 예비노인세대 지원 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환경 지원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환경 진단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트렌드 분석 • 개별화된 욕구에 맞춘 정보제공 • 노후설계 인식 확산 • Two-track의 서비스 지원 방안 모색
베이비부머 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재정립 교육 제공 • 욕구(Needs)에 근거한 노인 사회참여 기회 및 기반 마련 •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음주 관리 • AIP(Aging In Place)실현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 베이비부머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 정기적 조사를 통한 베이비부머 인식 파악

2.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조사 결과

- 인천시는 현재 경로당 중장기 계획을 준비 중에 있으며 노인세대를 위한 여가문화와 관련하여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임
- 이를 위해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을 위한 인천시 시설 중 경로당과 관련하여 인천시 경로당 이용자 및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의 특성은 <표 IV-4>와 같음
 - 조사대상자는 총 996명으로 이중 경로당 이용자는 499명이었으며, 경로당 미이용자는 497명임
 - 경로당 이용자 499명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63.6)이 남성(34.3%)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76세 이상이 62.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71~75세(23.0%), 70세 이하(11.0%)로 나타남

- 경로당 미이용자 497명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59.4%)이 남성(38.8%)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76세 이상(45.3%), 71~75세(30.6%), 70세 이하(23.3%)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4〉 경로당 조사대상 특성

(단위: 명, %)

구분	계	경로당 이용자	경로당 미이용자
전체	996(100.0)	499(100.0)	497(100.0)
성별			
남성	364(36.5)	171(34.3)	193(38.8)
여성	611(61.3)	316(63.3)	295(59.4)
무응답	21(2.1)	12(2.4)	9(1.8)
연령			
70세 이하	171(17.2)	55(11.0)	116(23.3)
71~75세	267(26.8)	115(23.0)	152(30.6)
76세 이상	537(53.9)	312(62.5)	225(45.3)
무응답	21(2.1)	17(3.4)	4(0.8)

1) 경로당 이용자 조사 결과

- 인천시 경로당 이용자 499명을 대상으로 경로당 이용기간을 살펴보면 〈표 IV-5〉와 같음
 - 이용기간은 5~10년이 35.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0년 이상(31.9%), 1~4년(25.3%), 1년 미만(3.8%) 순으로 나타남
 - 경로당 이용기간이 10년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성별로는 여성, 연령으로는 76세 이상 노인에게서 많이 나타남

〈표 IV-5〉 경로당 이용자: 이용 기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년 미만	1~4년	5~10년	10년 이상	무응답
전체	499	19(3.8)	126(25.3)	178(35.7)	159(31.9)	17(3.4)
성별						
남성	171	3(1.8)	49(28.7)	71(41.5)	45(26.3)	3(1.8)
여성	316	15(4.7)	77(24.4)	102(32.3)	110(34.8)	12(3.8)
무응답	12	1(8.3)	0(0.0)	5(41.7)	4(33.3)	2(16.7)
연령						
70세 이하	55	7(12.7)	27(49.1)	15(27.3)	2(3.6)	4(7.3)
71~75세	115	5(4.3)	46(40.0)	49(42.6)	11(9.6)	4(3.5)
76세 이상	312	6(1.9)	49(15.7)	111(35.6)	138(44.2)	8(2.6)
무응답	17	1(5.9)	4(23.5)	3(17.6)	8(47.1)	1(5.9)

- 경로당 이용자의 일주일 동안 경로당 이용횟수를 살펴보면 〈표 IV-6〉과 같음
 - 거의 매일이 39.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4~5일(35.3%), 3~4일(19.0%), 1~2일(3.6%) 순으로 나타남
 - 이용횟수를 ‘거의 매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주로 성별로는 여성, 연령으로는 76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남

〈표 IV-6〉 경로당 이용자: 이용 횟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2일	3~4일	4~5일	거의 매일	무응답
전체	499	18(3.6)	95(19.0)	176(35.3)	195(39.1)	15(3.0)
성별						
남성	171	6(3.5)	42(24.6)	67(39.2)	54(31.6)	2(1.2)
여성	316	12(3.8)	52(16.5)	103(32.6)	137(43.4)	12(3.8)
무응답	12	0(0.0)	1(8.3)	6(50.0)	4(33.3)	1(8.3)
연령						
70세 이하	55	6(10.9)	27(49.1)	13(23.6)	8(14.5)	1(1.8)

구분	사례수	1~2일	3~4일	4~5일	거의 매일	무응답
71~75세	115	5(4.3)	34(29.6)	44(38.3)	31(27.0)	1(0.9)
76세 이상	312	7(2.2)	31(9.9)	117(37.5)	147(47.1)	10(3.2)
무응답	17	0(0.0)	3(17.6)	2(11.8)	9(52.9)	3(17.6)

○ 경로당 이용자의 이용 시간대를 살펴보면 <표 IV-7>과 같음

- 주로 오후에 이용한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종일(36.9%), 주로 오전(12.4%), 주로 저녁 때(4.8%) 순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오후 시간대 이용자(53.2%)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종일 이용자(42.7%)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자주 사용하는 경로당 이용 시간대를 살펴보면 70세 이하는 주로 오후 시간(49.1%), 71~75세는 주로 저녁(38.3%), 76세 이상은 종일(47.1%)로 나타남

<표 IV-7> 경로당 이용자: 이용 시간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주로 오전	주로 오후	주로 저녁 때	종일	무응답
전체	499	62(12.4)	208(41.7)	24(4.8)	184(36.9)	21(4.2)
성별						
남성	171	20(11.7)	91(53.2)	10(5.8)	46(26.9)	4(2.3)
여성	316	40(12.7)	112(35.4)	13(4.1)	135(42.7)	16(5.1)
무응답	12	2(16.7)	5(41.7)	1(8.3)	3(25.0)	1(8.3)
연령						
70세 이하	55	6(10.9)	27(49.1)	13(23.6)	8(14.5)	1(1.8)
71~75세	115	5(4.3)	34(29.6)	44(38.3)	31(27.0)	1(0.9)
76세 이상	312	7(2.2)	31(9.9)	117(37.5)	147(47.1)	10(3.2)
무응답	17	0(0.0)	3(17.6)	2(11.8)	9(52.9)	3(17.6)

- 인천시 경로당 이용자의 이용 경로당 유형을 살펴보면 <표 IV-8>과 같음
 - 인천시 경로당 이용자들은 아파트 경로당(41.3%)을 가장 많이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립(군립) 경로당(28.7%)과 마을(지역) 경로당(26.9%)의 이용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남

<표 IV-8> 경로당 이용자: 이용 경로당 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구립(군립) 경로당	아파트 경로당	마을(지역) 경로당	무응답
전체	499	143(28.7)	206(41.3)	134(26.9)	16(3.2)
성별					
남성	171	53(31.0)	59(34.5)	55(32.2)	4(2.3)
여성	316	87(27.5)	141(44.6)	76(24.1)	12(3.8)
무응답	12	3(25.0)	6(50.0)	3(25.0)	0(0.0)
연령					
70세 이하	55	13(23.6)	22(40.0)	19(34.5)	1(1.8)
71~75세	115	36(31.3)	47(40.9)	30(26.1)	2(1.7)
76세 이상	312	87(27.9)	134(42.9)	81(26.0)	10(3.2)
무응답	17	7(41.2)	3(17.6)	4(23.5)	3(17.6)

- 인천시 경로당 이용자의 연금 수급 여부를 살펴보면 <표 IV-9>와 같음
 - 연금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77.0%로 경로당 이용자 대부분이 기초연금 혹은 공적연금을 받고 있었으며, 연금 수급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76세 이상이 8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9> 경로당 이용자: 연금 수급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무응답
전체	499	384(77.0)	66(13.2)	49(9.8)
성별				
남성	171	132(77.2)	23(13.5)	16(9.4)
여성	316	242(76.6)	43(13.6)	31(9.8)
무응답	12	10(83.3)	0(0.0)	2(16.7)
연령				
70세 이하	55	37(67.3)	14(25.5)	4(7.3)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무응답
71~75세	115	86(74.8)	16(13.9)	13(11.3)
76세 이상	312	253(81.1)	33(10.6)	26(8.3)
무응답	17	8(47.1)	3(17.6)	6(35.3)

- 이용자의 경로당 이용 사유를 살펴보면 <표 IV-10>과 같음
 - 동료와 시간을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응답이 33.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여가선용에 유익(23.6%), 마땅히 갈 곳 없음(19.8%), 화투 등 놀이를 즐기기 위함(13.0%) 순으로 나타남
 - 남성은 동료와 시간 사용, 여가선용에 유익하므로 경로당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둘 다 31.0%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동료와 시간 사용을 위해 경로당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33.9%로 가장 많이 나타남
 - 연령별로는 70세 이하는 여가선용에 유익하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고, 71~75세와 76세 이상은 동료와 시간 사용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표 IV-10> 경로당 이용자: 이용 사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동료와 시간 사용	마땅히 갈 곳 없음	여가선용에 유익	놀이를 즐기기 위함	무응답
전체	499	167(33.5)	99(19.8)	118(23.6)	65(13.0)	50(10.0)
성별						
남성	171	53(31.0)	31(18.1)	53(31.0)	26(15.2)	8(4.7)
여성	316	107(33.9)	65(20.6)	65(20.6)	38(12.0)	41(13.0)
무응답	12	7(58.3)	3(25.0)	0(0.0)	1(8.3)	1(8.3)
연령						
70세 이하	55	19(34.5)	8(14.5)	25(45.5)	2(3.6)	1(1.8)
71~75세	115	39(33.9)	28(24.3)	35(30.4)	7(6.1)	6(5.2)
76세 이상	312	105(33.7)	56(17.9)	56(17.9)	55(17.6)	40(12.8)
무응답	17	4(23.5)	7(41.2)	2(11.8)	1(5.9)	3(17.6)

- 경로당에서 이용자들이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표 IV-11>과 같음
 - 경로당에서 친구와 대화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이 38.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윗, 화투 등(15.8%), 텔레비전 시청(12.0%), 장기와 바둑(10.8%), 기타(6.8%) 순으로 나타남
 - 성별 응답률을 살펴보면 장기와 바둑에서 남녀의 비율 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윗과 화투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76세 이상에게서 많이 나타남

<표 IV-11> 경로당 이용자: 시간 사용 방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친구와 대화	장기, 바둑	텔레비전 시청	윗, 화투 등	기타	무응답
전체	499	194(38.9)	54(10.8)	60(12.0)	79(15.8)	34(6.8)	78(15.6)
성별							
남성	171	47(27.5)	46(26.9)	19(11.1)	28(16.4)	16(9.4)	15(8.8)
여성	316	139(44.0)	8(2.5)	40(12.7)	49(15.5)	18(5.7)	62(19.6)
무응답	12	8(66.7)	0(0.0)	1(8.3)	2(16.7)	0(0.0)	1(8.3)
연령							
70세 이하	55	33(60.0)	8(14.5)	7(12.7)	2(3.6)	5(9.1)	0(0.0)
71~75세	115	49(42.6)	13(11.3)	18(15.7)	12(10.4)	11(9.6)	12(10.4)
76세 이상	312	106(34.0)	33(10.6)	33(10.6)	62(19.9)	16(5.1)	62(19.9)
무응답	17	6(35.3)	0(0.0)	2(11.8)	3(17.6)	2(11.8)	4(23.5)

- 경로당 이용자의 회비 납부 여부를 살펴보면 <표 IV-12>와 같음
 -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이 88.6%로 대부분 회비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76세 이상의 경우 회비를 납부한다는 비율이 93.3%로 가장 높음

〈표 IV-12〉 경로당 이용자: 회비 납부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무응답
전체	499	442(88.6)	56(11.2)	1(0.2)
성별				
남성	171	153(89.5)	18(10.5)	0(0.0)
여성	316	281(88.9)	34(10.8)	1(0.3)
무응답	12	8(66.7)	4(33.3)	0(0.0)
연령				
70세 이하	55	45(81.8)	10(18.2)	0(0.0)
71~75세	115	91(79.1)	24(20.9)	0(0.0)
76세 이상	312	291(93.3)	20(6.4)	1(0.3)
무응답	17	15(88.2)	2(11.8)	0(0.0)

- 인천시 경로당 이용자의 월 납부 회비금액과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 회비금액을 살펴 보면 〈표 IV-13〉과 같음
 - 한 달 회비는 평균 5,009.55원으로 나타났으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월 회비의 평균 금액은 4,833.33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남
 - 월 회비금액으로 3.5~5천원을 납부하는 사람이 55.6%로 절반 이상이었고,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월 회비금액 또한 3,500원~5,000원이 71.6%로 높았음

〈표 IV-13〉 경로당 이용자: 월 회비 및 적정금액

(단위: 명, %)

구분	2~3천원	3.5~5천원	6천원 초과	계	평균(표준편차)	최대금액
월 회비금액	153 (36.5)	233 (55.6)	33 (7.9)	419 (100.0)	5,009.55 (4,159.63)	30,000
월 적정금액	65 (23.0)	202 (71.6)	15 (5.3)	282 (100.0)	4,833.33 (3,094.40)	40,000

- 경로당 이용자에게 경로당을 통해 좋은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IV-14>와 같음
 - 조금 있다는 응답이 52.3%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있으나 부족하다는 의견 또한 23.8%로 나타남

<표 IV-14> 경로당 이용자: 제공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충분성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조금 있음	전혀 없음	있으나 부족함	잘 모르겠음	무응답
전체	499	261(52.3)	4(0.8)	119(23.8)	88(17.6)	27(5.4)
성별						
남성	171	93(54.4)	2(1.2)	43(25.1)	29(17.0)	4(2.3)
여성	316	161(50.9)	2(0.6)	76(24.1)	56(17.7)	21(6.6)
무응답	12	7(58.3)	0(0.0)	0(0.0)	3(25.0)	2(16.7)
연령						
70세 이하	55	32(58.2)	0(0.0)	6(10.9)	14(25.5)	3(5.5)
71~75세	115	58(50.4)	0(0.0)	27(23.5)	25(21.7)	5(4.3)
76세 이상	312	168(53.8)	4(1.3)	79(25.3)	46(14.7)	15(4.8)
무응답	17	3(17.6)	0(0.0)	7(41.2)	3(17.6)	4(23.5)

- 경로당 이용자에게 경로당에서 제공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을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IV-15>와 같음
 -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응답한 비율이 38.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이 22.6%로 건강 관련 프로그램과 오락 프로그램 제공을 바라는 응답 비율을 합하면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특징적인 사항은 소득연계사업 프로그램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70세 이하에서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다른 연령보다 71~75세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음

〈표 IV-15〉 경로당 이용자: 제공되길 바라는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건강 관련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	취미생활 관련 프로그램	봉사활동 관련 프로그램	소득연계 사업 프로그램	무응답
전체	499	190(38.1)	113(22.6)	14(2.8)	22(4.4)	31(6.2)	33(6.6)	96(19.2)
성별								
남성	171	64(37.4)	41(24.0)	6(3.5)	9(5.3)	11(6.4)	10(5.8)	30(17.5)
여성	316	122(38.6)	70(22.2)	8(2.5)	13(4.1)	19(6.0)	22(7.0)	62(19.6)
무응답	12	4(33.3)	2(16.7)	0(0.0)	0(0.0)	1(8.3)	1(8.3)	4(33.3)
연령								
70세 이하	55	21(38.2)	14(25.5)	3(5.5)	3(5.5)	4(7.3)	6(10.9)	4(7.3)
71~75세	115	34(29.6)	32(27.8)	6(5.2)	6(5.2)	14(12.2)	8(7.0)	15(13.0)
76세 이상	312	128(41.0)	65(20.8)	5(1.6)	12(3.8)	12(3.8)	17(5.4)	73(23.4)
무응답	17	7(41.2)	2(11.8)	0(0.0)	1(5.9)	1(5.9)	2(11.8)	4(23.5)

○ 경로당 이용자들에게 현재 이용 경로당의 운영방식 및 운영경비에 대한 생각을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IV-16〉과 같음

- 79.0%의 이용자들이 현재 이용 경로당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함

〈표 IV-16〉 경로당 이용자: 이용 경로당 운영방식 및 운영경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잘 운영되고 있음	잘 운영되지 않고 있음	잘 모르겠음	무응답
전체	499	394(79.0)	8(1.6)	72(14.4)	25(5.0)
성별					
남성	171	140(81.9)	2(1.2)	24(14.0)	5(2.9)
여성	316	248(78.5)	6(1.9)	45(14.2)	17(5.4)
무응답	12	6(50.0)	0(0.0)	3(25.0)	3(25.0)
연령					
70세 이하	55	43(78.2)	2(3.6)	6(10.9)	4(7.3)
71~75세	115	86(74.8)	0(0.0)	27(23.5)	2(1.7)

구분	사례수	잘 운영되고 있음	잘 운영되지 않고 있음	잘 모르겠음	무응답
76세 이상	312	252(80.8)	5(1.6)	38(12.2)	17(5.4)
무응답	17	13(76.5)	1(5.9)	1(5.9)	2(11.8)

- 현재 이용 경로당의 운영방식 및 운영경비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경로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희망하는 개선사항을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IV-17>과 같음
 - 비용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5.3%로 가장 많았으며 회계 운영상 제약이 많다는 응답도 23.5%로 많이 나타남

<표 IV-17> 경로당 이용자: 운영 관련 희망 개선사항

(단위: 명, %)

구분	명	%
비용이 부족함	6	35.3
회계 운영상 제약이 많음	4	23.5
현재 잘하고 있음	2	11.8
기타	3	17.6
잘 모르겠음	2	11.8
계	17	100.0

- 인천시 경로당 이용자에게 경로당 활성화 및 개선방안과 애로·건의사항을 주관식으로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IV-18>과 같음
 - 질 좋은 프로그램의 다양화라는 응답이 20.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소득연계사업 확대(16.0%), 쾌적한 환경 및 시설 개선(12.8%), 기타(10.6%), 공동작업장의 확대(9.6%), 회원 간 화목한 분위기 조성 및 현재 만족하고 있음(8.5%) 순으로 나타남
 - 이외에도 지원비용 증대, 경로당에 대한 인식 개선, 투명한 경로당 운영 등이 제기됨
 - 경로당 이용 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주관식으로 질문한 결과 프로그램의 다양화(47.4%), 운영비 또는 전기 및 가스요금 등의 관리비 부족(22.1%)이라는 응답이 많이 나타남
 - 이외에도 청소인력의 지원, 협소한 장소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표 IV-18〉 경로당 이용자: 활성화 및 개선방안과 애로·건의사항

(단위: 명, %)

활성화 방안 및 개선사항	명	%	애로·건의사항	명	%
좋은 프로그램의 다양화	19	20.2	프로그램의 다양화 (오락, 건강, 노래교실 등)	45	47.4
소득연계사업 확대	15	16.0	운영비 또는 전기, 가스 요금 등의 부족	21	22.1
쾌적한 환경 및 시설 개선	12	12.8	기타	10	10.5
기타	10	10.6	청소 등 관리 인력의 지원	9	9.5
공동작업장 확대	9	9.6	장소 개선(협소함 등)	6	6.3
회원 상호 간 화목한 분위기 조성	8	8.5	잘하고 있음	4	4.2
현재 만족하고 있음	8	8.5	계	95	100.0
지원 비용 증대	6	6.4			
경로당에 대한 인식 개선	5	5.3			
투명한 경로당 운영	2	2.1			
계	94	100.0			

2) 경로당 미이용자 대상 조사 결과

- 인천시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497명을 대상으로 연금 수급 여부를 살펴본 결과 〈표 IV-19〉와 같음
 - 연금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64.4%로 절반 이상이 기초연금이나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금 수급자의 비율은 남성(67.4%)이 여성(61.7%)보다 더 많았고, 76세 이상이 71.6%로 높게 나타남

〈표 IV-19〉 경로당 미이용자: 연금 수급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무응답
전체	497	320(64.4)	157(31.6)	20(4.0)
성별				
남성	193	130(67.4)	57(29.5)	6(3.1)
여성	295	182(61.7)	100(33.9)	13(4.4)
무응답	9	8(88.9)	0(0.0)	1(11.1)
연령				
70세 이하	116	62(53.4)	54(46.6)	0(0.0)
71~75세	152	95(62.5)	49(32.2)	8(5.3)
76세 이상	225	161(71.6)	53(23.6)	11(4.9)
무응답	4	2(50.0)	1(25.0)	1(25.0)

- 경로당 미이용자의 생활비 충당 방법을 살펴보면 〈표 IV-20〉과 같음
 - 경로당 미이용자의 생활비 충당 방법은 기초연금, 공적연금, 사적연금이 34.6%, 벌어놓은 자산소득이 23.3%, 자녀들이 주는 생활비가 21.7%, 근로 및 부업 15.7%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연금이라는 응답이 1순위로 나타났고 2순위의 경우 남성은 자산소득, 여성은 자녀제공 생활비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음
 - 남녀 공히 1순위로 나타난 연금을 제외하고 남성의 경우 벌어놓은 자산소득이, 여성의 경우 자녀들이 제공해주는 생활비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70세 이하는 근로 및 부업이 29.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연금이 25.9%이었음. 71~75세 연령대에서는 연금(41.4%)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산소득(25.0%)이었음. 76세 이상은 연금(34.7%) 다음으로 자녀들이 제공해주는 생활비(27.1%)라는 응답이 높은 비율로 나타남

〈표 IV-20〉 경로당 미이용자: 생활비 충당 방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근로 및 부업	벌어놓은 자산소득	자녀 제공 생활비	기초연금 공적연금 사적연금	무응답
전체	497	78(15.7)	116(23.3)	108(21.7)	172(34.6)	23(4.6)
성별						
남성	193	35(18.1)	44(22.8)	30(15.5)	76(39.4)	8(4.1)
여성	295	42(14.2)	70(23.7)	77(26.1)	92(31.2)	14(4.7)
무응답	9	1(11.1)	2(22.2)	1(11.1)	4(44.4)	1(11.1)
연령						
70세 이하	116	34(29.3)	25(21.6)	25(21.6)	30(25.9)	2(1.7)
71~75세	152	22(14.5)	38(25.0)	21(13.8)	63(41.4)	8(5.3)
76세 이상	225	21(9.3)	53(23.6)	61(27.1)	78(34.7)	12(5.3)
무응답	4	1(25.0)	0(0.0)	1(25.0)	1(25.0)	1(25.0)

-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거 경로당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표 IV-21〉과 같음
 -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52.5%,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5.3%로 나타남
 -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여성(42.0%)보다는 남성(50.3%), 다른 연령보다 71~75세 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남

〈표 IV-21〉 경로당 미이용자: 과거 경로당 이용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무응답
전체	497	225(45.3)	261(52.5)	11(2.2)
성별				
남성	193	97(50.3)	92(47.7)	4(2.1)
여성	295	124(42.0)	165(55.9)	6(2.0)
무응답	9	4(44.4)	4(44.4)	1(11.1)
연령				
70세 이하	116	34(29.3)	79(68.1)	3(2.6)
71~75세	152	80(52.6)	68(44.7)	4(2.6)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무응답
76세 이상	225	109(48.4)	112(49.8)	4(1.8)
무응답	4	2(50.0)	2(50.0)	0(0.0)

- 경로당 미이용자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표 IV-22>와 같음
 - 다른 취미생활을 한다는 응답이 43.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참여할만한 프로그램 부재와 특정이용자 중심의 운영(18.3%), 불청결한 환경(9.1%), 회비 납부 필요(5.0%)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 경로당 미이용 사유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다른 취미 생활 중이라는 응답이 1순위로 나타났고 2순위의 경우 70세 이하에서는 특정이용자 중심의 운영인 반면 71~75세와 76세 이상에서는 참여 프로그램의 부재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음

<표 IV-22> 경로당 미이용자: 미이용 사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다른 취미 생활 중	참여할 프로그램 부재	불청결한 환경	특정이용자 중심의 운영	회비 납부 필요	무응답
전체	497	217(43.7)	91(18.3)	45(9.1)	91(18.3)	25(5.0)	28(5.6)
성별							
남성	193	80(41.5)	35(18.1)	18(9.3)	37(19.2)	13(6.7)	10(5.2)
여성	295	135(45.8)	54(18.3)	26(8.8)	54(18.3)	9(3.1)	17(5.8)
무응답	9	2(22.2)	2(22.2)	1(11.1)	0(0.0)	3(33.3)	1(11.1)
연령							
70세 이하	116	40(34.5)	13(11.2)	16(13.8)	33(28.4)	8(6.9)	6(5.2)
71~75세	152	65(42.8)	33(21.7)	15(9.9)	25(16.4)	6(3.9)	8(5.3)
76세 이상	225	110(48.9)	45(20.0)	14(6.2)	32(14.2)	11(4.9)	13(5.8)
무응답	4	2(50.0)	0(0.0)	0(0.0)	1(25.0)	0(0.0)	1(25.0)

- 경로당 미이용자의 여가 사용 방법을 살펴보면 <표 IV-23>과 같음
 - 친구 및 친가 방문·동호인 모임이 30.6%으로 1순위로 나타났고 이어서 TV 시청·라디오 청취·신문 보기(26.2%), 관광·등산 등 레저활동(12.1%),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8.5%),

- 종교활동(7.0%), 장기·바둑·화투(4.8%), 자녀 및 손자녀 양육(4.6%)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TV 시청·라디오 청취·신문 보기가, 여성의 경우 친구 및 친가 방문·동호인 모임이 1순위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친구 및 친가 방문·동호인 모임이 1순위로 나타났고 2순위의 경우 70세 이하에서는 관광·등산 등 레저활동, 71~75세, 76세 이상에서는 TV 시청·라디오 청취·신문 보기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음

〈표 IV-23〉 경로당 미이용자: 여가 사용 방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	친구 및 친가 방문, 동호인 모임	TV시청, 라디오청취, 신문보기	관광, 등산 등 레저활동	종교활동	장기, 바둑, 화투	자녀 및 손자녀 양육	무응답
전체	497	42(8.5)	152(30.6)	130(26.2)	60(12.1)	35(7.0)	24(4.8)	23(4.6)	31(6.2)
성별									
남성	193	14(7.3)	47(24.4)	56(29.0)	25(13.0)	10(5.2)	22(11.4)	9(4.7)	10(5.2)
여성	295	28(9.5)	104(35.3)	70(23.7)	35(11.9)	24(8.1)	1(0.3)	14(4.7)	19(6.4)
무응답	9	0(0.0)	1(11.1)	4(44.4)	0(0.0)	1(11.1)	1(11.1)	0(0.0)	2(22.2)
연령									
70세 이하	116	12(10.3)	30(25.9)	19(16.4)	23(19.8)	11(9.5)	6(5.2)	8(6.9)	7(6.0)
71~75세	152	13(8.6)	46(30.3)	42(27.6)	17(11.2)	10(6.6)	6(3.9)	7(4.6)	11(7.2)
76세 이상	225	17(7.6)	74(32.9)	68(30.2)	20(8.9)	14(6.2)	11(4.9)	8(3.6)	13(5.8)
무응답	4	0(0.0)	2(50.0)	1(25.0)	0(0.0)	0(0.0)	1(25.0)	0(0.0)	0(0.0)

- 경로당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향후 경로당 이용 의사 여부를 살펴보면 〈표 IV-24〉와 같음
 - 이용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63.6%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이용 의사를 살펴보면 70세 이하에서는 이용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71~75세와 76세 이상에서는 이용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음

〈표 IV-24〉 경로당 미이용자: 향후 경로당 이용 의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무응답
전체	497	316(63.6)	178(35.8)	3(0.6)
성별				
남성	193	123(63.7)	70(36.3)	0(0.0)
여성	295	186(63.1)	106(35.9)	3(1.0)
무응답	9	7(77.8)	2(22.2)	0(0.0)
연령				
70세 이하	116	53(45.7)	62(53.4)	1(0.9)
71~75세	152	108(71.1)	44(28.9)	0(0.0)
76세 이상	225	152(67.6)	71(31.6)	2(0.9)
무응답	4	3(75.0)	1(25.0)	0(0.0)

- 향후 경로당을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한 응답자들에게 없다고 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IV-25〉와 같음
- 복지관 등 다른 곳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29.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타(23.4%), 가기 싫다거나 가도 할 게 없고, 관심이 없음(12.5%), 프로그램의 부족(10.9%), 나이가 맞지 않아서(9.4%), 다른 취미생활 중(6.3%), 유익하지 않음(4.7%), 근로 중(3.1%)이라는 응답 순으로 나타남

〈표 IV-25〉 경로당 미이용자: 경로당 이용할 의사가 없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명	%
복지관 이용 등 다른 곳 이용	19	29.7
기타	15	23.4
가기 싫어서, 가도 할 게 없어서, 관심이 없음 등	8	12.5
프로그램의 부족	7	10.9
나이가 맞지 않아서	6	9.4
다른 취미생활 중	4	6.3
유익하지 않음	3	4.7

구분	명	%
근로 중	2	3.1
계	64	100.0

- 경로당 미이용자들이 경로당에서 운영되길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표 IV-26>과 같음
 -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36.2%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으며 이어서 오락 프로그램(17.9%), 취미생활 관련 프로그램(16.9%), 교양 프로그램(10.7%), 소득연계사업 프로그램(5.8%), 봉사활동 관련 프로그램(5.0%)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1순위로 나타났으며 2순위의 경우 남성은 취미생활 관련 프로그램, 여성은 오락 프로그램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음
 - 연령별 1순위를 살펴보면 70세 이하는 취미생활 관련 프로그램으로 나타난 반면 71~75세, 76세 이상은 건강 관련 프로그램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음

<표 IV-26> 경로당 미이용자: 운영 희망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건강 관련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	취미생활 관련 프로그램	봉사활동 관련 프로그램	소득연계 사업 프로그램	무응답
전체	497	180(36.2)	89(17.9)	53(10.7)	84(16.9)	25(5.0)	29(5.8)	37(7.4)
성별								
남성	193	71(36.8)	24(12.4)	17(8.8)	37(19.2)	12(6.2)	13(6.7)	19(9.8)
여성	295	104(35.3)	64(21.7)	35(11.9)	46(15.6)	12(4.1)	16(5.4)	18(6.1)
무응답	9	5(55.6)	1(11.1)	1(11.1)	1(11.1)	1(11.1)	0(0.0)	0(0.0)
연령								
70세 이하	116	27(23.3)	13(11.2)	7(6.0)	32(27.6)	12(10.3)	15(12.9)	10(8.6)
71~75세	152	59(38.8)	29(19.1)	16(10.5)	22(14.5)	5(3.3)	4(2.6)	17(11.2)
76세 이상	225	93(41.3)	45(20.0)	30(13.3)	29(12.9)	8(3.6)	10(4.4)	10(4.4)
무응답	4	1(25.0)	2(50.0)	0(0.0)	1(25.0)	0(0.0)	0(0.0)	0(0.0)

- 인천시 경로당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 회비 납부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IV-27>과 같음
 - 납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55.5%로 절반 이상이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개인 회비 납부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아짐

<표 IV-27> 경로당 미이용자: 개인 회비 납부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무응답
전체	497	276(55.5)	187(37.6)	34(6.8)
성별				
남성	193	99(51.3)	80(41.5)	14(7.3)
여성	295	172(58.3)	103(34.9)	20(6.8)
무응답	9	5(55.6)	4(44.4)	0(0.0)
연령				
70세 이하	116	39(33.6)	72(62.1)	5(4.3)
71~75세	152	91(59.9)	45(29.6)	16(10.5)
76세 이상	225	145(64.4)	67(29.8)	13(5.8)
무응답	4	1(25.0)	3(75.0)	0(0.0)

- 경로당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경로당 월 개인 회비의 적정 금액을 살펴본 결과 <표 IV-28>과 같음
 - 3.5천원에서 5천원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43.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3천원 이하(39.3%), 6천원을 초과(16.8%) 순으로 나타남
 - 미이용자들이 생각하는 경로당 적정 회비 평균액은 5,016.07원이었음

<표 IV-28> 경로당 미이용자: 월 회비 적정금액

(단위: 명, %)

구분	0~3천원	3,500~5천원	6천원 초과	계	평균(표준편차)	최대금액
월 적정금액	110 (39.3)	123 (43.9)	47 (16.8)	280 (100.0)	5,016.07 (3,332.35)	20,000

- 경로당 개인 회비 납부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미이용자들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IV-29>와 같음
 - 복지시설은 무료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76.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회비 사용처의 불투명성(16.9%), 기타(6.7%) 순으로 나타남
 - 복지시설은 무료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응답률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높아졌으며, 회비 사용처의 불투명성에 대한 응답률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함

<표 IV-29> 경로당 미이용자 : 개인 회비 미납부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회비 사용처의 불투명성	복지시설은 무료로 이용되어야 함	기타
전체	178	30(16.9)	136(76.4)	12(6.7)
성별				
남성	69	9(13.0)	59(85.5)	1(1.4)
여성	106	21(19.8)	74(69.8)	11(10.4)
무응답	3	0(0.0)	3(100.0)	0(0.0)
연령				
70세 이하	41	4(9.8)	37(90.2)	0(0.0)
71~75세	55	10(18.2)	40(72.7)	5(9.1)
76세 이상	79	16(20.3)	56(70.9)	7(8.9)
무응답	3	0(0.0)	3(100.0)	0(0.0)

- 경로당 미이용자들에게 경로당 운영 주체에 대해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IV-30>과 같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응답이 55.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회원들 스스로(22.9%), 아파트 관리소나 마을공동체 등의 설립자(17.5%) 순으로 나타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높아졌으며, 회원들 스스로라는 응답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30〉 경로당 미이용자: 경로당 운영 주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회원들 스스로	아파트 관리소, 마을공동체 등의 설립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무응답
전체	497	114(22.9)	87(17.5)	278(55.9)	18(3.6)
성별					
남성	193	45(23.3)	27(14.0)	113(58.5)	8(4.1)
여성	295	64(21.7)	59(20.0)	162(54.9)	10(3.4)
무응답	9	5(55.6)	1(11.1)	3(33.3)	0(0.0)
연령					
70세 이하	116	17(14.7)	15(12.9)	80(69.0)	4(3.4)
71~75세	152	36(23.7)	18(11.8)	89(58.6)	9(5.9)
76세 이상	225	61(27.1)	54(24.0)	105(46.7)	5(2.2)
무응답	4	0(0.0)	0(0.0)	4(100.0)	0(0.0)

- 인천시 경로당 미이용자에게 경로당 활성화 및 개선방안을 주관식으로 질문한 결과는 〈표 IV-31〉과 같음
 - 질 좋은 프로그램의 다양화라는 응답이 32.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쾌적한 환경 및 시설의 개선(18.8%), 회원 간 화목한 분위기 조성(12.0%), 투명한 회계 운영(11.1%) 순으로 나타남
 - 이외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과 자율적인 운영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4.3%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비용 지원의 확대와 경로당에 대한 인식 개선도 각각 2.6%로 나타남

〈표 IV-31〉 경로당 미이용자: 경로당 활성화 및 개선방안

(단위: 명, %)

구분	명	%
질 좋은 프로그램의 다양화	38	32.5
쾌적한 환경 및 시설 개선	22	18.8
회원 간 화목 조성	14	12.0
기타	14	12.0
투명한 회계 운영	13	11.1

구분	명	%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야 함	5	4.3
자율적인 운영에 맡겨야 함	5	4.3
경로당에 대한 인식 개선	3	2.6
비용 지원 확대	3	2.6
계	117	100.0

3. 소결

1) 2018년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조사 결과

-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앞서 2018년 수행된 수요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인천시 거주노인(65세 이상) 1,515명을 대상으로 노인이 인식하는 인천시의 고령친화 정도를 조사한 결과, ‘거주환경’과 ‘주거환경’ 영역은 평균 60점대로 고령친화 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통, 지역사회 참여, 노인에 대한 존중과 사회통합,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성,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영역은 평균 50점대이었으며, ‘시민참여 활동 및 일자리’가 48.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남
 - 본 결과를 통해 인천시 노인들은 안정적인고 건강한 노년에 대한 욕구가 높는데 비해, 고령친화 정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직업교육, 일자리 지원과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정책과제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음은 인천시 베이비부머 1,907명을 대상으로 전기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 출생자) 및 후기 베이비부머(1964~1974년 출생자)의 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 인천시 베이비부머는 현재 참여하는 사회활동에 비해 향후 노년기의 참여의사가 높게 나타났고, 후기 베이비부머의 경우 자원봉사 및 시민단체 활동, 교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난 반면, 전기 베이비부머는 소득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남.

같은 베이비부머라 하더라도 코호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회참여 활동에 있어서 대상 노인의 연령별 세분화가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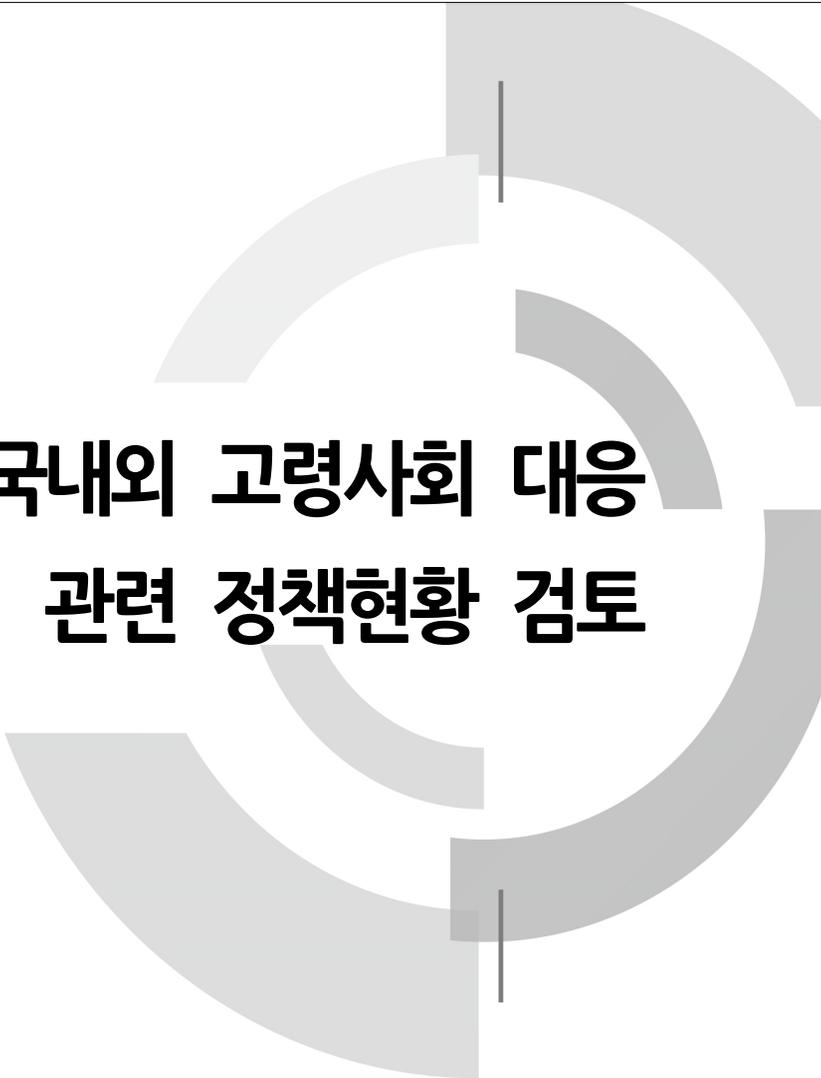
- 건강 측면에서 베이비부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운동을 하지 않고, 만성질환을 관리 하지 않는 비율 또한 높게 보고되어, 예비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건강 예방 관리 측면에서의 실천적인 성격의 지역사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베이비부머 중 은퇴 후 노년기에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58.9%, 건강한 생활을 위해 참여하고자 한다는 응답이 35.6%로 나타남. 노년기의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근로조건은 신체적 부담이 덜 되는 일(20.8%), 노인에게 우호적인 근무환경(20.5%)으로 조사됨. 베이비부머의 인구수를 고려했을 때 노인이 일하기에 적합한 일자리 수를 추산하여 일자리 발굴 사업의 정책목표로 삼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일자리 지원 분야에서 정확한 일자리 현황 통계 파악이 중요하며, 모니터링과 성과 관리 또한 자치구 단위에서부터 수행되어야 함
- 베이비부머들은 노후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연령의 시점을 평균 45.27세부터 라고 인식함.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제2조 6항에 50세 이상 65세 미만을 예비노인세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산관리 및 노후재무설계에 대한 욕구를 고려하면 경제적 준비의 연령층을 40대로 확대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함

2)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조사 결과

- 인천시는 경로당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노인세대의 여가복지시설로서 경로당에 관한 이용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중장기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조사 시점 당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4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로당 이용 노인들은 주로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일주일 중 4일 이상, 종일 또는 오후시간에 이용하는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함. 이들은 주로 동료와 시간을 사용하기 위한 친목활동으로 또는 여가선용을 위해 경로당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윗, 화투, TV 시청, 장기와 바둑 등 취미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 노인 4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다른 취미생활을 한다는 응답이 43.7%으로 가장 많았

고 이어서 참여할만한 프로그램 부재와 특정이용자 중심의 운영(18.3%), 불청결한 환경(9.1%), 회비 납부 필요(5.0%) 순으로 나타남. 이들 중에는 복지관 등 다른 곳을 이용한다는 응답과 다른 취미생활을 한다는 응답이 있었음

- 경로당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1,2순위가 건강 관련 프로그램과 오락 프로그램이었으며, 3순위로는 70세 이하 노인들은 소득연계사업 프로그램, 71~75세 노인들은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나타남. 한편 경로당 미이용자 또한 1,2순위는 건강과 오락프로그램이었으나, 3순위가 취미생활 프로그램으로 나타나 경로당 이용자에 비해 취미생활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을 알 수 있음. 전반적으로 경로당 개선방안에서 공동작업장이나 소득연계사업에 대한 확대를 비롯한 질 좋은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음. 기존 경로당이 비교적 소극적 형태의 여가활동으로 운영된다는 측면에서 건강 및 연령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경로당마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음. 또한 이동이나 정보의 접근에 제약이 있는 경로당 이용자들을 고려하여 보건소 등 주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찾아가는’ 형태의 복지서비스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 경로당 이용자들은 공간의 협소함에 대한 애로사항과 쾌적한 환경시설에 대한 개선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경로당 미이용자들의 경우 불청결한 환경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나타남. 경로당 이용자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경로당에서 보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의 청결도는 노인들의 건강과도 직결되므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함. 아파트와 마을 경로당, 구립(군립) 경로당의 유형과 상관없이 경로당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나 현장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며, 시설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미비한 부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또한 고령노인 인구가 밀집한 지역의 경우 경로당 공간의 부족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인구수를 고려한 경로당의 확충 계획 추진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그 밖의 경로당 이용 관련 개선사항으로는 비용의 부족이나 회계 운영상 제약이 있었으며, 일부 의견에서 운영비, 전기 및 가스 요금, 청소 등 관리인력의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함



V. 국내외 고령사회 대응 관련 정책현황 검토

1. 커뮤니티 케어의 현주소
2. 국내외 고령사회 대응 관련 사례 분석
3. 소결

V. 국내외 고령사회 대응 관련 정책현황 검토

1. 커뮤니티 케어의 현주소

1)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이해

- 2018년 정부정책에서 새로운 화두로 등장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에 대한 논의가 2019년에도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추진체계가 마련되었고, 전문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와 포럼, 간담회 등이 개최됨. 또한 선도사업을 기획해 지자체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음
-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돌봄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을 전제로 양방향으로 주고받는 서비스 이외에 그러한 서비스가 교환되는 ‘지역’에 중요한 방점을 둠
 - 즉,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의 생애주기 단계별 삶이 전개되고, 필요한 서비스가 연결되는 통합적, 원스톱, 연계 등의 개념이 포함되는 구조를 기반으로 함. 때문에 연계된 서비스는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에게 전달되고, 개인은 그러한 서비스를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손쉽게 이용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다룸
- 서구의 커뮤니티 케어는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가 논의되기 훨씬 이전부터 영국, 호주, 북유럽 국가, 미국 등에서 경험적으로 발달해옴. 동일한 커뮤니티 케어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통합 케어(Integrated care)’의 개념으로 살던 곳에서 늙어가기(AIP: Aging in Place)의 개념으로 ‘Place’는 바로 삶을 영위하는 지역을 가리킴.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려면, 다양한 서비스가 연결되고 통합된 모습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담고 있음(니키류, 정형선 역, 2018)
 - 영국은 ‘커뮤니티 케어’는 ‘커뮤니티에서의 케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내지는 재가 케어(home care)를 강조하는 정책임. 1950년대부터 시작된 정책으로 정신 및 신체 장애인 주 대상자로서 적용되는 개념이었음. 이들을 시설에 수용하지 말고 가정에서

돌봐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병원과 시설에서의 수용은 증가했고, 1960년대와 70년대에 시설 케어는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됨. 하지만 비판에 대한 수용이 정부의 정책으로 구체화된 것은 1983년 「커뮤니티 케어 실현하기(Making a Reality of Community Care)」라는 보고서를 발간해 재가 케어의 이점을 강조하면서부터 비롯됨. 그 뒤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한 녹색 및 백서(Green and White papers)들이 이어졌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 지금까지 ‘커뮤니티 케어’는 목표로서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을 뿐, ‘실현’된 현실이 아니었으며, 영국 내에서도 요원한 과제로 정체됨

- 호주는 연방정부가 보조하는 ‘커뮤니티 케어’는 65세 이상 대상의 ‘가정 및 지역 서비스(HACC : Home and Community Care)’, 75세 이상 대상의 ‘지역 노인 서비스 패키지(CACP : Community Aged Care Packages)’, ‘확장 노인 재가서비스 패키지(EACH : Extended Aged Care at Home Packages)’, ‘확장 치매노인 재가서비스 패키지(EACH D : Extended Aged Care at Home Packages Dementia)’ 로 총 4가지임. 이와 같은 서비스는 노인복지평가팀(ACAT : Aged Care Assessment Team)의 평가절차가 필요함. 병원이나 지역사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보건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서비스 신청인의 상황을 확인하고 서비스의 필요도를 평가해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함
- 앞서 살펴본, 서구의 상황은 우리나라와 많이 달라 기초 배경의 이해를 위한 참고가 되는 정도이고, 우리나라와 현실적으로 가장 밀접한 유사성을 보이는 일본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음
 - 일본의 지역포괄케어는 보건·의료계와 복지계로 나뉨. 보건·의료계는 병원을 중심으로 직접 방문을 통한 재택케어를 제공하고, 복지계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NPO 등이 주체가 되어 재택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지역 케어 네트워크를 구성함
 - 지역포괄 케어는 고령자의 인구 급증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 지역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점과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당 병상 수와 노인시설 정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주된 대상을 도시 지역으로 설정함
- 서구에 이어,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인구구조의 변화로 나타나는 고령인구의 증가는 요원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대응해 나가야 할 명확한 목적으로 인간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하고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 따라서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내의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정의를 보건복지부(2018. 1. 18)는 ‘케어(Community Care)’란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 홈 등 지역사회(communiti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로 정의함

2)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추진 현황

- 보건복지부는 정무업무보고(2018. 1. 18)에서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제시해 정부 복지정책의 중요한 키워드로 대두됨
- 이와 같은 시점부터 추진된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진행과정을 2018년 일자별로 <표 V-1>과 같이 주요 내용을 정리함

<표 V-1>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추진 과정(2018년)

구분	일자	내용
상반기	18. 01. 18	■ 업무보고 :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커뮤니티 케어’ 제시
	18. 02. 23	■ 커뮤니티 케어 추진 로드맵 마련, 재가 및 지역사회중심 선도사업 실시 계획 수립을 위해 복지부 내 8개 팀과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 구성
	18. 03. 12	■ 커뮤니티 케어 추진 본부 제1차 회의 개최
	18. 05. 04	■ 커뮤니티 케어 추진 본부 제2차 회의 개최
	18. 05. 09	■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관련 브리핑(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체계인 커뮤니티 케어 중점 추진 강조)
	18. 05. 17	■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 구성
	18. 05. 18	■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18. 06. 07	■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향 발표
	18. 06. 26	■ 보건복지부, 관련 기관 공동협업 :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발족
하반기	18. 07. 02	■ 커뮤니티 케어 추진 본부 제3차 회의 개최
	18. 07. 23	■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 발표
	18. 08. 06	■ 커뮤니티 케어 추진 본부 제4차 회의 개최
	18. 08. 07	■ 제1차 현장전문가 중심 커뮤니티 케어 정책포럼 개최
	18. 09. 06	■ 사회정책 분야 최초의 포용국가 전략회의 개최 : 3대 비전 9대 전략발표, 고령사회를 대비한 정책 패러다임 변화 표명
	18. 09. 07	■ 제2차 현장전문가 중심 커뮤니티 케어 정책포럼 개최
	18. 09. 11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업무협약 체결 :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 및 돌봄·의료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 조성
	18. 09. 12	■ 부처 합동(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구축을 통한 돌봄 인프라와

구분	일자	내용
		장애건강관리 체계 강화 표명
	18. 09. 28	■ 커뮤니티 케어 정책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8. 10. 05	■ 커뮤니티 케어 국제심포지엄 개최: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기반 독거노인 커뮤니티 케어
	18. 10. 12	■ 지역복지 발전 정책포럼 제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협업 과제 도출
	18. 10. 31	■ 제3차 현장전문가 중심 커뮤니티 케어 정책포럼 개최
	18. 11. 20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1단계 ‘노인 커뮤니티 케어’ 발표
	18. 12. 07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
	18. 12. 25	■ 복지부는 ICT 기술 기반 스마트 돌봄 서비스 개발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연구개발(R&D) 공고

자료: 정책브리핑 홈페이지(www.korea.kr)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 2018년 1월부터 6월 상반기 동안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 추진을 위해 조직구성과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여 추진방향에 대한 설정과 의료분야 공동협업을 기획함. 각 일자별로 세부적인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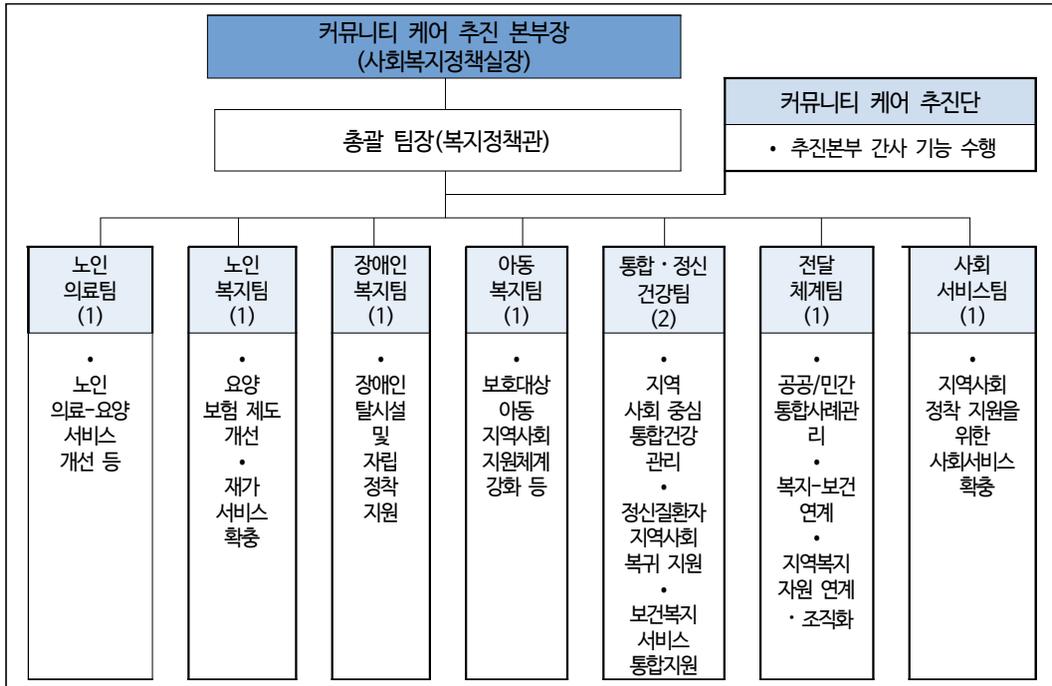
[2018. 1. 18]

- 보건복지부는 정무업무보고에서 제도 및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2018년 7월까지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 발표 및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 계획을 언급함
- 또한 노인 돌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의료·요양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 3가지 사항을 제시함
 - ①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의료서비스·시설거주 돌봄·재가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② 치료가 필요한 노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수가 개편
 - ③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경우 우선적으로 재가급여를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통합재가급여(방문요양 + 간호 + 목욕) 제도화, 전문요양실 시범도입, 장기요양시설 지정 갱신제 법제화 등으로 시설돌봄 수준 향상 도모

[2018. 2. 23]

- 커뮤니티 케어 추진 로드맵 마련, 재가 및 지역사회중심 선도사업 실시 계획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내 8개 팀(노인의료팀, 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 아동복지팀, 통합팀, 정신건강팀, 전달체계팀, 사회서비스팀)과 전담조직인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 구성

[그림 V-1]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추진 본부 구성



자료 : 보건복지부(2018.3.12.) 보도자료 p.5 인용.

[2018. 3. 12]

- 커뮤니티 케어 추진 본부 제1차 회의 개최를 통해 논의된 주요 내용
 - : 시설 중심의 서비스만으로는 수요자의 삶의 질 저하와 함께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
 - :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가서비스 확충과 전달 체계 개편, 중간 시설 등을 마련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등이 기존 거주지에서 살아가며 개인의 욕구에 맞는 각종 사회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

[2018. 5. 4]

- 커뮤니티 케어 추진 본부 제2차 회의 개최를 통해 논의된 주요 내용
 - : 지역사회 노인돌봄·의료체계 개선 방안, 사회적 입원자 지역사회 복귀 방안에 대한 심층 토론 및 일본 커뮤니티 케어 현지조사 결과 공유
 - : 커뮤니티 케어 주요 대상자 그룹 검토(사회적 입원 환자, 돌봄서비스 수급자 중 기존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자, 재가서비스를 원하지만 조건 미달로 시설(병원) 입원·입소를 생각하고 있는 자)
 - : 일본 현지조사 사례
 -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이 재택 또는 유사 시설에 거주하면서 교통, 일자리 등 다양한 생활지원과 보건과 복지가 연계된 통합 케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2013년부터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도입
 - 재가복귀 지원 강화를 위해 퇴원지원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퇴원준비 회의를 주최하는 병원의 '퇴원지원실' 설치·운영 중, 병원과 재가서비스 간 중간시설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 재가복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폭 확대
 - : 국내의 경우, 노인돌봄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인프라는 있으나 재가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고 재가와 의료서비스를 연계할 중간시설의 부재로 사회적 입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와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간 복지자원 간 연계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입원환자의 퇴원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돌봄 연계 방안 마련 필요
 - : 통합재가 급여 도입과 사회서비스 R&D를 통한 신규서비스 개발 등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며 유관부처, 지자체 및 민간 협력으로 노인을 위한 공동거주주택사업모델 개발 추진 제안

[2018. 5. 9]

- 보건복지부는 주요 정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함
- 2019년부터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에 반영된 주요 정책들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선도사업 모델개발 연구 진행

[2018. 5. 17]

-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를 구성
 - :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위원회 산하 주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 위한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 중인데 기존 4개(기획, 제도조정, 평가전문, 재정·통계) 전문위원회에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가 추가됨
- :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는 총 15명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전달체계 등 커뮤니티 케어 관련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부처 과장 3명이 포함됨
 - : 보건 및 사회복지 현장 중심의 광범위한 조언을 구하기 위한 자문단도 별도로 구성하여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가 상정한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더불어 범부처 협력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식 창구 역할을 하게 됨

[2018. 5. 18]

-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검토 방향 및 일정 등을 논의

[2018. 6. 6]

-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향 발표
 - : 비전 > 지역사회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
 - : 핵심 추진과제 및 과제별 내용 5가지

〈표 V-2〉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향 : 추진과제와 과제별 내용

추진과제	과제별 내용
1. 돌봄, 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장기요양 수급자 확대 • 2019년 통합재가급여 도입 • 이동·외출지원, 주거환경 개선 관련 신규서비스 개발 • 등급외자 대상 사회서비스 단계적 확충 • 안부 확인 관련 서비스 활용
2.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강화 • 말기환자 대상 가정형 호스피스 확대 •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 • 보건소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3.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통한 퇴원계획 수립 • 퇴원 후 지역사회 돌봄 연계 강화 • 2018년 퇴원환자의 사회복지 지원에 위한 중간집 시범사업 마련, 2019년 이후 부터 추진 • 공공실버주택 및 노인 공동거주 모델 등 주거·서비스 연계
4. 병원, 시설의 합리적 이용률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환자, 감염예방, 환자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수가 개선 • 환자분류체계 개선을 통해 경증환자에 대한 수가 조정 • 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지역사회 복지·자립지원 노력 평가 반영
5. 지역사회 커뮤니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우수 자체 사업 발굴 및 홍보·확산 지원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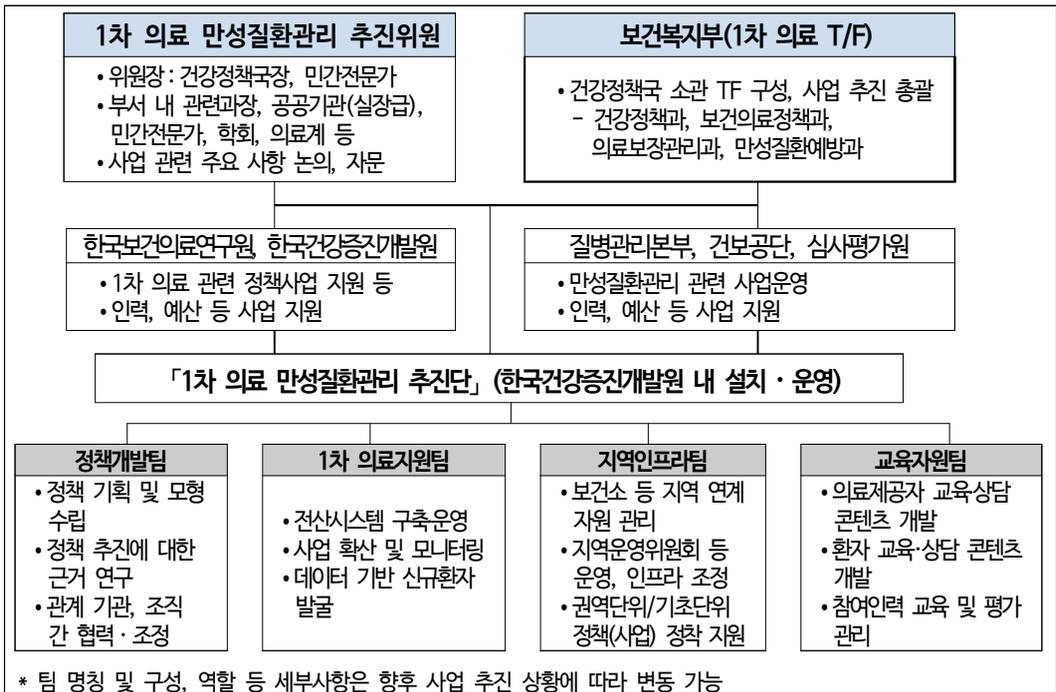
추진과제	과제별 내용
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에 '돌봄통합창구' 설치, 돌봄서비스 종합 안내 등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담당인력 배치 •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기능·연계 강화

[2018. 6. 26]

-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발족

-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동 협업 구조 마련
- : 의료체계 개선 기반 조성(동네의원 중심의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추진, 지역 보건의료 자원 간 연계와 보건의료 연계)
- : 1차 의료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체계 혁신에 관한 민관 협력 방안 마련
- :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전문가,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운영 계획 발표
- : 추진단 발족 기념 개최 포럼 논의 내용(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통합 모형 발표 및 동네의원의 역할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등 논의)

[그림 V-2] 보건복지부의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추진 체계도



자료: 보건복지부(2018.6.25.) 보도자료 참조 p.6 인용.

- 2018년 6월부터 12월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협의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회의, 협약, 포럼 등의 구체적인 실행과정이 진행됨. 각 일자별로 세부적인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18. 7. 2]

- 커뮤니티 케어 추진 본부 제3차 회의 개최를 통해 논의된 주요 내용
 - :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관련 추진 과제 논의

[2018. 8. 6]

- 커뮤니티 케어 추진 본부 제4차 회의 개최를 통해 논의된 주요 내용
 - :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및 아동보호 강화,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커뮤니티 케어 전달체계 개선 방안 논의
 - : 65세 이상 노인 대상의 집중적인 방문 건강관리 실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기반으로 예방과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모색
 - :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이 필요하지만 직접 내원하기 어려운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를 활성화하는 방안 모색
 - : 지역사회 관련 기관 참여를 통한 커뮤니티 케어 추진 지원, 심층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는 지역케어회의 실시, 케어통합창구 마련 등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 전달 체계 개선방안 논의

[2018. 8. 7]

- 제1차 현장전문가 중심 커뮤니티 케어 정책포럼 개최
 - :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의료 담당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담당자와 민간의 현장 전문가들, 일반 국민 참여
 - : 커뮤니티 케어 제도 정책을 위해 읍·면·동 케어 통합 창구를 기본 단위로 삼아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의 각 사업이 커뮤니티 케어 제도 시행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진행
 - 보건복지부 :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 보건의료콘텐츠를 갖추는 것에 주력
 - 행정안전부 : 커뮤니티 케어 실행을 위한 행정적 측면의 조직화, 인력 양성에 집중
 - 국토교통부 : ‘도시 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 9월 ‘커뮤니티 케어 정책 종합계획’ 발표 예정

[2018. 9. 6]

- 포용국가 전략회의(사회정책 분야 최초)

- : 3대 비전 중 '사회적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2번째 비전에 속하는 '전략 4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밝힘
- :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에서는 노인을 소비와 생산의 주체로 설정,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V-3>과 같음

<표 V-3> 고령사회 대비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기존 정책패러다임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①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점에서 공적연금, 건강보험비용 억제에 과도한 초점, 가계 지출 사적연금·사적의료비에 대한 무관심	① 사회적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공공재정과 가계부담까지 고려한 총비용의 합리화 모색, 특히 공적·사적의료비 총량과 노인 의료비 합리화가 중요
② 베이비부머 등 주력 소비층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공적연금의 내수 유지 기능 과소 평가	② 주력 소비 인구의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공적연금의 내수 유지 기능에 대한 인식 전환
③ 고령층을 보호의 대상으로 상정해 미래 노인세대인 4050세대의 인적 역량 축적의 중요성 미인식, 과거 인구 수명에 기초한 생애주기로 설계된 고용시스템으로 고령자 차별적인 고용제도와 관행 지속	③ 4050세대의 인적역량강화 정책 체계화, 고령자가 차별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고용시스템 구축(긴 생애주기 고용 시스템 설계, 정년연장 및 관련 지원, 임금체계개편 등)
④ 건강한 노후생활환경 조성 미흡 : 건강관리, 노인 친화적 주거, 활동적 노인 사회관계망 등	④ 건강한 노후는 고령화 비용 합리화의 주요 수단, 건강·주거·사회안전망을 노인 친화적으로 재편



자료: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 9. 6.)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p.32 내용 재구성.

[2018. 9. 7]

- 제2차 현장전문가 중심 커뮤니티 케어 정책포럼 개최

- :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사회복지관을 지역복지 거점시설로 육성하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을 확대 개편해 종합복지센터로서의 위상 부여
-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복지팀, 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방문간호사 등이 참여한 실질적인 민·관 협력네트워크 운영 필요
- : 민간복지 부문의 구조개혁 및 발전방향 제시 등은 미흡한 실정이며 민간 사회서비스 시설 간 서비스 조정을 통한 통합화와 전문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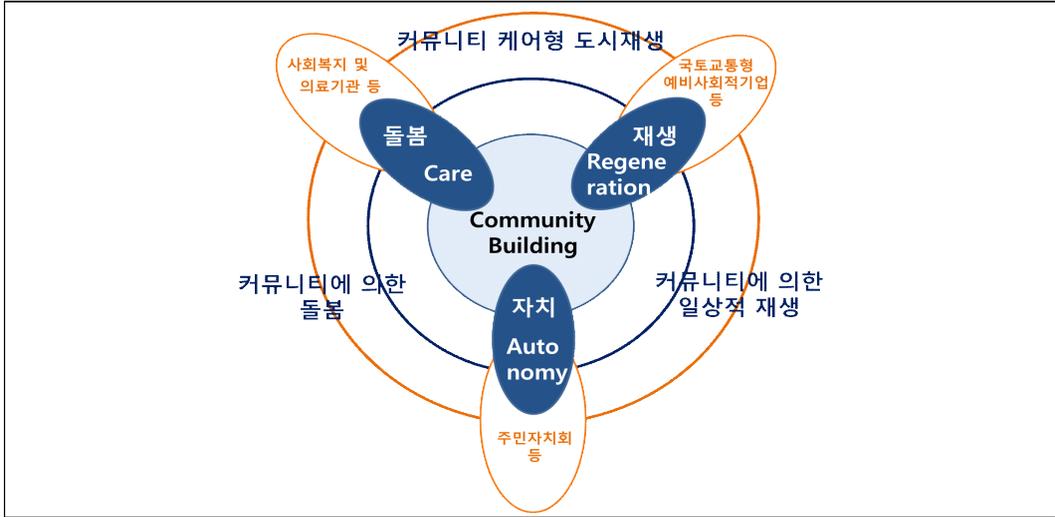
: 자원봉사조직을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공식화하여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일자리 창출

: 보건·복지 융합형 인력 양성 없는 커뮤니티 케어는 현실성 없음

[2018. 9. 11]

- 업무협약 체결(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국토교통부가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2곳 내외 선정, 10월부터 추진 예정)
 - 보건복지부 : 지역주민의 케어수요 발굴 및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 행정안전부 :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국토교통부 : 공간 조성 계획
 - 기타 : 각 소관 분야의 민간부분 간 협력 강화 계획 수립
- 각 부처 간 공모사업 연계, 10월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전략 내용을 토대로 2019년 1월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선정 계획 예정
 - :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형 커뮤니티 케어’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계획’을 심사 과정에 반영
- 국토교통부는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할 때 ‘커뮤니티 케어 특화 도시재생’을 부처협업 지역특화 도시재생 프로그램 유형으로 신설하여 선정할 계획임
- 행정안전부는 부처별 지원조직 간 연계·협력 및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돌봄·재생의 통합 플랫폼 구축의 일환으로 읍·면·동의 관련 기능 강화 및 주민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 국토교통부와 함께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동체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 강화
-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방문간호 등 보건복지 케어서비스와 주거지원 통합 제공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의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공동 협력

[그림 V-3]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추진 본부 구성



자료 : 관계부처합동(2018.9.11.) 지역사회 회복 위해 행정안부·국토부·복지부 손을 맞잡다 보도자료 p.4 인용.

[2018. 9. 28]

- 커뮤니티 케어 정책간담회(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커뮤니티 케어 현장에 대한 인식, 추진방식, 정책 효과성 등 논의

[2018. 10. 5]

- 커뮤니티 케어 국제심포지엄 개최
: 보건복지부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공동
- : 한국형 ICT 기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바라는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빅데이터를 통한 회원 맞춤형 서비스와 고령자가 활동적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기술혁신적 복지서비스 확산이 언급됨
- : 21세기 고령화 사회 기술 활용 동향과 관련하여 노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고, 제대로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노숙자로 전락하는 고령자를 막을 수 있다며 고령자의 고독이나 경제적인 불안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제시

[2018. 10. 12]

- 지역복지 발전 정책포럼 제1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협업과제 도출 3가지

- ① 지역중심 노인, 장애인 돌봄·보호체계 강화 방안
- ② 지역기반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 방안
- ③ 지역기반 보건의료복지 통합전달체계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달체계 개편방안

[2018. 10. 31]

- 제3차 현장전문가 중심 커뮤니티 케어 정책포럼 개최
 - : 2019년부터 실시될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세부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
 - : 선도사업 추진계획 설명(12개 시·군·구에서 노인(4곳), 장애인(4곳), 정신질환자(2곳), 노숙인(2곳) 사업 모델 제시). 각 지자체는 1개의 모델 사업을 선택·공모하여 선정된 후 운영. 노인 대상은 병원에서 퇴원 후 신체여건에 적합한 주거를 제공받거나 재가돌봄·방문의료 등을 통해 살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받음

[2018. 11.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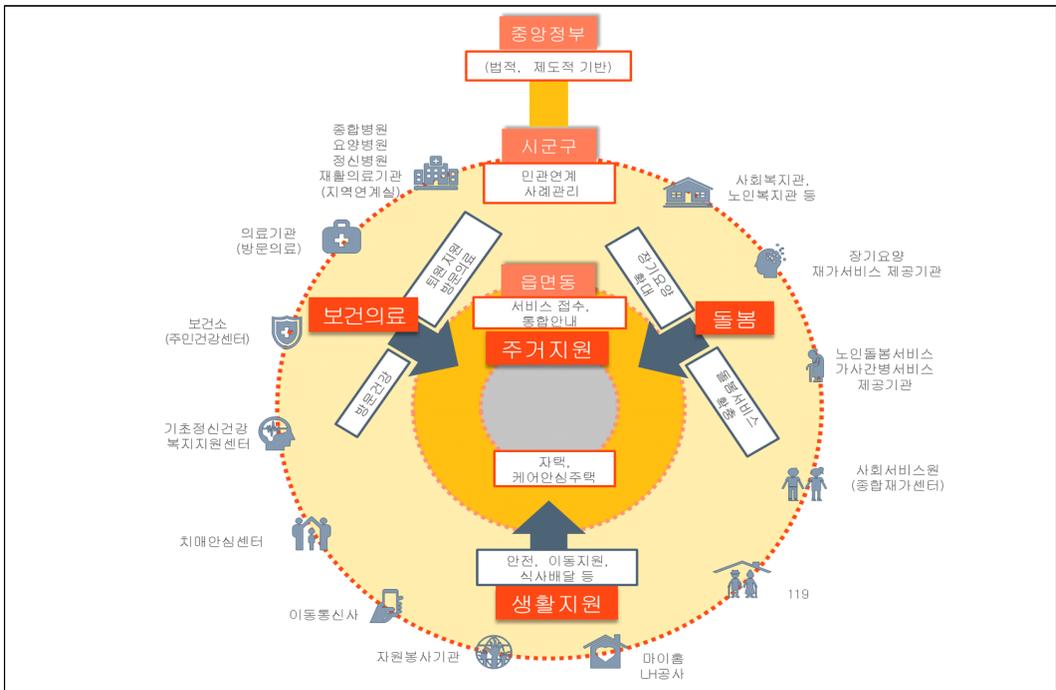
-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1단계 노인 커뮤니티 케어 및 향후 추진 로드맵 발표
 - : 4대 핵심요소와 내용

〈표 V-4〉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1단계 추진 로드맵 : 노인 커뮤니티 케어

핵심요소	내용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관리 및 각종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 대폭 확충 • 독립생활 지원 및 낙상 예방을 위한 집수리 사업 실시 •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의 협력을 통한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제시
방문의료 및 방문건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의료 및 방문건강관리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로 방문건강서비스 대폭 확충 • 건강생활지원센터 단계적 확충, 방문의료 제공, 건강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대폭 확대, 노인 교실(대학) 내 사회 참여 및 노화적응 교육프로그램 제공 • 병원 내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운영하여 퇴원계획 수립과 돌봄 자원·서비스 연계 지원 제시
차세대 장기요양 및 재가 돌봄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장기요양 및 재가 돌봄서비스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로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축 • 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 이상의 종합재가센터 설치 • 선도사업을 통해 신규 재가서비스를 개발, 노인요양보험 또는 사회서비스 급여 지원 • 퇴원환자의 재가생활 지원을 위해 재가 의료급여 신설 등
사람 중심의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 중심의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을 실현시키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보건소 정보시스템 간 연계 고도화로 자원과 대상자 정보

핵심요소	내용
	<p>공유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뮤니티 케어 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 해소, 민·관 서비스 제공인력 대폭 확충,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다룸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운영, 민관 협력으로 지역케어회의 운영을 통한 우수모델 마련 및 제시 등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명시함 2018 ~ 2022년까지 선도사업 실시 및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종합재가센터 등 핵심 인프라 확충, 25년까지 커뮤니티 케어 제공기반 구축 목표 제시

[그림 V-4]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커뮤니티 케어 제공 개요



자료: 관계부처합동(2018.11.20.),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 p.28 인용.

[2018. 12. 7]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

: 비전 >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

: 슬로건 > 함께 만들어가는 노후

: 세부추진 영역 및 역량집중 과제 <표 V-5>과 같음

<표 V-5>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역량 집중과제

세부추진 영역	역량집중 과제
<p>[소득]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역할 강화 및 사적연금 실효성 제고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
<p>[노후준비]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생3모작 기반 구축을 통한 신중년 일자리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모작)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진적 은퇴 지원, 연금수급 연령에 맞춘 퇴직 시기, 연령차별금지제도 운영 • (2모작) 전 근로자 대상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 및 재취업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 지원, 신중년 적합 직무에 신중년 채용 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 지원, 신중년 특화훈련 확대를 통해 신중년의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 • (3모작) 퇴직자에 대한 일자리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중년 경력을 활용한 지역 필요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역할 강화 및 소득 보전에 기여, 퇴직자가 노후우를 전수할 수 있는 사회공헌 지원 확대, 귀촌지원 강화 및 산림분야 공공일자리 창출 ■ 할기찬 노후를 준비하는 '신중년 새출발 지원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교육-일자리 지원-커뮤니티 지원-관계기관 연계-사후관리를 종합하는 신중년 새출발 서비스 제공 모델 마련 • 노후준비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범위를 기존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하여 지역 사회 밀착형 노후준비 전달 체계 구축
<p>[참여]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일자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형 및 재능 나눔 등 사회적 수요가 있는 분야 혹은 자발적인 사회참여 저변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 민간분야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우수 제품 판로 확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자립 도모 ■ 지자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확대 및 상담·취업·사후관리 등 통합서비스 제공 등 인프라 확충 • 노인일자리 참여기관 다변화를 통해 수익성 있는 신규 사업영역 발굴
<p>[건강]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건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보장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 건강노화를 위한 예방적 관리 강화 :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 고령자 대상 맞춤형 체육 및 건강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충 및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확대 ■ 돌봄요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 케어 추진으로 시군구 단위 '종합재가센터' 등의 재가 기반 서비스 강화 • 노인돌봄 관련 유사분절적 서비스 통합으로 돌봄의 예방적 기능 강화 •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민·관이 참여하는 시군구 단위 '지역케어회'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영역별 서비스와 민관 복지자원을 대상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연계 ■ 주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물리적 여건 조성

세부추진 영역	역량집중 과제
[삶의 마무리]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 전문기관인력양성 등 •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확대, 제도운영 기반 마련 • 생애 말기 설계지원 제도화 방안 검토 ■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 빈곤층 밀집 지역 중심으로 민간 협력 노인자살예방사업 집중 추진 •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 명 양성, 노인대상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 • 독거노인의 고독사, 자살위험 및 우울증 예방경감을 위한 지역사회 관계형성 지원 •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례관리 강화, 자살유가족 지원 체계 강화로 자살확산 예방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12.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p.31~39 재구성.

[2018. 12. 25]

- ICT기술 기반 스마트 돌봄 서비스 개발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연구개발(R&D) 공고

: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ICT 서비스를 융합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4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R&D) 실시 발표

○ 2018년에 이어, 2019년 상반기 4월까지 진행된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실행 사항을 정리하면 <표 V-6>과 같음

<표 V-6>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추진 과정(2019)

	일자	내용
상반기 (4. 30)	19. 01. 10	■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안) 구성(2018. 12), 지자체에 관련 사항 안내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 발표
	19. 02. 12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2019~2023) 중장년과 노인 대상의 주요 정책과제 제시
	19. 02. 19	■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안 발표 노후와 관련하여 2가지 정책목표 주요 과제 제시
	19. 03. 11	■ 보건복지부: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 활기차고 존중받는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지역사회 중심의 선진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 발표
	19. 03. 12	■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29개 지자체 신청, 심사(4월 내)
	19. 04. 04	■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지자체 8곳 최종 선정·발표
	19. 04. 18	■ 8개 선도사업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합동간담회 개최

자료: 정책브리핑 홈페이지(www.korea.kr)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2019. 1. 10]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 발표
 - : 2019년 6월부터 2년 간 8개 지자체에서 실행될 선도사업 선정을 위해 지역의 참여의지, 사업계획의 충실도, 지역 내 민관 자원 연계·협력 체계 수준 등을 평가할 예정임
 - : 선도사업의 3가지 추진방향
 - ① 지역의 자율성·창의성·다양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 설정
 - ② 지역 주민과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 운영
 - ③ 복지부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의 관련 사업을 함께 실시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핵심 요소들의 통합 구현
 -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서 필요한 서비스 조화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며,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공통 제공기반(읍·면·동 케어안내 창구, 시·군·구 지역 케어 회의 등)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함을 명시함
-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V-7>과 같음

<표 V-7>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내용

구분	내용
대상	■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
목적	■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모델 마련
지자체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의 욕구 조사를 통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 서비스 연계·통합 제공 : 퇴원지원, 집수리, 케어안심주택, 재가의료급여, 가사간병서비스, 식사배달서비스, 스마트홈 서비스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 기반의 집중형 지역사회 건강관리 모델 개발, 실증 사업도 실시

자료: 보건복지부(2019.1.10).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지역이 만들어간다 보도자료 p.5~6 재구성.

[2019. 2. 12]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발표
 - : 사회적 변화 및 국민들의 욕구를 기반으로 제시한 생애주기별·대상별 주요 정책과제 중 중장년과 노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표 V-8>과 같음

〈표 V-8〉 국민이 바라는 향후 5년간 중점추진 정책

영역	중장년	노인
고용·교육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충	
	폴리텍 특화과정 지원 신중년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내일배움카드 확대 연간근로시간 단축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노인일자리 확충
소득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 강화	
	고용, 산재보험 적용대상 및 보장성 확대 근로장려 세제 지원 확대	기초연금 인상
건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확충, 만성질환 관리사업 확대	
		방문건강관리 확대
서비스	공공임대주택 확대 사회서비스 인력 양성	지역사회통합 돌봄 치매국가책임제 확산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국공립 요양시설 확충 케어안심주택 보급

자료: 보건복지부(2019.2.12.),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p.35 재구성.

[2019. 2. 19]

-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안을 발표함
 - : 정책 목표 ① 인생2막 지원, ② 안정적인 노후 지원
 - : 정책목표에 따른 주요 과제 제시

〈표 V-9〉 중장년 및 노인 대상 주요 정책과제

정책 목표	1. 인생 2막 지원	2. 안정적인 노후 지원
주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중년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확대 •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 확대 및 급여수준 향상 • 노인 문화·체육 활동 활성화 •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전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커뮤니티 케어)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9.2.19.),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안)」 p.14~15 재구성.

[2019. 3. 11]

－ 보건복지부 2019년 업무계획 발표

- ： 노후생활과 관련하여 ‘활기차고 존중받는 노후생활 지원’을 목표로 공적연금 내실화,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질 제고,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 및 노인 돌봄 서비스·인프라 확충에 주력
- ： 지역사회중심 보건복지정책 혁신으로 커뮤니티 케어 모델 마련,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IC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선진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

[2019. 3. 12]

－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전국 29개 지자체 신청

- ： 신청 결과(노인 분야 22개, 장애인 분야 5개, 정신질환자 분야 2개)
- ： 서류 및 발표 심사 → 최종 8곳(노인 5개, 장애인 2개, 정신질환자 1개) 선정 공지
- ： 선도사업 최종선정 13개 지자체 현황은 <표 V-10>과 같음

<표 V-10> 2019년 선도사업 신청 지자체 현황

시도	총계 (개)	사업구분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총계	29	22	5	2
부산	2	북구, 부산진구	-	-
대구	1	-	남구	-
광주	1	서구	-	-
울산	1	울주군	-	-
경기	6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	화성시
강원	2	태백시	춘천시	-
충북	1	진천군	-	-
충남	4	천안시, 당진시, 청양군	-	서산시
전북	1	전주시	-	-
전남	1	순천시	-	-
경북	4	청송군, 성주군 영덕군	포항시	-
경남	3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
제주	2	서귀포시	제주시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9.2.19.).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안)」 p.14~15 재구성.

[2019. 4. 4]

- 보건복지부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까지 2년 간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실시할 지자체 8곳 발표

: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주민의 욕구 확인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제공, 다양한 민·관 협력 전달체계 모델 마련, 향후 전국 확산이 가능한 우수 사례 발굴, 자원 조달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방안 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임

: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5월부터 지역케어회의 운영방안 등의 교육 제공,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통한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 지원

: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선도 사업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선도사업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진행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밝힘

- 노인분야에서 선정된 지자체 5곳의 전달체계 모델과 주요 사업을 정리하면 <표 V-11>과 같음

<표 V-11> 노인분야에서 선정된 지자체 5곳의 전달체계 모델과 주요 사업

지역	전달체계 모델	주요 사업
광주 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본청에 커뮤니티 케어 전담조직(돌봄정책과, 통합케어과) 설치 및 18개동에 케어안내창구 신설 • 18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대 권역 중심 종합병원이 전담 관리(권역당 노인 7천여 명) • 3단계 케어회의로 촘촘한 사례관리(동별 [매일], 권역별 [주1회], 구 단위 [월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9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동 단위에서 다직종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건강·복약 관리, 치료연계 등 ACT(퇴원 후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집중 프로그램) 사례관리사업 -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시간 단위로 적립하여 지역 화폐로 사용하는 노인 돌봄 타임뱅크(케어뱅크) 운영 -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사례관리 내용 등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기록관리공유
경기도 부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본청 복지정책과에 커뮤니티 케어 전담조직(지역통합돌봄정책팀, 융합서비스팀) 설치 • 10개 광역·동으로 행정체계 개편, 광역·동별 케어전담팀 설치 및 10개 종합사회복지관 1:1 매칭으로 민관 협력 사례관리 • 주민건강센터(100세 건강실) 14개소 및 사회 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38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함께 지역 약사회·한의사회 등과 협업하여 방문약료, 방문한의 서비스 제공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통해 지역주민을 '건강리더'로 양성(200명, 건강리더 1명당 노인 5명 담당)
충남 천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본청에 선도사업 총괄팀 신설, 30개 동사무소에 케어안내창구 전담인력 신규 배치 • 공공 거점종합재가센터 신설 • 천사(천안시 사례관리) 슈퍼비전단 운영 및 31개 기관, 대학 전문가 인력풀 구성으로 분야별 전문가 사례관리회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1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사회적 경제조직 간 협회(조합) 구성을 통한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 경로당별 한의사 주치의제 및 경로당 순회 복약 지도 시행 - 지역 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방문 진료, 퇴원계획 수립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본청에 전담조직(총괄팀, 융합서비스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38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지역	전달체계 모델	주요 사업
전주시	지역자원발굴팀) 설치, 19개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케어안내창구 설치 • 시 본청 ‘지역자원발굴팀’은 분절적으로 운영 되던 보건·복지 자원관리 전담, 사례관리를 위해 3단계 지역케어회의 운영	- 보호자 일시부재 등으로 단기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자활공동체 등을 활용한 재가 돌봄서비스 제공 - 거동 불편 어르신 병원 외래 방문 시 보호자 동행 및 이동비 지원 - 노인이 요리가 가능하면 반찬재료 제공, 어렵다면 원하는 요리 지원
경남 김해시	• 시 본청에 커뮤니티 케어 총괄팀 설치, 19개 읍면동 케어안내창구에 전담인력 순증 배치 • 모든 읍면동 및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케어 전담(운영)팀 신설 • 사례관리 거점기관인 ‘희망e음’ 센터(48개 민간 참여) 및 종합재가센터를 통한 보건 복지서비스 통합·연계 제공	• 총 30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노인에게 24시간 콜택시 지원 - 노인 주거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의 최소기준 마련 및 준수여부 점검

자료: 보건복지부(2019. 4. 4), 「지역사회 통합돌봄」, 8개 지자체에서 첫 걸음 보도자료 내용 재구성.

[2019. 4. 18]

- 최종 선정된 8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자체에 속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간 협업체계 구축 및 선도사업 추진방향 공유를 위한 합동간담회 개최
- 해당 합동간담회에서 제시된 지원계획은 다음과 같음
 - 보건복지부 관련부서-국민건강보험공단-선도사업 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운영
 - 보건의료, 주거, 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8개 지자체의 선도사업 수행을 다각도로 지원
 - 8개 선도사업 지자체의 지역을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선도사업 지원반을 설치하여 지자체들이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2)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력

- 인천시는 2015년 4월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2017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2018~2022년)' 수립의 과정을 거쳐 2019년 본 연구에 이르러, 고령화 분야 중장기 계획 수립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의 추진 계획이 수립됨

- 또한, 2017년 12월에는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연구와 사업이 추진되는 전문기관으로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를 출범시킴
 - 고령사회 전반에 대한 전문적 연구 수행과 예비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일자리 지원 사업, 그리고 돌봄종사자의 직무향상 및 권익증진, 바른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경우 인천시의 추진 사항은 미비하지만, 선도사업을 진행하는 타시도 지자체의 경험을 검토해 커뮤니티 케어가 인천시 정책과 제로 반영되어 제안 될 수 있도록 고려함
- 따라서 인천시의 경우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현황보다 근본적인 배경을 이루는 고령 사회 대응과 관련한 사례를 정리해 어떠한 성과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함

[일자리 지원 분야]

- 주관 : 고용노동부
- 성과 :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수상(2017 ~ 2018년 연속 2관왕)

2018년 8월,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일자리 생태계 조성 and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 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 체결 노인일자리사업 우수지자체로 2012년부터 인천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교육 운영 중(전국 최대 규모의 노인일자리 교육 사업임)

[돌봄 분야]

- ①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2018 ~ 2019년 선정)

‘100세 시대, 고령화 대응 특화의료기술 육성을 통한 Incheon Medical Health Care 실현’

 - 주관 : 보건복지부
 - 성과 : 지역 의료 수준 강화
- ② 2018년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민·관 협력체계 활성화 워크숍(2018. 11월)
 - 주관 : 보건복지부
 - 성과 : 인천시 지자체 특화사업 ‘노인요양시설 인권모니터링¹⁰⁾’ 사업으로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전국 최우수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10) 노인요양시설 인권모니터링 사업이란 노인복지법 제51조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보호를 위해 노인복지명예지도원으로 임명된 모니터링 요원이 2인 1조로 노인복지시설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인권보호현황 및 인권침해, 노인 학대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입소자 및 종사자 설문, 시설 점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③ 2019 공공보건의료포럼 개최(2019. 4월)

‘공공의료, 사람-지역-미래를 잇는 인천형 공공보건의료와 커뮤니티 케어 구축을 위한 우리의 역할은?’

- 주관 : 인천광역시 · 인천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성과 :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주요 과제인 공공보건의료 발전종합대책과 커뮤니티케어를 인천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논의

④ 인천시 건강수명 연장 건강증진 관리 구축 총력(2019. 4월)

- 주관 : 인천광역시

- 내용 : 인천시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생활밀착형 시민체감 건강증진사업 강화

- 금연, 신체활동 등 건강생활실천 지원
- 자살예방 및 취약계층 마음건강관리
- 인천형 치매서비스망 구축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아동부터 노인까지 평생 구강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시민건강수준 향상과 건강격차 해소

[군구 사례]

- 연수구

: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운영 및 지역 내 유관기관 공동방문팀 연계협력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상담 활성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민·관 협력사업 추진, 자원발굴을 통한 지역단위 보호망 구축

: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선도 자치단체 공모’에서 우수자치체로 선정(2018년 9월)

- 서구

: 보건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로 구민들의 건강관리 서비스의 거리적 접근성 향상, 건강계단과 걷기 애플리케이션 ‘워크온(걷기 앱)’ 등 주민참여형 건강증진 환경 조성, 2050세대의 생활패턴에 맞춘 모바일 헬스케어 프로그램 운영

: 제10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최우수기관 선정(2018. 5월)

: 석남동 한 평 공원 정비사업 사례를 발표하여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18년 도시재생 한마당’에서 주민참여 프로그램에서 우수상 수상(2018. 10월)

- 한 평 공원 정비 사업은 서구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상생마을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을 통해 진행된 사업

- 주민들이 마을에서 살면서 느낀 불편함을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제안사업 진행
- 분리수거 지역 조성, 벽화를 통한 우범지역 환경 개선, 신현동 마을 쉼터 조성, 마을 사진전 등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운영함

－ 계양구

: 통합사례관리·방문형서비스사업 협력체계 구축,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자원관리 업무 등으로 이루어진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분야에서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전달과 민관 협력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2018년 12월)

－ 미추홀구

: 보건복지부 주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반 마련' 분야에서 '내 손안에 스마트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우수기관 선정(2018. 12월)

- 미추홀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2018. 7월 ~ 2019. 1월 진행)
- 국가건강검진 결과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1개 이상 갖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활동량 총계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생활습관 개선과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
- 미추홀구는 예산을 확보한 뒤 전국 최초 자체 모바일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2천여 명이 넘는 주민을 대상으로 ICT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모바일 건강증진 사업을 시행하였고 사업 종료 후 참여 대상자들의 높은 건강 개선을 확인
- 사업의 효과성이 인정되어 미추홀구 보건소는 인천시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10개 군구 중 1위에 선정됨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반 마련'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모든 동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설치 완료, 사례관리 전담 직원 추가배치, 복지차량 보급,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 실시, 보건복지서비스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책 홍보, 복지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진행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음

: 2016년부터 빈집을 마을 재생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민·관 협력사업 추진

- 2017년 6월, 행정안전부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빈집은행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유휴 공공건물인 용현 1·4동 주민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이 마을 빈집을 관리·활용할 수 있는 거점공간인 빈집은행 조성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청년주거공간, 공동체 사무공간,

스마트 도시농장 등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고 있음. 특히 스마트 도시농장은 중년 및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으로 이어져 일자리창출에도 기여

-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사회혁신분야 대상 수상 (2018. 10월)

2. 국내외 고령사회 대응 관련 사례 분석

1) 국내 고령사회 대응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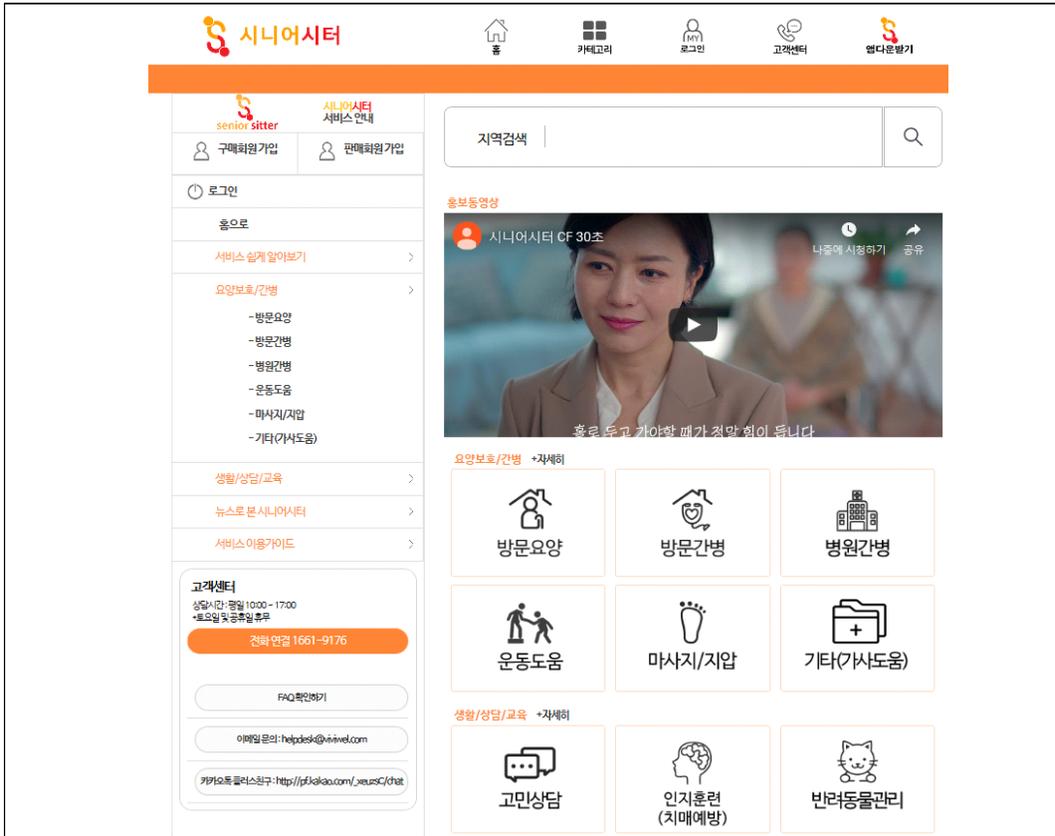
(1) 돌봄 분야

[서울시]

○ 서울시 도봉구 돌봄플랫폼 ‘시니어시터’와 MOU

- 시니어시터(www.seniorsitter.co.kr)는 영양보호사, 간병사, 노인심리상담사 등 자격소지자 개인 및 기관이 판매회원으로 가입한 뒤 자신의 용역서비스를 상품으로 등록해 수요자(구매회원)가 필요사항을 적시하면 판매회원이 입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중개 플랫폼임
- 구직이나 부업을 원하는 영양·간병·돌봄 관련 전문인에게 거주지 근처의 어르신(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에게 소개해주는 형식으로 운영됨
- 시니어시터에 가입한 돌봄서비스 공급자(판매회원) 중 주민등록이 도봉구로 되어있는 개인 혹은 사업자등록을 한 재가방문요양센터 기관을 대상으로 이용수수료 면제(금융수수료 제외), 도봉구 수요회원에게도 다양한 혜택 제공

[그림 V-5] 서울시 도봉구 돌봄플랫폼 시니어시터



자료 : 시니어시터 홈페이지(<http://seniorsitter.co.kr/main.php>)

[부산시]

○ 부산시 사상구 다복따복망

- 부산시 사상구는 주민 주도형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2017년 8월 ‘다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안전망’(다복따복망)을 구성함
- 다복따복망은 2018년 말 기준 공공기관망(14개), 골목망(373개 업소), 이웃망(739명), 틈새망(176명), 지원망(4개 기관)을 서로 연결하여 구성한 것으로 가스검침원, 골목 가게 대표, 두유 배달원, 종교시설 교우회, 숙박업소, 고시텔, 동 주민센터 등 지역 관공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있음
- 이에 더해 전화번호 051-313-9410(구사일생)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된 소통절차를 하나의 전화번호로 통일하여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임

[대전시]

○ 대전 유성구 돌봄플러스케어

- 대전 유성구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영역에 ICT 기술을 접목시켜 생활의 편리 및 안전을 확보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 ‘돌봄플러스케어’를 추진
- 유성구는 관내 벤처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저비용으로 거부감 없이 일상생활에서 ICT 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ICT 활용 경로당 건강지킴이 △스마트 안부케어 시스템 △(가칭)사이언스빌리지 실증화단지 시범마을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이중 건강지킴이 사업은 경로당과 실시간 화상정보를 공유해 ICT를 활용한 건강교육과 운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3월 노인 일자리를 활용한 스마트경로당 매니저를 교육·배치하고 이달부터 정보 및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함
- 또한 한밭대학교 Link+ 사업단과 지역 벤처기업인 엠에스엘과 협력하여 장비 착용을 통해 맥박과 체온 등 신체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가스·화재 사고와 고독사 등 어르신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 시 노인복지 업무 수행 인력을 통해 신속한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 안부케어’ 사업을 2019년 6월부터 실시할 계획임(보건복지부, 2018)

(2) 보건·의료분야

[서울시]

○ 서울시 301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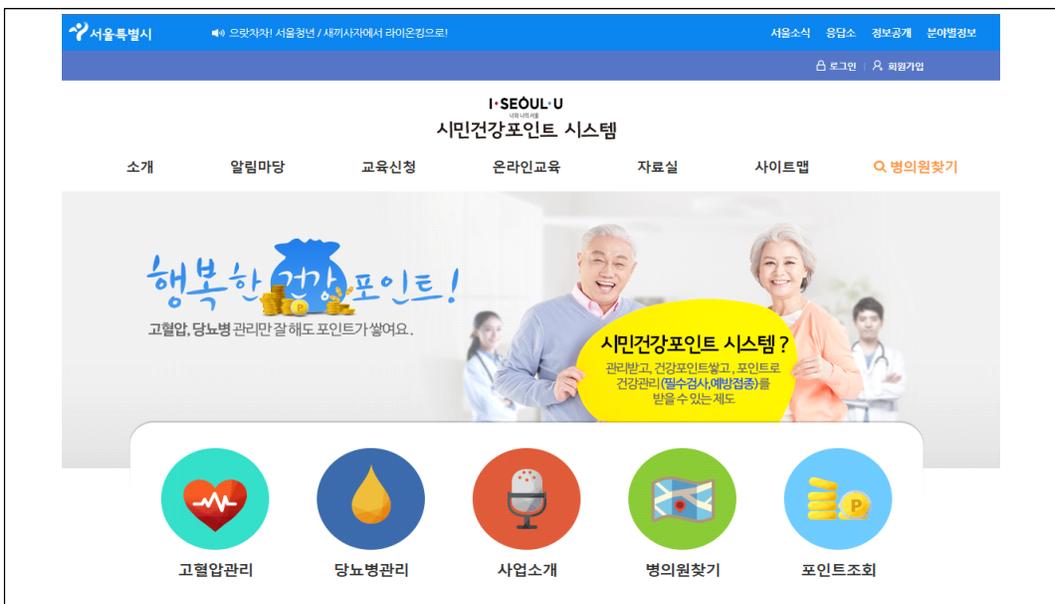
- 301 네트워크란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라는 세 가지 전달기관의 연계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복지 전달체계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로 추진기관은 총 9개의 시립병원임
- 지역사회 자원을 통해 발굴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환자에 대해 보건의료복지연계센터 내 ‘취약계층 의료지원 위원회’에서 사업대상 적합여부를 심의한 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복지서비스 설계, 서비스 설계 결과에 따라 동 주민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복귀 지원

○ 서울시 시민건강포인트 시스템

-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꾸준히 치료받거나 자가 관리 교육을 받으면 건강포인트가 생성되어 해당 포인트로 추가적인 건강관리(필수검사, 예방접종)를 받을 수 있음
- 시민들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민간의료기관과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등록 관리를 협력하여 함으로써 환자 스스로 질환을 관리하도록 함

- 각 참여 주체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표준 매뉴얼 및 웹기반 환자등록관리 및 운영 시스템 마련, 보건소는 참여 민간의원 선정·상설 교육장 마련·민간의원 건강포인트 비용 지급 및 연계, 참여 민간의원은 환자 등록관리 및 보건교육연계를 담당함
-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내용으로 첫째, 보건소와 민간의원 간 상호협력을 통해 고혈압 및 당뇨병 질환관리
- 둘째, 환자와 의원에게 건강포인트 지급 및 운영
- 셋째, 시민건강포인트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리콜 및 리마인더 서비스 제공
- 넷째, 고혈압 및 당뇨병환자의 자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자조모임 운영

[그림 V-6] 서울시 건강포인트 시스템



자료 : <https://spoint.seoul.go.kr/login/main.do>.

○ 서울의료원 시민건강 포털

- 시민건강 포털 사이트는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서울시 건강관련 사업들과 검증된 외부사이트에서 수집한 건강정보들 중 유의한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한 사이트임
- 해당 사이트를 통해 건강상담, 질병·의약정보, 서울시건강사업, 병원·진료기관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음

[그림 V-7] 서울시의료원 시민건강 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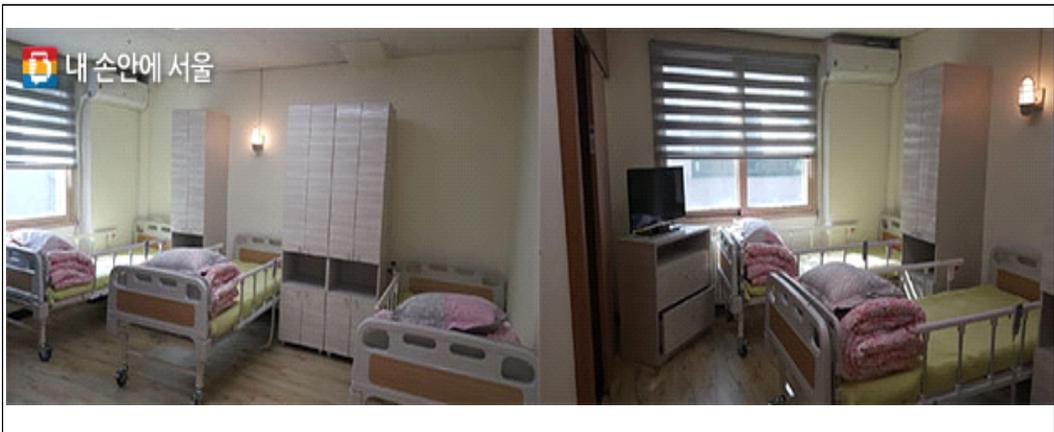
자료 : <https://health.seoulmc.or.kr/>

○ 서울시 든든케어

- 서울시는 병원 퇴원 직후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시적으로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 복귀를 돕는 단기돌봄터 '든든케어'를 2019년 3월부터 시행
- 시립양로원 내 6개실이 단기케어홈으로 지정되며 1개실 당 3명, 최대 18명이 입소하는 규모로 기본적으로 1인 당 2주일 간 거주할 수 있고 필요 시 2주를 더해 최대 4주간 머무를 수 있음

- 입소어르신에게는 주거·건강·정서 등 분야별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건강을 고려한 건강급식서비스, 낙상예방 및 위생건강관리 교육·훈련 등 일상생활 적응지원 서비스, 혈압체크 및 만성질환관리를 교육하는 의료진 방문보건서비스, 병원·약국 통원치료 동행서비스, 정서안정 및 문화여가 관련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과도 연계해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도 이어질 계획임
- 입소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 등급 외로 편성된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퇴소 후 돌아갈 주거지가 명확해야 함
- 입소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지 소재 구청의 어르신 복지 부서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신청한 뒤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그림 V-8] 서울시 든든케어 어르신 단기케어홈 내부



자료 :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09691>

○ 서울시 데이케어센터

-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제는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이용자(가족)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데이케어센터(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에 도입한 제도로 2015년 노인요양시설, 2016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확대 시행함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인증시설)가 되기 위해서는 ①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주·야간보호시설 중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서울시 소재 기관(정원 17인 미만 시설은 신규 신청 제외)이어야 하며 ② 최초 설립 후 3개월 이상 운영된 시설, ③ 최근 3개월간 월별 이용 인원이 정원의 70%를 충족한 시설, ④ 개인 명의 차입금이 없고 자치구에 구체적 상환 계획을 보고 완료한 시설이라는 총 네

가지 기본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는 야간 운영(운영시간 18 ~ 22시), 인지·재활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 의무 운영(주 3종 이상), 저소득 어르신 이용 지원, 서울시 보조금 카드 사용의 의무를 지님

○ 서울시 마을의사가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

- 마을의사가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는 마을의사와 약사, 간호사, 임상영양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의료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건강돌봄팀이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포괄적인 건강평가와 케어플랜 수립, 질환교육, 영양·재활 등 집중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 지원, 재평가 및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서비스임
- 2018년에는 4개구(관악구, 노원구, 성동구, 은평구)에서 시험적으로 운영되었고 2019년도에는 10개 구로 확대, 2022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될 예정임

[부산시]

○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 부산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9년부터 공공형 생애말기 돌봄사업을 시행해왔으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부산광역시 전체 16개 보건소로 호스피스완화케어사업을 확대함
-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를 중심으로 생애말기 환자와 가족에게 방문 호스피스완화케어 제공 및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호스피스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개발 및 지원, 호스피스완화케어 질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부산지역 생애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임
- 인천시의 경우 2017년 8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말기 환자의 지원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을 권역별 호스피스 센터로 지정하여 2020년까지 8개실 20병상을 확충해 암환자 최초진단 및 치료-완화서비스-장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대상자에 비해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경기도]

○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의료기관 협업 커뮤니티 케어 실현

- 고양시 의료기관 협업 커뮤니티 케어는 일산병원, 국립암센터 등 대형병원 및 재활전문기관, 한방의료 기관 등 관내 25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입원비,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닥터헬프사업, 다양한 진료과목 협업을 통해 제공하는 차별화된 나눔진료, 각 동별 취약계층의 건강주치의를 지정·관리하는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비예산 복지사업임

[충북]

○ 제천시 보건소 ‘헤아림’과 ‘마중’

- 제천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어르신을 돌보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어려움과 치매 돌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치매환자의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헤아림’과 ‘마중’ 프로그램을 운영
- 프로그램의 내용은 치매 바로 알기, 치매 환자를 돌보는 지혜, 치매 알짜정보 습득 및 질환정보 및 간병경험 공유, 치매환자의 보호자 및 가족이 서로 소통하며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또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의 상호 관심과 배려, 공감적 반응을 도모하는 모임을 지속해서 이어가도록 돕고자 힐링 프로그램과 자발적 자조 모임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3) 기타 분야

[부산시]

○ 재가노인 119사업

- 부산재가노인복지협회는 회원기관이 돌보는 재가노인의 주택 환경 및 안전사고 위험 실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재가노인들에게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매트, 가스밸브 차단기, 투척용 소화기를 안전물품으로 지원함
- 안전물품 지원과 더불어 재가노인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도 실시하여 재가노인들이 119를 방문하여 집안의 위험요소 점검 및 안전시설 사용 방법, 화재 시 대피방법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도움

[서울시]

○ 반려식물 보급사업

-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고독사, 우울증의 해결방안으로 서울시는 도시농업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접목하여 2017년부터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실행 중으로 2019년 3월 65세 이상 저소득 홀몸어르신 6,000명(서울시 4,000명, 자치구 2,000명)에게 반려식물 보급을 계획함
- ‘반려식물 보급사업’은 적은 비용과 수고로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정서적 안정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정기적으로 원예치료사가 자치구 생활관리사와 동행 방문해 식물 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유선으로 수시 관리하는 등 어르신들이 마음에 위안을 얻고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하며 자치구 차원에서도 어르신 돌봄서비스 등 그물망 복지체계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병행 추진함

○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티머니복지재단과 함께 2019년 9월 30일까지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1,000명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할 계획임
- 교통카드 제공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면허가 실효된 서울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신청자가 지원인원을 초과할 경우 교통카드 500매는 주민등록상 고령자순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0매는 신청자 중 추첨하여 제공할 예정임
- 사업의 목적은 어르신(만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률의 증가를 막고 면허 반납 이후 어르신의 실질적인 이동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임
-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는 이미 부산 등에서 참여율이 높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도 면허 자진반납 캠페인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을 절반 가까이 줄인 것으로 알려짐

[그림 V-9] 서울시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자료 :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mediahub.seoul.go.kr>).

○ 강동구 노인 여가 공간 썸지놀이터

- 서울시 강동구는 2016년 천호3동 1호 썸지놀이터를 시작으로 2019년 5월까지 9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올해 4개소(강일동, 암사동, 성내동, 길동)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임
- 썸지놀이터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정자, 등반이 의자, 프로그램용 전기시설 등 시설물을 조성하고 전통놀이체험, 공예교실, 치매예방상담, 건강체조, 버스킹 공연 등 어르신이 선호하는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야외여가공간임

- 강동구는 관내 8개 복지관과 연계하여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국체육대학교 노인체육 복지학과와 함께 체계적인 건강체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 올해 기존 어린이놀이터를 노후시설 개보수와 수목 식재 등 환경 정비를 통해 어르신과 어린이가 함께 이용하는 어울림마당으로 조성할 계획
- 짬지놀이터는 지난해 10월 지역 최초로 인천 중구 답동소공원에 설치되어 9회 운영에 485명의 노인들이 참여하며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향후 짬지놀이터에 대한 노인들의 호응도와 성과를 검토하여 높은 필요성을 보이는 지역에 짬지놀이터를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할 예정임

○ 강동구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 강동구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을 통해 노인들의 마을친구를 만들어주는 특화사업 ‘행복을 만드는 아름다운 동행(이하 행복동행)’을 진행 중임
- 2018년 시작한 독거어르신 마을친구 만들기 ‘행복동행’ 사업은 홀몸노인 155명이 참여해 총 12개의 자조모임이 운영되었으며 고독감, 우울감이 높던 사업 참여 노인들은 ‘마을친구가 생겨 삶에 활력을 찾았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 강동구는 올해도 65세 이상 우울-자살위험이 높은 어르신 150명을 선정해 마을친구를 만들어주는 행복동행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4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나들이, 문화체험, 원예, 요리, DIY 만들기 등 월 1회 마을별 모임을 지원할 예정임
- 이와 더불어 만 60세 이상 은둔형 어르신들의 우울증을 완화하고 고독사를 막는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도 시작함
- 어르신 60여 명을 최종 선정하여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활동 제한형 자살 위험군, 우울형 자살 위험군으로 구분한 뒤 전문적 개입을 통해 개별 사례관리, 나들이, 집단 활동 프로그램, 자조모임, 우울증 진단과 투약 등 맞춤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임

[대구시]

○ 대구대 커뮤니티 케어 스튜디오(CCS) 프로젝트

- 대구대는 LINC+사업(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의 지원 하에 지역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커뮤니티 케어 스튜디오(CCS) 프로젝트를 운영함

- 이는 대학교수와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전문 지식을 살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하는 프로젝트임
- 구체적인 사례로 대구대 실내건축디자인학과와 작업치료학과의 교수와 학생들이 경산시 재가노인지원센터의 노인 쉼터에 맞는 목재가구를 제작·설치하는 취약계층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함
- 또한 물리치료학과에서는 노인을 위한 퇴행성관절염 예방교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허리 통증 예방 교실 등의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함

[경기도]

○ 용인대 사회봉사센터 대학 연계형 은퇴자 커뮤니티

-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대학 시설을 개방하고 대학의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축제·체육 대회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노인과 대학생을 1:1 매칭 하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 멘토·멘티 사업과 점심시간마다 자원봉사 대학생들과 노인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
- 치매노인,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는 대학생들이 직접 찾아가 노인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는 손자손녀방문프로그램을 운영함
- 특히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은 어르신 가정에 방문해 가정 내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활동 등을 진행함
- 또한 다양한 교내 동아리에서 지역사회 노인과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을 운영함. 구체적으로 식품영양학과 요리 동아리와 함께하는 ‘어르신 건강음식 만들기 교실’, 사회복지학과 동아리와 함께하는 ‘한글교실’, 컴퓨터 동아리와 함께하는 ‘태블릿PC 교육’ 등이 진행됨
- 건강증진사업도 운영되어 노인들을 위한 영양교육(식품영양학과), 물리치료(물리치료학과), 치매검진(언어치료실) 등이 진행됨

2) 국외 고령사회 대응 정책

(1) 유럽

① 영국

○ 홈케어서비스(Home Care Service)

- 지방자치단체 주관 또는 지도하에 이루어지며, 홈헬프서비스(Home Help Service)라고도 불림. 홈케어서비스의 주된 이용자는 스스로 몸을 돌보기 힘든 고령 후기 노인, 국가로부터 공적부조를 받는 노인, 낮은 사회적 계층의 노인이 대상이 됨
- 가사 원조 서비스와 신체수발 서비스로 나누어지는데 초기에는 가사 원조 서비스가 중심이었으나, 이후 수발 또는 간병을 필요로 하는 고령 후기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보살핌을 요하는 노인 대상 수발·간병 서비스에 중점을 둠
- 가사 원조 서비스에는 식사 준비 지원, 청소와 세탁, 연금 등의 수취 업무 대행, 장보러 가기 대행 등이 있으며, 신체수발 서비스에는 식사하는 과정에서의 도움, 의복을 갈아입을 때의 도움, 목욕 또는 배설할 때의 도움, 보행 시의 도움이 있음
- 지자체가 직영으로 24시간 홈케어 실시, 가사원조 서비스의 일부 동네 청소원이나 구멍가게 주인에게 위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사례가 있음
-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사설 에이전시에 소정의 비용 부담 필요, 비용 징수에 대한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요금 방식 상이함
- 홈케어서비스 사설 에이전시의 예시) My Home Touch
: My Home Touch는 24시간 전문가 대기시스템을 운영하며 500명 이상에게 재가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으로 평가 사이트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인터넷 또는 전화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건강 상태, 주소, 사용 언어, 돌봄 관련 필요조건, 선호하는 젠더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음

○ 가정간호 서비스(Home Nursing Service)

- 가정간호 서비스는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간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돌봄을 일반의가 지역 보건당국에 청구하면 가정간호사가 해당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으로 파견되어 일반의의 처방에 따라 의료 조치와 간호를 함
- 간호사는 간병 관련 조언, 자택에서 임종을 원하는 노인 간호, 지역의료기관에서 노인

간호에 필요한 의료기구 대여, 자원봉사단체를 통한 자원봉사자 알선, 순회보건서비스, 가사보조서비스, 야간간병서비스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순회보건서비스 - 담당 지역의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유지·증진할 수 있는 건강과 보전에 관한 교육 실시

: 가사보조서비스 - 노인들이 자신의 주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수용시설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여 국가적으로는 시설보호에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를 절약하고 노인들은 자신의 오랜 터전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함

: 야간간병서비스 - 재가 노인 중 병세가 중하거나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노인들을 밤중에 자택으로 찾아가 돌보거나, 노인 간병에 지친 가족구성원이나 친지의 긴장과 피로를 풀어 주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서비스

○ 나이 늙을 바꾸다 프로젝트(Transform Ageing Project)

- 정부 자문기구인 디자인위원회(Design Council UK)는 2016년부터 ‘나이 늙을 바꾸다(Transform Ageing)’ 프로젝트를 수행함

- 치매를 포함하여 노이가 들어가는 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생길 수 있는 질병을 최대한 예방하고, 고령자를 돌보는 지역사회 체계를 더욱 공고히 만든다는 취지를 가짐

- 이 중 ‘기억은 중요하다(Memory Matters)’ 프로젝트는 치매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디자인된 프로그램으로, 치매환자가 동네 친구와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억 카페(치매 카페)’를 만들고 노인의 과거 사진이나 좋아하는 음악을 모아 기억력을 되살리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

○ 주택개량에이전시(Home Improvement Agency)

- 주택개량에이전시는 지역 기반의 비영리단체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의 주거공간의 정비·유지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본인의 자택에서 거주하고자 할 때 주택개조를 지원함

- 노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열악한 주택의 경우 손잡이가 없는 욕조, 희미한 전등, 가파른 계단, 높은 출입문 문턱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 이러한 주택관련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개조 및 수리를 위한 보조금, 용자금, 주택임대료 보조지원 등을 실시함

○ 노인 인터넷 이용 활성화 정책

- 노인들이 인터넷을 친밀하게 느끼고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 인터넷 이용 활성화 정책을 진행함

- BBC의 퍼스트클릭(First Click) 캠페인은 인터넷 사용을 통해 노인들이 가족 또는 친구와 손쉽게 연락하고 흥미분야에 대한 정보를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돕고자 온라인 사용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5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 방법을 교육함

- 노인 인터넷 이용자의 날(Silver Surfer's Day) 행사에서는 노인들의 기술과 인터넷 사용을 통한 성과를 기념함

○ 캐서롤클럽(The Casserole Club)

- 캐서롤클럽은 2011년 시작된 프로젝트로서 가정에서 만든 요리를 주변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웃 노인들을 이어줌으로써 독거노인을 비롯한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주는 프로젝트임
- 2019년 현재 7,000명이 넘는 참가자가 프로젝트에 참가했으며, 프로젝트 평가 결과 음식을 제공받은 사람의 70%는 음식을 제공한 사람을 친구라고 여겼으며, 80%는 이 프로젝트 없이는 현재만큼의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고, 음식을 제공한 참가자의 90%는 주변 사람들에게 캐서롤클럽 프로젝트를 추천할 것이라고 말함

○ 실버라인(Silverline)

- 2015년 11월에 시작된 실버라인은 영국의 노인을 대상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무료 전화 서비스로 노인들이 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노인들의 필요에 따라 봉사자를 연결해주거나, 사회적 관계 또는 지역 서비스를 소개해줌
- 학대를 당하는 노인, 독거노인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함

[그림 V-10] 영국 실버라인 사이트



자료 : <https://www.thesilverline.org.uk/>

② 스웨덴

○ 홈헬프(Home Help)

- 스웨덴의 홈헬프 노인 복지 서비스는 2011년부터 시행된 서비스로 노인들이 노인 아파트나 집단 요양 시설 같은 곳이 아닌 자택에서 생활하며 집안 청소 및 정리 정돈, 쇼핑, 요리, 시설 개조, 의료와 식사, 말동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임
- 홈헬프 공급 승인을 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중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개인이 내야 하는 서비스 비용은 지방정부가 지불하는 비용의 6%로 2016년 기준 매달 최대 SEK 1,772(한화 약 30만 원) 정도임. 이는 소득에 따라 다르고 이를 위한 재원은 개인부담금 외에 노인연금, 의료보험에서 지급됨
- 2018년 기준 전체 노인 인구 중 4%는 시설보호를 받고 있으며, 8%는 홈헬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 반면 홈헬프 일은 불규칙적인 근무시간, 높은 업무 강도 및 스트레스, 낮은 급여라는 업무의 특성상 이직률이 높은 편임. 따라서 도시에서는 자격을 갖춘 직원을 구하기 어려움

○ 노인 대상 음식 서비스

- 201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221,600명을 대상으로 반조리식품(Ready-Cook Meal) 배달 서비스를 제공함
- 스웨덴 시청 특수주간돌봄센터를 통해 공동 식사(Communal Meals) 제공
- 그룹 단위의 노인들이 스스로 요리할 수 있도록 지원

③ 덴마크

○ 노인보호주택(Sheltered Housing)

- 노인보호주택은 고령자만의 집합주택, 관리인이 배치된 주택, 고령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택, 긴급 시通報 시스템 중 최소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의미함
- 1960년대부터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보다 지역사회 내에서 보살피는 정책방향이 강력히 추진됨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대량의 노인보호주택을 건설·공급하여 시설 입소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노인들에게 적절한 주거 환경을 보장
- 노인보호주택은 1962년 타운센드의 반(反) 노인홈 이론, 즉 노인에 대한 지나친 돌봄은 오히려 자립생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염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돌봄과 쾌적한 주거

환경이 필요하다는 근거에 따라 개발됨

- 노인보호주택에는 주로 80세 내외의 노인들이 입주
- 서비스 수혜자의 개인적인 욕구나 필요에 따라 24시간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평자 주택인 요양형 주택(프라이에보리)과 자립형 노인주택(엘더보리) 등에 입소 가능
- 구체적으로 노인을 위한 레지던스, 노인커뮤니티, 보조시설, 장애인요양원 등이 있음
- 긴급상황 연락 시스템 구축, 노인의 사회적 활동 프로그램, 의료 서비스 제공
- 또한 시설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싶지 않은 노인들을 위해서 이동 교통수단까지 제공하는 주간돌봄센터도 운영 중임

④ 네덜란드

○ 호헤베이크 마을

- 호헤베이크 마을은 2009년 완공된 1만 2000m²(약 3,636평) 크기의 치매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로 170여 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140여 명의 자원봉사가 활동 중임. 총 23개 가구에 약 170명의 노인들이 거주 중임
- 마을 거주를 희망하는 치매노인은 주치의를 통해 정부기관(CIS)에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 판정 이후 중증도에 따라 입소우선순위가 정해짐
-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호헤베이크 마을에 입소한 치매노인들은 소득수준에 따라 적게는 월 500유로(약 65만원), 많게는 2,500유로(약 322만원)를 부담해야 하지만 국가의 장기요양 보험과 노령연금을 통해 해결 가능함
- 마을 안에는 네덜란드식, 기독교식, 문화-예술식, 인도네시아식 등 총 7가지 주거공동체가 있어 거주자는 자신의 취향에 따라 생활양식을 고를 수 있음
- 창립자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2년마다 조사되는 만족도 점수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마을에서의 생활이 치매를 낮게 하지는 못하지만 치매노인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게끔 도움을 줌으로써 삶의 질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호헤베이크 마을의 설립 목적임을 밝힘
- 한국에 호헤베이크 마을과 비슷한 시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 투자 및 직접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서울요양원이 있음
- 이곳은 현재 치매 노인 150명이 생활하고 있고 10개의 마을로 나뉘어 있다는 점에서 호헤베이크 마을과 규모 및 주거방식이 비슷함. 대기인원만 1,080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 있지만 대부분의 시설이 건물 안에 있다는 제한점이 있음

[그림 V-11] 네덜란드 호헤베이크 마을



자료 : <https://news.joins.com/article/23088195>

(2) 아시아

① 일본

○ 지역포괄케어시스템

- 2009년 개호보험 개정을 통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2012년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 간병 예방, 일상생활 지원종합 사업 등의 지원 사업을 진행 중임
- 개호서비스는 크게 주택개호서비스와 지역밀착형개호서비스로 구분됨. 주택개호서비스에는 방문서비스, 통(通)소 서비스, 단기 입소 서비스 시설 서비스가 있으며 지역밀착형개호서비스에는 정기 순회, 수시 대응형 방문, 야간 대응, 치매 대응,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그룹홈), 지역 밀착형 시설 입주자 서비스가 있음
- 실제 개호 서비스와 예방 서비스의 거점 역할을 하는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용자, 지역주민, 간병서비스 제공자, 의료관계자, NPO 법인, 유관기관, 권리 보호·상담 관계자 등 다양한 지역 주체가 참여함
- 지역포괄케어는 주민과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원이 세대와 분야를 초월해 연계함으로써 지역공생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구조·플랫폼을 심화시

키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제도적 돌봄과 사회적 돌봄을 통합하여 마을공동체의 연대에 기반한 호혜적 돌봄망을 구축하고자 함

- 그러나 실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지역포괄케어의 두 원류인 보건의료계와 지역복지계의 교류가 거의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 예시 1) 도쿄도 세타가야구

- 도쿄도 세타가야구는 2014년부터 지역포괄케어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포괄지원센터, 사회복지협의회, 마을만들기센터가 함께 참여하는 복지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대응하던 상담지원을 공동 대응 체계로 확대
- 공동 대응을 위해 세 개의 기관에 매뉴얼을 보급하고 각 기관의 자원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자칫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 그뿐만 아니라 지역포괄지원센터에는 보건복지정보시스템, 이용자기본대장시스템을 도입하여 노인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 예시 2) 교토시 치매 노인 관련 시스템

- 교토시는 치매노인 조기 발견 및 안심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지역주민, 관련 종사자, 경찰 등을 대상으로 치매노인 서포터 양성강좌를 실시해 치매에 대한 이해력 제고와 실종 치매 노인 조기 발견 및 대응이 가능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각 지역포괄지원센터에는 치매 노인 SOS 연락망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이 길을 잃어버리거나 배회하는 치매노인을 발견한 경우 근처 지역포괄지원센터에 보호를 요청하면 지역포괄지원센터는 경찰이나 지하철, 버스회사에 연락해 수색 관련 도움을 요청
- 또한 지역포괄지원센터는 방임 등의 학대가 의심되는 치매 노인을 조기에 발견·대처하기 위해 지역케어회의를 개최하고 지원 곤란 사례에 대해 지역 주민(민생위원, 아동위원, 노인복지원)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도록 조직화함
- 이외에도 지역의 개호보험서비스 제공 기관,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병원, 의료원, 파출소, 학교 등 지역 자원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를 작성하여 주민에게 보급하고 지역주민 스스로가 돌봄과 보호의 주체로서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화함
- 편의점, 의료원, 병원과 같은 지역사업소는 일상적으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태 혹은 변화를 발견하기 쉬울 뿐 아니라 복지나 보건 등 전문기관으로 부서의 지원을 거부하는 이용자도 접근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고 평가됨

○ 치매노인 도우미(인지증 서포터, 認知症サポーター)

- 치매노인 도우미(인지증 서포터)는 2005년 후생노동성이 치매라는 단어가 차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지적에 근거하여 치매라는 단어 대신 인지증을 사용하기로 변경한 직후 도입되었

으며 이는 치매 이해 관련 서비스 기술에 대한 학습과정 수요자를 치매노인 도우미로 참여시키는 제도임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학교,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90분 동안 무료 강좌를 실시하며 대상자들은 치매의 원인, 증상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고 ‘놀라게 하지 않는다’, ‘서두르지 않는다’, ‘자존심에 상처주지 않는다’ 등의 치매 환자에게 접근하는 자세를 배움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학교,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90분짜리 무료강좌를 개설하여 대상자들에게 치매의 원인 및 증상, 치매환자에게 접근하는 자세 등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함
- 2018년 3월 기준 1,000만 명 이상이 서포터 인증을 받았으며, 65세 이상 고령자가 32.6%에 달하는 후쿠이(福井)현 와카사(若狭)정은 인구 1만 5,000명 중 1만 2,000명이 서포터 양성 강좌를 수강한 결과 과거 인지증을 숨기려던 분위기가 달라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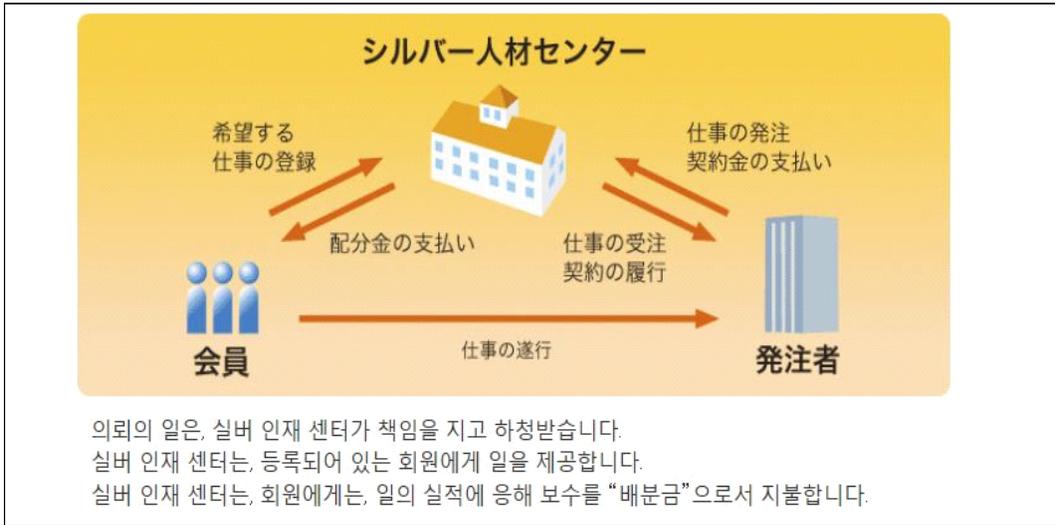
○ 주택 배리어 프리(Barrier-Free)화 추진

- 주거생활기본법(2006년, 법률 제61호)에 따라 주택 안전망 구축과 주택의 배리어 프리(Barrier-Free)에 관한 시책 전개
-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두 곳 이상 손잡이 설치, 실내 높낮이 차(문턱 등) 해소,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주택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정비

○ 실버인재센터

- 실버인재센터는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고용 관련법에 근거하여 후생노동성에서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고령자가 건강하고 보람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활력 있는 고령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실버인재센터는 회원구성원의 의견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자주적 단체로서 60세 이상일 경우 연회비 1,000엔을 내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
- 2019년 3월 기준으로 남성 2,238명 여성 1,187명으로 총 3,425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음
- 지원하는 취업활동은 근로기간이 한 달에 10일 정도,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20시간 이하인 임시·단기 업무임
- 가정이나 기업, 공공단체로부터 일자리 요구가 있을 때 센터가 회원 중 적임자를 선임하고 근로 관련 계약, 임금, 안전, 보험 등을 관리해주며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촉진함
- 이와 더불어 일의 수행에 도움이 되거나 새로운 일의 발견에 유용한 연수, 강좌, 교실 등을 운영

[그림 V-12] 일본 실버인재센터의 구조



자료 : <http://www.sjc.ne.jp.k.mt.hp.transer.com/adsc/intro/index.htm>

○ 일본 카나가와 현 요코스카시 요양원의 반려동물 입주

- 동물치료로서가 아니라 요양원에 입소하기 이전에 노인이 생활했던 일상, 즉 가족으로 여기는 동물과 함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정상화(normalization)의 실현’을 통해 재활 효과를 높임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를 원하는 노인을 위한 특별 거주 공간 마련
- 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요양원에 입주하는 것은 노인의 우울증을 감소시키며,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고됨

○ NPO법과 고령자 자원봉사

- 1998년 NPO법(특정비영리법인촉진법)이 시행되면서 시민들은 비교적 소규모 인원(10명)과 간편한 절차로 용이하게 비영리 활동의 법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따라 NPO 법인 활동이 사회 전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짐
- 일본 전역에 5만1671개(2018. 12월 기준¹¹⁾의 NPO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역재생, 환경, 국제협력, 복지, 교육,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복귀, 사회적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음
- 고령자 복지를 위한 NPO도 많지만, 고령자들이 주체가 되어 커뮤니티 사업을 하는 NPO도 활성화 되어 있음

11) 2019.2.25.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0119&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 예시 1) 고령자 카페형 NPO 다마 시 후쿠시테이 카페¹²⁾
 - 2002년 다마 시와 도쿄 도의 보조금으로 상가의 빈 점포를 빌려 카페를 개업하였고, 다마 시의 고령자 건강지원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보조금(60만엔)을 지원 받아 임대료로 사용함. 카페 운영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NPO에서 자율적으로 담당함
 - 하루 50명의 노인이 방문하고 자원봉사자 6~7명이 차나 식사를 판매함. 식사 제공뿐만 아니라, 장기와 바둑, 체조, 노래 등 다양한 취미 강좌를 진행하거나, 독거노인들을 위한 리본과 지역 생활정보 안내서 등을 배부하고, 계단 높이를 조절하거나 보행 시 불편한 곳을 찾아내서 지역사회 환경 개선에도 앞장섬
- 예시 2) 재능기부형 NPO 경영지원NPO클럽¹³⁾
 - 2002년 일본 대형 상사 미쓰이물산 출신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NPO로, 회원 수 160명에 평균연령은 70.5세, 최고령자는 86세임. 대기업 상무나 부장 출신, 연구원 등으로 이루어져 중소기업들에게 조언을 제공해주는 상담 활동을 함
 - 비영리법인 NPO로 운영되기 때문에 컨설턴트의 노하우는 일당 1000엔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음

(3) 북아메리카

① 캐나다

○ 기술개발정책(Skills Development)

- 기술개발정책은 노인인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연방정부부처인 서비스 캐나다가 캐나다 인적자원사회개발부를 대신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고용보험 가입 자격자이지만 직업기술이 없어 취업을 못하고 있는 노인들을 지원하고 취업을 위하여 요구되는 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짐
- 기술개발정책을 위한 정부와 노년기 대상자 간 계약기간은 보통 52주이나 경우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속될 수 있음

12) 2013.11.21. 시사HN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13>

2019.3.10.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85246.html>

13) 2012.9.24.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2/09/614842/>

② 미국

○ 액션프로그램(Action for Older Persons)

- 고령자들의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인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

- 봉사 사례

- ① 학교에서 보조교사 역할을 하거나 어린이에게 책 읽는 법을 가르쳐 주는 일
- ② 장애인이나 소년들에게 자동차 운전을 가르쳐 주는 일
- ③ 병원이나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노쇠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보살펴 주는 일
- ④ 고령노인들이 사는 가구에서 급식·세탁·청소 등을 해주는 일

○ 캘리포니아주 노인지역서비스고용프로그램(Senior Community Services Employment Program)

- 캘리포니아주의 노인지역서비스고용프로그램은 타이틀 브이(Title V)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고용기회가 없거나 무직 상태인 노인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에이전시에서 파트타임 기술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 노인에게는 진로 관련 상담, 기술 훈련, 직업소개를 제공하며 고용자에게는 고령자를 고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제공함

○ 캘리포니아주 가족돌봄제공자 지원프로그램(Area Agencies on Aging)

- 해당 프로그램은 노인을 돌보는 가족돌봄제공자, 무급 돌봄제공자,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또는 친족을 대상으로 돌봄과 관련된 정보, 서비스 접근, 상담 및 훈련 지원, 일시적 교대 돌봄 등 지역기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 특히 돌봄 관련 정보가 급하게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제공자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긴급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4) 오세아니아

① 호주

○ 홈케어패키지(Home Care Package)

- 1997년 노인돌봄법(Aged Care Act)이 제정된 후 호주 정부는 재가 돌봄 제공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호주 노인들의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돌봄 서비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음

- 먼저 서비스를 신청하는 노인은 정부 평가자에 의해 돌봄 등급이 평가된 이후 가격 등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돌봄 제공자를 선택하여 홈케어패키지에 가입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받는 도중에도 추가 서비스 요청, 특수 돌봄 요청, 돌봄 제공자 교체 등 자신의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음
- 홈케어서비스를 통해 노인들은 자택에서 간호, 식사, 사회적 활동, 가사, 간단한 수리, 이동 등의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음
- 전환 돌봄 프로그램(Transition Care Programme)
 - 전환 돌봄 프로그램은 입원 경험을 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한적, 목적지향적, 치료 위주의 서비스 패키지를 의미함
 - 환자의 독립성과 기능을 증진시켜 노인 거주시설로의 입주를 연기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물리치료나 작업요법(occupational therapy)과 같은 낮은 강도의 치료 등을 실시
 - 지역 서비스와 수혜자의 욕구에 가장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주·지역 정부에 의해서 관리, 결정하며 비정부기관과 협약을 맺어 서비스 제공
 - 주·지역 정부와 비정부기관이 협약을 맺어 서비스가 제공되며 주·지역 정부에 의해 수혜자의 욕구에 가장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틀, 서비스 전달 체계가 결정되며 비정부기관과 협약을 맺어 서비스 제공
 - 2017 ~ 2018년에는 전국적으로 25,311명의 수혜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2019년 1월 기준으로는 전국적으로 4,000명의 수혜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음
 - 서비스 수혜자들은 평균적으로 60일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남

3)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1) 현황

-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모든 도시와 지역사회가 점차 고령친화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 위해 형성되었으며, 2018년 9월 기준 총 760개의 지역사회 및 도시가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음(WHO, 2018)
 - 국내에서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현황을 정리하면 <표 V-12>와 같음
 -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서울특별시가 2013년에 처음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하였고,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2014년 정읍시가 처음 가입함

- 2019년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한 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는 총 11곳으로 확인됨. 특히 부산광역시는 2016년도에 가입하여 2018년까지 첫 번째 순환을 완료하고 현재 두 번째 순환과정을 진행 중인 유일한 곳임

〈표 V-12〉 국내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현황

지역	가입 연도	순환	단계			
			확약서	기본 평가	전략 및 상세한 사업 계획	평가
서울특별시	2013	1				
	도봉구	2018	■	■	■	
	양천구	2018	■	■	■	
	강북구	2018	■	■	■	
경기도	수원시	2016	■	■	■	
	부천시	2018	■	■	■	
광주광역시 동구	2017	1	■	■	■	
부산광역시	2016	1 (2016-2018)	■	■	■	■
		2			■	
충청남도 논산시	2018	1	■	■	■	
전라북도 정읍시	2014	1				
제주특별시	2017	1	■	■		

자료 : 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search-network/?_sft_countries=repUBLIC-of-korea

(2) 회원 자격 요건

- WHO에서는 네트워크 회원이 되고자 하는 도시와 지역사회를 위해 관련 정보를 담은 「Membership in the 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를 제공하고 있음. 해당 문서를 기반으로 우선 회원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네트워크 회원이 되고자 하는 도시와 지역사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함
- 첫째, WHO 고령친화도시의 중점적인 가치와 원리(칙)들을 공유하고 증진함
 - 우선 가치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개별 고령자가 가진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함
 -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발견하고 해당 불평등을 해결이

필요한 문제로 다루어야 함

- 삶의 모든 분야에서 고령자의 참여와 기여를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켜야 함
 - 고령자가 존엄성을 가지고 노화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함
- － 원리(칙) 부분과 관련하여 보다 고령친화적인 도시와 지역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과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공동 설계 및 구성 : 고령친화적인 도시 및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를 포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업과 조정이 필요함. 고령친화적인 도시 및 지역사회 구성을 위한 필수적 요소 중 하나는 의제 설정, 개발, 구현 및 평가 또는 고령친화적인 조치 등 모든 고령친화도시 구성 단계에서 고령자들의 의미 있는 개입이라고 할 수 있음
 - 상향식 참여 방식은 반드시 하향식 정치공약 및 자원과 결합되어야 함
 - 세대 간 관계, 연대 및 상호 지원을 장려하는 전 생애적 접근이 고령친화도시와 지역사회 구성을 위한 노력의 중심이 되어야 함

〈표 V-13〉 상향식 및 하향식 방식의 결합

	정부 주도 (하향식)		시민 주도 (상향식)
참여와 이해	통계적 근거에 기초한 기본적인 평가	문제 정의 ↔	욕구 평가 (경험과 논의를 토대로 함)
계획	전략적 계획	전략 ↔	참여 계획
행위	변화 착수 : 지원, 조정, 중재, 프로젝트	시행 ↔	노인들의 능력을 포함하고 강화시키는 접근 방식의 테스트 및 수정
조치	지표뿐만 아니라 과정과 영향에 대한 평가	진행 상황 검토 ↔	경험 및 만족도를 가능하는 참여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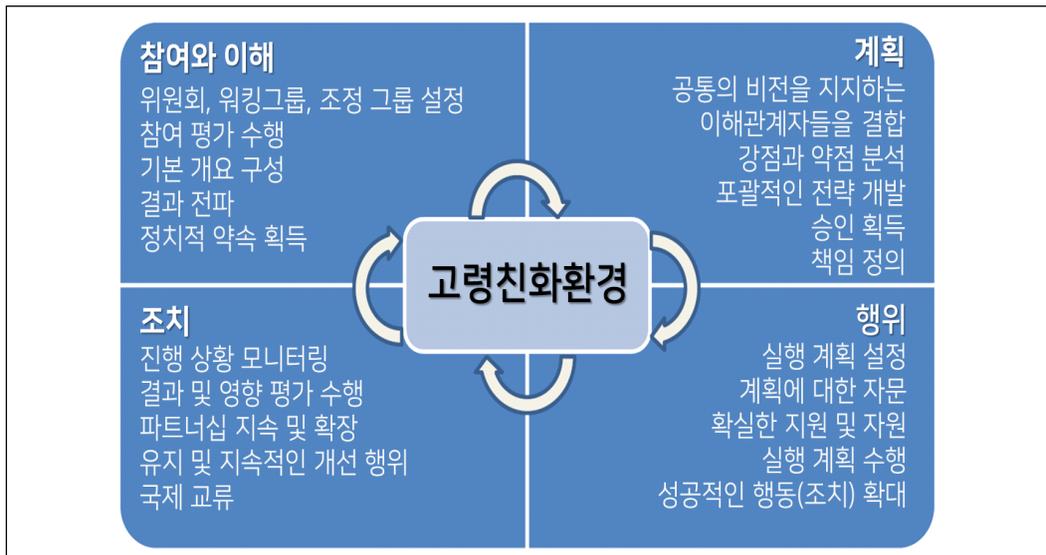
자료 : WHO(2017). Membership in the 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GNAFCC). p.3 인용.

○ 둘째, 고령친화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한 4가지 단계 수행 및 실행

- － 참여와 이해 : 고립되어 있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이들과 고령자들의 참여로 그들의 필요와 선호,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나이 드는 과정 속 존재하는 장애물과 기회를 이해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필요 및 선호에 반응하여 좀 더 고령친화적인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보장하는 핵심이 됨

- 계획 : 계획은 전략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유할 비전 개발, 행동의 우선순위에 대한 동의, 도시 또는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대한 계획과 자원 제공을 가능케 함. 이러한 계획단계를 통해 상세한 실행 계획을 설정할 수 있음
- 행위 : 계획단계를 통해 구성된 실행 계획을 수행하는 것은 고령친화적인 도시 또는 지역사회 구성의 핵심이 됨
- 조치 : 고령친화적인 접근의 이행결과와 지역민의 삶에 끼친 영향에 대한 근거 수집은 점점 더 고령친화적인 도시가 되기 위한 노력의 지속가능성과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진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는 현재까지 성공한 부분과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확인, 지역 이해관계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결과 제공, 향후 실천사항에 대한 우선순위 정의를 위한 기반을 제공해줌. 조치 단계를 통해 모니터링 및 평가보고서가 구성됨
- 고령친화도시로의 추진 단계는 <그림 V-13>에서 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되는 지속적인 개선 과정을 필요로 함
- 모든 단계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서로 다른 단계를 함께 수행하는 데 평균 5년 정도의 실행 기간이 소요됨

<그림 V-13> 고령친화 환경 구성을 위한 단계



자료 : WHO(2017). Membership in the 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GNAFCC). p.4 인용.

○ 셋째,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

- 회원 활동은 개별 회원의 필요와 관심 수준에 맞게 다양화되고 맞춤화되지만 회원으로서 꼭 수행해야 하는 의무 요건 3가지가 존재함
 - 진행(평가보고서, 실행 계획) 및 결과(고령친화적 환경 구성을 위한 실천, 모니터링 및 평가 보고서)에 대한 증거를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함으로써 고령친화환경 조성 관련 지식 발전에 기여
 - 회원들과 고령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지침, 수단 사례 공유
 - 반드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홈페이지 내 회원 프로필 페이지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도록 해야 함
- 의무 요건과 더불어 회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도 존재함
 - 지자체 등 정부 수준의 네트워크 회원을 위해 회의를 조직하거나 정부 수준 외 다른 수준의 네트워크 회원들과의 협력을 위해 회의 조직
 - 네트워크에 의해 구성된 인터넷상의 세미나 구성 및 참가
 - 정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다른 네트워크 회원들과 멘토-멘티 관계로 멘토링에 참여
 -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와 최근에 진행된 고령친화적인 활동 및 행사 공유
 - 협력을 위한 기회 공유

(3) 회원 혜택

-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회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됨
 - 전체적인 커뮤니티와의 정보 공유에 접근
 - 고령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념하는 실무자, 연구원,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적인 네트워크로부터의 지원
 - 회원국들은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홈페이지(<http://www.agefriendlyworld.org/>)를 통해 관련 활동 및 성취들을 보여줄 수 있으며 회원 자체 홈페이지나 자료를 다시 링크함으로써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인식과 가시성 제고
 - 회원국 간 국제 연구 프로젝트, 공동 출판물, 네트워킹 등 공동 작업 기회 획득

(4) 가입 절차

- 네트워크에 가입하고자 하는 모든 지역 관계자들의 가입 절차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청됨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온라인 회원 신청서의 핵심 요소

- 도시명 또는 지역사회명
- 도시, 지역사회 대표자의 이름과 연락처
- 주요 초점 및 연락처
- 신청이 어떤 회원국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해당 회원국의 구체적인 명칭
- 연령그룹별 인구
- 국가 위치
- 고령친화적인 활동에 대한 설명
- 고령자의 참여
- 부서 간 협력

▶ 첨부파일

- 회원 프로필 페이지를 위한 사진
- 시장 또는 지방정부 대표자의 편지
- 기존 평가, 실행 계획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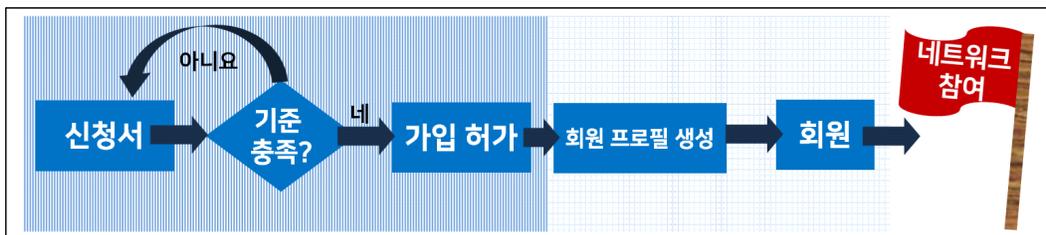
- 대표자로부터의 편지 예컨대 시장 또는 행정부가 좀 더 고령친화적인 도시를 구성하겠다는 공식적인 공약을 나타낸 서신
- 커뮤니티, 도시, 지역 등이 좀 더 고령친화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과정에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헌신과 참여가 요구되기 때문에 대표자로부터의 편지는 필수적임
- 신청자가 WHO의 가치와 고령친화적인 도시 및 커뮤니티 구성 착수에 동의하는지, WHO 고령친화적인 도시 및 커뮤니티 접근을 이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 및 재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함
-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네트워크 연락 담당자 지정
- 연락 담당자는 평가, 계획, 결과에 대한 WHO와의 모든 의사소통이 관련자들과 상의되고 지역 행정부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 신청서 검토와 신입회원에 대한 결정

- 신청서는 WHO가 지정한 네트워크 가입 담당관에 의해 수시로 검토되며 입회 기준에 의해 평가됨
- 네트워크 가입 담당관은 WHO 본부 혹은 WHO 지역 사무소의 직원일 수 있음
- 신청서가 신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작성방향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해서 네트워크 가입 담당자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신청국에 연락을 취할 수 있음

- 신청국이 이미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와 일치하는 비전, 원칙 및 가치를 지닌 기존의 고령친화적인 혹은 초국가적인 도시 네트워크의 일부일 경우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음
- 회원자격 결정은 대표자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지정된 담당자에게 전달됨
- 신입회원에게는 자동적으로 회원증이 발급되는데 이는 고령친화도시 성취 또는 승인 증명서가 아니라 회원국이 향후 더욱 고령친화적인 도시가 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음을 나타내는 것임

(그림 V-14)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과정



자료 : WHO(2017). Membership in the 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GNAFCC). p.6 인용

(5) 회원 자격 종료

-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네트워크 회원 자격은 계속 유지됨
 - 회원은 회원 자격 종료를 요청한 이후 회원 명단에서 삭제되며 회원 프로필 페이지는 더 이상 Age-Friendly World 홈페이지에 나타나지 않음. 그러나 담당자의 사용자 계정은 비활성화 되지 않아 언제든지 다시 참여할 수 있음
 - 3년 동안 회원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의무 요건 3가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WHO의 위임사항과 관련된 것들을 준수하지 않을 때 회원국 및 관리 운영기관과 상의하여 네트워크 사무국의 결정에 따라 회원자격이 철회될 수 있음

(6) 회원국가 및 도시 사례

(1) 유럽

① 영국

○ 런던(London)¹⁴⁾

- 런던은 2007년에 처음 고령친화도를 평가하고 WHO의 고령친화 원칙에 따라 런던 내 평가기준을 세움. 2015년에는 2007년에 비해 진행된 사항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작성함. 해당 보고서에서 런던은 60세 이상 시민에게 무료로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등 몇 개의 특정 항목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런던 당국에서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주택 및 공간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 및 계획 정책을 세우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노인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캠페인과 고령시민이 런던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공헌 홍보
- 5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고용 프로그램과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고령자의 디지털 문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
-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중요시하게 보고, 노인자원봉사 지원, 매년 노인 문화 축제 개최

○ 웨스트 체셔(Cheshire West and Chester Borough)

- 지역사회 내에서 노년층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사람들은 개별적인 강점, 기술, 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도록 하고 노인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 목적임
- 길잡이(Pathfinder) : 지역사회 개발 및 복지에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시의회가 주민 및 파트너와 공동 설계한 신규 위탁서비스. 26개 이상의 초기 개입과 예방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한 채널로 통합하여 고령자와 취약계층이 더 오랫동안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 고령자네트워크(The Older Peoples Network; OPN) : 현재 500명이 넘는 고령자가 소속되어 있으며 시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재정 및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시의회는 고령자네트워크를 통해 노년층의 의견을 수렴함
- 체스터 대학의 고령화 센터 : 고령자를 위한 건강 및 사회복지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컨설팅 및 교육을 제공함

○ 리즈번과 캐슬레이(Lisburn and Castlereagh)

14) <https://www.london.gov.uk/what-we-do/communities/older-people>

- 캐슬레이 안전과 행복 프로젝트Castlereagh Safe and Well Project(C-SAW) : 60세 이상이고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함. 체육관을 무료로 이용하고, 에어로빅, 의자 기반 활동 및 여러 스포츠가 포함된 신체활동 그룹세션 그리고 운동과 함께 티타임이나 대화를 할 수 있는 사회관계 프로그램(6주)을 운영함
- 암환자를 위한 활동증진코디네이터를 고용하여 암환자 개인의 스케줄에 맞춰 암환자 및 가족이 포괄적이고 적절한 신체활동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

② 프랑스

○ 앵 주 앙베리외앙뷔제(Ambérieu-en-Bugey)¹⁵⁾

- 2015년 이후로 앙베리외앙뷔제 시는 ‘함께 잘 살자(living well together)’를 실현하기 위해 노인들과 함께하는 참여적 접근법을 시행함
- 독립형 노인주거시설(EHPAD, dependent elderly housing facility)을 운영하며, 노인주거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지원함
- 이동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도로 및 보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장소 및 시설에 벤치나 의자 등 거리가구(벤치나 입식의자) 설치
- 도시교통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외곽지역에 교통수단을 개발하여 노인들이 1주일에 2회 이상(장이 열리는 날) 도시에 갈 수 있도록 함
- 시니어를 위한 강의 시리즈, 마을 밖 여행 등 문화 제공 개발
- 세대 간 고립을 줄이기 위해 모든 세대가 한 주제를 중심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 MIX’AGES 운영
- 행사 등에서 시니어를 위한 특별한 혜택을 주어 시민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

③ 스페인

○ 코아냐(Coaña)

- 2001년부터 코아냐시는 노인친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옴
- 일상생활 기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주 농촌학교에서 메모리 워크숍을 진행하고, 건강문제가 있는 노인들은 매달 시립학교에서 치료가 가능하며, 활동적인 신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일주일에 2회씩 스포츠센터에서 노인체육교실이 운영됨

15) <https://www.ville-amberieuenbugey.fr/-Ville-Amie-des-Aines-103-.html>

- 조부모 프로젝트 : 독서 증진을 통해 세대 간의 교류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로, 시립도서관에서 노인이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읽어주고, 이야기와 관련한 미술활동 등을 함
- 지원 및 보안 프로젝트로 지역 경찰이 반년마다 혼자 사는 노인 80명을 방문하여 수급 가능한 복지서비스와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함

④ 아일랜드

○ 마요(County Mayo)

- Go For Life Games : 마요 고령화 위원회는 스포츠 파트너십과 매월 Go For Life Games를 선정하고 지역 내 고령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함. 이 게임클럽은 데이케어센터, 노인주거복지시설 그리고 지역 은퇴자활동그룹 등 다양한 노인들이 참가하고 있음
- The heARTh 프로젝트 : 지리적으로나 다른 이유로 이동에 제한이 있는 노인 가정에 예술가가 매주 방문하여 함께 활동함으로써 취약한 노인계층이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함

○ 레이시 주(Laois County Council)¹⁶⁾

- 레이시 주는 2016년에 지역사회 노인들과 상담 후, WHO 원칙에 따라 8가지 범주와 64가지 실천을 담은 고령친화 전략을 계획함
- 연간 실행계획은 고령친화연합체와 노인협의회에서 주관하며 지금까지 주차환경개선, 고령친화 사업 승인 제도, 기업을 위한 의사소통 안내서, 보행환경 연구, 지역사회 내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정보지 발간, 55세 이상인 사람들을 위한 연례행사 및 노인협의회 확대를 위한 무도회 등을 시행함
- 2019년부터 주요 초점은 모든 노인들과 소통하는 것이며, 모든 성인들은 연령에 따라 이용한 가능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알게 하는 것임. 실행 계획 중인 사업으로는 고령친화 도서관, 옥외 공간에 대한 지침, 고령친화적인 공원 및 건물 조성과 지역사회 내 세대간 프로젝트 등 다수가 있음

⑤ 폴란드

○ 브로츠와프(Wroclaw)

- 프로젝트 FIO : 지방자치단체 내 NGO에서 노인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전문적인 활동에

16) <https://laois.ie/departments/community/promoting-social-inclusion/#2>

계속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목적임. 이 프로젝트는 NGO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정 역량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선발하는 과정을 개선할 수 있음

- 노인 자원봉사 활동 아카데미 : 노년층의 활동을 유지하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Active Senior” 재단은 AASW의 지침에 따라 노인을 위한 교육 및 스포츠 활동 패키지를 제공함.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노인은 자원봉사자 DB에 수집되어 NGO에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음¹⁷⁾
- 세대 간 통합을 위해 “노인이어 나아가라! -몸과 정신건강을 위한 교육”과 “컴퓨터는 노인의 친구입니다”라는 사회 캠페인을 진행함

(2) 아시아

① 일본

○ 치가사키 시(Chigasaki)

- 노인들에게 의료 및 간호, 간병 의존성 예방, 주거 및 생활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장려하기 위해 2018년부터 노인복지계획과 공공개호보험 프로그램 계획을 구성하여 건강 증진과 돌봄, 부양을 6대 원칙에 따라 실시함

- ① 노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도록 지원
- ②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간병 의존을 방지하도록 장려
- ③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 개발
- ④ 노인을 위한 지역 지원 네트워크 구축
- ⑤ 치매노인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 형성
- ⑥ 개호 보험을 포함한 간병서비스 증진, 장기요양 제공, 간병의존 방지, 일상생활지원 강화

(3) 북아메리카

① 캐나다

○ 그레이터 서드베리 시(City of Greater Sudbury)

- 시장 및 시의회 노인 자문단 : 고령자를 위한 아이패드, 무료 교통 훈련, 난방유지,

17) <http://konkursy-dla-ngo.blogspot.com/2017/04/dotacje-na-projekty-dla-seniorow.html>

AIP 연례 컨퍼런스, 교육(재정계획, 부동산 계획, 건강 및 복지 등)과 같은 고령친화 정책 발의를 주도함

- 시민서비스센터 : 311콜센터(서비스라인)을 제공하여 거주자가 도시에서 제공하는 지역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해 문의 할 수 있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번호를 통해 시청 내 모든 부서와 연결될 수 있음
- 많은 고령자들이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에 등록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제공함
- 응급의료 프로그램 : 시의 응급 서비스 부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집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시의 응급서비스와 건강관리 시스템 전체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음

② 미국

○ 플로리다주 앨러추아(Alachua)

- 이동의 자유(Freedom in Motion) : 고령자들이 5달러 이내의 낮은 가격이나 비용 없이 우버(Uber)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함
- 지역 시니어 센터에 등록하면 시간대와 상관없이 우버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차량은 접이식 보행보조구나 휠체어 등을 수용할 수 있음
- 휴대전화로 우버 앱에 접속하지 못하는 노년층에 대해서는 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스마트폰 지원 프로그램(Assurance wireless)을 통해 스마트폰을 지원함

○ 일리노이주 알튼(Alton)

- 알튼의 소방본부에는 노인인구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두 개의 프로그램이 있음
 - ① 65세 이상 주민을 위해 10년형 배터리를 장착한 화재경보기 교체를 무료로 지원함
 - ② 기억할 때 프로그램(REMEMBERING WHEN program) : 65세 이상 주민들에게 화재와 낙상 예방에 대해 가르치는 국가방재협회 프로그램(The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program)
- 그 외에 노인들을 위한 이벤트와 활동, 노인과 젊은 세대가 교류하도록 하는 보호자 프로그램(Foster Grandparent program), 홈케어 프로그램, 댄스학교, 식사 배달, 학교에서의 식사제공, 이동 지원, 건강 및 피트니스 센터, 개인 비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양방향 의사소통 연결, 요양 시설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지원 및 옹호를 제공하는 옴부즈맨 프로그램 등을 운영

○ 캘리포니아주 벨몬트(Belmont)

- 고령화위원회(The Council on Aging; COA) : 고령자들의 욕구(needs)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인 지역사회 내 단체로 지역 시니어센터에서 근무하며 정책적인 측면을 결정함
- 고령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반차별과 관련된 정책은 마을의 인권위원회가 제정함
- 지역의 부동산 신탁은 주택 생산 계획에서 고령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장함

○ 텍사스주 알링턴(Arlington)¹⁸⁾

- 공간과 건물 : 알링턴은 보행자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보도와 연석, 횡단보도 등을 개선하여 안전과 접근성을 향상시킴. 퀸시 파크(Quincy Park)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개편되어 신체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연령대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환경을 갖춘 대표적인 고령친화 공간임
- 교통 : 고령자를 위해 무료로 메트로 탑승 훈련을 제공하고, 메트로·버스·택시에서 시니어 할인이 있으며, 병원방문을 위한 이동지원과 식료품 등 쇼핑을 위한 이동 또한 지원함
- 주택
 - ① 켈페퍼 가든(Culpepper Garden) : 62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전, 편안하고 질 좋은 삶을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비영리 은퇴 공동체로 독립형 아파트와 보조형 아파트가 있음
 - ② 메리 마셜 원호 생활시설(Mary Marshall Assisted Living Residence) : 중증 정신 질환 및 장애가 있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보조 주택 및 서비스를 제공함
- 사회참여, 존중 및 사회통합 : 알링턴의 사무국에서는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과정과 활동들을 소개하는 55+ 안내서를 격월로 게시하여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정보를 제공받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함

○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Grand Rapids)

- GR HomeShare 프로그램 : 노령친화 정책과 높은 주거비용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주택을 소유한 55세 이상의 노령자가 주거공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지를 공유함. 집주인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령자는 소득이 생기고, 동거인이 생기면서 식자재를 공유하거나 안전문제, 가사지원 등의 이점을 얻게 됨. 또 한편으로는 학생이나 청년층 등 저렴한 주거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받고, 가정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함

18) <https://www.arlingtonma.gov/departments/health-human-services/council-on-aging>

(4) 남아메리카

① 칠레

○ 라핀타나(La Pintana)

- 지방자치구 내에 권리옹호부를 마련하여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제도 내에서 고령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
- 노인복지센터(Senior Wellness Centers)에서는 고령자의 자아 능력 향상 및 자율성 강화를 통해 활동적인 노령화를 장려하고 기능적인 독립성을 향상시키며 일상생활의 기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역사회의 결속, 자율성, 인정 및 권리 행사를 강화하여 긍정적인 노화를 촉진하도록 조직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에게는 지역사회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연계프로그램(Vinculos program)을 제공함. 또, 노인 자원봉사를 통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통합 및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함
- 사회 및 가족과의 연결이 취약한 상황에 놓인 노인들을 돕기 위해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주거시설을 지원함

② 페루

○ 미라플로레스 지구(Miraflores)

- 장기 청년 주택(Long-term youth homes) : 지역사회 내 “제2의 집”의 역할을 하는 4개의 공간으로, 만남의 장소가 되거나 레크리에이션이나 생산적이고 건강한 신체활동 워크숍 등 상호 보완적인 활동이 운영됨(산책, 여행, 문화 활동, 오락, 건강 및 예방 캠페인 논의)
- 관심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워크숍은 이용자들을 통합하여 친한 집단으로 만들고 이는 곧 정서적, 신체적 혹은 법적인 욕구에 대응할 사회적 구조나 능력을 향상시킴. 이 주택은 60세 이상 인구의 50%에 달하는 11,830명의 고령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18개의 그룹이 조직되어 자율적으로 각자 활동을 개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아 공식화됨
- 주민 시장 혜택 카드(Vecino Mayor Benefits:VM) : 지역사회 민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권장하여 노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참여하도록 추진함. 레스토랑, 클리닉, 보건서비스, 문화서비스, 개인위생, 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6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함.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 당국에서 발급한 쿠폰 카드를 제공 받아야 하며, 현재까지 5,000장 이상의 카드가 무료로 제공됨

- “나는 괜찮아, 나를 봐” 프로그램(“I’m Good, Look at Me”) : 고령자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공예품을 판매하는 박람회(1년에 2회)를 개최하거나 유화를 판매하는 전시회(1년에 1회), 문화 공연 및 퍼레이드 등 개최함
- 정서 공장(Affection Factory) : 고령자의 특성 중 하나는 타인의 요구에 대해 갖는 민감성임.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감수성을 섬세한 공예품을 통해 취약한 계층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공예품의 물리적 가치보다는 이를 제작하고 전달하는 사람의 사랑, 만족, 기쁨에 중점을 둠

(5) 오세아니아

① 호주

○ 일라와라(Illawarra Shoalhaven Region)¹⁹⁾

- 일라와라는 고령자들의 사회나 시민참여, 고용 개선과 교통, 주택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 정부 및 지역사회 조직이 함께 노력함
- 일라와라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행사를 진행할 때, WHO의 고령친화도시 원칙을 참고하고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개발한 고령친화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친화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다른 단체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홍보함
- 고령자들이 지역사회를 돌아다닐 때 적절히 쉬을 취할 수 있도록 지역 상점과 식당을 방문하여 이에 대해 교육하고, 휴대용 의자를 지원함. 그 외에 휠체어나 이동보조기구를 이용한 접근이 용이하게 하고, 부드러운 음악과 조명, 고령친화 서비스에 대한 직원교육, 전화주문 및 배송, 공중화장실 이용 등 고령친화 비즈니스에 협조하도록 독려함
- 효과적인 지역사회 전달체계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고령친화도를 높일 수 있음. 일라와라는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보제공을 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의 디지털 문맹 퇴치를 위해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온라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

(6) 국내 시·도

① 서울특별시²⁰⁾

19) <http://agefriendlyillawarra.org/>

20) 자료 : 고령친화서울 홈페이지(<http://afc.welfare.seoul.kr/afc/main.do?language=kor>), 서울시복지재단(2015).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제2기(2016-20년) 실행계획 수립.

- 2011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2년 제1기(2013 ~ 2015)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인 「서울어르신종합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3년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함. 현재는 제2기 실행계획 수립을 5개년(2016 ~ 2020년)에 걸쳐 추진 중에 있음
-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실행계획 수립, 실행, 평가의 관리체계를 이행하고 있음. 2012년부터 운영된 「서울시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이 활성화 되어 있고, 2년 주기로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제1기 서울어르신종합계획은 WHO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에서 제시한 8대 영역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2인생 설계 지원, 맞춤형 일자리, 건강한 노후, 살기 편한 환경, 활기찬 여가문화, 존중과 세대통합 등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고, 35개 세부사업이 있음
- 제2기 실행계획에서는 환경, 여가, 고용, 존중, 건강의 5대 영역으로 변경되었지만, 제2인생 설계 지원 영역을 삭제하는 대신 각 영역에서 베이비부머 지원 정책이 다루어지도록 하였음²¹⁾
 - 고용 :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고령자취업지원센터, 시니어클럽, 온라인일자리전담창구 운영, 전문인 은퇴자 인재은행, 베이비부머 엑스포, 70+ 직종개발 및 시범 고용 프로그램, 지역특화 일자리 개발, 고령친화적 근무환경 디자인 개발(근무복, 작업장 구조)
 - 여가 : 축제 및 공연 활성화(생활체육경연대회, 효자손축제, 한마음축제, 행복콘서트, 노인영화제, 실버영화관), 어르신아카데미, 50+세대 평생교육, 경로당 활성화 및 특화 프로그램, 어르신 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50+세대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신개념 여가공간 마련(생활밀착형마을쉼터, 공공시설사용 온라인 지원(가상복지관), 신노년문화 프로그램 공모, 신규프로그램 개발(엘터호스텔, 도시교류)
 - 건강 : 장기요양시설 및 데이케어센터 확충, 예방체계 구축(노인보호전문기관, 어르신상담센터, 자살예방사업, 고독사방지사업), 치매어르신이킴이폰, 서울형 치매전문요양가정 유형 개발 등 치매관리 및 지원, 건전한 장례문화(무연고장례 지원, 장례용품 가격정보 제공, 작은장례 장려, 장사시설 확충, 자연친화적 종합자연장지 조성), 일상생활관리(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민생침해예방교육, 교통안전 및 사고재해예방교육,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노인 안전안심 디자인 개발), 돌봄지원(돌봄통합관리시스템, 어르신 돌봄중사자종합지원센터, 돌봄가족휴가제, 요양시설 인증제도, 서울시 좋은돌봄

21) 밑줄 표시된 사업내용은 제2기 실행계획의 신규사업임

인증제도)

- 존중 : 노후소득 지원(기초연금 및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지원), 사각지대 지원(장기요양보험 및 돌봄종합 부담금, 저소득 재가서비스), 정보전달 효율화(시니어포털 50+서울 홈페이지 운영, 서울시 어르신 정보꾸러미 발간, 고령친화적 노인정보전달 가이드 홍보 및 보급, 노인전용정보전화, 원스톱정보서비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어울림 지원(세대통합형 마을권 문화공간 구성, 노인 참여 마을 자치, 노노케어, 친구만들기, 안부반장제, 세대융합 프로그램, 세대공감 토크콘서트), 노인단체 운영 지원, 의견수렴기회 확대(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베이비부머 인생이모작 콘서트)
- 환경 : 고령친화 외부환경 조성(종묘·탑골공원 특화거리 조성, 고령친화환경 시범마을, 고령친화적 상점 디자인 개발, 저상버스 운영, 실버숲 조성), 50+센터 및 캠퍼스 등 기관 확충 및 지원, 안전 및 편리성 향상(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안전관리, 노인복지기관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 적용), 주거 모형 다양화(노인 임대주택, 독거노인-대학생 룸쉐어링, 원룸형 안심공동주택, 어르신공동생활주택, 서울형케어홈), 주거안전점검, 노인주거안전체크리스트, 주택개보수연계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²²⁾

- 2018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으며, 민관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 고령친화적 생활환경 편의 증진, 어르신 사회·문화활동 참여 장려,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국제교류 활성화 등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자 진행 중임

③ 서울특별시 양천구²³⁾

- 2018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8대 영역(어르신들의 활기찬 여가문화, 존중과 세대통합, 활발한 소통, 건강한 노후, 맞춤형 일자리, 안전한 주거환경, 편리한 교통수단, 쾌적한 생활환경)에 관한 3개년 추진계획이 수립되었음
-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된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음

22) 자료: 지역연합신문(2018.12.30.). 도봉구, 서울 자치구 2번째로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 (<http://yonhap21.com/detail.php?number=14720&thread=22r03r01>).

23) 자료: 양천구 보도자료(2018.12.20.). 국제적 인증 받은 고령친화도시 양천.

- 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으로 소규모 복지센터형 사랑방 확충 및 프로그램 활성화, 신월동 어르신 복지관 건립,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
- 고령친화적 세대공감 프로그램 운영(찾아가는 조손세대 공감 아카데미 등), 어르신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고령친화적 서비스 디자인 보급
- 독거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돌봄시스템 구축, 구립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 확충, 8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백세건강 주치의제 운영
- 노인 맞춤형 일자리 수 확대, 사회서비스형 사업 신설, 양천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전문지원기관) 설치 및 운영
-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선불교통카드 10만원권) 방안
- 어르신사랑방 공기청정기 설치, 무장애 테크숲길 조성 등 추진

④ 서울특별시 강북구²⁴⁾

- 2013년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 ‘건강수명 백세도시’ 사업추진단 구성 등 준비를 통해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하였음
- 2017년 강북구 ‘건강수명 백세도시’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6대 중점과제(노인 자살예방사업, 방문간호서비스, 치매 안심마을 조성, 무장애도로 만들기, 노인일자리 사회참여사업, 경로당 종합지원사업)에 대해 20개 실천사업을 선정하였음

⑤ 경기도 수원시²⁵⁾

- 2016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한 이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2019년에 고령친화도시 재인증을 받을 계획임
- 3대 목표 ‘은퇴 대비 미래 환경 조성’,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 ‘사회통합과 소득 창출 환경 조성’에 기반 하여 6대 영역(인생 제2막 은퇴 설계, 활동적인 생활환경, 건강한 노년, 활력 있는 노년, 사회적 존중과 세대통합, 안정된 노년 일자리)에서 5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24) 자료: 중앙일보(2018.3.29.). 강북구, WHO 고령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 인증 (<https://news.joins.com/article/22487186>).

25) 자료: 중앙일보(2018.10.09.). 수원시, 노인이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만든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032167>). 이데일리(2018.12.20.).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발돋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250886619440488&mediaCodeNo=257>).

- 다음은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18년 주요 사업 및 성과를 제시하였음
 - 제2막 은퇴 설계 : 베이비부머 생애 재설계 지원, 베이비부머 민·관 합동 취업박람회 개최, 은퇴자를 위한 강연회,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을 통해 새 희망 일자리(구 공공근로) 분야 653명 취업
 - 활동적인 생활환경 : 어르신들 복지시설 확충, 지속가능한 수원형 마을 만들기 사업, 노인주간 보호센터·노인복지관·노인복지주택 1개소 및 경로당 11개소 신설
 - 건강한 노년 : 치매안심센터 설치, 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원스톱 관리 시스템,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 대상 방문·가사 서비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주 1회 방문 및 주 2회 전화)
 - 활력 있는 노년 :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친구 만들기), 경로당 환경개선·우수 프로그램 보급, 고위험우울증 독거노인 치료 및 모임 지원, 수원시 관내 경로당 시설보수(130개소 대상 벽지·타일·보일러 등 교체), 노래교실·웃음치료 등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 안정된 노년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제공 3,600여 명 취업
 - 사회적 존중과 세대 통합 : 토크 콘서트 개최, 문화예술 행사 지원

⑥ 경기도 부천시²⁶⁾

- ‘평생 살고 싶은 고령친화도시 부천 실현’을 목표로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 ACE 부천’의 비전에 따라 3대 분야, 8개 영역으로 제1기 실행계획(2018~2020) 35개와 나머지 2기 실행계획 사업으로 총 58개의 사업을 제시함
- 부천고령친화도시 3대 분야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평생살고 싶은 지역사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음
 - 1)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 자원봉사와 일자리 :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 일자리 확대 추진, 생애주기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노인역량조사 및 DB 구축, 소규모형 고령친화 실버인재센터, 고용유지프로그램
 - 지역사회지원과 건강 : ‘100세 건강실’ 기능 고도화, 웰빙·웰다잉을 위한 건강관리 교육, 고품질의 요양서비스 제공, 건강수요별 공공보건시설 인프라 구축, 원스톱 치매통합 관리사업,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어르신 안전도시, 찾아가는 스마트이동복지관, 스마트 헬스케어를 위한 맞춤형 응급관리, 실버서포터즈 운영, 실버 E-Care 안전지킴이

26) 자료 : 한국산업발전연구원(2018).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2) 평생살고 싶은 지역사회

- 사회참여 : 거점 경로당 운영 및 프로그램, 시민중심의 체육시설 확충,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여건 조성,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이용률 제고, 고령친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성공적 노후 대비 프로젝트 사업 '베이비부머 지역데뷔 가이드북', 신노년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세대간 화합과 갈등해소를 위한 세대공감사업
- 사회적 존중과 배려 : 노인학대 예방 홍보,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유공자 표창, 성공적 노화인식사업 '노인이해교육단' 운영, 세대공감 카페 프로그램, 시니어 재능나눔 서비스 박람회
- 의사소통 정보 : 정보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고령친화도서관 공공도서관 서비스 운영, 어르신 정책 모니터링기재단 운영, 정보화 교육프로그램 확대, 공공기관의 이용편의성 증진

3)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 외부 공간 및 건물 : 보도환경 개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원시설 개선, 공중화장실 관리(유니버설디자인 표지판), 2035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원미산 힐링숲 여가녹지 조성, 시청사 및 동 주민센터 내 각종 편의시설 설치, 어르신 공경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 보행환경 개선, 안전시설 설치 및 이용 안내, 편의시설 공공서비스 개선, 안심벨 설치
- 교통 : 버스 불만민원 제로화 등 버스서비스 만족도 향상,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 추가 도입, 자전거교통사고 예방 안전 교육, 주차장 조성, 교통시설물 설치, 버스쉼터 신설 및 교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노인운전에 대한 배려인식교육,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이용교육, 실버마크 배부 및 교육
- 주택 :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환경 조성, 부천시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고령친화마을(존) 시범운영, 경로당 기능전환을 통한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⑦ 광주광역시 동구27)

- '광주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고령친화도 조사 실시, 실버리더 자 위촉 및 활동,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 3개년 실행계획 수립 등의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8년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국내 자치구 최초로 가입함
- 제1기(2017~2019년) 3개년 실행계획을 세우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면서 38개 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며, 이후에는 제2기(2020~2024년) 고령친화도시 재

27) 자료: 일등방송(2019.4.23.). 광주 동구,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 재인증 '박차'
(http://www.ibnews.or.kr/sub_read.html?uid=46063§ion=sc4).

인증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주요 사업으로 광주 자치구 중 최초로 치매안심센터 개소, 동 순회 치매검진 실시, 어르신 동아리 경연대회 ‘그린실버피아페스티벌’ 개최,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 ‘실버리더자’ 구성·운영, 노인 부부관계개선 프로그램 ‘꽃보다 부부’ 운영, 보행약자 배려의자 ‘동구행복의자’ 보급, 고위험군 독거노인 미끄럼방지매트 보급, 홀몸어르신 건강한 계절나기 사업, 지역민과 함께하는 ‘소통경로당’ 사업 등이 있음

⑧ 부산광역시²⁸⁾

- 부산광역시는 부산복지개발원과 함께 2015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고령친화도 조사와 노인실태 및 정책체감도 조사 등을 통해 노인복지기본계획(2016~2018년)을 수립하였음
- 이를 토대로 ‘활력 있는 100세, 고령친화도시 부산’이라는 비전을 지향하며, WHO 가이드라인에 따라 8대 분야, 23개 세부목표, 44개 전략과제, 59개 실행계획을 수립함. 이 중 신규사업은 12개에 해당함²⁹⁾
 - 야외공간과 건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건수 확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시설 검사제 운영,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단절 없는 보행권 확보 단계적 추진, 기존 공원을 노인친화공원으로 리모델링
 - 교통 :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저상버스 확충, 도시철도 역사 내 계단 개선, 노인 교통안전교육 실시
 - 주거 및 주거환경 : 공공실버주택 건립 및 운영,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및 운영, 위기가구 주택상담 및 긴급주거비 지원, 주거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정주환경 개선 주거환경 정비사업, 새뜰마을 조성사업, 고령친화형 주택개량사업 지원
 - 사회참여 : 소외계층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노인대학노인교실 운영 강화, 50+ 생애재설계 대학 운영, 50+ 생애재설계지원센터 설치·운영, 어르신 동아리 활성화 지원, 경로당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존경과 사회적 통합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 맞춤형 실버문화복지 지원, 문화취약계층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부산사랑티켓 운영지원, 슈퍼시니어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선배시민 양성사업, 노인회관 건립·운영, 노인 공경을 위한 효문화 확산,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 교육 실시, 세대융합 프로그램 지원

28) 자료 : 부산복지개발원(2016). 부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실행계획(2016-2018).

29) 밑줄 표시된 사업내용은 실행계획의 신규 사업임.

- 시민참여와 고용 : 50+일자리센터 설치운영, 장년직능클럽 설립 지원,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형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노인 공공형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 어르신 맞춤형 정보화교육 추진, 노인신문 제작보급, 50+부산 포털 운영
- 지역사회 지원과 건강서비스 : 찾아가는 취약계층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찾아가는 어르신 치아 사랑방 운영, 맞춤형 치매 서비스 지원고위험자 발견·등록 및 사례관리 강화, 생명존중 문화 및 자살예방 인식 개선 사업, 지역사회위기 시 신속한 개입을 위한 자살예방인력 양성교육 확대, 노인 예방접종 지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 확대, 독거노인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재가노인지원센터 중심의 지역 내 노인사례관리 강화, 시비지원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이용대상자 확대, 노인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친환경 고속화장로 도입,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관리 인증사업 확대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제고, 고령친화용품 산업화지원기반 구축사업, 고령친화용품 전시·체험·대여, 고령친화용품 전시·체험·대여, 복지재활 시니어 전시회 개최

⑨ 충청남도 논산시³⁰⁾

- 2018년 ‘논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링단과 조성위원회가 구성 등을 통해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함
- 논산시는 ‘친환경적인 기반 조성’,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어르신이 존경받고 더불어 살아가는 논산’을 목표로 8대 영역(안전 및 고령친화시설, 교통편의 환경, 주거 편의 안정성, 지역사회 참여, 사회적 존중 포용, 고령자원 활용 및 일자리 지원, 의사소통 및 정보 제공, 지역복지 및 보건)에서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함

⑩ 전라북도 정읍시³¹⁾

- 정읍시는 2014년 고령친화도 자체평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및 암센터 등과의 협약체결 추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함
- 2016년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고령친화사업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

30) 자료: 논산시청 보도자료(2018.10.02.). 논산시, 고령친화도시 선포식, 시민 모두 행복한 동고동락논산.

31) 자료: 정읍시청 고령친화도시 홈페이지

(http://www.jeongeup.go.kr/index.jeongeup?menuCd=DOM_000000103007005003).

행하고 있으며, 2018년 「생애 맞춤형 도시 Age-friendly City, 정읍」을 비전으로 하는 ‘정읍시 고령친화도시와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을 수립함

- 정읍시의 고령친화도시 4대 목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생동감 있는 사회·경제적 참여 활성화’, ‘공존 위한 존중·소통’, ‘맞춤형 지역지원과 보건복지’로써 50억 원을 투입해 8대 영역에 30개 실행과제 및 8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도시환경 : (공공건물) 보행체계 정비, 예술회관 리프트 설치, 고령자와 장애인 주차시설 공동이용 확대방안 추진, 고령친화시설 인증제 매뉴얼 개발, 공중화장실관리원 배치, 공공화장실 및 공원 사용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교육(캠페인), 공원관리원 배치, 시민자율공원 관리위원회 활동 강화, 공원에 운동기구의 비가림시설 설치, 공원에서 공연활동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 농촌지역 마을단위 분리수거대 설치 및 주민교육 강화, 악취측정기구 구비 및 악취제거 모니터링단 운영,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센터 권역별 추가설치, BM 활성수 보급 강화, 도시지역 고령자 밀집지역에 고령친화 보행자 표지판 설치, 교차로 주의 운전(반사경, Stop 사인) 설치, 고령친화도로(산책로) 정비(코코넛 매트), 도로에 설치된 방지턱 재정비,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 재정비 및 신규 설치
 - 교통 : 카운트 신호등 또는 숫자 신호등 신설, 횡단보도 안전등 설치, 무단횡단 사고다발지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확대설치, 도심 실버존 설치확대 및 농촌 마을 입구에 실버존 표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실시(고령자 집합장소, 종교기관 등), 고령 자전거 이용자 수신호 교육, 대중교통 승강장 현대화(지붕, 대기공간 등), 대중교통(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버스승강장 및 고령자 가정, 시설 등에 시내버스 시간표 부착, 고령자 복지택시 수요요청에 대한 복지택시 증차, 택시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 주거/주택 :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고령자 거주 주택의 안전도 점검, 고령친화주택 개조를 위한 금융지원 사업 도입 및 확대, 노후주택 수리사업을 고령친화 주택으로 유도, 고령화시대 대비 고령친화주택 도입 권유, 공동생활경로당 사업, 경로당 평가제 도입 및 인센티브 제공, 주민 인식 및 건강정보 등 교육의 확대, 주거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개인별 정보지 배포, 주거지원서비스 지원금 단계적 확대, 친고령자 통합지원센터 설립, 고령친화 체험주택
 - 사회참여 : 퇴직 직전 자원봉사교육, 전문분야 수요처 개발, 젊은 세대 고령자 이해, 고령자 젊은 세대 이해 프로그램 개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읍면지역 마을회관에 고령자 취미/교육 강좌 확대, 노인건강식품 등 홍보관 조례제정 검토, 장터 프로그램 운영(장터공연장)
 - 존중/사회통합 : 고령자 시정참여 시스템, 고령자 중심 프로그램 기획 및 실시, 전통문화 및 놀이 경연대회, 부모돌봄 휴가제 실시, 초중고 학교에 고령자 이해 프로그램 개설,

전통놀이 전수 프로그램 개발, 정읍시 고령친화(노인) 헌장 선포, 매스컴에서 아름다운 노년 부각, 후세대를 배려하는 문화 구축, 고령친화예술제

- 시민참여/고용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노인생산물 보호시장 마련, 시장형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발, 고령자 적극채용기업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노인취업지원센터 역할 강화, 고령자 사회적기업 육성, 창업매니저 파견, 평생교육원 교과과정에 고령자 직업전환과정 및 취창업반 개설, 고령친화업체 인증제 확대, 전통시장 내 노점매대 설치 및 운영
- 의사소통/정보제공 : 지역학교와 경로당 연계프로그램(세대이해프로그램) 운영, 사랑방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 운영, 마을회관에 정보재생기 설치, 중요한 정책/정보 지역방송사 자막 서비스 협조, 핸드폰 띄개 돋보기 설치 보급, 실버정보 음부즈맨 프로그램 운용, 3세대 정보기기 선생님 기능교사 봉사
- 지역지원/보건복지 : 치매전문 주간보호센터 설치/증설, 경미치매환자 지역사회 배회 지원 시스템 마련, 경로당 순회 치매예방교육 강화 및 치매코디네이터 양성, 복지사각지대 어르신 발굴 및 지원, 위험군 환자 고령자들의 가정에 약상자 보급설치

⑪ 제주특별자치도³²⁾

- 2011년 '제주지역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를 통해 '제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연구(2015)' 등의 연구를 수행하며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준비를 추진하였음
- 이를 토대로 40개 과제사업에 대해 1,375억 원을 투자하여 2017~2020년에 걸친 실행계획을 수립함. 제주 고령친화도시는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세대, 제주고령친화도시 구현'이라는 비전을 지향하며,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 '활기차고 여유로운 노후', '다함께 건강한 노후'의 3대 추진전략 아래 8개 영역 및 23개 전략과제를 수립함³³⁾

1)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

- 외부환경/건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 추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추진
- 교통 : 버스시설물 운영관리, 자상버스 도입 확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지역 교통안전사업 추진
- 주거 : 실버주택 공급

32) 자료 : 고령친화제주 홈페이지(<http://www.afcjeju.com/index.php>). 제주발전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2016). 제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 연구.

33) 밑줄 표시된 사업내용은 실행계획의 신규 사업임.

2) 활기차고 여유로운 노후

- 사회참여 : 경로당 기능강화 사업,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개발 등 이용 활성화,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를 통한 경제력 확보, 독거노인 사회관계 형성사업, 100세 시대 평생교육 확대, 노인복지관 확충, 농어촌지역 노인복지회관 확충
- 시민참여/고용 : 인생이모작센터 설치 및 운영, 고령자 친화기업 육성, 노인취업교육센터 운영,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생산물 판매 활성화
- 존중/사회통합 :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확대, 노인인권 감수성 척도 개발 및 조사, 세대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고령친화 종합체험관 설치·운영 기초조사, 경로효친사상 함양을 위한 효행장려운동 추진

3) 다함께 건강한 노후

- 지역사회지원/보건 : 취약계층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가족수발자 힐링 프로그램 개발, 치매노인가족 통합 사례관리
- 의사소통/정보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확대 운영, 정보격차 해소 사업(재가노인 인터넷 핸드폰 앱 활용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령친화도시 확산 홍보, 고령친화 제주 홈페이지 운영
- 제주 특성을 살린 사업으로는 ‘고령친화관광 환경 조성’과 ‘5060 자원봉사 해피콜센터 운영’ 사업이 있음
- 고령친화정책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 제주지역 중고령자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와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구성, 민간 추진협의회 및 정책실무협의회 구성 등의 사업이 있음

3. 소결

1) 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대한 시사점

-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가 본격화 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관련한 내용들이 검토되기 시작하는 분위기로 환기되나,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등 앞서 살펴본 현황에 비추어 몇 가지 시사점의 내용을 정리함

- 먼저,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정부가 추진하는 하나의 과제로 자리매김 되어 가기위한 과정 속에서 인천시 또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됨. 정부의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결국 지역 내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개념적 논의가 지역사회에서 선행되어야 함
 - 그리고 정리된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인천시민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면밀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함. 즉 지역 내 어떠한 욕구가 있으며, 현재 갖추고 있는 자원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인지 정리되어야 함. 그래서 부족한 부분과 확대할 부분이 무엇인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임
 - 아마도 지역사회 내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었던 서비스가 있지만 그 내용이 커뮤니티 케어와 연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중복이나 불필요한 예산,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역분석에 대한 점검은 필수적이라 볼 수 있음
 - 다음은 만약 인천시 역시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마쳐진다면,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중심기관 또는 전달체계의 통합 창구의 마련이 필요함. 물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민·관·학 협력체계가 언급될 수 있지만 명확한 조직화의 설정 없이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한계점을 지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구성하는 주요 개념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조직화와 더불어 지역의 이용자와 소통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음
- 위와 같이 몇 가지의 시사점 이외에 추가적인 내용이 더 검토 될 수 있으나, 본 고에서는 커뮤니티 케어만을 다루지 않기에 한계점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에서 제안해 보는 시사점임을 감안하며, 인천의 경우 올해 타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선도사업의 결과와 정부의 진행사항을 모니터링 하여 인천만의 커뮤니티 케어를 설정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2) 국내외 고령사회 대응 관련 사례의 시사점

- 국내 도시 서울, 광주, 부산, 대전, 경기, 충북, 대구, 경기도 총 8개 지역과, 대륙별로 구분하여 유럽 4개국(영국,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아시아 1개국(일본), 북아메리카 2개국(캐나다, 미국), 오세아니아 1개국(호주) 총 8개국의 국외 사례를 살펴봄
- 먼저, 국내 사례들의 경우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형태가 대부분이며, 돌봄, 보건, 의료 분야 등으로 내용이 정리됨. 장기적인 과정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기

보다는 최근에 만들어지거나 사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효과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 항상 단회성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거나, 국비 사업을 통해 진행될 경우, 예산이 지원되지 못해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정착되지 못하고 사장될 가능성을 지닌 채 운영되기 때문에 적어도 중장기적인 예산 지원과 서비스의 관리 및 평가가 실행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놓고 시작되어야 함
- 경쟁적으로 지자체 마다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예산과 국비를 받기 위해 진행되기보다 지역적인 특성과 현황 파악을 통해 중장기적인 서비스가 정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외의 경우 보다 오랜 시간동안 실행과정을 거치면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꾸준한 홍보와 이용을 이끌어 내 개선되는 경험을 습득해 온 것으로 보여 짐. 또한 다양한 콘텐츠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이러한 점은 서비스 정책을 마련하게 될 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됨
- 이런 점에서 실질적인 서비스 정책에 필요한 카테고리에 대해 점검해 본다면, 현재의 노인세대를 중심으로 제공되어야 할 정책, 향후 노인이 될 세대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책,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는 가족이외의 다른 세대가 어울려 질 수 있는 세대 통합형, 지역 내에서 윈스톱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손쉽게 연계될 수 있는 플랫폼형, 소외와 배제가 아니라 참여와 배려가 함께 하는 참여·동행형, 세분화된 지역단위별 자원이 모이고, 직접 찾아가는 방문형, 주택, 주거생활을 비롯해 거리, 교통 등 장애가 없는 안심·안전형, 최소한의 돌봄과 지원으로 생산적인 자립 지원을 위한 서포터형, 직접적인 생활지원 및 신체 수발, 간호 등을 제공하는 돌봄형, 노년기 심리변화 예방, 생애 마무리,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등 정서적 지지를 지원하는 심리·정서형 등 주요한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서비스의 방향성을 구분해 볼 수 있음
- 향후 인천시에서 마련될 서비스의 유형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중장기적인 계획에 근거해 지역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방식을 전제로 구체화해야 할 것임

〈표 V-14〉 국내외 고령사회 대응 사례

구분		내용
국내	서울 도봉구	• 돌봄플랫폼 ‘시니어시터’ MOU
	부산시	•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 16개 보건소 중심, 생애말기 환

구분		내용
보건 및 의료	광주 서구	<p>자 및 가족을 위해 방문(교육, 홍보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 케어) : 다직종 연계시스템 구축
	부산 사상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복따복망(다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안전망) : 주민 주도형 복지안전망
	대전 유성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플러스케어 : ICT 기술 접목(경로당 건강지킴이, 스마트 안부케어 시스템, 사이언스빌리지 실증화 단지 시범마을 운영)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1 네트워크 : 보건, 의료, 복지 전달기관 연계 강화(9개 시립병원) 시민 건강포인트 시스템 : 동네의원 내 치료, 관리 교육 이수 시 포인트 생성 → 추가 건강관리 가능(필수검사, 예방접종) 서울의료원 시민건강 포털 : 건강 관련 사업, 건강정보 제공(상담, 질병, 의약품, 진료기관 정보 등) 든든케어 : 병원 퇴원 직후, 불의의 사고 시 일시적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일상 복귀 지원 서비스(2019. 3월 시행) 데이케어센터 :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제(주야간보호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확대 시행한 제도임) 마을의사가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 : 의사, 약사, 간호사, 임상영양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의료사회복지사 등 건강돌봄팀 구성 후 직접 방문하여 케어함
	경기 고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 협업 커뮤니티 케어 : 고양시 의료기관 25개 기관 업무 협약(닥터헬프사업, 나눔진료, 우리동네 한방 주치의 비예산 복지사업)
	충북 제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소 헤아림과 마중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보건소는 자조모임 지원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동구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 마을 친구를 만들어주는 특화 사업(행복을 만드는 아름다운 동행 : 행복동행)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인대 사회봉사센터 대학 연계형 은퇴자 커뮤니티 : 노인들에게 대학의 전문적인 프로그램, 축제, 체육대회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및 시설 개방, 노인과 대학생 1:1 매칭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손자손녀방문프로그램, 안점점검 및 안전교육 활동, 노인과 함께 하는 동아리 활동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시 재가노인 119 : 재가노인 주택환경 및 안전사고 위험 실태 조사를 통해 안전물품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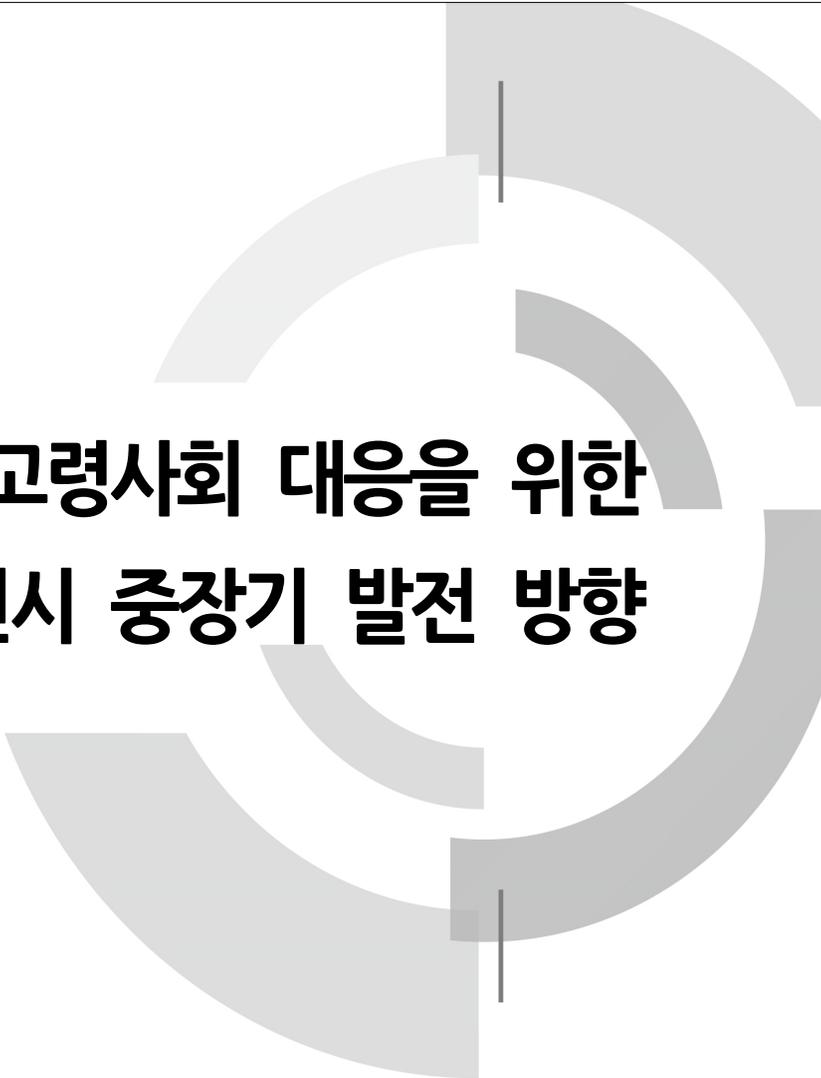
구분		내용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식물 보급사업 : 원예치료사, 자치구 생활관리사와 동행 및 방문하여 관리 방법 안내, 유선으로 수시 관리 확인(저소득층 독거노인)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티머니복지재단이 함께 충전교통카드 제공 강동구 노인 여가 썸지놀이터 : 2016년부터 시작, 여가 시설 이용이 어려운 노인대상, 야외 여가공간에서 프로그램 제공
		대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뮤니티 케어 스튜디오 프로젝트 : 대학교수, 학생들의 전공과 지식을 기반으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 및 실행하는 사업
국외	유럽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케어서비스 : 가사원조 서비스, 신체수발 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 : 입원까지는 아니지만 간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노인 대상, 가정간호사의 의료조치와 간호 제공(순회보건서비스, 가사보조서비스, 야간간병서비스) 나이들을 바꾸다 프로젝트 : 질병예방 및 고령자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체계를 공고히 함, 기억은 중요하다 프로젝트(기억카페 생성, 애플리케이션 개발) 주택개량에이전시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의 주거 공간 정비 및 유지 지원 서비스 노인 인터넷 이용 활성화 정책 : 노인들이 인터넷을 쉽고 친밀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함. BBC 퍼스트클릭 교육, 노인 인터넷 이용자의 날 지정하여 성과 기념 캐서롤클럽 : 2011년 시작, 가정에서 만든 요리를 주변에 사는 노인과 나누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을 이어주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젝트 실버라인 : 2015년 시작, 노인대상,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무료 전화 서비스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헬프 : 2011년 시작, 거주공간에서 청소, 쇼핑, 요리, 시설 개조, 의료, 식사, 말동무 등의 서비스 제공 노인대상 음식 서비스 : 65세 이상 노인 대상, 반조리식품 배달 서비스 제공, 시청 특수주간돌봄센터를 통해 공동 식사 제공, 노인 스스로 요리할 수 있도록 지원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보호주택 : 고령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택, 긴급시 통보 시스템 중 한 가지 조건이라도 충족되어 있는 주택, 80세 내외 노인 입주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혜베이크 마을 : 2009년 완공, 치매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형태(2014년 개원한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서울요양원과 유사)
	아시아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포괄케어시스템 : 지역사회 역할 담당, 간병예방, 일상생활 지원 종합사업 진행(노인, 지역 주민 대상) 치매노인 도우미(인지증 서포터) : 서포터를 양성하여 치매노인 도우미로 참여시키는 제도 주택 배리어프리화 : 주택 안정망 구축과 배리어프리 시

구분		내용	
북아메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 추진 실버인재센터 : 60세 이상, 연회비 회원 가입, 일자리 연계 사업 요양원 내 반려동물 입주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를 원하는 노인을 위한 특별 거주 공간 마련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개발정책 : 노인을 위한 취업지원, 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 사업, 52주에서 최대 3년까지 지속 지원 가능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액션프로그램 : 고령자의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노인지역서비스고용프로그램(타이틀 브이) : 고용기회가 없거나 무직상태의 노인에게 파트타임 기술 훈련 기회 제공 가족 돌봄제공자 지원 프로그램 : 노인돌봄 제공자에게 돌봄 관련 서비스 정보, 상담 및 훈련, 일시적 교대 돌봄 등을 제공
오세아니아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케어서비스 : 노인이 거주 공간에서 간호, 식사, 사회적 활동, 가사, 간단한 수리, 이동 등의 돌봄을 제공받는 서비스 전환돌봄프로그램 : 입원 경험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시간제한적, 목적지향적, 치료 위주의 서비스 패키지 제공

3)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모든 도시와 지역사회가 점차 고령친화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 고령친화도시가 공유하는 중점적인 가치들을 살펴보면, 고령자의 다양성 존중, 불평등의 해소, 고령자의 참여와 기여를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권리의 존중임. 이와 같은 가치들은 노인 대상 정책과 서비스를 설계할 때 검토되어야 하며, 보편적인 사회 제도나 정책에도 특별히 노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있다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환기함
- 고령친화적인 도시와 지역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원칙을 살펴보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구성과 협업, 시민주도의 상향식 참여방식과 정부주도 방식의 결합, 전생애적 접근임. 따라서 정책사업의 수요파악 단계에서부터 계획 수립, 시행, 검토와 평가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정책 대상인 노인이 정책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들이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는 실행계획 및 평가보고서 등의 결과물 및 구성 지침과 사례를 다른 회원들과 원활하게 공유하는 것과 네트워크 홈페이지의 회원 프로필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하는 것임. 이를 통해 다른 네트워크 회원도시의 고령친화적인 활동을 서로 장려하고 관련 행정가 및 전문가들에게 선순환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전세계 총 760개의 지역사회 및 도시가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19년 5월 기준 11곳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음. 인천시는 아직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준비를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고령친화적인 도시를 위한 시 주도의 움직임은 시작되었다고 생각됨. 먼저 네트워크에 가입한 다른 지자체들도 각 지자체마다 시의적절한 과제로서 내부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음. 또한 네트워크 가입의 회원증은 고령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고령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므로 네트워크 가입은 지자체의 선택사항임
- 분명한 점은 고령친화도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착수 단계에 정치공약 실천 성격의 하향식 주도 방식이 필요하며, 즉, 리더와 행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임. 실제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해서는 대표자의 서신과 같은 요소가 필수적으로 포함됨. 따라서 인천시의 고령사회 대응 중장기 계획 수행과 함께 적절한 시점에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통해 정책 추진력을 갖도록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VI.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천시 중장기 발전 방향

1.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 정책 계획 수립의 방향
2.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
3.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VI.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천시 중장기 발전 방향

1.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 정책 계획 수립의 방향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정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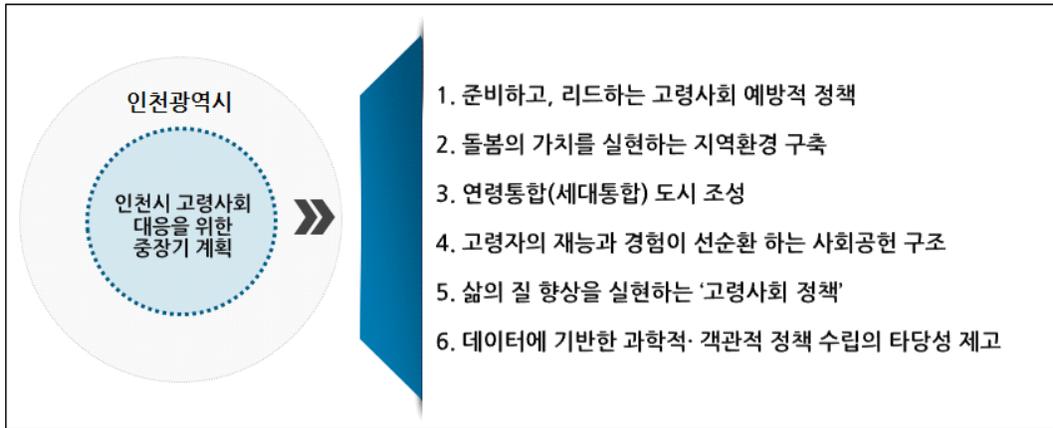
1) 거시적 관점의 수립방향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인천시 고령사회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은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반영하여 수립방향을 제시함
- 첫째, 준비하고, 리드하는 고령사회 대안 마련 : 다가올 노년기에 대한 막연함과 준비 없이 노인이 되는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사회적 부담을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의 노인뿐만 아니라 예비노인세대를 포함하는 정책적 지원 체계 구축을 의미함
 - 경험해 보지 못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가지게 되는 사회적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새로운 도전과 시도가 가능한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지속적인 탐색과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집중할 시점임
- 둘째, 돌봄의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환경 구축 : 고령인구의 증가는 개인 및 사회적 돌봄에 대한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확대 및 전문 인력 등의 양적 증가를 예상케 하므로 이러한 양적인 증가가 질적 성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준비 또한 필요함

- 궁극적으로 지역 내 다양한 돌봄 환경을 조성해 생애 마지막까지 안심하고, 안전하게, 그래서 편안할 수 있는 돌봄의 가치를 설정해 바른 돌봄이 함께 하는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지역 환경을 새롭게 디자인 해 나갈 수 있어야 함
- 셋째, 연령통합(세대통합) 도시 조성 : 고령인구 수는 증가하는데 반해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세대의 인구수가 감소함에 따라 세대 간 갈등의 발생 요소가 증가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사회복지 정책이 고령인구에 편중되는 문제 혹은 제한적인 경제활동 영역을 공유하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로 들 수 있음. 따라서 기존 국내외 다양한 도시들이 시도하고 있는 ‘고령친화도시’가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를 배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인천시는 ‘고령친화’에 대한 개념을 고령자와 더불어 모든 세대를 수용하는 용어로 확대 접근해 볼 수 있음
 - 즉 ‘고령친화’를 ‘연령통합(세대통합)’으로 대체해 접근한다면 인천시 환경을 시민의 연령, 성별, 장애 유무 등과 상관없이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생애주기 단계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에 편한 도시’를 조성한다는 관점으로 고령사회를 준비해나갈 수 있을 것임
- 넷째, 고령자의 재능과 경험이 선순환 하는 사회공헌 구조 :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고령자들이 사회적 관계와 소속감을 지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가 유지되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특히, 사회적 관계와 소속감은 고령자들의 건강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이들이 소유한 재능과 경험이 지역사회 내에서 생산적인 형태로 선순환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삶을 앞서 살아낸 ‘선배 시민’으로서 또는 ‘인생의 멘토’로서 습득된 경험과 지식, 기술의 일부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와 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의 시스템을 갖춰야 함
- 다섯째,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고령사회 정책’ :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는 ‘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의미는 연령과 특정 노인세대로 한정하지 않음. 태어나 누구나 나이 들을 경험하면서 생애주기 단계에서 겪게 될 과업이 잘 수행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정부 정책의 기초 역시 이분법적인 저출산과 고령화에 각기 대응하기보다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두고 관계성을 조합해 나가는 방향을 설정했듯, 인천시도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도시’를 만드는데 근간을 이루는 정책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함
 - 인천시민의 행복과 새로운 도약을 기획하는 인천시정 전반에 장기적인 정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 및 정책 입안자, 정책집행 실무자 모두 인지되어야 함

- 여섯째, 데이터에 기반 한 과학적·객관적 정책 수립의 타당성 제고 : 지역 환경의 특성, 시민의 욕구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데이터를 생산하고 관리함으로써 근거에 의한 정책수립의 타당성 향상과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그림 VI-1]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거시적 관점의 방향



2) 미시적 관점의 수립방향

- 향후 5년간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요구되는 관점 중 거시적 관점의 방향성을 살펴본 것에 이어 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담은 미시적 관점의 수립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인천시 민선7기 시정 및 매니페스토(Manifesto) 내용에 대한 검토로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요인을 탐색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둘째,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과 2017년 보고된 인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 계획(2018~2022)의 내용을 토대로 중장기 계획의 구체화가 이루어져야 함
- 셋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인천시정에 필요한 고령사회 대응 정책은 단편적인 추진이 아니라 지속되고, 정책현장에 체감되는 정책이 조성되기 위해 무엇보다 인천시 행정과 공동으로 협력하고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의 관계를 갖춰야 함. 실행 가능한 정책 전략 수립을 위한 의견과 기획되는 사업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협력구조를 견고히 함
- 넷째, 정책 수립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부분은 설계된 정책이 실현되는 대상과 내용,

방식, 예산, 자원 등 다양한 요소의 결합들로 이루어짐. 때로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구조로 어느 한 부분만을 임의대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없기 때문에 수립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 시민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논의되고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함

- 즉 연구의 계획 단계부터 종결과정에 이르는 과정별 보고회와 자문회의, 간담회, 포럼 등의 방식으로 의견 수렴의 기회를 조성해 최종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력함

[그림 VI-2]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미시적 관점의 방향



3) 계획 수립의 구조와 특징

(1) 중장기 계획의 구조

- 고령사회 분야 중장기 계획의 구조는 인천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근거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추진 전략에 해당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함
 - 추진 전략의 정책과제는 모두 6개 영역 대과제로 1영역 ‘노후 소득보장 강화’, 2영역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3영역 ‘평등한 사회활동 참여 증진’, 4영역 ‘통합 돌봄의 강화’, 5영역 ‘생애마무리’, 6영역 ‘고령친화 사회환경 기반 조성’으로 구성됨
 - 대과제를 보다 세분화하여 구성한 중과제는 모두 16개 과제로 1영역(노후 소득설계,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활동 기반 조성, 스마트 Job지원) 3과제, 2영역(고령사회 서비스 제공 강화, 노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교육 강화) 2과제, 3영역(고용 기회 및 현장에서의 참여 제고, 고령자 문화·복지 서비스 다각화, 소외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노인여가복지 서비스 인프라 확충) 3과제, 4영역(치매예방 및 관리 강화,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 인프라 확대, 건강 및 공공의료지원 기능 강화, 고령자 권익 증진 및 인권보호 지원) 4과제, 5영역(지역사회 장사문화 조성 관리, 편안한 삶의 마지막을 위한 문화환경 조성) 2과제, 6영역(안전과 편리성이 보장되는 교통환경 개선, 고령사회 정책 역량 강화 및 추진 기반 정비) 2과제 임

- 소과제는 모두 36개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인천시 담당부서(노인정책과)와 논의를 거쳐 마련됨

〈표 VI-1〉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구조

구분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
기간	2019 ~ 2023년
과제 구성	대과제 : 6개 영역 대과제, 16개 중과제, 36개 소과제
추진기관	인천시 10개 군구

(2) 중장기 계획의 특징

- 제1차 고령사회 분야 중장기 계획은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인천시 기본계획을 통해 고령자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 해당하는 모든 세대가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반영함
 - 정부의 4차 기본계획 시 반영될 방향에 따라 노후의 삶이 기본적으로 안정화 될 수 있기 위한 소득 보장과 노년기를 맞이하기 이전부터 준비할 수 있는 과제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 적극적 조치를 위한 예방 및 관리차원의 건강과 의료지원, 생애말기를 편안하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기 위한 돌봄과 생애마무리, 그리고 인천시가 나아가야 할 고령친화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과제를 6개 분야로 분류하여 제안함
- 인천시 민선7기에 계획된 공약 중 고령사회 대응과 관련한 정책을 중장기 계획에 포함하여 공약실천 이행률을 높이며, 그로 인해 시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추진의 방향성을 담았으며, 지자체의 책무가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반영함
 - 따라서 지자체 관련 부서에서 제안한 내용은 총 4가지로 돌봄, 여가, 일자리, 주택 분야임. 먼저, 돌봄분야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이 반영될 것과 여가분야는 경로당 활성화와 권역별 노인복지시설 확충, 일자리 분야는 지역 특성에 맞는 좋은 일자리

발굴과 소득 증대를 위해 산업단지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며, 퇴직자 또는 예정자의 동종 근무 일자리 발굴 등, 마지막으로 주택분야는 공공임대 주택과 의료 연계 방문 서비스 등으로 연계되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일정 부분 반영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요청함

(3) 정부와 인천시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비교

- 정부와 인천시의 기본계획 내용 중 고령사회 분야와 관련한 내용만을 발췌하여 <표 VI-2>에 제시함
- 정부에서 수립한 제3차 기본계획 범위를 고려함과 동시에 인천시 정책환경의 특성과 추진 가치를 반영해 제1차 인천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2017년 에 수립함
- 정부 차원의 목표는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위한 것이며, 인천은 안정적인 삶을 기초로 증가하는 고령인구가 사회적으로 친화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지님. 양쪽 모두 현재 보다 고령사회가 가깝고, 대비해야 할 과업임을 드러냄
- 추진 전략은 다소 큰 차이를 보임. 정부는 연금을 통한 소득보장과, 건강 관리와 사회참여 확대, 여성고용 활성화 뿐 아니라 중고령자의 근로 기반을 형성해 나가는 것, 그리고 고령친화사업 육성 등으로 성장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사회를 만드는데 주력함. 인천시는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대상을 폭넓게 하며, 이질적인 형태가 아니라 생활에 근접하고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둠
- 실행기반은 정부차원과 인천시의 차원이 규모면에서 차이는 있겠으나, 여전히 실질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관점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표 VI-2> 정부와 인천시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비교(고령사회 분야)

구분	정부 제3차 기본계획: 브릿지 플랜 2020	인천시 제1차 기본계획: 다 함께 플랜
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도시, 인천
목표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노년

구분	정부 제3차 기본계획: 브릿지 플랜 2020	인천시 제1차 기본계획: 다 함께 플랜 고령친화적 사회분위기 환경 조성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 소득보장 강화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고령친화경계로의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 대책의 대상 확대 품위 있는 노년을 위한 노인 기본생활 안정화, 고령친화 환경 조성
실행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지역-정부 협력으로 전사회적 대응체계 강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문화개선 대대적 확산 지속적인 실행력 확보를 위한 추진 인프라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정책과의 기능 강화 고령화 대책 기금 조성 지역 고령자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정기 조사 실시 고령화 대책 홍보 강화 및 체계화

2.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

1) 비전과 목표

- 향후 5년간(2019~2023년) 인천시 ‘고령사회 분야’ 중장기 계획 수립의 프레임을 설정하는데 있어, 배경을 이루는 정부와 인천시의 기본계획 핵심 주제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할 공통 주제를 도출함

〈표 VI-3〉 정부 및 인천시 기본계획 핵심 주제

구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정책로드맵	인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2018~2022)
핵심주제	소득보장 신중년 지원 사회참여 건강과 돌봄 환경 노년기 기반	소득 준비 참여 건강 마무리	소득보장 건강 및 의료 사회활동 돌봄
공동주제	소득, 노후준비, 사회활동 참여, 건강·의료/ 돌봄, 생애마무리		

- 위 표에서 제시한 핵심주제의 공통점을 최대한 반영하며, 특히 정책로드맵에서 정리된 핵심주제는 다음 4차 기본계획 수립에도 반영될 예정임으로 더욱 참고하여 인천시의 기본계획과 맞춰 도출한 핵심주제는 노후소득, 노후준비, 사회활동 참여, 돌봄, 생애마 무리로 총 5가지 영역을 제시함
- 이에,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 ~ 2023)의 비전과 목표는 다음 표와 같음
 - ‘더 나은 고령사회 도시를 여는 인천’의 비전은 현재 인천시의 모습을 정확히 점검하고 성장 가능성과 새로운 면모를 갖출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발전해 나가기 위한 가치를 담아 냄
 - 비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살고 싶고 다양한 욕구가 실현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에 대한 목표를 우선순위에 둠
 - 이와 같은 비전과 목표의 실현을 위해 인천시가 갖춰야 할 사회적 기반은 고령인구가 함께하는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기초를 다지며, 이를 통해 노후의 삶을 편안하게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춘 시민으로 역량이 강화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감

〈표 VI-4〉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 ~ 2023)의 비전과 목표 전략

비전	더 나은 고령사회를 여는 인천	
목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고령사회	
추진기반	1.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환경 조성 2. 노후의 삶을 편안하게 디자인하는 지역사회 기반 조성	
추진전략 정책과제	대과제	중과제
	1. 노후 소득보장 강화	1-1. 노후 소득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노후 준비를 위한 재무설계 교육 활성화 ② 시니어 직업훈련 교육의 다양화 추진 1-2.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활동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노인일자리 신규 발굴 및 수행기관 확충 ② 공익형 노인일자리 급여 수준 증진 ③ 지역사회 일자리 사업을 위한 인력풀 구축 및 연계 강화 ④ 취약계층의 안전한 소득활동 지원 보장 강화

	<p>1-3. 스마트 Job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장년과 청년세대가 함께하는 세대통합형 창업 지원 ② 어르신이 행복한 노인일자리 개발 체계 강화
<p>2.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p>	<p>2-1. 고령사회 서비스 제공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 중심의 원스톱 통합 정보 플랫폼 기반 구축 ② 고령사회 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 확산 <p>2-2. 노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교육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양한 연령 및 분야별 생애설계 교육 확산 ② 노년기 교육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
<p>3.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p>	<p>3-1. 고용 기회 및 현장에서의 참여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기반 노인적합일자리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 <p>3-2. 고령자 문화·복지 서비스 다각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천효드림복지카드 도입 <p>3-3. 소외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균형적인 권역별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의 다변화 ② 액티브 경로당 활성화 추진 ③ 지역사회 개방형 경로당 모형 조성
<p>4. 통합 돌봄의 강화</p>	<p>4-1. 치매예방 및 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활밀착형 치매지원 기관 확대 ②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도입 <p>4-2.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 인프라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노인요양시설의 확대 및 기능 보강 ② 사물인터넷을 통한 안심안부 서비스 확대 ③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네트워크 활동 강화 <p>4-3. 건강 및 공공 의료지원 기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기요양노인을 위한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대 <p>4-4. 고령자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노인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활동 확산
<p>5. 생애마무리 지원 강화</p>	<p>5-1. 지역사회 장사문화 조성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사시설 수급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②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 ③ 봉안당 건립 및 안치단 설치 추진 <p>5-2. 편안한 삶의 마지막을 위한 문화환경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준비 교육 확산

6. 고령친화환경 기반 조성	<p>6-1. 안전과 편리성이 보장되는 교통환경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누구나 승하차가 쉬운 저상버스 도입 확대 ②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추진 ③ 노인 교통안전교육 실시 ④ 고령운전자 스티커(실버마크) 부착 확산 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인센티브 개발 <p>6-2. 고령사회 정책 역량 강화 및 추진 기반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추진체계 구축 ② 노인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 ③ 노인정책모니터링단 운영 및 의견수렴 촉진
-----------------------	--

3.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 1영역 : 노후 소득보장 강화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1. 노후 소득보장 강화	1-1. 노후 소득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노후 준비를 위한 재무설계 교육 활성화 ② 시니어 직업훈련 교육의 다양화 추진
	1-2.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활동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노인일자리 신규 발굴 및 수행기관 확충 ② 공익형 노인일자리 급여 수준 증진 ③ 지역사회 일자리 사업을 위한 인력풀 구축 및 연계 강화 ④ 취약계층의 안전한 소득활동 지원 보장 강화
	1-3. 스마트 Job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장년과 청년세대가 함께 하는 세대통합형 창업 지원 ② 어르신이 행복한 노인일자리 개발 체계 강화

○ 2영역 :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2.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2-1. 고령사회 서비스 제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 중심의 원스톱 통합 정보 플랫폼 기반 구축 ② 고령사회 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 확산
	2-2. 노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양한 연령 및 분야별 생애설계 교육 확산 ② 노년기 교육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

○ 3영역 :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3.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3-1. 고용 기회 및 현장에서의 참여 제고	① 지역기반 노인적합일자리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
	3-2. 고령자 문화·복지 서비스 다각화	① 인천효드림복지카드 도입
	3-3. 소외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① 균형적인 권역별 노인여가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의 다변화 ② 액티브 경로당 활성화 추진 ③ 지역사회 개방형 경로당 모형 조성

○ 4영역 : 통합 돌봄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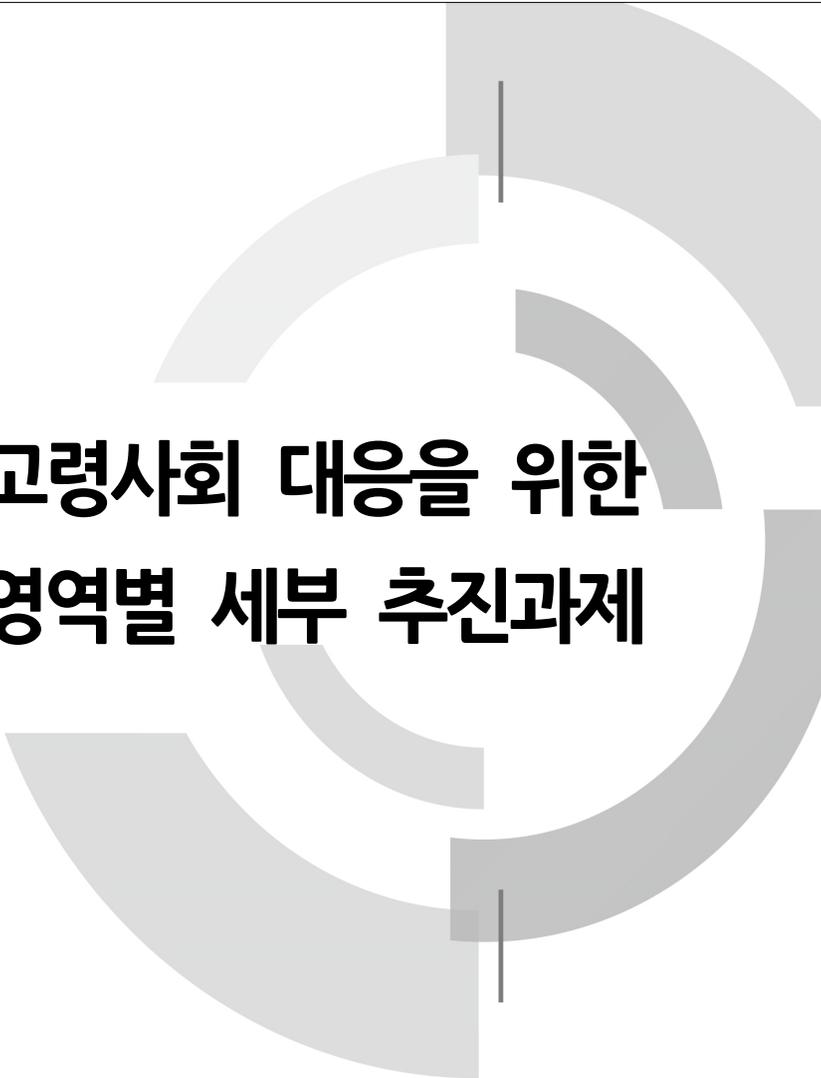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4. 통합 돌봄의 강화	4-1. 치매예방 및 관리 강화	① 생활밀착형 치매지원 기관 확대 ②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도입
	4-2.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 인프라 확대	① 노인요양시설의 확대 및 기능 보강 ② 사물인터넷을 통한 안심안부 서비스 확대 ③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네트워크 활동 강화
	4-3. 건강 및 공공 의료지원 기능 강화	① 장기요양노인을 위한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대
	4-4. 고령자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지원	① 노인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활동 확산

○ 5영역 : 생애마무리 지원 강화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5. 생애마무리 지원 강화	5-1. 지역사회 장사문화 조성 관리	① 장사시설 수급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②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 ③ 봉안당 건립 및 안치단 설치 추진
	5-2. 편안한 삶의 마지막을 위한 문화환경 조성	①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준비 교육 확산

○ 6영역 : 고령친화 사회환경 기반 조성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6. 고령친화 사회환경 기반 조성	6-1. 안전과 편리성이 보장되는 교통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누구나 승하차가 쉬운 저상버스 도입 확대 ②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추진 ③ 노인 교통안전교육 실시 ④ 고령운전자 스티커(실버마크) 부착 확산 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인센티브 개발
	6-2. 고령사회 정책 역량 강화 및 추진 기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WHO 고령친화 국제네트워크 가입 추진체계 구축 ② 노인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 ③ 노인정책모니터링단 운영 및 의견수렴 촉진



VII.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영역별 세부 추진과제

1. 노후 소득보장 강화
2.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3.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4. 통합 돌봄의 강화
5. 생애마무리 지원 강화
6. 고령친화환경 기반 조성

Ⅶ.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영역별 세부 추진과제

1. 노후 소득보장 강화

1.	노후 소득보장 강화
1-1.	노후 소득설계
1-1-①	노후 준비를 위한 재무설계 교육 활성화

□ 현황 및 진단

- 2017년 인천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결과 정책과제로 제안 된 ‘인천시민과 함께 알아가는 노후소득 설계’ 구체화
- 2017년 12월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생애주기단계별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더욱 전문화된 형태로 재무설계 교육 및 상담 운영 강화 필요

□ 목적

- 안정적인 노후생활 설계를 위한 전문적인 재무설계 교육 및 상담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사업대상
 - 인천시 거주 예비노인 및 65세 이상 노인
- 사업내용
 -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재무설계 교육과 상담 제공

□ 기대효과

- 향후 노년기 노후소득 설계에 대한 방향성 제시

□ 추진계획

- 생애주기단계 및 연령대별 재무 설계 교육(상·하반기) 및 상담(연중) 실시
- 생애주기단계 및 연령대별 노후 준비를 위한 재무설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단위 : 회, 백만원)

구분	계	2019	연도별 예산 계획				
			2020	2021	2022	2023	
사업목표 (교육 횟수)	10/1,260	2/360	2/300	2/300	2/300	2/300	
사업비	계	51	15	9	9	9	9
	국 비	-	-	-	-	-	-
	시 비	51	15	9	9	9	9
	군·구비	-	-	-	-	-	-

1.	노후 소득보장 강화
1-1.	노후 소득설계
1-1-②	시니어 직업훈련 교육의 다양화 추진

□ 현황 및 진단

-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년기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취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서울시의 경우 2004년 서울노인복지센터 내 서울어르신 취업훈련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음

교육과정	내 용
내일행복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설계 아카데미: 취업설계 아카데미 과정 • 창의 직업 아카데미: 도슨트 과정, 영상제작 과정, 문화재해설사 과정, 소품공예 과정 • 사회공헌 아카데미: 들꽃가드닝 과정, 도시정원수재배교육 과정, 강사양성 교육 과정 • 직업전문 아카데미: 바리스타 과정, 설문조사원 과정, 광고모델 과정 • 창업 아카데미: 소자본 창업과정, 협동조합 과정
시니어직업능력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준비 교육 • 직종교육: 경비주차교육, 배달원 교육, 환경관리교육, 산모도우미 교육, 디쉬업&캐셔교육, 주유원 교육 • 맞춤형 교육: 채용기업, 공공단체 맞춤형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맞춤형교육: 공공영역 일자리 직무교육

- 인천의 경우 시군구에서 운영되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훈련 교육이 운영되고 있으나, 기존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 참여자, 수행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추진되고 있어 보다 폭넓은 대상과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직업훈련 제공이 필요함

□ 목적

- 맞춤형 직업훈련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노년기 생산적이고 자발적인 소득 창출 기회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 사업대상
 - 인천시 거주 예비노인 및 65세 이상 노인

- 인천관내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 사업내용

- 교육 대상자별, 직업 유형별, 개별 경륜 정도별 다양한 분류에 따른 특화된 시니어 직업훈련 교육과정 제공
- 노인인력개발센터 내 교육의 다변화 추진
- 인천시 관내 시니어 전문 교육 기관 선정 및 육성 지원 : ex) 노인인력개발센터, 평생교육원,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여성의 광장, 여성복지관, 여성가족재단 등

□ 기대효과

- 시니어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노후 소득 창출 기회 확대
- 기존 노인인력개발센터의 기능개편 및 예방적 차원의 역할 강화 확산
- 인천 관내 시니어 직업훈련 교육 제공 기관 선정 및 육성 확대

□ 추진계획

- 시니어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 기관 선정(군·구별, 기존 시니어 교육기관 등)
- 시니어 직업교육 과정 운영(연중 2회, 상·하반기)

(단위 : 회, 백만원)

구분	계	2019	연도별 예산 계획				
			2020	2021	2022	2023	
사업목표 (교육과정 운영, 회)	8	-	2	2	2	2	
사업비	계	400	-	100	100	100	100
	국 비	-	-	-	-	-	-
	시 비	200	-	50	50	50	50
	군·구비	200	-	50	50	50	50

1.	노후 소득보장 강화
1-2.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활동 기반 조성
1-2-①	노인일자리 신규 발굴 및 수행기관 확충

□ 현황 및 진단

- 인천지역 내 고령자 고용창출을 확산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역 내 일자리 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선결되어야 함
- 수요가 있는 일자리의 형태는 어떠하며, 고령자에게 적합한지 등을 분석해 노인일자리 관련 기관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미스매칭을 최소화함
- 고령인구의 증가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거주지 근접지에서 손쉽게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을 확대하여 서비스 제공 강화

□ 목적

- 지역 내 고령자 고용촉진으로 노후생활의 안정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사업대상
 - 인천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
- 사업내용
 -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환경 현황 조사(수요처, 대상자 실태 및 욕구 등)
 - 고령친화 일자리 관련 시민참여 제안
 - 지역 내 고령자 고용 증대를 위한 홍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수행기관 확대
 - ex)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사회적 경제 조직 및 단체, 평생교육원, 노인대학, 직업전문학교, 대학(평생교육원), 보건복지부 공모 60+센터 등

□ 기대효과

- 인천시 거주 노인의 고용촉진 환경 개선 및 확대
- 노인의 자생적인 경제활동으로 삶의 질 개선

□ 추진계획

- 격년 단위 인천시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 실시
 - 서비스 대상층 수요조사, 노인일자리 사업 분석, 기업(관)의 고령자 고용 현황 분석 등
 - 일자리 개발 : 경륜전수형, 시장형, 공익형 등
- 기업 대상 고령자 고용에 대한 수요 확산 홍보(연중)
- 노인일자리 공모사업 연계 등을 통한 수행기관 확대

(단위 : 건, 개, 백만원)

구분	계	2019	연도별 예산 계획				
			2020	2021	2022	2023	
사업목표(조사, 건)	1	-	-	1	-	-	
사업목표(기관 수, 개)	25	5	5	5	5	5	
사업비	계	630	120	120	150	120	120
	국비	0	-	-	-	-	-
	시비	630	120	120	150	120	120
	군·구비	0	-	-	-	-	-

1.	노후 소득보장 강화
1-2.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활동 기반 조성
1-2-②	공익형 노인일자리 급여 수준 증진

□ 현황 및 진단

- 노인일자리 중 공익형 활동에 해당하는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제공되는 급여 수준이 낮음
 - 2004년 20만원 → 2017년 상반기 21만원 → 2017년 하반기 27만원
- 급여에 대한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시켜 지역사회 내 고령자의 역량이 환원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조성해 나감

□ 목적

- 현실적으로 부족한 27만원 급여 수준을 2022년까지 40만원으로 상향시켜 일정 부분 노후생활의 소득보장 기회 방안 마련
- 지역 내 고령자의 사회 참여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 사업대상
 - 인천시 거주 60세 이상 특화사업 참여자
- 사업내용
 - 공익형 활동 및 급여 지원을 위한 적용 기준 마련
 - : 유형, 내용의 난이도, 단계적 지원 규모 기준 설정 등
 - 연간 급여 기준 및 사업계획안 마련

□ 기대효과

- 공익형 일자리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참여 증진 확대
- 낮은 노동 강도와 부담으로 생활의 활력 및 건강 증진에 기여
- 노후 생활안정화에 기여

□ 추진계획

- 지역사회 공익형 활동 대상 및 내용 검토
- 연간 급여 지급 기준안 마련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2019	연도별 예산 계획				
			2020	2021	2022	2023	
사업목표 (참여자 수, 명)	800	-	200	200	200	200	
사업비	계	3,716	-	929	929	929	929
	국 비	1,260	-	315	315	315	315
	시 비	1,228	-	307	307	307	307
	군·구비	1,228	-	307	307	307	307

1.	노후 소득보장 강화
1-2.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활동 기반 조성
1-2-㉔	지역사회 일자리 사업을 위한 인력풀 구축 및 연계 강화

□ 현황 및 진단

-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기존 인천어르신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 예비노인세대까지 포함 및 활동내용의 확대
 - 지역사회의 필요와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의 능력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인력풀과 역할의 매칭 필요
 - 현재 한자 교육, 한국어 교육, 예절·전통교육 등 어린이,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분야로만 한정되어 있는 활동분야를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 필요

□ 목적

- 각각의 시민들이 가진 능력으로 노년기에도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 주체적인 시민으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끔 명확한 역할 부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2023년
- 사업대상
 - 인천시 거주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 사업내용
 - [인력 관리] 경력, 분야별 인력풀 구축
 - [수요처 관리] 예비노인 및 노인 대상 고용 희망 기업(관) 정보처플 구축
 - [소양교육 및 사후관리] 소양교육 및 현장 모니터링, 피드백
 - [활동내용] (기존) 한자 교육, 한국어 교육, 예절·전통교육, 기타 문화교육 등
 - ➔ (변경) 한자 교육, 한국어 교육, 예절·전통교육, 기타 문화교육, 직무 및 기술교육 등

□ 기대효과

- 노년기에도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 능동적 주체 시민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

□ 추진계획

- 2019년까지는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대상의 사업 운영 및 추가적인 활동영역 개발
- 2020년부터 만60세 이상의 예비노인세대까지 대상 확대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2019	연도별 예산 계획			
			2020	2021	2022	2023
사업목표(명)	10,800	1,300	1,300	2,000	2,700	3,500
사업비	계	-	-	-	-	-
	국 비	-	-	-	-	-
	시 비	350	50	50	65	85
	군구비	-	-	-	-	-

1.	노후 소득보장 강화
1-2.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활동 기반 조성
1-2-④	취약계층의 안전한 소득활동 지원 보장 강화

□ 현황 및 진단

- 생계를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과 개인보호 장구 및 장비 지원 확대 필요

□ 목적

-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사업대상
 - 10개 군구 2,139명(노인 1,899명, 장애인 240명)
- 사업내용
 - 대상자 선정 : 폐기물 수집업체를 통한 선정
 - 지원 물품 구입 및 지급 : 군·구별 자율 선정 후 지급
 - 지원내용 : 안전보호 장구 및 물품 지원
 - 방한용품 : 방한복 베스트, 장갑, 양말, 넥워머, 귀마개, 핫팩 등
 - 야간 보호품 : 야광 반사테이프 등
 - 폭염 : 쿨토시, 망사 베스트, 모자 등
 - 지급시기 : 하절기(5월), 동절기(10월)

□ 기대효과

-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활동 시 안전 확보

□ 추진계획

-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계획 수립(연 2회)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9	연도별 예산 계획			
			2020	2021	2022	2023
사업목표(명)	10,699	2,139	2,140	2,140	2,140	2,140
사업비	계	500	100	100	100	100
	국 비	-	-	-	-	-
	시 비	500	100	100	100	100
	군·구비	-	-	-	-	-

1.	노후 소득보장 강화
1-3.	스마트 Job 지원
1-3-①	중장년과 청년세대가 함께 하는 세대통합형 창업 지원

□ 현황 및 진단

-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지원 사업 활성화
 - 사업장소 :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7층 711호(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 사업규모 : 21개 좌석(지정석 20, 자유석 1)
 - 사업비 : 194백만원(국비 150, 시비30, 자부담 14)
 - 수행기관 : (사)인천벤처기업협회

□ 목적

- 만 40세 이상의 창업자를 위한 창업 공간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창업 활성화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사업대상
 - 인천시 거주 중장년 만 40세 이상의 예비 창업자
- 사업내용
 -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하여 창업교육, 사무 공간, 경영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 기대효과

- 중장년 기술창업 기업의 확산 및 창업 활성화

□ 추진계획

- 실전창업과정 교육
 - 기술사업화에 대한 기본 개념의 이해
 - 아이디어 검증, 비즈니스모델 점검 및 수익모델 체계화
 - 체계적인 사업계획서 작성을 통한 창업 준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9	연도별 예산 계획			
			2020	2021	2022	2023
사업목표(명)	125	25	25	25	25	25
사업비	계	970	194	194	194	194
	국 비	750	150	150	150	150
	시 비	150	30	30	30	30
	자부담	70	14	14	14	14

1.	노후 소득보장 강화
1-3.	스마트 Job 지원
1-3-②	어르신이 행복한 노인일자리 개발 체계 강화

□ 현황 및 진단

- 고령자 특성을 이해하고 적합한 일자리에 대해 기업의 참여가 없다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음
- 기업은 부족한 노동력에 대한 보완으로 중장년층, 노인세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역형 일자리 창출에 관심과 의지가 필요함

□ 목적

- 기업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 사업대상
 - 인천시 소재 기업(관), 인천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 사업내용
 - 고령자 일자리를 만드는 고령친화 기업(민간, 공공) 발굴 및 지원
 - 고령친화 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 고령친화 안전 환경 개선 사업 지원

□ 기대효과

- 안전한 시장형 일자리 제공 확대

□ 추진계획

- 고령자 채용 기업 발굴
- 고령친화 안전 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단위 : 개사, 백만원)

구분	계	2019	연도별 예산 계획				
			2020	2021	2022	2023	
사업목표(개사)	40	-	10	10	10	10	
사업비	계	170	-	5	55	55	55
	국 비	-	-	-	-	-	-
	시 비	170	-	5	55	55	55
	군·구비	-	-	-	-	-	-

2.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2.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2-1.	고령사회 서비스 제공 강화
2-1-①	지역 중심의 원스톱 통합 정보 플랫폼 기반 구축

□ 현황 및 진단

- 고령사회 관련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서비스가 존재하고 어떻게 서비스에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인천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하드웨어적 구축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단시간 내에 고령친화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소프트웨어적인 정보 플랫폼 구축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2019년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는 중장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서비스 맵 제작을 계획해 지역 내 관련한 정보를 수집 정리하고 있음

□ 목적

- 인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고령사회 관련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령사회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 및 제공

□

○ 사업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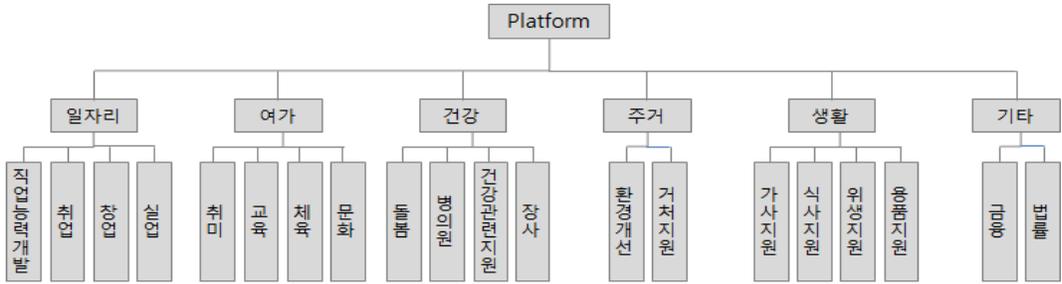
- 준비단계(2019년~2020년) : 지역 내 정보 수집 및 정리, 일부 관련 자료 홈페이지(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동,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발간된 ‘서비스 맵’ 제작
- 2단계(2021년~2022년) : 현재 이용 가능한 고령사회 관련 서비스 통합
- 3단계(2022년~2023년) : 향후 이용에 필요한 고령사회 관련 서비스 구축
- 4단계(2024년) : 서비스 플랫폼 완성 및 제공

○ 사업대상

- 인천 시민

○ 사업내용

- 서비스 체계도



□ 기대효과

- 인천 시민 모두가 고령사회 관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원스톱 시스템 체계 마련
- 인천 시민의 고령사회 관련 서비스 이용을 통한 빅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책 활용 가능

□ 추진계획

- 추진단계별 사업 내용

추진 단계	제1단계(2020~2021)	제2단계(2022~2023)	제3단계(2024)
추진 과제	현재 이용 가능 서비스 통합	향후 이용 필요 서비스 구축	서비스 Platform 완성
Platform 구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가능한 서비스 정리 * Platform 콘텐츠 구성 * 관련 기관 협력 체계 구축 * 관련 기관 홈페이지 연동 및 통합 아이디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민 홍보 콘텐츠 개발 * 모바일 서비스 준비 및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고령사회 관련 종합서비스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수행 능력 확보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2019	연도별 예산 계획				
			2020	2021	2022	2023	
사업목표 (홍보, 배부 명수)	10,350	1,000	350	3,000	3,000	3,000	
사업비	계	468	9	3	150	150	150
	국 비	-	-	-	-	-	-
	시 비	468	9	3	150	150	150
	군·구비	-	-	-	-	-	-

2.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2-1.	고령사회 서비스 제공 강화
2-1-㉠	고령사회 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 확산

□ 현황 및 진단

- 고령사회와 관련된 노인, 노화, 인구고령화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 존재
 -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모든 시민 및 개개인이 활기찬 노후를 설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인천시가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환경 조성에 어려움으로 작용 가능

□ 목적

- 고령사회와 관련해서 시민들 개개인이 지닌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여 인천시의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환경 조성에 일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사업대상
 - 일반 시민
- 사업내용
 -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인식 개선을 위한 거리 캠페인, 홍보, 기념행사·전문가 강연, 지역사회 내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노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 전시,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사업 소개 등

□ 기대효과

- 고령사회와 관련해 시민들이 지닌 부정적인 인식 개선

□ 추진계획

- 2020년 구체적인 추진 계획(안) 구성, 2020년부터 년 1~2회 진행
- 사업 추진을 위한 인천 관내 비영리법인 및 단체 발굴
- 인식 개선 문화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단위 : 회, 백만원)

구분	계	2019	연도별 예산 계획				
			2020	2021	2022	2023	
사업목표(회)		10/750	2/230	2/130	2/130	2/130	2/130
사업비	계	38.6	12.6	6.5	6.5	6.5	6.5
	국 비	-	-	-	-	-	-
	시 비	38.6	12.6	6.5	6.5	6.5	6.5
	군구비	-	-	-	-	-	-

2.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2-2.	노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교육 강화
2-2-□	다양한 연령 및 분야별 생애설계 교육 확산

□ 현황 및 진단

- 일반적으로 생애설계 교육은 주로 노년기 진입을 앞둔 중장년층 대상으로 경력 및 자기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전문가들은 생애설계 시 생애설계 8대 분야(경력, 관계, 여가, 사회참여, 재무, 주거, 자기개발, 건강)등을 참고하며, 교육 제공 대상자의 연령을 다양하게 구분하여 확대할 필요성을 제언함(ex. 20대 직장 초년생, 30-40대 직장인, 70대 노인 등)
- 노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아니라 시간과 단계를 통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반영함

□ 목적

- 생애설계 교육의 대상연령 및 제공분야의 다양화로 인천 시민들이 이른 나이부터 자신의 생애를 스스로 설계하여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사업대상
 - 만 18세 이상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한 자
- 사업내용
 - 연령별 역량과 욕구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생애설계 8대 분야별 맞춤형 교육 실시
 - 연령별 대상들이 주로 활동하는 장소(ex : 청년-대학교, 중장년-직장, 노인-노인복지시설 등)로 찾아가는 교육 실시
 - 생애설계 교육은 지역 내 다양한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복지관, 주민센터 등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모든 곳에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확산함

□ 기대효과

- 연령별 역량과 욕구의 다양성을 반영한 생애설계 교육을 통해 인천시민의 삶의 질 증진

□ 추진계획

- 사업수행기관 선정, 사업 목표 수립 및 시비 예산지원
- 다양한 대상,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2019	연도별 예산 계획				
			2020	2021	2022	2023	
사업목표(명)	2,210	325	385	500	500	500	
사업비	계	322	60	52	70	70	70
	국 비	-	-	-	-	-	-
	시 비	322	60	52	70	70	70
	군구비	-	-	-	-	-	-

2.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2-2.	노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교육 강화
2-2-㉠	노년기 교육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

□ 현황 및 진단

- 사업 수행기관의 경우 노년기 교육 관련 전문가 초빙 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음
- 또한 노년기 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인천시에서 제공한 교육으로는 2018년 연수구에서 진행된 퇴직 이후 생애설계를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지도자 양성과정인 ‘시니어플래너 양성과정³⁴⁾’이 전부임
- 노년기 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정 부족

□ 목적

- 인천시에 거주 중인 예비노인세대, 은퇴자 등 전문적인 경력을 지닌 대상자의 전문인력 풀(DB) 구축으로 노년기 교육 현장에서 활동 가능한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성과정 참여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사업대상
 - 인천에 거주 중인 만 50세 이상의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 사업내용
 - 노년기 교육(노인대상 제공 교육 강사)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 : ex) 웰다잉 강사, 경로당 교육 강사, 여가 및 레크레이션, 건강관리사, 50+컨설턴트(동년배 상담사) 등
 - 인천시 거주 노년기 교육 전문인력 풀 구성
 - : ex)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2의 경력개발 ‘인재뱅크’에서 인재풀을 구축하고 있음(비예산)

34) 노년층의 정서와 건강, 경제와 일, 죽음까지 생애 전반에 걸쳐 설계해주는 조력자, 상담자의 역할을 제공하는 컨설턴트.

□ 기대효과

- 노년기에도 배움이 필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어르신들의 활동적인 삶 지원
- 인천시 자체적으로 양성한 노년기 전문교육 인력 및 구축한 인력풀 내 전문가를 통해 교육 서비스 제공 활동 활용

□ 추진계획

- 노년기 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 매년 확대 추진
- 전문인력 풀의 경우 2020년 구축을 목표로 구축계획(안) 수립, 매년 업데이트 진행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2019	연도별 예산 계획				
			2020	2021	2022	2023	
사업목표(양성, 명)	600	100	50	100	150	200	
사업목표(인력풀, 명)	800	100	100	150	200	250	
사업비	계	56	비예산	10	13	15	18
	국 비	-	-	-	-	-	-
	시 비	56	비예산	10	13	15	18
	군구비	-	-	-	-	-	-

3.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3.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3-1.	고용 기회 및 현장에서의 참여 제고
3-1-①	지역기반 노인적합일자리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

□ 현황 및 진단

- 노인의 생애 경험과 전문화된 경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및 공익활동 개발 필요(인천형 노인적합일자리 공모사업)

□ 목적

- 인천지역 환경에 적합하며 베이비붐세대를 대상으로 한 노인일자리 모델을 발굴하여 신규 사업 개발 및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
-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우수사례 발굴로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참여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사업대상
 - 노인적합 일자리 참여 희망 수행기관 등
- 사업내용
 - 우수사례 공모(고령근로자 및 고용주 분야), 우수사례 기관 사업지원

□ 기대효과

- 노인적합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활성화

□ 추진계획

- 우수사례 공모 및 선정, 우수사례집 보급 및 홍보, 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계	2019	연도별 예산 계획			
			2020	2021	2022	2023
사업목표 (참여 기관 수)	250 (25)	50 (5)	50 (5)	50 (5)	50 (5)	50 (5)
사업비	계	600	120	120	120	120
	국 비	-	-	-	-	-
	시 비	600	120	120	120	120
	군·구비	-	-	-	-	-

3.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3-2.	고령자 문화·복지 서비스 다각화
3-2-①	인천효드림복지카드 도입

□ 현황 및 진단

-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취약계층 노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인복지정책 신규 발굴 필요

□ 목적

-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사회적 보호계층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
- 사업대상
 -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41,421명(2020. 12월 기준, 추정)
- 사업내용
 - 75세 어르신의 건강, 식사, 위생, 여가, 전통의례(명절) 등 원하는 복지 혜택을 골라서 누릴 수 있는 효드림복지카드 제공
 - 연간 일정액의 복지 포인트를 지역화폐 인천e카드 연계하여 지급

□ 기대효과

- 지역사회 내 효행장려와 공동체의식 함양을 통한 노인의 권익증진

□ 추진계획

- 추진내용
 - 75세 이상 어르신(수급자+차상위자)에게 연간 8만원 상당의 효드림복지카드 지원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2019	연도별 예산 계획				
			2020	2021	2022	2023	
사업목표(명)	144,061	-	41,421	47,693	54,947	-	
사업비	계	11,525	-	3,314	3,815	4,396	-
	국 비	-	-	-	-	-	-
	시 비	5,762.5	-	1,657	1,907.5	2,198	-
	군·구비	5,762.5	-	1,657	1,907.5	2,198	-

* 대상인원은 기초생활수급자-2020년 추계인원에 연도별 증가율 16.7% 반영, 차상위자-연도별 증가율 10% 반영.

3.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3-3.	소외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3-3-①	균형적인 권역별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의 다변화

□ 현황 및 진단

- 인천시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군구별 편차가 큼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확충 필요
- 군구별 노인여가시설 현황 ※ ()는 증축

구분	총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총계	32(1)	2	2	5(1)	3	4	4	4	4	2	2
노인복지관	10	1	1	2*	1	1	1	1	1	1	-
노인문화센터	12		1	2	2	1*	1	3	2	-	-
건립예정	10(1)	1	-	1(1)	-	2	2	-	1	1	2

※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남동구 소재), 인천노인복지관*(미추홀구 소재) 포함.

□ 목적

- 노인여가복지시설 신축 시 BF인증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 노인여가복지시설 확대를 통해 노인 접근성 제고 및 사회활동 참여율 증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사업내용
 - 노인복지관 : 신축 등 10개소 및 증축 1개소

□ 기대효과

- 소외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노인복지 및 여가시설 생활권 확충

□ 추진계획

- 고령자의 여가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인천 노인복지관 등 연차별 설치
 - : 2023년까지 11개소(신축10개소, 증축 1개소)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계	2019	연도별 예산 계획				
			2020	2021	2022	2023	
사업목표 (개관 시설 수)	10	1	3	2	1	3	
사업비	계	77,132	7,263	16,640	13,009	14,220	26,000
	국 비	1,550	-	-	1,550	-	-
	시 비	37,015	7,263	8,890	6,552	4,660	9,650
	군·구비	38,567	-	7,750	4,907	9,560	16,350

3.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3-3.	소외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3-3-②	액티브 경로당 활성화 추진

□ 현황 및 진단

- 현재 인천시 관내 경로당에서 제공 중인 프로그램은 웃음치료, 바둑, 화투 등 단순 건강 및 소수 참여 프로그램에 치중하고 한정된 예산 지원에 따른 수혜자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 경로당 주이용자 연령대가 76세 이상 고령화로 경로당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으며 다양한 노인 복지에 대한 정보 능력 부재로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곤 함

□ 목적

-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마을 거점 복지시설로 기능 전환 및 확립
- 경로당 활성화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모시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경로당의 지속 가능성을 높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사업대상
 - 인천시 관내 경로당 1,515개소(2019년 6월 기준)
- 사업내용
 - 치매예방, 소외 어르신 나눔, 건강관리·운동·여가활동 등 경로당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다양화
 - 다기능 공간으로 개방형경로당 운영 및 특화 프로그램 지원
 - 경로당 운영 지원·관리 및 디자인 개선
 - 경로당활성화지원협의체 구성·운영

□ 기대효과

- 경로당 활성화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내 경로당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열린 경로당 실현

□ 추진계획

○ 경로당 활성화 지원

- 경로당 운영 지원·관리 강화, 지원체계 개선, 지원인력 강화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계	2019	연도별 예산 계획				
			2020	2021	2022	2023	
사업목표 (경로당 수)	1,587	1,515	1,533	1,551	1,569	1,587	
사업비	계	62,177	11,275	12,251	12,568	12,842	13,241
	국 비	5,088	960	1,006	1,023	1,040	1,059
	시 비	29,509	5,519	5,994	5,846	5,978	6,172
	군·구비	27,580	4,796	5,251	5,699	5,824	6,010

3.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3-3.	소외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3-3-③	지역사회 개방형 경로당 모형 조성

□ 현황 및 진단

- 경로당에 등록된 소수 인원 이용 허용으로 신규 노인층 진입회원 이용 기피
- 노인들만의 독점 공간화, 지역 내 공간 활용 불가 등 한계가 있으므로 경로당 활성화와 신규 이용자의 유입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 필요

□ 목적

- 노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하는 개방형 공간 조성을 통한 경로당 이용자 연령층 확대 및 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 사업대상
 - 개방형경로당(테마형)(100㎡이상)
 - 작은복지센터형경로당(300㎡내외)
 - 건강증진서비스형경로당(300㎡내외)
- 사업내용
 - 일정 규모 이상의 경로당을 리모델링 및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경로당을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이미지로 전환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함으로써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리고,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는 화합과 통합의 공간으로 운영

□ 기대효과

- 경로당을 지역에 개방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이용함으로써 참여와 소통이 활발한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 지역사회 복지의 구심점 역할 수행

□ 추진계획

- 연도별 12개소(테마형 · 작은복지센터형 10, 건강증진서비스형 2) 지정 운영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계	2019	연도별 예산 계획				
			2020	2021	2022	2023	
사업목표 (경로당 수)	78	-	12	22	22	22	
사업비	계	3,174	-	474	900	900	900
	국 비	280	-	70	70	70	70
	시 비	1,387	-	187	400	400	400
	군·구비	1,387	-	187	400	400	400
	민간	120	-	30	30	30	30

4. 통합 돌봄의 강화

4.	통합 돌봄의 강화
4-1.	치매예방 및 관리 강화
4-1-①	생활밀착형 치매지원 기관 확대

□ 현황 및 진단

- 인천시 고령 인구 추이
 - 2000년 137,591명(5.5%) → 2006년 7.2%(고령화 사회) → 2021년 14.1%(고령 사회) → 2027년 20%(초고령 사회)를 넘어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전망
 - 인천시의 노인인구 수는 2015년(10.7%), 2016년(10.8%), 2017년(11.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349,177명(11.9%)임
 - 군구별로는 강화군(30.3%), 옹진군(23.1%)이 초고령사회이며, 동구(19.3%), 미추홀구(14.8%)는 고령사회에 해당됨
- 고령사회 진입 및 급격한 치매환자의 증가에 대비하여 공공형 치매전문서비스 인프라 구축 필요

□ 목적

- 치매·예방·발견·치료·보호를 위한 통합서비스 기반 구축으로 치매의 부정적 인식개선 및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노년기 행복한 삶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사업대상
 - 인천시 치매환자, 가족, 일반시민
- 사업내용
 -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 수행기관 : 10개 군구 보건소
 - 수혜대상 : 인천 시민 및 치매노인, 가족

- 역할 : 치매환자 맞춤형 등록 사례관리, 치매조기검사,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 치매인식개선사업,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
 - 수행기관 : 인천시 및 군구 보건소
 - 수혜대상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환자
 - 역할 : 치매환자 돌봄 및 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 치매관리를 위한 공공부문 역할 확대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체계적 치매관리시스템 구축
-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안심도시 인천 조성

□ 추진계획

- 치매안심센터 기관 수 확대 설치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수 확대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계	2019	연도별 예산 계획				
			2020	2021	2022	2023	
사업목표 (치매안심센터 개소)	10	10	-	-	-	-	
사업목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개소)	10	2	3	2	3	-	
사업비	계	63,294	13,366	11,571	16,221	11,068	11,068
	국비	46,098	10,982	8,779	8,779	8,779	8,779
	시비	11,711	1,287	1,695	6,345	1,192	1,192
	군·구비	5,485	1,097	1,097	1,097	1,097	1,097

4.	통합 돌봄의 강화
4-1.	치매예방 및 관리 강화
4-1-②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도입

□ 현황 및 진단

- 치매환자는 기억력,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주체적 의사결정능력이 감소되는 등 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지지체계가 필요하지만 가족 등 돌봄 부재로 보호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강화 체계 필요

□ 목적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사업대상
 - 피후견인(치매환자)
 - 공공후견인(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 이수)
- 사업내용
 - 후견심판청구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 대상자 발굴 및 선정, 관리감독, 평가체계 마련
 - 사례 관리 모니터링

대상자	내 용
피후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관, 병원 등 관련시설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치매어르신 정보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 발굴 • 연령, 치매여부, 기초수급자 해당여부, 가족관계 확인 후 사례회의를 거쳐 선정
공공후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인을 희망하는 자들의 신청을 받아 선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 고려

□ 기대효과

- 치매노인의 생활안정화(재산관리, 신상보호) 및 인권보호 강화

□ 추진계획

- 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양성 및 배치
 - 공공후견인 선정 및 교육, 사례관리
 - 공공후견인 관리감독, 모니터링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2019	연도별 예산 계획				
			2020	2021	2022	2023	
사업목표 (후견인 양성, 명)	50	10	10	10	10	10	
사업비	계	119	11	27	27	27	27
	국 비	97	9	22	22	22	22
	시 비	13	1	3	3	3	3
	군·구비	9	1	2	2	2	2

4.	통합 돌봄의 강화
4-2.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 인프라 확대
4-2-①	노인요양시설의 확대 및 기능 보강

□ 현황 및 진단

- 장기요양 인정점수 완화(2012. 7월, 2013. 7월), 차매특별등급 시행(2014. 7월)등으로 증가하는 입소대상자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 보강 등을 지원 필요

□ 목적

- 장기요양환자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의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관리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사업대상
 - 인천시 노인요양시설 256개소 중 사업지원을 신청한 시설
- 사업내용
 - 노인밀집지역 위주로 시설 선정,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 보강(화재안전장치 설치) 등 점검

□ 기대효과

- 돌봄서비스 서비스 질 개선

□ 추진계획

- 노인요양시설 대상 선정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계	2019	연도별 예산 계획				
			2020	2021	2022	2023	
사업목표 (사업대상, 개소)	76	20	11	15	15	15	
사업비	계	1,196	285	161	250	250	250
	국 비	599	143	81	125	125	125
	시 비	597	142	80	125	125	125
	군·구비	-	-	-	-	-	-

4.	통합 돌봄의 강화
4-2.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 인프라 확대
4-2-②	사물인터넷을 통한 안심안부 서비스 확대

□ 현황 및 진단

- 인천시 독거노인 매년 급속 증가 : 60천명(2012년) → 89천명(2018년)
- 사랑의 안심폰 도입에 이어 2018년도 스마트 앱을 활용한 「사랑의 안심폰」 활동감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지만 한계가 존재함
-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건강·안전이 취약한 독거어르신에 사물 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한 돌봄 서비스 도입 필요

□ 목적

- IoT(조도·온도·습도·동작감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독거노인의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안전망 구축
- 독거노인과 생활관리사 간 음성 및 영상통화로 독거노인의 소외감, 우울감 등 해소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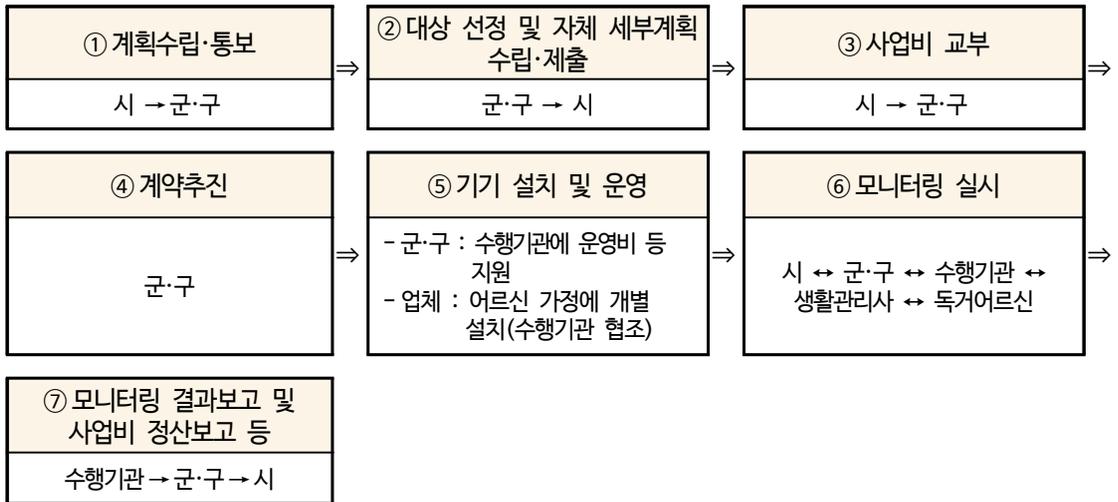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계속사업
- 사업대상
 - 거동이 불편하고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노인돌봄기본서비스대상)
- 사업내용
 - 독거노인 및 생활관리사 IoT 지능형 안심폰 보급 및 통신료 및 수리비 등 지원

□ 기대효과

- IoT 기반의 스마트하고 촘촘한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구축
- IoT(조도·온도·습도·동작감지센서) 안심폰이 독거노인의 안전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움직임 미감지시 생활관리사(독거노인 돌보미) 폰에 “응급상황” 문자 자동 전송
-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119 호출시 어르신 주소 자동 전송 및 생활관리사폰에 119 호출 내용이 문자로 전송되어 신속 대처 가능 등

□ 추진계획

○ 추진절차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2019	연도별 예산 계획				
			2020	2021	2022	2023	
사업목표(명)	8,600	8,225	8,600	8,600	8,600	8,600	
사업비	계	5,186	2,174	840	724	724	724
	국 비	-	-	-	-	-	-
	시 비	2,593	1,087	420	362	362	362
	군·구비	2,593	1,087	420	362	362	362

4.	통합 돌봄의 강화
4-2.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 인프라 확대
4-2-③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네트워크 활동 강화

□ 현황 및 진단

- 노인관련 정책이 빠르게 변하고, 노인돌봄 사례가 다양화됨에 따라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을 탈피하기 위해 시설간 적극적인 연계가 요구됨
 - 기존 노인복지관 종사자 노인상담 역량강화와 함께 원활한 정보교류 장려 필요

□ 목적

- 노인돌봄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네트워크 활동 강화
-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 성과 공유 및 확산 도모
- 시범사업 및 관련 정책 아이디어 발굴 제안
- 기관 간 통합 홍보 계획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2023년
- 사업대상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 사업내용
 -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개최, 사업 및 정보 교류
 - 지역중심의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조성 방안 모색

□ 기대효과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연계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종사자 워크숍(연1회) 개최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계	2019	연도별 예산 계획			
			2020	2021	2022	2023
사업목표 (참여기관 수, 개)	137	24	26	28	29	30
사업비	계	173	33	35	35	35
	국 비	-	-	-	-	-
	시 비	173	33	35	35	35
	군·구비	-	-	-	-	-

4.	통합 돌봄의 강화
4-3.	건강 및 공공 의료지원 기능 강화
4-3-①	장기요양노인을 위한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대

□ 현황 및 진단

-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노인 인구 증가
 - 이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 지역 안에서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 필요

□ 목적

-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노인들에게 전인적인 장기공공요양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 요양원 신축 시 BF인증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 사업내용
 - 공립 노인요양시설 3개소 확충 ※ 현재 구립중구해송요양원 1개소, 민간요양시설 265개소

□ 기대효과

- 치료 및 돌봄에 이르는 포괄적 서비스 지원 및 고령사회를 대비한 사회 공적기능 강화
- 공립 요양시설 건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 및 서비스 질 개선

□ 추진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계	2019	연도별 예산 계획				
			2020	2021	2022	2023	
사업목표 (개관 시설 수)	3	-	-	2*	-	1	
사업비	계	21,579	3,537	3,094	7,086	-	7,862
	국 비	7,882	2,984	1,642	-	-	3,256
	시 비	13,697	553	1,452	7,086	-	4,606

* 현재 인천시립요양원(노인정책과), 치매전담형 요양시설(건강증진과) 건립 추진 중

4.	통합 돌봄의 강화
4-4.	고령자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지원
4-4-①	노인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활동 확산

□ 현황 및 진단

- 급속한 인구 노령화 및 가족 간 갈등 등 위기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시스템 부족 및 조기발견 및 예방의 필요성 대두

□ 목적

- 노인 학대 사례 증가에 따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로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노인의 전문상담 및 종합서비스 제공
 - 노인 학대 예방 중심의 정책 및 사업 발굴 기회 제공
 - 재가노인부터 입소노인 및 시설장, 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접근으로 노인 권익 및 인권 강화

□ 사업개요

- 1)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사업대상
 - 인천시 거주 학대피해노인
 - 사업내용
 -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24시간 운영
 - 학대노인의 발견, 상담, 치료 등 응급보호조치 및 사후관리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2) 노인요양시설 인권 모니터링단 운영
 - 사업기간
 - 1년 단위 계속사업
 - 사업대상
 - 인천시 거주 예비노인 및 노인
 - 사업내용

- 현장 탐방을 통해 노인이용시설 관리실태, 도로, 낙상위험지역 등 모니터링 활동
- 분기별 성과발표회, 분과별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3)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 사업기간
 - 1년 단위 계속사업
- 사업대상
 - 인천시 거주 학대피해노인
- 사업내용
 - 학대피해노인 응급 분리 및 보호 조치, 치료 등 종합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 노인 학대 예방을 통한 노인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계획

-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및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2개소 운영지원
- 인권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모집인원 140명(위촉식, 성과발표회)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개소 운영지원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2019	연도별 예산 계획				
			2020	2021	2022	2023	
사업목표 (개소/명)	3/140	3/100	3/110	3/110	3/140	3/140	
사업비	계	5,016	791	1,042	1,055	1,061	1,067
	국 비	2,359	373	492	495	498	501
	시 비	2,657	418	550	560	563	566

5. 생애마무리 지원 강화

5.	생애마무리 지원 강화
5-1.	지역사회 장사문화 조성 관리
5-1-□	장사시설 수급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 현황 및 진단

- 인구구조 변화 및 국민들의 다양한 장사수요 등을 고려하여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계획 수립과 관련 시책의 도입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수요와 욕구를 반영하고 시설의 규모나 질을 고려 장사시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

□ 목적

- 인천시의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 사업개요

- 계획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대상
 - 인천시 공설 및 법인, 사설 장사시설 전체에 대한 분석 및 방안 제시
- 사업내용
 - 장사시설 이용실태 분석
 - 장사문화에 대한 인천시 시민의식 조사
 - 인천가족공원 이용 현황 분석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 수요 및 공급 추정
 - 중장기 장사시설 공급 및 장사시설 개선방안

□ 기대효과

- 장사 관련 인프라 여건을 개선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 향후 장사 관련 정책의 방향성 제시 및 장사시설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

□ 추진계획

- 공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의 수급진단 결과에 따라 장사시설 확충
 - 3-2단계사업(2021 ~ 2025년) : 195,000㎡, 자연장지 및 봉안당(5만기)
 - 3-3단계사업(2025 ~ 2030년) : 230,000㎡, 자연장지(3만기)
 - 3-4단계사업(2030 ~ 2035년) : 140,000㎡, 자연장지(1만8천기)
 - 3-5단계사업(2035 ~ 2040년) : 550,250㎡, 자연장지(1만4천기)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2019	연도별 예산 계획			
			2020	2021	2022	2023
사업목표(계획수립)	1	-	-	-	-	1
사업비	계	50	-	-	-	50
	국 비	-	-	-	-	-
	시 비	50	-	-	-	50
	군구비	-	-	-	-	-

5.	생애마무리 지원 강화
5-1.	지역사회 장사문화 조성 관리
5-1-㉠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

□ 현황 및 진단

- 자연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장례문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및 점차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대한 대응으로 노후 된 화장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 요구되는 상황

□ 목적

- 인천가족공원 환경개선으로 시민들에게 선진장사문화 서비스 제공 및 자연친화적 장사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10월 ~ 2030년
- 사업대상
 - 인천가족공원
- 사업내용
 - 자연장 등 신규 장사시설 확충
 - 산림 복원, 휴게시설, 시민 휴식 공간 조성 등 명소화 사업
 - 반환 공(空)안치단을 통한 봉안당 활용도 제고
 - 노후 봉안당 리모델링 공급을 통한 저비용 봉안시설 확충
 - [승화원] 유족대기실 환경개선, 로전실 노후파감재 교체, 어린이전용 테마형 봉안시설신규 조성, 화장로 개보수 사업 등

□ 기대효과

- 자연친화적 장사시설 공급
-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장사시설 공급
- 장사시설의 순환 사용으로 추가 설치 없이 안정적 수요 대처

□ 추진계획

○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총 5단계)

- 2015년 ~ 2021년 : 3-1단계 완공(자연장지 14,000기, 봉안당 건립, 산골장소)
- 2021년 ~ 2025년 : 3-2단계 완공(자연장지 20,000기 조성, 산림자원 복원 등)
- 2025년 ~ 2030년 : 3-3단계 완공(자연장지 30,000기 조성, 산림자원 복원 등)

○ 승화원 환경개선 및 테마형 봉안시설 조성사업 추진

- 2019년 1월 : 실시설계
- 2019년 5월 : 공사 발주
- 2019년 7월 : 공사 완료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목표(개소)	1	-	-	1	-	-	
사업비	계	49,646	30,452	12,045	7,149	-	-
	국 비	9,199	3,090	3,905	2,204	-	-
	시 비	40,447	27,362	8,140	4,945	-	-
	군구비	-	-	-	-	-	-

5.	생애마무리 지원 강화
5-1.	지역사회 장사문화 조성 관리
5-1-③	봉안당 건립 및 안치단 설치 추진

□ 현황 및 진단

- 장사문화 개선으로 화장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

□ 목적

- 추가적인 화장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공급 유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 사업명칭
 -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 봉안당 안치단 설치계획
- 사업내용
 -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 봉안당 안치단 설치계획
 -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봉안당 내 2021년까지 안치단 39,248기 설치

□ 기대효과

- 화장시설의 추가 설치로 수요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

□ 추진계획

(단위 : 기, 백만원)

구분	계	2019	연도별 예산 계획				
			2020	2021	2022	2023	
사업목표(기)	39,248	17,552	-	21,696	-	-	
사업비	계	3,664	1,832	-	1,832	-	-
	국비	-	-	-	-	-	-
	시비	3,664	1,832	-	1,832	-	-
	군구비	-	-	-	-	-	-

주1 : 2021년 사업목표의 경우 아직 설치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무연고실 4,144기를 포함하여 작성함.

5.	생애마무리 지원 강화
5-2.	편안한 삶의 마지막을 위한 문화환경 조성
5-2-㉠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준비 교육 확산

□ 현황 및 진단

- 2015년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구회의원 모임’이 결성되었고, 2016년 ‘웰다잉법’ 혹은 ‘존엄 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후 「연명의료결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됨
- 고령화와 가족의 해체, 노인의 고독사 등 여러 사회적 요인과 맞물려 노년기 죽음에 대한 예방과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인천시에서 2019년 죽음준비교육 관련 사업으로는 미추홀구 주안도서관에서 진행된 [2019 길 위의 인문학] 멋진 인생을 위한 또 다른 시작 외에는 부재함
 - 죽음준비교육이 제공되는 군구가 한정적이며, 교육 또한 충분하지 않음
 - 그러나 복지부의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에 의하면 임종기 환자와 보호자의 지원 요구에서 임종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이 80%로 나타나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높은 요구도를 보임

□ 목적

- 인천시 예비노인 및 노인들이 죽음에 대한 인식과 편안하고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질적인 존엄성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2023년
- 사업대상
 - 인천에 거주 중인 만 50세 이상의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
- 사업내용
 - 죽음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인천 대 시민 홍보
 - 죽음에 대한 이해, 유서 쓰기,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한 이해, 바람직한 장례문화, 법률적인 죽음준비, 장례 계획 세우기, 입관 체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죽음준비교육 지원

□ 기대효과

- 생애마무리 전 간병비, 병원비 등 의료비 절감에 기여
- 죽음에 대한 정서적 경험 지원 및 다양한 죽음관련 준비 설계

□ 추진계획

- 2019 ~ 2020년 사업수행기관 및 구체적인 교육계획(안) 구성, 2021년부터 사업 구체화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2019	연도별 예산 계획				
			2020	2021	2022	2023	
사업목표(교육, 명)	540	계획	40	100	200	200	
사업비	계	45	-	5	10	15	15
	국 비	0	-	-	-	-	-
	시 비	45	-	5	10	15	15
	군구비	0	-	-	-	-	-

6. 고령친화환경 기반 조성

6.	고령친화환경 기반 조성
6-1.	안전과 편리성이 보장되는 교통환경 개선
6-1-㉠	누구나 승하차가 쉬운 저상버스 도입 확대

□ 현황 및 진단

- 2018년 말 기준 인천시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33.3%(전체 1,270대 중 423대)
- 저상버스의 도입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 노약자 등을 모두 포함에 쉽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계획을 수립해 확대해 나가야 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 제14조
-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 10조(저상버스 도입 계획, 저상버스의 운영)

□ 목적

- 어디든,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의 환경 제공
- 승하차 시 안전사고 예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사업대상
 - 인천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등
 - 대중교통 운송 버스업체
- 사업내용
 - 단계적 저상버스 도입 시행 및 관리
 - 안전사고 및 개선안 모니터링

□ 기대효과

- 안전한 이동권 보장 환경 확산

□ 추진계획

-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 및 이용 구간이 빈번한 경로 분석
- 우선순위 선정에 따라 배치, 점진적인 양적 증가 추진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계	2019	연도별 예산 계획				
			2020	2021	2022	2023	
사업목표(대)	269	41	50	58	60	60	
사업비	계	26,900	4,100	5,000	5,800	6,000	6,000
	국 비	13,450	2,050	2,500	2,900	3,000	3,000
	시 비	13,450	2,050	2,500	2,900	3,000	3,000
	군·구비	-	-	-	-	-	-

6.	고령친화환경 기반 조성
6-1.	안전과 편리성이 보장되는 교통환경 개선
6-1-②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추진

□ 현황 및 진단

-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해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교통약자보호구역’으로 2008년 처음 도입됨
 - 선정 지역 : 주로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 설치 시설 : 보호구역 표지판,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무단횡단방지시설 등
-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노인의 교통사고 비율 또한 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안전장치 마련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목적

- 교통약자인 노인의 안전한 이동과 사고로부터 보호와 예방적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대상
 - 인천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및 대시민
- 사업내용
 -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전수조사 및 보호구역 지정·확대(기존 75개소 → 375개소)
 - 노인보호구역 전수조사 시 전통시장이나, 병원 주변 등 노인 보행자가 많은 구간의 주변 대상 시설을 연계하여 노인보호구역 확대

□ 기대효과

-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및 적극적 예방 효과로 교통사고율 감소 기여
- 교통약자 배려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

□ 추진계획

- 노인보호구역 연차별 지정 계획 수립 : 2019년 8월
-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 시행 : 2020년 ~ 2022년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계	2019	연도별 예산 계획				
			2020	2021	2022	2023	
사업목표(개)	310	10	100	100	100	-	
사업비	계	6,300	200	2,000	2,000	2,000	100
	국 비	3,150	100	1,000	1,000	1,000	50
	시 비	3,150	100	1,000	1,000	1,000	50
	군·구비	-	-	-	-	-	-

6.	고령친화환경 기반 조성
6-1.	안전과 편리성이 보장되는 교통환경 개선
6-1-③	노인 교통안전교육 실시

□ 현황 및 진단

- 초고령 사회가 되어가면서 고령운전자와 노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 등 전체적인 교통 환경 구조 또한 변화하고 있음
-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문화의식을 함양시키고 수시로 변화되고 있는 교통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 목적

- 교통약자를 위한 정기적 교통안전교육 실시로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2023년
- 사업대상
 - 인천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및 고령운전자
- 사업내용
 -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실시(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등)
 - 도로교통법 준수 사항에 관한 정확한 정보, 교통관련 변경된 사항 등 제공(우편물, 모바일 등)
 - 교통안전교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안전홍보물품 제작·배부 병행

□ 기대효과

- 고령운전자 및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안전의식 함양
-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사회적 기회비용 절감 기여

□ 추진계획

-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실시(연 2회)
- 교통안전 홍보물품, 정보지 등 제작·배부(연중)

(단위 : 회, 백만원)

구분	계	2019	연도별 예산 계획			
			2020	2021	2022	2023
사업목표(교육, 회)	9	1	2	2	2	2
사업비	계	45	5	10	10	10
	국 비	-	-	-	-	-
	시 비	45	5	10	10	10
	군·구비	-	-	-	-	-

6.	고령친화환경 기반 조성
6-1.	안전과 편리성이 보장되는 교통환경 개선
6-1-④	고령운전자 스티커(실버마크) 부착 확산

□ 현황 및 진단

- 고령운전자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과 배려에 대한 공감대 확산 필요

□ 목적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이 가능할 수 있는 고령친화 교통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사업대상
 - 인천시에 거주하며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 사업내용
 - 고령운전자 스티커 '실버마크' 제작 : 시민 아이디어 공모
 - 인천시, 군·구 및 유관기관 행사·교육 시 '실버마크' 스티커 배포

□ 기대효과

-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려 및 사회적 관심을 통해 안전한 교통도시 구축

□ 추진계획

-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별(연차별) 확대 추진
 - (2019년) 2,000명 배부(시 및 도로교통공단 6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 교육생)
 - (2020년) 2만명 배부 목표(군·구 교육·홍보행사시 추가 배포)
 -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14만 명 중, 2만 명(15%) 목표인원 설정
- 인천시 거주 고령운전자 스티커 배포·부착 캠페인 병행(연중 1회)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2019	연도별 예산 계획				
			2020	2021	2022	2023	
사업목표	112,000	2,000	20,000	30,000	30,000	30,000	
사업비	계	560	10	100	150	150	150
	국 비	-	-	-	-	-	-
	시 비	560	10	100	150	150	150
	군·구비	-	-	-	-	-	-

6.	고령친화환경 기반 조성
6-1.	안전과 편리성이 보장되는 교통환경 개선
6-1-5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인센티브 개발

□ 현황 및 진단

-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이 증가하면서 부산시를 비롯해 지자체 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인천시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비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목적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 사업개요

- 사업기간(2019년 7월 1일 최초 시행)
 - 2019년 ~ 2023년
- 사업대상
 - 인천시에 거주하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70세 이상 노인
- 사업내용
 -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지원(최초 1회)
 - 면허 반납에 따른 감사의 마음을 담은 '운전면허 졸업증서' 제공(도로교통공단과 협약)
 - : 면허 반납 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자 안전운전 컨설팅' 참여시 교부

□ 기대효과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효과 기여

□ 추진계획

- 2019년 사업성과 분석 및 2020년 개선사항 검토 : 2019년 12월
- 연차별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 시행 및 지속 홍보 : 2020년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2019	연도별 예산 계획			
			2020	2021	2022	2023
사업목표(명)	14,000	2,000	3,000	3,000	3,000	3,000
사업비	계	1,400	200	300	300	300
	국 비	-	-	-	-	-
	시 비	1,400	200	300	300	300
	군·구비	-	-	-	-	-

6.	고령친화환경 기반 조성
6-2.	고령사회 정책 역량 강화 및 추진 기반 정비
6-2-①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추진체계 구축

□ 현황 및 진단

-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는 국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11곳이며, 그 밖의 다른 타 시도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됨
 - 가입 완료 : 서울시(2013), 전북 정읍시(2014), 경기도 수원시(2016), 부산시(2016), 광주 동구(2017), 제주시(2017), 도봉구(2018), 양천구(2018), 강북구(2018), 경기도 부천시(2018), 충남 논산시(2018)
 - 가입 추진 준비 : 광주 서구, 세종시, 전주시 등

□ 목적

-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추진 계획 방안 도모
- 노인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마련 및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 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 사업대상
 - 인천광역시
- 사업내용
 -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추진 단계 수립 계획

□ 기대효과

- 세계적인 고령친화도시로 부상
- 동북아 중심의 국제도시 위상 정립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추진계획

- 2020년 ~ 2021년 사업 추진 검토 및 계획 수립, 2022년 사업 추진
 - 인천시정의 기조로 고령친화도시 조성 채택 논의

-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인천시 마스터플랜 수립
- 고령친화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 인천형 고령사회가이드라인 도입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9	연도별 예산 계획				
			2020	2021	2022	2023	
사업목표(추진)		-	-	자료수집	계획수립	추진	추진
사업비	계	80	-	비예산	비예산	40	40
	국 비	-	-	-	-	-	-
	시 비	80	-	비예산	비예산	40	40
	군·구비	-	-	-	-	-	-

6.	고령친화환경 기반 조성
6-2.	고령사회 정책 역량 강화 및 추진 기반 정비
6-2-②	노인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

□ 현황 및 진단

- 기존에 구성된 노인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활성화 하여 지역사회의 이슈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정책 발굴을 위한 실질적인 자문위원회 역할 필요
 - 정례화 되고 소극적인 업무 및 실적보고 수준을 넘어 지역 내 다양한 연령, 성별, 기관, 학계, 기업 등의 관계자와 노인정책 분야별 분과 형태로 구성함
 - 이와 같은 분과 내 자문위원회는 새로운 정책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와 정책현장의 모니터링을 제안해 낼 수 있는 구조로 조직함

□ 목적

- 효과적인 고령사회 정책 추진을 위한 노인정책 분과별 의견 수렴
- 각계각층의 분야별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 공유 및 정책 실행화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사업대상
 - 인천광역시
 - 고령사회 정책분야 전문가(학계, 연구원, 대학, 기관, 기업 등) 및 시민, 단체 등
- 사업내용
 - 고령친화도시 인천구현을 위한 고령사회 대응 기반 조성 구축
 - 노인정책 관련 사항 자문 및 고령사회 중장기 계획 심의 등
 - 신규 노인정책 발굴 및 제안

□ 기대효과

- 인천시 고령사회정책 역량 강화
- 정책현장의 니즈 반영을 위한 기회 조성

□ 추진계획

- 고령사회 정책분야 계획, 추진 과정, 실적, 신규 정책 선정 등 실시
- 분야별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정례화(연중 상·하반기 2회)

(단위 : 회, 백만원)

구분	계	2019	연도별 예산 계획				
			2020	2021	2022	2023	
사업목표(회)	8	비정례	2	2	2	2	
사업비	계	9.6	1.6	2	2	2	2
	국 비	-	-	-	-	-	-
	시 비	9.6	1.6	2	2	2	2
	군·구비	-	-	-	-	-	-

6.	고령친화환경 기반 조성
6-2.	고령사회 정책 역량 강화 및 추진 기반 정비
6-2-③	노인정책모니터링단 운영 및 의견수렴 촉진

□ 현황 및 진단

- 노인정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으로서 노인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 반영 필요
 - 정보소외계층인 노인들이 의견을 용이하게 제시할 수 있는 소통창구의 부족
 -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는 50+지원단을 통해 WHO에서 제시하는 고령친화도 8개 영역 중 개선이 요구되는 영역을 선정하여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목적

- 노인이 참여하는 정책모니터링단 구성·운영을 통해 인천시 노인정책의 평가 및 정책 수립 방향성 제안
 - 노인 중심의 정책 및 사업 발굴 기회 제공
 - 상향식 의견수렴을 통한 인천시와 시민 간 의사소통 통로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사업대상
 - 인천시 거주 예비노인 및 노인
- 사업내용
 - 현장 탐방을 통해 노인이용시설 관리실태, 도로, 낙상위험지역 등 모니터링 활동
 - 반기별 성과발표회, 분과별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50+지원단 운영의 활성화 및 확대

□ 기대효과

- 노인이 주체적으로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통로를 마련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참여 확산

□ 추진계획

-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모집인원 50명(위촉식, 활동, 성과발표회)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2019	연도별 예산 계획				
			2020	2021	2022	2023	
사업목표(명)	50	30	30	40	40	50	
사업비	계	39.7	7.7	6	8	8	10
	국 비	-	-	-	-	-	-
	시 비	39.7	7.7	6	8	8	10
	군·구비	-	-	-	-	-	-



VIII. 제언

1. 중장기 정책과제 제언
2. 중장기 정책과제 관리와 평가에 대한 제언

Ⅷ. 제언

1. 중장기 정책과제 제언

- 본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구성하면서 제안하는 추가적인 정책과제의 내용은 노인정책과 및 예산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사항으로 과제 수용 및 계획안 마련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부서 내 검토과정을 거쳐 진행할 것을 제안함
 - 제안하는 다음의 내용들은 연구자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재구성함
-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 단계이자 중요한 스크린이 가능한 과정은 바로 ‘상담’임. 현재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의 욕구를 면밀히 사정하고, 그에 맞는 분야를 탐색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미스매칭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각 현장에서는 진행되는 상담의 전문성과 정보 제공 등의 다양한 매뉴얼을 갖춰야 함
- 또한, 상담 사례에 대한 관리와 슈퍼비전, 보수교육 과정 등을 정기적으로 가지며, 상담의 경향성을 분석해 현장 대응력을 높임. 즉 지속적인 ‘노인 일자리 상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표준화된 매뉴얼과 지역정보, 상담 업무자의 전문성 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추진 할 필요성을 제안함
 - 2019년 여성가족분야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사업인 「인천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상담 역량강화 교육」은 인천시 관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상담 서비스의 질 향상과 업무 능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1회 워크숍과 10회 교육과정을 제공함
 - 그러나 기관 및 종사자의 열악한 업무 환경에 따라 체계적인 장시간 일정의 교육 참여가 힘들며,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문제 상황이 발생되어 참여율의 다소 낮은 경향을 보임. 이는 추후 교육 설계 시 단기간, 반복적인 프로그램 또는 방학 등의 기간을 사전에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됨
 - 또한 지역 내 전문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상시 운영되는 상담관련 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해 보임. 관련한 이전 교육 경험의 연도가 오래 전이며, 금회 계획된 교육과정이 단회성으로

종료 될 것이라는 불확실함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타시도의 사례로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³⁵⁾’는 경기도 31개 (북부권역 13개, 동부권역 10개, 중부권역 14개, 서부권역 10개, 남부권역 11개)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노인과 노인가족에게 직접적인 상담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신규 상담사 교육, 상담 종사자 대상 보수교육 및 슈퍼비전 등을 제공하고 있음
- 경기도의 사례는 인천시 2019년 여성가족분야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토론회에서 제안한 사업에 참고 배경이 될 수 있음. 제안된 사업의 내용은 기관마다 인력, 상담 규모 등의 차이가 있어 적극적인 상담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힘든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노인상담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 일정기간 전문상담사를 파견하고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임
- 일정 기간 동안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노인상담 서비스를 지역에 안착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전문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해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하는 것이 고령사회 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예방적 차원의 접근으로 사회적 비용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고령화 쇼크’, ‘고령사회의 그늘’, ‘초고령화 충격’ 등 고령화에 대한 연간 검색, 도서, 시사물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부정적인 언론보도와 집중 조명으로 사회적 공감 및 개인의 불안감은 세대를 불문하고 일정 부분 스며들어 있음. 물론, 예견하고 준비하지 못해 당혹스럽거나 사회적인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예외 없이 진행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주저하고만 있을 수 없는 실정임
- 그렇기 때문에 인구고령화의 현상을 새로운 비전과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됨. 앞서 제시된 정책과제 중 2영역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중 2-1번 고령사회 서비스 제공 강화 ‘고령사회 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 확산’ 과제 수립의 배경과 이유를 찾을 수 있음.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발굴된 사례에 대한 확산을 위해 UCC제작, SNS 활용, 지자체 공익 홍보 강화, 지역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행이 요구됨
- 정부의 제3차 기본계획 수립 후 정책로드맵에서 새롭게 표명된 정책추진 영역 중 ‘마무리’는 생애 마지막을 위한 과업을 지원할 수 있기 위해 제시함. 이에, 인천시 중장기 계획에서도 ‘생애마무리’를 새로운 키워드로 도출해냄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죽음준비교육과 관련한 콘텐츠 마련이 요구됨. ‘신노년 세대 베이비부머의 고령화 지원을 위한 케어프로젝트’로 노년기 노인의 인권,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문화 고취의

35)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http://www.gnoin.kr>).

관점을 포괄하여 추진하는 과정을 구체화해야 함

- 지역 내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모든 곳에서 생애마무리 교육과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그 효과성 역시 실질적인 도움과 인식 개선에 영향력을 미쳐야 함
- 이를 활용해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및 조사도 가능해 지지만, 죽음과 관련한 분야에 새로운 인력, 일의 내용이 발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양성과정, 자격사항, 수요처 발굴 및 연계 등 일련의 상황들이 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고령사회 분야 중장기 계획 추진에 있어 근간을 이루는 개념은 ‘고령친화(연령(세대) 통합)’로 귀결될 수 있음. 노후의 만족스러운 삶의 지표들을 세분화하여 정책이 수행되지만, 궁극적인 하나의 목표는 누구나 다 함께 편안하게 살고 싶은 도시에서 삶을 반추하고, 경험을 나누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며, 생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체계 속에 담아내는 구조를 의미함
- 특히 준비 되지 않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을 재평가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음. 즉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취약계층(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방향성을 담는다면, 노인의 특성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비율이나 내용이 더욱 구체화 될 필요가 있음
- 노년기 주거의 안정성은 삶의 질과 건강, 사회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성화된 주택마련 정책이 필요함. 개인별 건강상태, 소득수준, 사회 복지 연계 주택 등 지역 내 커뮤니티와 연계된 주거지 조성이 요구됨
 - 최근 들어 노인의 주거 형태와 치매가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치매환자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시설입소를 최대한 지연하고 당사자 거주지에 최대한 오래 머물러 돌봄을 제공 받는 형태가 주목되고 있음
 - 질병을 보유한 노인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무장애 시설이 완비된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사회성을 유지하고, 인지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구조는 독거노인의 사망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노인의 대부분이 주거지 내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전한 노인주거생활을 위한 노인안심주택사업’ 등도 고려될 수 있음. 노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기존 주택의 장애요인 개보수와 신규 주거공급 시 노인에게 특화된 시설 설비가 갖춰진 공간에 입주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단계별, 또는 시급한 대상자별 우선순위 등의 기준안을 마련하여 현재의 불편함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선 개선이 필요한 시설 설비를 살펴보면 실내 응급비상벨, 미끄럼 방지 바닥재, 욕실 및 화장실 지지대와 손잡이 등이 있으며, 선택적 개선이 필요한 시설 설비에는 적절한 높이의 싱크대 및 선반, 휠체어 사용이 가능한 출입문의 넓이와 문턱 제거, 여닫기 쉬운 손잡이 등이 있음
- 인천시가 향후 고령친화 커뮤니티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비물리적(사회복지)요소와 물리적(건축 및 도시공간)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됨. 즉 외부공간 및 환경 부문에 관한 대과제가 추가되어 거시적 관점에서 연령(세대)통합 고령친화도시 구현은 유지하되 물리적 환경 조성을 위한 관점으로 중장기와 관련한 계획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일보 할 필요성을 제기함
- 예를 들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차별성 없는 시설 확대보다는 권역별 거점 시설을 지정하고 특성화 할 수 있는 시설 간의 연계성(대중교통, 셔틀버스, 안전한 보행로 확충 등) 확보 방안을 고려해 봄
- 교통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저상버스 무계단 디자인의 초저상 버스 공급과 운영을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권 이동을 위한 좌석버스까지 점진적인 확대 계획이 필요함
- 또한, 서울을 시작으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이 시행되고 있는데, 자가용을 대신할 대중교통 시설의 전반적인 환경 개선 사항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즉 정류장의 연석 설계 및 설치, 휠체어 및 보행기 사용을 위한 램프형 저상버스까지 세세한 고려가 마련되는 장기적인 플랜 수립이 요구됨
- 그리고 버스 운전기사 교육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운전습관, 안전사고 방지 등 관련 교육의 범위를 인천 시민으로 확대하며, 도로 환경 개선(신호체계, 도로표지판 가독성 및 위치, 안전차선 등)과 각종 기술력 향상으로 고령자도 운전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 이동권에 대한 담보가 확보되는 환경 개선의 관점이 요구됨
- 돌봄 영역은 정부의 중점 방향 및 기초 계획이 발표되기 이전에 마련된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정책과제가 제안되었고, 인천시는 이후 추가적인 상황에 대한 보완을 계획을 2020년에 마련할 예정에 있음. 따라서 다소 미비할 수도 있다는 제한점을 밝힘
- 이와 같은 연구 배경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점검해 보면, 인천시 군구 내 지역편차를 반영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가 보완되어야 함
- 앞서 3장에서 인천시 고령사회 분야별 현황을 영역별로 살펴보면서 전국 7대 특·광역시와 인천시의 현황을 종합하면 <표 VIII-1>과 같음
- 소득 영역에서 인천의 경우 노인일자리 분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을 2017년과

2018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 현장에서 적극적인 사업 운영과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여하고 있는 종사자를 지원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 기관 및 종사자 간 네트워크로 공유, 협력, 아이디어 발굴 등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노후준비와 관련해서 인천시는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관계된 기관수가 다소 부족함. 이에 대해 시민단체 및 대학, 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조성 및 홍보 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사회활동 참여 영역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보면, 규모와 재정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유하는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의 수는 적은 것으로 확인됨. 향후 지역의 인구 규모와 접근성 등을 모두 고려해 주택단지 및 주거지 근처에 위치할 수 있는 방안이 계획되어야 함
- 돌봄 영역을 보면, 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은 타 시도와 견주어 볼 때, 큰 차이가 없으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전문적인 인력배치를 위한 양성 및 관련 의료기구 산업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표 VIII-1> 7대 특·광역시 영역별 현황

영역	구분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소득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수	11	16	9	10	5	5	5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종사자수	66	134	112	69	30	43	28
노후준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운영 개수	15	7	5	3	10	4	4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16	8	2	16	6	0	3
사회활동참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3,885	2,509	1,562	1,540	1,364	837	841
	노인복지관	82	31	19	20	9	7	13
	경로당	3,425	2,311	1,508	1,489	1,315	817	806
	노인교실	378	167	35	31	40	13	22
돌봄	노인주거복지시설	26	7	6	22	3	8	2
	노인의료복지시설	512	109	244	368	96	123	47
	재가노인복지시설	374	62	40	31	58	55	14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10	3	2	4	1	3	2

- 전국 7대 특·광역시와 인천시 현황에 이어, 인천시 군구별 현황을 살펴보면, 어떤 영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이 진행되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이 될 수 있음
 - 노인인구 수가 많은 지역에서 소득관련 정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않은 구가 여럿 확인되어 향후 이와 관련한 지역 소득 창출 활성화 사업이 마련될 필요가 제기됨
 - 노후 준비와 관련해서 지역단위로 활동 가능한 사회공헌 사업을 개발해 해당 거주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해야 함. 그리고 예비노인대상의 정책은 모든 군구에서 진행되기에 무리가 있으나, 점진적인 확산이 예측됨
 - 이는 노후 준비 영역뿐만이 아니라 2017년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가 출범한 이래 서구와 연수구가 그 뒤를 이어 조사 연구와 사업이 추진되는 등 예산이 책정되어 운영 중이며, 타 군구에서도 이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해당 각 영역마다 노인을 비롯해 노년기로 진입할 예비노인대상의 정책도 서서히 마련되어 노년기의 생활이 미리 준비되고 계획 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 돌봄과 관련해서는 향후 노인인구 수의 증가는 치매 유병률의 증가와 연계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와 관계된 전문 인력, 기관, 서비스 내용, 예산 등의 계획이 각 군구 단위에서도 이루어져야 함
 -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확산이 덜 되어 정책이 추진되기에 무리일 수 있는 영역인 ‘생애마무리’는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현재의 생활을 적극적으로 계획해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생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현재는 부평구와 미추홀구에서 관련한 교육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긍정적인 효율성과 사례를 발굴해 확산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표 Ⅷ-2〉 인천시 군구 영역별 현황

영역	구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소득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수	1	1	1	1	1	1	2	1	1	-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종사자수	6	6	10	9	9	9	11	9	-	-
	노인일자리 지원 서비스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노인 대상 소득 관련 정책사업	-	수행 (4)*	-	수행 (3)*	-	-	수행 (2)*	-	-	수행 (1)*
노후준비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 수행 자치단체 운영기관	-	-	-	-	-	1	-	1	-	-

영역	구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노후준비 지원 서비스	수행	-									
	예비노인 대상 노후지원 관련 정책사업	-	수행 (6)*	-	수행 (5)*	수행 (2)*	수행 (4)*	수행 (1)*	수행 (3)*	-	-	
사회활동참여	노인여가 복지 시설 수	81	39	164	152	186	199	163	252	234	70	
	노인 복지관	1	2	3	3	1	2	4	3	1	0	
	경로당	77	36	158	148	179	188	153	247	233	70	
	노인 교실	3	1	3	1	6	9	6	2	0	0	
	예비노인 세대 및 노인 대상 사회활동 참여 지원 서비스	있음	-									
	예비노인 세대 및 노인 대상 사회활동 참여 관련 정책사업	수행 (3)*	-	수행 (2)*	수행 (1)*	-	수행 (4)*	-	-	-	-	-
민포	노인주거 복지시설	-	-	-	1	1	3	2	6	9	-	
	노인의료 복지시설	14	9	44	26	78	62	45	56	31	3	
	재가노인 복지시설	2	1	2	1	4	3	5	9	3	1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	-	-	-	-	1	1	1	-	-	
	예비노인 세대 및 노인 대상 돌봄 지원 서비스	있음										
	예비노인 세대 및 노인 대상 돌봄 관련 정책사업	수행 (5)*	-	수행 (1)*	수행 (3)*	-	-	수행 (6)*	-	수행 (2)*	수행 (4)*	
생애 마무리	-	-	수행**	-	-	수행**	-	-	-	-	-	

* : () - 2018년, 2019년 예산 합계 순위.
 ** : 운영 - 미추홀구 : 도서관 / 부평구 : 문화원

2. 중장기 정책과제 관리와 평가에 대한 제언

- 본 과제를 통해 계획된 정책과제는 향후 5년(2019~2023) 동안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새롭게 평가되고·재 계획되는 과정을 거쳐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이 기해질 것으로 판단함
- 우선, 정부의 노인돌봄체계 개편안에 대한 내용과 방향성을 검토해 추가적인 보완점을 분석하며, 이를 인천시정과 연계할 수 있는 과업이 뒤따라야 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한 SWOT(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분석을 기반으로 주요한 핵심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계획된 기간 내 정해진 예산과 인력,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배분하고, 주된 핵심적 정책과제를 선정해 실행력을 높여 나가야 함
- 또한 핵심과제에 이어 영역별 각 과제에 대한 관리와 점검, 평가가 수반되어야 함. 즉 인천시정 및 예산, 정책환경 등에 따라 과제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해야 함
- 본 기관의 경우, 매년 발간되는 연구보고서의 제언 사항 및 활용도에 대해 인천시에서 시정 계획에 반영되거나 예산 수립, 사업 계획 등에 활용되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음. 따라서 인천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인천시 자체 내 과제 관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는 향후 인천시 관련 부서 내 자체 방안 마련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추진과정에 대한 연간 분기 또는 상하반기 이행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일종의 ‘관리카드’를 만들어 업무의 추적이 가능해 질 수 있음
 - 추진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확인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과제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해 나가도록 함
- 이처럼 계획된 정책과제에 대한 점검으로 향후 2차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어 인천시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과제 발굴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다만 관리와 평가는 다소 의미의 차이를 가지므로 평가 기준에 대한 기준은 해당 부서 및 인천시 내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2017년 기본계획 수립 후 추진되는 중장기 계획의 장단점을 분석해 2차 계획 수립을 위한 초석으로 의미를 설정해야 할 것임

■ 참고문헌

[문헌]

- 게르트 슌드스트림(2018). 스웨덴의 노인 돌봄 서비스와 지역사회의 역할. 국제사회보장리뷰, 7(겨울호), 36-48.
- 관계부처 합동(2019.2.19).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안)」.
- 관계부처합동(2018.11.20).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
- 김윤영·윤혜영(2018). 커뮤니티 케어 해외사례와 함의 그리고 구상. 비판사회정책, 60, 135-168.
- 김중훈(20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다원적 성격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7.
- 니키류·정형선 편역(2018). 지역포괄케어와 지역공생사회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 서울: 북마크.
-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대한민국정부(2018).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 박재간, 손화희(2002). 영국과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 서울: 학지사.
- 보건복지부(2018). 「2018 노인복지시설현황」.
- 보건복지부(2018).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 보건복지부(2019. 2. 1).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 양지훈·권미애(2018). 인천시 베이비부머 실태 및 욕구조사.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 양철호·오세근(2016). '초고령 사회' 일본의 노인복지 실천과 교훈: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해법과 정책 과제.
- 오민홍(2017).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활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2.
- 이소영·강은나·백혜연·변수정·장인수(2018). 2016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세종: 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백혜연·변수정·장인수(2018). 201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세종: 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2018).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내부자료.
- 인천광역시(2018). 「군·구별 장래인구추계(2015~2035)」.
- 인천광역시·육아정책연구소(2017).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2018~2022) 수립.
- 임정미(2018). 국제사회보장리뷰 여름호 Vol. 5, pp. 67~77.
- 장지은(2016).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고령자의 보람 취로를 위한 정책과 실천의 사례 연구.

- 최혜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노인돌봄. 월간복지동향, 26-30.
- 통계청(2017).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2019). 「주민등록인구현황」.
- 하석철·이선영(2018). 인천시 노인의 지역사회 인식 연구 : 고령친화환경을 중심으로.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초고령사회 고령후기 노인을 위한 생애말기 정책 지원방안 연구.
- 행정안전부(2019). 「주민등록 인구통계」.
- 허원구·이정훈(2004). 고령화사회의 노인역할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선진국을 중심으로. 복지행정논총, 14(2), 53-79.
- Counsel and Care(2010). Community care: understanding the system in England.
- WHO(2018). The Global Network for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Looking back over the last decade, looking forward to the next.
- WHO(2017). Membership in the 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GNAFCC).

[사이트]

-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search-network/?_sft_countries=republic-of-korea).
- 고용노동부(www.moel.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국내 고령사회 대응 관련 사례 : 광주 서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2019040715434197681>)
- 국내 고령사회 대응 관련 사례 : 대전 유성구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9069&kind>)
- 국외 고령사회 대응 관련 사례 : 덴마크
(<https://doctordementia.com/2015/08/07/social-and-health-care-policy-for-the-elderly-in-denmark/>)
- 국외 고령사회 대응 관련 사례 : 미국(<https://aging.ca.gov/Programs/SCSEP/Calculator/>)
- 국내 고령사회 대응 관련 사례 : 서울
-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09691>
 -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05265>
- 국외 고령사회 대응 관련 사례 : 스웨덴(<https://sweden.se/society/elderly-care-in-sweden>).
- 국외 고령사회 대응 관련 사례 : 일본

(https://www.huffingtonpost.kr/2015/10/26/story_n_8387464.html)

국내 고령사회 대응 관련 사례 : 충북 제천

(<http://www.bzer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1293>)

국외 고령사회 대응 관련 사례 호주

• <https://www.myagedcare.gov.au/>

• <https://agedcare.health.gov.au/programs-services/flexible-care/transition-care-programme>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http://www.gnoin.kr>).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홈페이지(www.daejeonsenior.or.kr).

부천시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홈페이지(<http://twohappyllife.bucheon.go.kr>).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홈페이지(<https://www.50plus.or.kr>).

서울시민 건강포털 홈페이지(<https://health.seoulmc.or.kr>).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mediahub.seoul.go.kr>).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www.inlife.or.kr>).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현행자치법규.

정책브리핑 홈페이지(www.korea.kr).

충청남도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ntcfol.co.kr>).

[언론기사]

IT조선(2018. 10. 6).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돌봄 커뮤니티 케어 절실.

관계부처합동(2018. 9. 11) 보도자료 : 지역사회 회복 위해 행안부·국토부·복지부 손을 맞잡다.

백세시대(2018. 9. 14). 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커뮤니티 케어 정책포럼' 개최.

보건복지부(2018. 3. 12) 보도자료 :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 커뮤니티케어 (Community Care)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2018. 6. 25) 보도자료 :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사업 통합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2019. 1. 10). 보도자료 :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지역이 만들어간다.

보건복지부(2019. 4. 4). 「지역사회 통합돌봄」, 8개 지자체에서 첫 걸음 보도자료

코메디닷컴(2018. 8. 13). 文정부 미는 '커뮤니티 케어', 만병통치약인가?.

쿠키뉴스(2018. 9. 8). '커뮤니티 케어'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하려면 '민-관 협력체계' 필요.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 ~ 2023)

발행인 : 원 미 정

발행일 : 2019년 10월 31일

발행처 : (재)인천여성가족재단 ·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22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29 JST제물포스마트타운 10층

TEL. 032-715-5491 FAX. 032-715-5319

<http://www.inlife.or.kr>

인쇄처 : 디자인햇(032-201-8770)

ICAS 연구보고서 2019-01

ISBN 979-11-964937-7-6 93330
